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8

욘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욥 기 Job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42:5, 6)

לְשִׁמְעָאֲזִן שָׁמַעְתִּיךָ וְעַתָּה עֵינַי רְאִיתִיךָ :  
עַל-כֵּן אֲמַאֵס וְנִחַמְתִּי עַל-עֲפָר וְאַפָּר :

## 읍기 차례

---

시가서 서론 .....	〈11제〉	233
읍기 서론 .....	〈12제〉	237
제 1 장 읍의 경건과 고난의 시작 .....	〈28제〉	243
제 2 장 더 큰 재난과 읍에게 문병 온 세 친구 .....	〈23제〉	251
제 3 장 읍의 탄식 .....	〈33제〉	260
제 4 장 엘리바스의 첫번째 충고 .....	〈28제〉	269
제 5 장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충고 .....	〈28제〉	277
제 6 장 엘리바스에 대한 읍의 답변 .....	〈18제〉	284
제 7 장 읍의 인생관과 그의 기도 .....	〈18제〉	290
제 8 장 빌닷의 첫번째 충고 .....	〈17제〉	296
제 9 장 빌닷에 대한 읍의 답변 .....	〈28제〉	301
제 10 장 하나님을 향한 읍의 기도 .....	〈16제〉	309
제 11 장 소발의 첫번째 충고 .....	〈17제〉	314
제 12 장 소발에 대한 읍의 답변 .....	〈14제〉	321
제 13 장 계속되는 읍의 답변 .....	〈19제〉	326
제 14 장 읍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	〈16제〉	332
제 15 장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 .....	〈16제〉	337
제 16 장 엘리바스에 대한 읍의 두번째 답변 .....	〈17제〉	343
제 17 장 죽음을 기다리는 읍의 탄식 .....	〈15제〉	349
제 18 장 빌닷의 두번째 변론 .....	〈15제〉	354
제 19 장 빌닷에 대한 읍의 두번째 답변 .....	〈17제〉	359
제 20 장 소발의 두번째 변론 .....	〈16제〉	365
제 21 장 소발에 대한 읍의 두번째 답변 .....	〈19제〉	370
제 22 장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 .....	〈18제〉	377
제 23 장 엘리바스에 대한 읍의 세번째 답변 .....	〈13제〉	383
제 24 장 읍이 하나님께 항의하다 .....	〈10제〉	388
제 25 장 빌닷의 세번째 변론 .....	〈5 제〉	392

제 26 장	빌닷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 .....	〈 6 제 〉 ...	394
제 27 장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 .....	〈 13 제 〉 ...	397
제 28 장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 .....	〈 12 제 〉 ...	402
제 29 장	욥의 마지막 독백 .....	〈 14 제 〉 ...	406
제 30 장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탄 .....	〈 16 제 〉 ...	410
제 31 장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	〈 19 제 〉 ...	416
제 32 장	엘리후의 첫번째 변론 .....	〈 13 제 〉 ...	423
제 33 장	엘리후가 욥의 변론을 반박하다 .....	〈 16 제 〉 ...	427
제 34 장	엘리후의 두번째 변론 .....	〈 18 제 〉 ...	434
제 35 장	엘리후의 세번째 변론 .....	〈 10 제 〉 ...	440
제 36 장	엘리후의 네번째 변론 .....	〈 23 제 〉 ...	444
제 37 장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	〈 8 제 〉 ...	452
제 38 장	하나님의 첫번째 말씀 .....	〈 17 제 〉 ...	455
제 39 장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	〈 8 제 〉 ...	461
제 40 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욥의 침묵 .....	〈 17 제 〉 ...	464
제 41 장	악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	〈 9 제 〉 ...	469
제 42 장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	〈 17 제 〉 ...	473

## 욥기 특별 자료 차례

---

시가서 서론 〈연구 자료〉	시가서(詩歌書)와 신약 성경 .....	236
욥기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특징 .....	242
제 1 장 〈연구 자료〉	축복의 방편으로서의 고난 .....	250
제 2 장 〈화보 자료〉	시험당하는 욥 .....	257
제 2 장 〈연구 자료〉	사단(Satan)의 정체와 그 활동 .....	258
제 3 장 〈본장의 요절〉	.....	268
제 4 장 〈본장의 요절〉	.....	275
제 4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	276

제 6 장	〈본장의 요절〉	.....	289
제 7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보존 섭리 (保存攝理) .....	295
제 11 장	〈연구 자료〉	바람직한 신앙 상담 .....	319
제 12 장	〈화보 자료〉	여호와와의 손 .....	325
제 13 장	〈본장의 요절〉	.....	331
제 15 장	〈화보 자료〉	노인 .....	342
제 16 장	〈연구 자료〉	악인의 운명 .....	348
제 17 장	〈본장의 요절〉	.....	353
제 18 장	〈화보 자료〉	욥의 세 친구들 .....	358
제 19 장	〈화보 자료〉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욥 .....	364
제 21 장	〈화보 자료〉	춤추는 여자 .....	376
제 22 장	〈본장의 요절〉	.....	382
제 23 장	〈화보 자료〉	제철소의 솟물 .....	387
제 24 장	〈본장의 요절〉	.....	391
제 26 장	〈연구 자료〉	라합(Rahab)과 용(dragon) .....	396
제 27 장	〈화보 자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	401
제 28 장	〈본장의 요절〉	.....	405
제 30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현현(顯現, theophany) .....	415
제 31 장	〈본장의 요절〉	.....	422
제 33 장	〈연구 자료〉	평범한 의인 욥의 고난 .....	432
제 35 장	〈화보 자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왕과 사사(士師) 들 .....	443
제 36 장	〈연구 자료〉	자연 계시 .....	451
제 40 장	〈본장의 요절〉	.....	468
제 41 장	〈화보 자료〉	악어 .....	472
제 42 장	〈연구 자료〉	성경과 부(富) .....	479

# 시가서 서론

## 1. Q 시가서(詩歌書)는 히브리 성경 어느 부분에 속하여 있는 것인가?

- A (1) 시가서는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聖文書) 부분에 속하여 있다.  
 (2) 여기서 성문서란 히브리어 <케투빔>, 즉 '기록된 글들'이란 말에서 온 것인데 율법서(모세 오경)와 예언서에서 취급된 책들 이외의 구약 성경 가운데 나머지 11권의 책들을 가리킨다.  
 (3) 이 성문서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시가서, 두루마리서, 그리고 역사서이다.  
 (4)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가 있으며, 두루마리서에는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역사서에는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기가 들어 있다.  
 (5)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개론에 있어서 시가서라 할 때 지혜문(잠언, 전도서)과 따로 구분하는 수도 있고 함께 호칭하는 수도 있다.  
 (6) 그러나 개역 성경은 70인역(LXX)의 구분에 따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틀어 시가서라고 지칭하였다.

## 2. Q 시가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 A (1) 시가서는 하나님께 대해 찬양하며 인간을 향하여 종교적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2) 그러나 팔레스틴 지방의 다양한 풍경 가운데에서 풍부한 정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성격이 구약 시가서 형성에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시가서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 예찬이나 인간 중심의 묘사를 하지 않았다.  
 (4) 오히려 이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노가 악인을 벌하는 반면 불행한 자에게 대한 자비로우심과 당신의 뜻대로 살려는 백성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가 다채로운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영감에 찬 시가서를 읽을 때 그 귀절귀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 3. Q 히브리 시의 특성은 무엇인가?

- A (1) 히브리 시는 정교한 예술적 기교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감정의 표현으로 엮여져 있다. 그것은 히브리어 자체가 회화적(繪畫的)인 언어이므로 각 단어마다 시각적이고 생동감이 넘친 데서 연유된다.  
 (2) 그리고 히브리어의 원형(原形)이 주로 시각적인 행위나 상태를 묘사하는 반면 그 다양한 용법은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  
 (3) 이러한 히브리어의 특성은 타오르는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4) 또한 히브리 시는 다른 많은 서구의 시들과는 달리 음악적 효과를 위하여 운(韻)이나 운율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리듬과 대귀법(對句法)에 의존하고 있다.  
 (5) 그러나 히브리 시에는 음절이나 강세형으로 어떤 기계적인 규칙성을 지킨 흔적이 없다.  
 (6) 오히려 리듬 효과는 강세 음절과 무강세 음절의 균형에 의지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얻어진다.  
 (7) 히브리 시의 발성(發聲)은 단순하지만 부드럽게 높낮이를 되풀이하면서 잔잔한 위로

와 비탄, 그리고 힘찬 격려 등의 여러 가지 벽찬 감동을 제공하고 있다.

#### 4. ㉠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시가(詩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 ㉠ (1) 구약 성경 전체를 시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이 시가 형식을 취하였다.  
 (2) 사실 시가서의 특성으로 생각되는 반복체(反復體), 즉 병행체(並行體)는 시가서 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기도 하다.  
 (3) 그러므로 시가 형식은 예언서에서조차 흔히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예언의 내용을 아름답게, 또는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반복체, 대귀법(對句法) 등의 문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참조, 2장; 나 1:2-8; 합 3장).  
 (4)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부분에도 시문체로 된 귀절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에서 축복이나 저주를 말할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할 때, 전쟁 준비, 기도와 마지막 유언 때에 시가 형식을 많이 사용하였다(참조, 창 4:23, 24; 9:25-27; 49:1-27; 출 15:1-18; 삼상 2:1-20).  
 (5)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책 전반이 시가 형식으로 된 것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등이며 전도서 역시 잠언의 형식과 비슷하다.

#### 5. ㉡ 히브리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법은 무엇인가?

- ㉡ (1) 히브리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법은 대귀법, 즉 병행법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의 특성이 음절의 구분이나 글자 수에 있지 않고 반복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이 대귀법은 시문(詩文)의 뜻을 강조하거나 문체를 아름답게 하며 뜻이 잘 이해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이러한 대귀법은 각 열의 뜻에 따라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동의적(同意的) 대귀법이다. 이것은 둘째 행(行)이 기본적으로 첫째 행의 내용을 반복 강조한다(참조, 창 4:23; 시 1:2, 3, 17; 사 1:10).  
 (4) 두번째로 대조적(對照的) 대귀법이다. 이것은 둘째 행이 첫째 행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첫째 행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앞뒤 행 전체를 강조한다(참조, 시 1:6; 잠 3:33; 10:14).  
 (5) 세번째로 종합적(綜合的) 대귀법이다. 이것은 첫 행에서 제시되는 사상이 그 이하 행에서 점차 설명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행이 거듭될수록 사상이 풍부해지고 뜻이 더욱 밝아져 감으로 종합적 대귀법이 가지는 힘은 매우 강하다(참조, 시 1:1-3; 24:3-6).  
 (6) 네번째로 절정적(絶頂的) 대귀법이다. 이것은 종합적 대귀법과 비슷한데 그 첫 행의 사상이 그 다음 행으로 인해서 점차 고조되어 마침내 사상 표현이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참조, 시 29:1, 2).

#### 6. ㉢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1) 성경의 시문(詩文)은 세속적인 시와 달라서 그 종류가 특이하다. 세속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시(史詩)나 극시(dramatic poem)는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2) 성경의 시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령한 지혜를 가르치는 등의 표현을 주로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에는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입고 감동에 북바쳐서 노래하는 정서적인 시가 많다.  
 (3) 이와 같은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는 대부분이 서정시이거나 교훈시이며 가끔은 예언시도 포함되어 있다.

#### 7. ㉣ 히브리 시 중 서정시(lyric poem)에 대해서 말하라.

- ㉣ (1) 서정시는 히브리 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셈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불리었던 시형(詩形)이다.

- (2) 그것은 가장 쉽고 자연스러워서 개인적이나 단체적인 것을 떠나 경건 생활을 표현하기에 매우 용이하였다.
- (3) 서정시의 가장 오래된 전본은 창 4:23, 24에 나오는 라벡의 노래이다. 이것은 벌써 운율적으로 정리되고 가지런한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4) 이 서정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발달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쇠퇴해 감에 따라 그들의 감정이 메마르고 영감에 찬 감흥이 고갈되어 점차 퇴보해 갔다.

8. **㉠ 히브리 시 중 교훈시 (didactic poem) 에 대해서 말하라.**

- ㉠** (1) 히브리 시에 있어서 교훈시는 종교적 가르침을 주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 시를 묵상하는 자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 (2) 이 시는 이론적인 발전 과정을 생략하고 다만 관찰의 결과와 결론 부분만을 제공하는 격언 형식의 시이다.
- (3) 그러므로 이 교훈시를 히브리어로 <마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비유, 간결한 금언, 격언, 자극적인 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 (4) 시가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 교훈시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잠언과 전도서는 삶의 해학과 명쾌한 지혜들을 제공하고 있다.
- (5)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훈시를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서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 교훈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종교적 시이다(참조, 잠 1:7; 전 12:13).

9. **㉠ 히브리 시 중 예언시 (prophetic poem) 에 대하여 말하라.**

- ㉠** (1) 예언시는 성경과 계시 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이다. 이방 민족에게도 점과 신탁(神託)이 있으나 영감으로 기록된 예언은 없었다.
- (2) 이 예언시의 표현은 간결하고 단순했으며 믿는 자에게는 축복,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형태로 나타났고 어느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는 신학적 선언의 양식으로 나타났다.
- (3) 그러므로 예언시가 하나님의 지배적인 감화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4) 그런데 이 예언시는 교훈적 요소와 서정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심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청중하게 만들고 또한 미래의 역사와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한편 예언시의 황금 시대는 서정시의 쇠퇴기에 시작되어서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시는 노아의 예언(창 9:25-27)이며 가장 풍부한 예언의 자료를 제공한 자는 이사야 선지이다.

10. **㉠ 히브리 시에서 대구법과 같은 표현 방법 외에 그 내용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기법은 무엇인가?**

- ㉠** (1) 히브리 시가 지니고 있는 미묘하고 매력적인 점은 일상의 평범한 말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시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였다.
- (2) 첫째로 말의 익살이다. 즉 이것은 동음 이의(同音異意)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법이 예언자의 손에 쥐어질 때 이것은 도덕적,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참조, 사 5:7; 암 8:1, 2).
- (3) 또 하나의 언어의 효과적 구사는 두운(頭韻)의 사용이다. 두운이란 낱말이나 귀(句) 앞에 같은 음이 오도록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시 122:6).
- (4) 그리고 또 다른 수사법은 모운법(母韻法)이다. 이것은 특히 대명사나 동사에 접미어가 있는 경우 강세가 붙은 모음의 음을 일치시켜 강조하는 형식이다.
- (5) 예컨대 사 53:4-7에서 항상 장모음이 되는 <우>가 열 다섯 번이나 나타남으로써 그 귀

절 속에 담겨 있는 슬픔과 애痛的 감정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 (6) 히브리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성유법(聲喩法)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기교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낱말의 의미가 그 소리로 암시되는 경우이다. 즉 후음(喉音)이나 순음(脣音)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내는 신음처럼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 11. ㉠ 시가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 ㉠ (1) 첫째, 시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全)시대에 걸친 민족 신앙의 고백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역경과 투쟁이 담겨져 있다.
- (2) 또한 이 험난한 시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에서 확신까지 그 순례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 각 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절망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이 시가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긴장과 준비, 그리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보상을 생각해 만드는 신앙 생활의 청량제 역할을 한다.
- (4) 그리고 이 시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시가서의 내용이 실현되었으며 또한 당신께서 친히 이 시가서의 내용을 묵상하셨다(참조, 시 37:11와 마 5:5; 시 48:2와 마 5:35).
- (5) 마지막으로 이 시가서는 우리의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값진 개인의 심령을 더욱 풍부한 체험으로 채워 준다.

## 연구자료

시가서(詩歌書)와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시가서로 분류될 만한 책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단편적이거나 시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귀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만일 리듬이나 운율을 갖춘 기록만을 시가로 분류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시가는 몇 개 안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리듬이나 운율이 있든 없든 간에 언어의 함축적인 표현을 모두 시가로 본다면 신약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시가가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 2장에는 8개의 시가적 귀절들이 나오는데 곧 1:14-17, 32, 33, 35, 46-55, 68-79; 2:14, 29-32, 34, 35이다. 이 귀절들은 모두 구약 성경의 시가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중 1:46-55은 '성모 마리아의 노래'로, 1:68-79은 '사갈라의 찬송'으로, 그리고 2:14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있으라'로, 2:29-32은 '시므온의 찬미'로 초대 교회에 널리 알려져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되었던 시가들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때때로 히브리 시가의 대귀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 5:3-12이 있다. 이를 우리는 일명 '산상 수훈'이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시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로 는 딤후전 3:16과 히 11:32-38, 계 15:3, 4 등이 있다.

# 욥기 서론

## 1. ㉠ 본서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라 '욥'이라 정해졌다.  
(2) 욥은 역사적으로 실재(實在)한 인물이었으며 (겔 14:14, 20; 약 5:11), B. C. 20세기경의 비성경 문헌(야살의 책)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3)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요브)로 3음절이지만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단음절인 <욥>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그대로 따와 '욥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5) 그런데 <욥>이라는 제목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또는 '원한다'인데 그 뜻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紛紛)하다.

##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고대 근동의 대부분 문학 작품들처럼 욥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완성된 복합적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본서 가운데 포함된 고도의 문학적 특성으로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저작일 가능성이 크다.  
(2) 그러나 본서의 분명한 저자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3) 혹자는 시 88편과 본서의 흐름이 유사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본서의 저자가 시 88편의 저자인 헤만(다윗 시대의 3명의 악장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탈무드 경(Talmud Baba Bathra 14b)을 근거로 본서의 저자가 모세라고 주장한다(참조, 24:2;9;31:26).  
(4) 또 어떤 이는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주장하고(참조, 15:8), 혹자는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욥 자신이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본다.  
(5) 이런 구구한 학설이 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서의 일차적인 저자가 성령이라는 사실이다(참조, 딤후 3:16).  
(6) 한편 본서의 이차적인 저자는 보기드문 문학적 재능을 소유한 시인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은 우수한 문학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세계 문학의 걸작 중의 걸작이다.  
(7) 그는 특별히 애굽에 대하여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당시의 지성적인 엘리트였음이 확실하다.  
(8) 그리고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 그리고 특별히 예외적인 개인의 고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심오할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 3. ㉢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의 저자를 알 수 없듯이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 않다.  
(2) 그러나 이 책의 기록 연대와 욥이 활동했던 역사적 연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욥은 족장 시대 초기의 인물임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욥이 장수(長壽)한 사실과(참조, 창 25:7;35:28, 29)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창 12:1-3;17:1-8)을 잘 모르면서도 초자연적인 계시에 따라 참된 제사를 드린 사실 그리고 본서에 묘사된 고대 경제와

정치의 발달 등을 통해서 족장 시대 인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4) 연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서의 구전(口傳)된 기간에 관한 것이다.
- (5) 즉 본서의 저자에 의해 족장 욕에 대한 전승(傳承)이 정경(Canon)으로 기록되기 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구전이나 문자로 전해져 왔는가 하는 것이다.
- (6) 비판적인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수(捕囚)나 그 후에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판단은 욕기,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서로 관련되었다는 해석학적 관점과 이사야서의 연대 추정(B. C. 739-680)에 근거한 것이다.
- (7)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를 B. C. 1세기경으로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는 사해 사본에 포함된 요반 사본의 단편 특히 히브리 사본의 단편들과 전혀 모순되는 학설이다.
- (8) 본서의 장엄하고도 자연적인 문체 그리고 계시의 초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생생하게 재현된 점으로 보아 적어도 선지자들이 교리적인 특히 종말론의 영향을 받기 전인 바벨론 포수 이전을 기록 연대로 생각할 수 있다.
- (9)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책의 기록된 시기를 위대한 성경 지혜 문학 시대였던 솔로몬 당시로 보고 있다(참조, 왕상 4:29-34; 시 88, 89편).

4. **㉠** 본서의 문학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본서의 주요 내용은 시(詩) 형태로 기록되었고(3:1-42:6), 서론(1:1-2:13)과 결론(42:7-17) 부분만 산문(散文) 형식으로 되어 있다.
- (2) 이런 양식은 고대 문학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본서는 지혜 문학에 속한다.
- (3) 본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지혜 문학서들에 나타난 대화체 형식이라든가 현실의 고통과 죽음의 소원을 다루는 점 등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다.
- (4) 그러나 본서가 구속(敎贖)의 계시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인 궤도를 달리한다.
- (5) 그리고 본서의 문학 양식과 그 내용에 대한 역사성의 문제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욕은 역사적인 실재 인물이었으며 그의 체험은 본서에 적힌 그대로이다.
- (6) 그러나 장엄한 시(詩)로 표현된 욕의 삶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7) 더우기 산문시(散文詩)의 형태로 기록된 서론과 결론 부분도 그 내용의 일부를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 욕은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이었는가?

- ㉠** (1) 어떤 학자는 욕이란 인물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늘날도 살아 존재하는 고난당하는 자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하며 그의 역사성을 부인(否認)한다.
- (2) 그러나 욕의 역사적인 실재성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본서의 정경성을 부정하려는 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3) 욕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에스겔 선지의 증언이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즉 겔 14: 14-20에서 욕, 다니엘, 노아를 실재했던 의로운 인간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 (4) 다니엘과 노아의 역사성이 욕의 역사성과 연결되어 증거되었으니 만큼 힘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5) 더우기 야고보는 약 5:11에서 인간의 인내를 교훈할 때에 욕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욕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리 만치 그의 역사성을 옹호했다.
- (6) 그리고 욕의 거주지가 우스 땅(1:1)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애 4:21에 나타나는 대로 팔레스틴 동부에 실제로 위치한 땅이며 창 10:23; 22:21; 36:28에는 이곳 지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7)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증(內證)과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욥이 역사적으로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6. ㉠ 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주요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공의(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것을 가르친다.
- (2) 또한 언약을 지키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超越者)이신 창조주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다.
- (3) 그리고 본서는 성도들이 수세기를 두고 고민해 온 문제, 즉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계시인데 어찌서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
- (4) 여기서 본서의 저자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순종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 (5) 또한 욥의 세 친구는 인간의 고통이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몹처럼 고통을 받지 않은 가운데서 나온 자만의 말이다.
- (6) 다만 엘리후만이 고난은 때로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간파했다.
- (7) 본서는 비록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 (8) 하나님의 목적은 욥 자신의 공의에 대한 자만심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9) 그러므로 본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실존적 인간 이해의 책이다(참조, 롬3:9-18).

7. ㉠ 본서에 대한 고등 비평가들의 그릇된 주장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난은 본서의 저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몇 세기를 거쳐서 여러 편집자의 손에 첨삭(添削)되었다고 한다.
- (2) 즉 그들은 서론과 결론 부분이 평이한 문체로 전개되고 있는데 반해 본론은 운율이 있는 문체로 되어 있어 편집의 흔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론과 결론은 그 책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본론과 문체가 다를 수도 있다.
- (3) 또한 서론에 묘사된 욥은 잠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반해(1:26, 2:10) 3:1이하에서는 열정적으로 흥분하여 말한 것과 역시 그가 하나님과 그의 친구들에 반항하여 심히 비난한 것을 보면 이 양자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4) 그러나 서론에서의 욥의 행동과 본론에서의 욥의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주목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5)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한 1:18, 19과 그가 불행에 빠져 있는 중에도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14:21; 19:17; 31:8과의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17의 '동포'를 나타내는 <벤>은 '같은 태에서 난 아들들'의 뜻으로서 욥의 형제들이나 '동포', '민족'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 (6) 마지막으로 서론과 결론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아>, <샤다이>라고만 사용한 본론과는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론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욥 자신에 의해 직접 두 번이나 언급되었던 것이다(12:9; 28:28).

8. ㉠ 본서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열거하라.

- ㉠ (1) 본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냐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본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 (2) 즉 본서의 초점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인간 됨을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자되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려는 데 있다(참조, 애 3:26).
- (3) 또한 본서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소망과 갈등 자체가 엄격한 의미에서 비신앙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4)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유한 신에 대한 개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5) 욥은 인과 응보(因果應報) 법칙에 의해 살피본 자기의 의(義)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의 의로운 생활과 그가 당하는 운명에 모순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창조주를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참조, 9:17;10:7;27:6;31:36).
- (6)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죄악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 있다고 간과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들이 욥의 불행은 그의 자녀들의 죄값이라든지(8:4) 욥 자신의 윤리적인 죄값(11:14;15:15;18:21;22:5, 6)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
- (7)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상거래와 같은 것으로 겸손이 제일 좋은 정책이고 도덕률은 평화를 살 수 있는 도구로 생각되었다.
- (8) 그들이 수호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안전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관(神觀)은 경건주의의 교묘한 형태를 취한 우상 숭배일 뿐이었다.
- (9) 결국 욥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 위에 초월해 계심을 깨달았다(9:32).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줄 한 중보자를 갈망하기에 이른다(9:33). 즉 그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예언하였다.
- (10)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 시대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는 분명한 내세관(來世觀)과(14:13-15;16:19, 21) 확고 부동한 부활 신앙을(19:25-27) 가지게 되었다.
- (11)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42:6).
- (12)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었다(42:12-17).

9. **㉠** 본서의 정경성(正經性)을 논하라.

- ㉠** (1) 본서의 정경은 본서가 얼마 동안 구전(口傳) 형태로 이스라엘 내에 떠돌아 다녔거나 또한 부분적으로 기록되었다가 이스라엘 내의 한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것을 현재의 형태로 문서화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2) 본서의 주인공인 욥은 즉장 시대 초기 인물로 알려졌는데(B. C. 20세기경) 본서가 기록되기는 솔로몬 시대에 히브리 지혜 문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 (3)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성문화(成文化) 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적인 요소가 거의 내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세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책(冊)임에 분명하다.
- (4)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도 도전했던 적이 없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고대로부터 이 책의 높은 영감성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근거이다.
- (5) 영감은 정경성을 검증하는 것(딤후 4:16)으로 영감의 주요 검증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 책을 용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본서를 성문서(聖文書)라고 불린 거룩한 영감의 책들 중 3부에 포함시켰다.
- (6) 즉 본서는 시편과 잠언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정경(Canon)이다.

10. **㉠** 본서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라.

- Ⓐ (1) 서론 : 의인(義人) 욥에게 닥친 고난 /1:1-2:13
- (2) 본론 : 욥과 세 친구의 변론 /3:1-42:6
- (3) 결론 : 욥이 얻은 구원과 축복 /42:7-17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까닭없이 받은 욥의 고난 /1:1-2:13
  - ① 욥에 대한 소개 /1:1-5
  - ② 욥에게 겹쳐오는 시련과 그 원인 /1:6-2:10
  - ③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병문안하다 /2:11-13
- (2) 욥과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주제로 변론하다 /3:1-42:6
  - ① 욥의 탄식 /3:1-26
  - ② 엘리바스의 첫번째 변론 /4:1-5:27
  - ③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6:1-7:21
  - ④ 빌닷의 첫번째 변론 /8:1-22
  - ⑤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9:1-10:22
  - ⑥ 소발의 첫번째 변론 /11:1-20
  - ⑦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 /12:1-14:22
  - ⑧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 /15:1-35
  - ⑨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번째 답변 /16:1-17:16
  - ⑩ 빌닷의 두번째 변론 /18:1-21
  - ⑪ 빌닷에 대한 욥의 두번째 답변 /19:1-29
  - ⑫ 소발의 두번째 변론 /20:1-29
  - ⑬ 소발에 대한 욥의 두번째 답변 /21:1-34
  - ⑭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 /22:1-30
  - ⑮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 /23:1-24:25
  - ⑯ 빌닷의 세번째 변론 /25:1-6
  - ⑰ 빌닷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 /26:1-14
  - ⑱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 /27:1-31:40
    - ㄱ.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다 /27:1-23
    - 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선언 /28:1-28
    - ㄷ. 그의 일생의 전개 /29:1-31:40
  - ⑲ 엘리후의 변론 /32:1-37:24
    - ㄱ. 첫번째 변론 /32:1-33:33
    - ㄴ. 두번째 변론 /34:1-37
    - ㄷ. 세번째 변론 /35:1-16
    - ㄹ. 네번째 변론 /36:1-37:24
  - ⑳ 하나님의 말씀 /38:1-42:6
    - ㄱ. 하나님의 첫번째 말씀-그의 지식 /38:1-40:2
    - ㄴ. 욥의 지혜로운 침묵 /40:3-5
    - ㄷ. 하나님의 두번째 말씀-그의 능력 /40:6-41:34
    - ㄹ. 욥의 회개 /42:1-6
- (3)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세우시다 /42:7-17
  - 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다 /42:7-9
  - ②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과하고 회개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푼다 /42:10-17

## 12. ㉔ 본서의 요점을 말하라.

- 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5, 6).

### 연구자료

본서의 특징. 본서는 문학 양식에 있어서 잠언, 전도서 또는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와 같은 지혜 문학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서도 다른 지혜 문학서와 마찬가지로 내용 전개가 대화체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그 주제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본서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첫번째 특징으로 본서가 '삼일치 법칙'(三一致法則)에 의거하여 쓰여졌음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삼일치 법칙'이란 회곡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행동(주제)하에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 건물이나 하나의 장소를 배경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고전극(古典劇)의 법칙을 가리킨다. 물론 이 중에서 시간의 통일이라는 점이 본서에선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기는 하나(참조, 2:1, 13) 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읍(Job)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엘리후의 이야기, 읍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끝난 점에 있어선 시간 통일의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소의 통일에 있어선 읍 자신의 집이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선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일관되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신앙인인 읍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신 사실(38-42장)을 꼽을 수 있다. 읍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1:3)였으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1:1)였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자가 아니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범인(凡人)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읍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며 읍의 무지를 깨우쳐 주신 것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특징은 본서의 주제 자체에 관련된 것이다. 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읍에게 갑작스럽게 애매한 고난이 닥친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1:13-2:10). 그리고 이 같은 고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해석과 하나님께로부터의 깨우침이 주어지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과는 달리 의인에게도 애매한 고난이 따를 수 있으며 그러한 고난의 해결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인내하는 길뿐임을 증거한다(참조, 42장).

# 제 1 장 욱의 경건과 고난의 시작

단락구분 1-5 순전(純全)한 욱이 소개되다 / 6-12 하나님께서 사단이 욱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다 / 13-22 뉘난 중에도 여호와를 진양하는 욱의 믿음

1 우스 땅에 욱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3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4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5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욱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욱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욱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욱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욱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1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3 하루는 욱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 사자가 욱에서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7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8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19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배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20 욱이 일어나 걸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욱이 범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 ㉠ (1) 본장에는 동방의 의인(義人) 욱에 대한 소개와 그가 까닭없이 당했던 몇 가지 재난(재산과 자녀를 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믿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사실 그의 시련은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으로서 사

단의 횡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적 사역(使役)에 불과했다.

- (3) 그런데 본장만을 읽고 욥기 전체를 이해하려고 들면 큰 오해를 빚게 된다. 왜냐하면 본 장에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욥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본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실존적 인간 이해의 책이다(참조, 롬 3:9-18).
- (5)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인내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말하였다(약 5:11).

## 2. ◉ 욥이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욥은 팔레스틴 남동쪽에 위치한 '우스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곳은 에돔 국경 지대로 추정된다.
- (2) 이 같은 사실은 '우스'가 성경 가운데서 에돔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렘 25:19, 20; 애 4:21)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고향(2:11)을 보아서도 에돔과 근접해 있거나 동일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 (3) 더우기 이 지역은 B. C. 3세기에 알렉산더 대제(Alexander the Great)의 부하였던 헬라군 지휘자 프톨레미(Ptolemy)에 의해서도 '우스'로 확인된 바 있다.
- (4) 그런데 14절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이 사막 지대라기보다는 비옥한 곳으로서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땅이었던 것 같다.

## 3. ◉ '욥'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욥'의 히브리어 발음은 <이요브>로서 그 뜻은 '미움받는', '핍박받는'이다.
- (2) <이요브>는 원래 '적대하다', '원수와 같이 취급하다'란 뜻을 가진 <아야브>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므로 '욥'이란 말은 '적의(敵意)와 박해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 또한 아랍어로는 '욥'이란 말이 '돌아오다', '회개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욥'은 '회개한 자'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 (4) '욥'은 그가 지닌 이름의 뜻과 같이 까닭없이 미움과 저주를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한 고난과 회개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 (5)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우리 자신의 이름(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빌 1:27).

## 4. ◉ 본서는 욥의 인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절)

- ㉠ (1) 본서는 욥이 '순전(純全)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다.
- (2) 즉 욥은 노아(창 6:9)와 아브라함(창 17:1)과 야곱(창 25:27) 그리고 요셉(창 39:3, 9, 23)처럼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 (3) 그의 완전한 인격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2:9)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의 순전(純全)함을 인정하셨다(8절; 2:3).
- (4) 그리고 욥 자신도 자기가 '순전'하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참조, 9:20-22; 12:4; 27:5; 31:6).
- (5)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욥처럼 자타(自他)가 공인할 만큼의 완전성을 견비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참조, 고전 14:20; 골 1:28; 약 1:4).

## 5. ◉ '순전(純全)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순전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투마>는 '흠 없다', '완전하다', '순진하다'란 의미를 가진 법적 용어이다.
- (2) 이 말은 욥에게 영적으로 죄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정하였기 때문이다(롬 3:23).
- (3) 단지 여기서 욥기 저자는 욥이 어떠한 도덕적인 실패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

난발을 만한 결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 (4)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욥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5)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참조, 눅 23:40-43).

6. **㉠ 욥이 '순전하고 정직'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절)**

- ㉠** (1) 욥이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敬畏)하고 악에서 떠난 데 있었다.  
 (2) 이와 같이 종교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3) 즉 종교는 언제나 도덕률이라는 외적인 선을 수반하고(참조, 잠 3:7;14:16), 도덕은 종교의 직접적인 표현의 결정체이다(참조, 시 15:1-5).  
 (4)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참조, 잠 16:6).  
 (5) 그러므로 사람들이 외식(外飾)을 행하게 되며 이중 인격(二重人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헛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딤후 3:5).

7. **㉠ 욥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가? (2절)**

- ㉠** (1)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2) 여기서 욥이 얻었던 '일곱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상적인 축복의 한 형태였다(참조, 룻 4:15;삼상 2:5).  
 (3) 사실 구약적인 축복관(祝福觀)으로 볼 때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었으며 태(胎)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었다(참조, 시 127:3;128:3).  
 (4) 욥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1절) 본받을 만한 일이다.  
 (5) 사실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평안과 부요함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태만해지기 쉬운 존재이다(참조, 잠 30:8, 9).

8. **㉠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가? (3절)**

- ㉠** (1) 동방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다.  
 (2) 그의 재산은 7천 마리의 양과 3천 마리의 낙타, 5백 겨리의 소, 그리고 5백 마리의 암나귀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3)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지상적인 축복에 관심과 소망을 두지 않았음을 고백하였다(31:24-40).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다(1절).  
 (4) 이와 같이 경건한 자의 시야(視野)는 땅에 그 초점을 두지 않고 하늘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참조, 시 121:1, 2).

9. **㉠ '동방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3절)**

- ㉠** (1) 창세기에서는 '동방 사람'을 북부 유프라테스를 따라 살던 아람인들을 지칭하였다(참조, 창 29:1).  
 (2) 또한 사 11:14에서는 '동방 사람'이란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 곧 에돔, 모압, 암몬족들을 지칭하며 서방의 블레셋과 대조적인 말로 사용되었다.  
 (3) 이 용어는 특별히 사사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했던 유목 민족에 적용되었다(참조, 사 6:3, 33;7:12;8:10).  
 (4) 또한 이들은 바벨론 정복 기간에 곧잘 습격해 왔던 자들이었다(참조, 렘 49:28).  
 (5) 이와 같이 욥이 살던 곳은 이방 민족의 거주지로서 욥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은 족장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10. **㉠** 욥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거주하였는가? (4절)

- ㉠** (1) 욥의 아들들은 분명히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다윗의 아들들처럼 각기 그들 소유의 집을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였다(참조, 삼하 13:7, 8, 20; 14:28).
- (2) 그러므로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생일 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누이들도 같이 모인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희귀한 일이었다.
- (3) 그러나 욥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였다.
- (4) 흔히들 경건을 부르짖는 자 중에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너무 치중하여 가족 공동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즈음 목회자들의 가정에서 문제아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 (5)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교제의 장소와 복음의 전진 기지(基地)가 되어야 한다.

11. **㉠** 욥은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무엇을 하였는가? (4, 5절)

- ㉠** (1) 욥은 잔칫날이 지나면 잔치에 참여했던 아들들을 성결(聖潔)케 하고(참조, 출 19:10, 14, 15; 레 20:7; 민 11:18) 그들의 수자대로 번제를 드렸다(5절).
- (2) 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녀들이 혹시 부지중이라도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을까 해서였다.
- (3) 즉 욥이 제사에 입했던 태도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어서가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위한 진지함이었다.
- (4) 그리고 욥은 인간이란 항상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참조, 고전 10:12).
- (5) 그래서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런 상황은 모세 율법 이전의 시대와 상응하는 것이다(참조, 창 22:13).
- (6) 오늘날의 가장(家長)들도 욥처럼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 자녀의 모습이 순결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그 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참조, 잠 1:8, 9; 딤후 1:5).

12. **㉠** 욥이 제일 두려워했던 죄악은 무엇인가? (5절)

- ㉠** (1)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가장 무서운 죄로 생각하였다.
- (2)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다(참조, 출 20:3).
- (3)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상 숭배이다(참조, 출 20:4; 욥 1:25).
- (4)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우상(돈, 명예, 자녀, 쾌락 등) 숭배는 더욱 심각하다.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참조, 딤후 3:2-4).

13. **㉠**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6절)

- ㉠** (1)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被造)된 하늘나라의 존재들을 말한다(참조, 38:7; 창 6:2; 젤 10:20).
- (2)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신적 존재로 생각되었고(2:1; 38:7; 시 89:6; 단 3:26) 때때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는 여호와 앞에 마치 궁전 회의 참석자처럼 나타났던 것이다(참조, 왕상 22:19; 슥 6:5).
- (3)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부리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히 1:14)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였다.

(4) 성도의 구원과 그 보존을 위한 이들의 직무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14. **㉠** '사단'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6-8절)

- ㉠** (1) 성경을 일관하여 볼 때 사단은 실제 인격이며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참조, 대상 21:1; 욥 3:1, 2).
- (2) 사단이란 말의 뜻은 그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의미한다(참조, 마 13:27, 28; 16:23).
- (3)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왔으며 그 땅을 두루 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7절). 즉 사단은 영혼이 없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으며 더우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왕 노릇하는 존재이다(참조, 엡 2:2).
- (4) 사단은 아직 그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묶인 후(계 20:2)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까지(마 25:41) 악한 자유를 사용할 것이다(요 14:30; 엡 2:2).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참조, 벧전 5:8, 9).

15. **㉠** 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단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6-12절)

- ㉠** (1) 사단은 단지 악한 세력(엡 2:2) 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임을 본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 즉 사단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지성을 보여 주었다(7절).
- (3) 또한 사단은 욕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짐으로써 그의 감정을 보여 주었다(9-11절).
- (4) 그리고 사단은 욕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훼방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독자적인 의지를 지녔음을 보여 주었다(11절; 2:4, 5, 7).
- (5) 그러나 사단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을 뿐이다(12절; 2:6).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사단의 횡포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요 16:33).

16. **㉠**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을 노출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을 노출시키신 이유는 욕이 사단의 유혹을 견디나 못 견디나의 시험이 아니라 승리를 믿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 (2) 그리고 더 깊은 이유는 욕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다(참조, 42:2-6).
- (3)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용히 발견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바람은 우리를 뒤흔들어 평안을 빼앗아 가기는 하지만 그 모든 바람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나은 성숙(成熟)이다(참조, 약 1:2-4).

17. **㉠** 하나님께서는 욕을 어떻게 불렀는가? (8절)

- ㉠** (1) 하나님은 욕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
- (2) 즉 하나님은 욕을 '당신의 일을 하는 자' 또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사단에게 소개하였다.
- (3)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일컬었다(참조, 출 14:31; 민 12:7; 14:24; 삼하 7:18-29; 사 20:3; 암 3:7).
- (4) 여기서 '종'이란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계성(連繫性)을 맺고 있는 성스러운 직분임을 알 수 있다.
- (5)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 25:14-30; 막 13:34; 롬 6:22).

18. **㉠** 사단은 욕의 경건과 순결함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9-11절)

- ㉠** (1) 사단은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9절). 즉 하나님께서

음에게 풍부한 재산과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10절).

- (2)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마치 물물 교환(物物交換)처럼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
- (3) 더우기 많은 설교자들 중에는 다만 풍요한 생을 누리며 우환 질고(憂患疾苦)를 해결키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공공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
- (4)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이 기쁨, 즉 영생을 소유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것뿐이다(참조, 막 10:28-30; 눅 18:28-30).
- (5) 즉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귀한 복이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귀와 영화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참조, 마 19:27-30).

19. **㉠**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한 계획을 왜 허용하셨을까?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을 장려(獎勵)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傭, 8절)의 믿음이 능히 악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계획을 허용하셨다.
- (2)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들이 당신의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셨던 것이다(참조, 마 26:39; 27:25-46).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을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실 뿐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 중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이다(참조, 례 11:44, 45).
- (5)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악이 이기는 것같이 보이는 일들도 선한 뜻대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신다.

20. **㉠** '하루는'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하는가? (13-19절)

- ㉠** (1) 이날은 음의 자녀들이 그 만형 집에서 잔치하던 날이며 음의 전재산을 잃던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던 날을 말한다.
- (2) 이날에 대해서 음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결코 기대하지도 않았다.
- (3) 이날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과 이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참조, 12절; 마 24:36).
- (4) 이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날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깨어 있는 것이다(참조, 마 24:42, 44).
- (5) 즉 최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늘 긴장하여 하나님의 때를 잘 간파하는 일이다(참조, 막 13:33; 눅 21:36; 엡 6:18; 딤후 2:26; 계 16:15).

21. **㉠** 음의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했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15-17절)

- ㉠** (1) 스바 사람(15절)과 갈대아 사람(17절)이었다.
- (2) 여기서 스바 사람이란 잔인성과 약탈로 악명 높은 아람 족속으로 우스와 그 남쪽 지역에 살았던 유목 민족을 말한다(참조, 왕상 10:1; 사 60:6; 렘 6:20).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으로 생각되고 있다.
- (3)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란 B.C.7세기와 6세기에 바벨론 제국에서 살았고 한때는 이 제국을 지배했던 유목 민족으로 약탈을 일삼는 부족이었다.
- (4) 이와 같이 음의 재산은 각기 다른 부족의 손에 의해 약탈당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갑자기 음의 재산을 덮쳐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참조, 마 7:15; 요 10:12; 고후 11:3; 벰전 5:8).
- (6) 그러나 비록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파멸시키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2. **㉠** '하나님의 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6절)

- ㉠** (1) '하나님의 불'이란 '번갯불' 또는 '불이나 유황의 소나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참조,

왕상 18:38; 왕하 1:12).

- (2) 엘리야 시대에 갈멜 산에서 있었던 여호와와 바알 사이의 경쟁을 보면(왕상 18:38)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태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기후의 신 바알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였다.
- (3) 여하튼 본장에서 욥의 하인이 욥에게 보고했던 ‘하나님의 불’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었음에 분명하다.
- (4) 즉 이 사건은 사단의 악한 계획에서 출발한 파괴적인 일이었다(12절).
- (5) 이처럼 사단은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동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안에 간직하고 계신다(참조, 막 4:39).

23. **㉠** 욥이 하루 동안 당했던 재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13-19절)

- ㉠** (1) 먼저 아람 사람 손에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이 살해되었다(15절). 그리고 양과 양치기들이 번갯불에 맞아 즉사하였다(16절).
- (2)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이 습격하여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살해하였다(17절).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모든 자녀들이 몰사당하였다(19절).
- (3) 그런데 여기서 첫번째와 세번째 재난은 인간악(人間惡)에 그 원인이 있고 두번째와 마지막은 자연 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
- (4) 이처럼 모든 악의 결국은 그 목적인 것을 빼앗고 죽이는 데 있다. 즉 악의 궁극적인 목표는 허무와 죽음이다(참조, 약 1:15).

24. **㉠** 욥은 거듭되는 흉보(凶報)를 듣고 난 후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20, 21절)

- ㉠** (1) 욥은 흉보를 들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 (2)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표현이었으며(참조, 창 37:34; 수 7:6; 삼상 1:11; 13:31)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것도 비통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었다(참조, 사 22:12; 렘 7:29; 41:5; 암 8:10).
- (3) 그러나 욥은 이런 비통함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21절).
- (4) 이처럼 성도의 입술에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할 것이다(참조, 행 16:25, 26).
- (5)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한 행동이다(살전 5:18).
- (6) 하나님은 찬양을 잊지 않는 자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참조, 계 7:17).

25. **㉠** 욥이 슬픔 중에서도 잊지 않았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절)

- ㉠** (1) 욥은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이다’고 찬양하였다.
- (2) 이것은 자기가 지닌 재산이 모두 여호와와 것임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을 보여 준다.
- (3) 그는 날마다 누리는 생활의 풍성함이나 매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다(참조, 마 6:11).
- (4)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행할 수 있다(참조, 마 10:8).

26. **㉠**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8-21절)

- ㉠** (1)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무조건적으로 불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 (2) 즉 전 7:1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하였다.
- (3) 그리고 시 116:15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하였다.
- (4) 더우기 예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며 앞날에 대한 소망, 즉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다(참조, 마 9:24; 막 5:39; 눅 8:52).

(5) 그러므로 욥은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취하셨다고 할 수 있었다(21절).

27. **㉠**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22절)

- ㉠** (1) 사람들은 재난을 당할 때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난의 원인을 알고 없애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 (2) 또한 지나친 욕직 욕심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원망이 따르게 된다.
- (3) 그러나 성도는 영혼을 썩먹는 원망(참조, 고전 10:10)을 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한다(참조, 살전 5:18).

28. **㉠** 욥이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낸 비결은 무엇인가? (20-22절)

- ㉠** (1) 그는 평소의 생활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1, 8절).
- (2) 즉 그는 날마다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런 불행 앞에서도 의연(毅然)할 수 있었다(참조, 살전 5:16-18).
- (3) 사실 우리의 믿음은 저축과 같은 것으로서 매일매일의 축적된 경건 훈련 없이는 환난을 이겨내기란 어려운 것이다(참조, 약 1:2-4).

연구자료

축복의 방편으로서의 고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신 8:5; 시 119:67),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룻 1:20),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본서 전체를 통해 볼 때 욥은 의인이면서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참조, 젤 24:18; 고전 4:11; 고후 6:5; 11:23; 12:7; 살전 3:3).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 감절이나 되는 재물의 축복 및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42:12-17) 더욱더 심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23:10).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고난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으며(벧전 1:7),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벧전 4:12).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잠 3:11, 12).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고난이 축복의 한 방편임을 아는 성도는 원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이며 이들은 범사(凡事)에 감사할 수 있다.

## 제 2 장 더 큰 재난과 욱에게 문병 온 세 친구

단락구문 1-6 사단이 욱에 대한 이차적 시험을 계획하다 / 7-8 사단이 악창(惡瘡)으로 욱을 찌다 / 9-10 욱이 경박한 아내를 꾸짖다 / 11-13 욱의 세 친구가 욱의 슬픔에 동참하다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욱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가담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4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욱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 지라

8 욱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욱을 긁고 있더니

9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욱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11 때에 욱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욱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욱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겂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무릎에 뿌리고

13 칠 일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욱의 끈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자가 없었더라

### 1. ㉠ 본장에 언급된 욱의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욱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사단이 더욱 간계한 시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장면과 그 계획을 허락받아 욱을 악창(惡瘡)으로 괴롭힌 일이 기록되어 있다.
- (2) 더우기 욱은 그의 아내마저 그를 저버렸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고독을 맛보아야 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 (3) 때마침 욱의 세 친구는 그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
- (4) 사실 전장(前章)에서 보여 준 욱의 시련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자신의 갑작스런 육체의 병과 아내의 배반은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 (5)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은(10절)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 2. ㉠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1절)

- Ⓐ (1) 이것은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어떤 구조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찾아왔거나 불러왔다는 말이 아니다.
- (2)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이 두 존재가 활동하며 항상 하나님의 감시하에 있음을 뜻한다.
- (3)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참조, 대상 21:1; 숙 3:1, 2).
- (4) 이처럼 선과 악의 두 개체는 항상 우리의 생활 영역 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3. ⓐ 사단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는 여호와와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2절)

- Ⓐ (1)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 (2) 사실 사단은 이 세상에 악을 격동시키는 선동자로서(대상 21:1)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침몰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한다(벧전 5:8).
- (3) 특히 히브리어와 같은 계통인 아람어에서 <샤타나>라는 동사는 '멀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회하는 것은 사단의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 15:13).
- (5)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하나님과 진리에로의 복귀(復歸)가 필요하다(참조, 눅 15:17-24).

4. ⓐ 하나님은 욥을 어떤 말로 칭찬하였는가? (3절)

- Ⓐ (1) 하나님은 욥이 순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생활할 뿐 아니라 까닭없이 닦친 시련들(1:13-19) 앞에서도 꺾이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셨다.
- (2) 사실 욥이 이 모든 시련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참조, 고후 2:14; 히 11:33; 요일 5:4, 5).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으나 욥의 인내와 승리를 칭찬하셨던 것이다.
- (4)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참조, 약 5:11).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사랑하신다.

5. ⓐ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이 말은 욥이 자신의 가죽(피부)보다는 다른 사람들(가죽을 포함)의 가죽을 등한히 하여 기꺼이 위협에 던져버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말이다.
- (2) 즉 사람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하는 것처럼 욥도 자신만을 위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라고 하였다.
- (3) 사단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참된 성품은 그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이다.
- (4) 사단의 이러한 지적은 옳은 것이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다(참조, 벧전 1:7; 제 3:18).

6. ⓐ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사단이 두번째 제안한 시험은 무엇인가? (5절)

- Ⓐ (1) 사단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하였다. 만약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단은 욥이 다만 전략적으로 후퇴해서 하나님에게 입술로만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유일의 소유, 즉 그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욥을 판단하였다.

- (3) 사실 인간의 부패한 속성 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방어 본능이 있다.  
 (4) 전해 내려오는 교회사(教會史)를 보면 이러한 생명 보존 본능 때문에 순교(殉教)할 마당에서도 순교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생을 보낸 많은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마 26:69-75).

7. ㉠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어느 정도로 욕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욕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맡기셨다.  
 (2) 즉 사단은 제아무리 간교하고 잔인하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욕의 생명만은 간섭할 수 없었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민 27:16; 신 30:15,20).  
 (4)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자로서 그 죄가 크다(참조, 민 35:30-33).

8. ㉠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두번째 욕에게 준 시련은 무엇인가? (7절)

- ㉠ (1) 사단이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악창(惡瘡)이 나게 만들어 욕이 육체적 고통을 받도록 한 것이다.  
 (2) 즉 욕은 몸 전체가 피부병으로 감염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긁게 되었으며(8절) 결국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13절).  
 (3) 이것이 점점 심하여져서 욕의 육체에는 더러운 벌레가 의복처럼 입혀졌다(7:5). 그래서 살에 고름이 배어 나왔고 그것은 점점 검은 색으로 변하였다(7:5;30:30).  
 (4) 또한 욕은 열병에 걸렸으며 뼈가 쭈시는 듯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30:17,30).  
 (5) 이와 같이 욕의 몸은 누더기처럼 완전히 부패하여 소망이 없게 되었으나 아직 그의 생명만은 그 고통 중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다.  
 (6) 왜냐하면 욕의 생명은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못되기 때문이다(참조, 신 30:15, 20).

9. ㉠ 욕이 만신 창이(滿身瘡瘍) 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8절)

- ㉠ (1) 욕이 만신 창이가 된 것은 분명히 사단의 악한 계획 때문이었다(4,5절).  
 (2) 이처럼 오늘날도 사단의 악한 계획은 성도들의 삶의 전영역을 침범하여 그 삶을 황폐화 시키곤 한다.  
 (3) 즉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시련의 바람은 성도 개개인이 저지른 최악의 당연한 결과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성도의 삶을 시기하는 사단의 횡포일 때도 있다.  
 (4) 그러나 사단의 횡포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만은 결코 해칠 수 없다(참조, 롬 8:31-39).  
 (5)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단의 횡포로 인하여 잠시 환난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참조, 고후 4:16-18).  
 (6)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운 존재로 알아 그분을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10:28).

10. ㉠ 욕은 사단이 준 악창(惡瘡)으로 인하여 어디에서 기거(寄居)하게 되었는가? (8절)

- ㉠ (1) 욕은 재 가운데 기거하면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었다.  
 (2) 즉 욕은 자기 집을 떠나 성 밖에 있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고통을 달래고 있었다.  
 (3) 아랍의 도시 주변에는 오늘날에까지 <마쓰바라>라고 불리는 잿더미가 있다. 이곳은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모든 사물의 종착역과도 같은 곳이다.  
 (4) 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공동 사회와는 분리된 허무와 죽음의 잿더미 위에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다.  
 (5)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끝내 삶의 위치까지 변경시키고야 만다. 그러나 사단의 횡포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참조, 마 25:41).

11. **㉠** **음에게 있었던 ‘악창’ (惡瘡)은 어떤 종류의 질병인가? (7, 8절)**

- ㉠** (1) 이 악창은 히브리어로 <쉐헨> 또는 <라>로 불리워지는 문둥병 가운데서도 최악의 증상을 말한다(참조, 레 13:18-23).
- (2) 이와 똑같은 말이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때 애굽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 가운데 하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출 9:9-11). 그런 의미에서 이 피부병이 ‘애굽의 종가’라고도 불리워졌다(신 28:27).
- (3) 이 피부병은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왕하 20:7; 사 38:21) 이 증상은 심하기 때문에 악취가 날 뿐더러 그 상처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져서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12절).
- (4) 이와 같이 음은 수치스럽고 또한 고통스럽기도 한 질병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이러한 처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3절; 마 9:3).
- (5)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비롯하여 모든 환경과 처지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12. **㉠** **하나님께서 사단의 간계로 인한 음의 고통을 간과(看過)해 버리셨는가? (7, 8절)**

- ㉠** (1) 하나님은 결코 음의 고통을 간과해 버리시지는 않는다(참조, 6절; 1:12).
- (2) 사실 음을 해치려는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 저편에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3) 사단의 횡포와 그에 대한 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뿐이다.

13. **㉠** **음의 아내는 고통 중에 있는 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9절)**

- ㉠** (1) 음의 아내는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고 비난하였다.
- (2) 즉 음의 아내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으로 음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3) 이것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하나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치 못하다.
- (4)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러 모양의 관찰에서 얻은 경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음의 아내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 (5)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 증거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14. **㉠** **‘하나님을 욱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다’, ‘반역적인 언사를 발하다’란 뜻이다.
- (2) 음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녀가 악마의 보조자이며 사단의 도구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3) 사단이 음의 아내를 살려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음의 아내는 음을 돕는 배필(창 2:18)이 아니라 음에게 더 큰 고난을 제공하는 훼방자였다.
- (4) 물론 이 여인도 평안한 생활을 했을 때는 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공경하였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음의 아내는 33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삶보다는 축복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약삭빠른 현대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참조, 마 26:31-35).

15. **㉠** **음은 아내의 권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가? (10절)**

- ㉠** (1) 음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질책하였다.
- (2)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자연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마음과 지식이 더럽혀지고 타락했을 때에 찾아드는 인격적인 타락을 의미한다(참조, 삼하 13:13; 시 14:1; 사 32:6).
- (3) 즉 그녀의 말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이방인의 말과 같다는 뜻이다.

- (4) 사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한 신에게서 다른 신에게로 옮겨 간다.  
 (5) 다시 말하면 신이란 존재는 항상 경배하는 자기네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어 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 신앙이다.

16. **㉠** 아내를 향한 욱의 답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 (1) 욱은 번영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으며, 또 그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노라고 하였다.  
 (2) 욱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이다.  
 (3)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로 하나님의 선하셨음을 잊게 할 수는 없었다.  
 (4)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므로 그 고난 배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 히 12:5-13).

17. **㉠** 본서의 기자(記者)는 욱의 답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10절)

- ㉠** (1) 본서의 기자는 '이 모든 일에 욱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결론지었다.  
 (2) 욱은 그의 입술의 문을 엄격하게 그리고 의롭게 더 나아가서는 경건하게 지켰던 것이다(참조, 시 39:2; 엡 4:29).  
 (3) 사실 인간의 말이란 마음에 간직한 생각의 표현이다(참조, 마 12:34). 그러므로 욱이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한 것이다(참조, 잠 10:19; 14:3).  
 (4) 그러나 그는 인간의 마음과 입술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것(참조, 마 15:18-20) 입을 깨닫지 못하였다. 즉 그는 철저한 자기 의(義)를 주장하는 완전주의자(完全主義者)였다(참조, 6:30; 27:4).

18. **㉠** 욱의 세 친구가 욱을 찾아 온 이유는 무엇인가? (11-13절)

- ㉠** (1) 욱의 세 친구는 욱을 조문(吊問)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고 욱을 방문하였다.  
 (2) 비록 그들은 욱을 찾아 온 목적을 상실하기는 했지만(참조, 16:2; 21:34) 재난을 당하여 낙심한 친구를 위로하려 했던 선한 동기는 높이 살 만하다.  
 (3) 즉 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순수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다(참조, 롬 12:15).  
 (4)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감정과 감격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참조, 마 11:17).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병든 인격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5)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과 봉사로 형제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질 줄 알아야 한다(참조, 갈 5:6, 13; 6:2).

19. **㉠** 욱을 위문하려 왔던 친구들에 대해 말하라 (11절).

- ㉠** (1) 엘리바스이다. 그는 우스(에돔) 땅의 데만 성읍에 살고 있었다. 이 성읍에는 현자(賢者)들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하다(참조, 렘 49:7).  
 (2) 두번째로 빌닷이다. 그는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의 자녀였던 수아(창 25:1, 2)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유프라테스 강 지역)인 수아에서 살고 있었다.  
 (3) 세번째로 소발이다. 그는 에돔 북서쪽에 위치한 나아마에 거주하고 있었다(수 15:41).  
 (4) 이들 세 친구들은 당시에 지혜자로 유명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는 인간 본성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이들의 지혜는 욱을 돕고 그에게 위안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욱에게 불편과 걱정만을 안겨 주었다(참조, 16:2; 21:4).  
 (6) 이처럼 인간의 지혜란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인간을 더욱 빈민에 휩싸이게 만들게도 한다(참조, 전 1:18).

20. **㉠** 욱의 세 친구는 처절한 욱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 13절)

- Ⓐ (1) 욕의 세 친구는 욕을 목격하고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욕 곁을 떠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욕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 (2) 이와 같이 그들은 친구 욕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한 깊은 고통의 표시와 함께 울부짖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 (3) 본서의 기자는 이 부분에서 인간은 극한 슬픈 현실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지적하고 있다.
- (4) 이처럼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다.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참된 해결 방법을 찾는 자야말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이다(참조, 눅 5:8).

21. ⓐ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2절)

- Ⓐ (1) 이것은 최고의 비탄을 나타내는 행위로서(참조, 수 7:6; 삼상 4:12; 애 2:10) 때로는 분노와 모멸의 몸짓이기도 했다(참조, 삼하 16:13; 행 22:23).
- (2) 또한 그들의 이러한 동작은 하늘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그들의 신념이기도 했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이 욕의 허물로 말미암았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었다(참조, 4:1-5:27; 20:1-22:30).
- (4) 결국 그들의 슬픔은 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
- (5)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 중에는 자신의 의(義)와 이웃을 판단하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도 있음을 명심하여 결코 계산된 선을 행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예수께서는 이러한 계산된 선행(善行)을 지적하시며 정죄하셨다(참조, 눅 18:11-14).

22. ⓐ 욕의 세 친구들은 몇 일 동안 침묵하며 욕을 떠나지 않았는가? (13절)

- Ⓐ (1) 욕의 세 친구들은 주야로 7일 동안 욕 곁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 (2) 이스라엘에서도 죽은 자를 위한 통곡 기간으로 7일을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참조, 창 50:10; 삼상 31:13).
- (3) 욕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위로의 시작은 잘했다. 만일 그들이 그 침묵 후에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면 욕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며 그들의 명성 또한 유지되었을 것이다.
- (4)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고통받는 자의 귀에는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 (5) 고통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동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눈물과 조용한 손길과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참조, 눅 22:60, 61).

23. ⓐ 욕의 세 친구들이 욕의 재난을 목격하고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유대의 관습을 보면 위로하러 온 사람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말을 걸 때까지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다고 볼 수 있다.
- (2) 그리고 욕의 세 친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욕의 처절함에 대한 슬픈 인상 때문이거나(참조, 켈 3:15)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귀찮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3) 이처럼 슬픔에 접한 인간의 태도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 (4) 그러나 이 슬픔보다도 더 처절한 슬픔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지 못하는 슬픔은 없을 것이다(참조, 요 14:27; 엡 2:16, 17).
- (5)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슬픔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다(참조, 마 11:28; 살후 3:16).
- (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필요로 하시고 또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특히 슬픔과 재난을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승화(昇華)시키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 (7)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이런 참된 위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치료법이며 평안을 얻는 길이 된다(참조, 계 3:20).

## 화보자료

시험당하는 욕. 아래의 사진은 상티이 콤포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간 구원의 거울」이란 사본의 삽화로서 사단으로부터는 괴로움을 당하며 아내로부터는 불평을 듣고 있는 욕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도 환난, 질고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을 허락하시니 (고전 10:13) 욕도 그의 목숨만을 온전히 보호를 받았다(6절).

## 연구자료

### 사단(Satan)의 정체와 그 활동

‘사단’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된 말로 ‘대적자’, ‘방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가 하는 활동은 어떠한 것인가? 혹은 사단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갖는데 과연 사단은 존재하는가? 본고(本稿)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보려고 한다.

#### (1) 사단의 존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 ‘악마’, ‘귀신’ 등으로 부르고 있는 사단은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국 복음 확장 사역을 방해하는 꾀방자로 사단이 있음을 주지하셨으며(마 13:39) 이러한 사단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 앞에서는 굴복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눅 10:18, 19). 이뿐 아니라 본서에도 읊을 시험하는 사단의 활동상(7절; 1:6-19)이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사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니(대상 21:1; 속 3:1, 2; 마 4:1-11; 눅 13:16; 고후 2:11; 계 12:9; 20:2) 사단의 존재는 부인될 수 없다 하겠다.

#### (2) 사단에 대한 제 고찰(諸考察)

① 사단의 명칭 : 사단에게 붙여진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는 상징적인 것도 있으며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바알세불(마 12:24), 벨리알(고후 6:15), 아블루온(계 9:11, 일명 아바돈), 계명성(사 14:12, 일명 루시퍼), 큰 용(계 12:9, 일명 옛 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온 천하를 꾀하는 자(계 12:9),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계 12:10), 시험하는 자(살전 3:5), 악한 자(마 13:19), 살인한 자(요 8:44), 거짓의 아버지(요 8:44, 일명 거짓말장아), 이 세상 임금(요 12:31), 이 세상 신(고후 4:4), 원수(마 13:28) 등이 그것이다.

② 사단의 기원 :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였다(겔 28:14). 그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적 존재였다. 그런데 그는 지고(至高)하신 하나님과 동등시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사 14:13, 14)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말았다(사 14:12, 15).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로 화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케 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케 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된 것이다(마 24:24).

③ 사단의 활동 :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처럼 전지 전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참조, 1:13-19). 이러한 능력을 지닌 그는 감히 그리스도를 시험하려 하기까지 하였다(마 4:1-11). 그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게 하며(고후 4:4) 인간을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요 13:2).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고전 7:5)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 성도들을 미혹케 한다(고후 11:14, 15). 그리고 이러한 그의 활동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기까지 한다(참조, 요 16:33; 계 13:15-17). 이처럼 사단의 활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그분을 대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사단의 운명 : 이러한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사단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셨다(창 3:14, 15).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리스도께 굴복했으며(눅 4:1-12)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였다(요 19:30). 이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여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종말시까지 그의 활동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1000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며(계 20:1-3) 그 후 잠시 놓임을 받았다가 최후에는 그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불못에 던지워져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계 20:10).

### (3) 성도들과 사단

비록 사단이 '궁중의 권세·잡은 자' (엡 2:2)로서 '이 세상 임금' (요 12:31) 노릇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일 뿐이다(6절; 1:12; 계 2:10).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롬 16:20)는 약속을 주시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나님을 제치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단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킬 정도로 간교하며 틈만 있으면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닌다(벧전 5:8).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 악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듯이 성도들도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어야 할 것이다(엡 6:11-17).

## 제 3 장 읍의 탄식

단락구분 7-10 읍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다 / 11-19 읍이, 죽음을 심문하다 / 20-26 읍이, 탄식하다

1 그 후에 읍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 하니라

2 읍이 말을 내어 가로되

3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으되더라면, 남아를 배 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으되더라면,

4 그 날이 캄캄하였으되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 았으되더라면,

5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으되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되라 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으되더라면,

6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잠겼으되더라면, 해의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으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으되더라면,

7 그 밤이 적막하였으되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 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으되더라면,

8 날을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으되더라면,

9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으되더라면, 그 밤 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틀을 보 지 못하였으되더라면 좋았을 것을,

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 로구나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 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탈게 하였던가

13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4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 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 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 또 부지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잊 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 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 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20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 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 보다 더하다

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23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 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24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 리는 풀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25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 만 임하였구나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읍기의 서문격인 1,2장이 산문체(散文體)로 쓰여진 반면 본장에서부터 42:6까지의 긴 부분은 시문체(詩文體)로 전개된다. 결론부는(42:7-17) 다시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에서 읍은 친구들과 7일 동안의 침묵 후에 탄식으로 그 침묵을 깨뜨렸다. 읍이 복 중하는 신앙의 절정에서(2:10)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 (3) 읍은 절망 가운데서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였다.
- (4) 이처럼 읍은 그가 비록 순결하게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의(義)를 중시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갈증은 아직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그릇된 욕의 신앙 생활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심각한 재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른다.  
 (6) 신앙인은 고통과 재난을 결코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2. **㉠ 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절)**

- ㉡** (1)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2) 즉 ‘여러 주일 또는 여러 달 고통으로 괴로워한 후에(7:3),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7 일 동안의 침묵 후에 욕이 침묵을 깨뜨렸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3) 여기서 ‘입을 열었다’는 표현은 엄숙한 경우에만 사용되었다(참조, 시38:13; 사53:7).  
 (4) 또한 이 표현은 깊은 사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깊이 생각한 사상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시 78:2; 마5:2).  
 (5) 그리고 오랫동안 억제되어 있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단 10:16).  
 (6) 여하튼 욕은 정선이 흐릿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정열과 깊은 사고 끝에 그 침묵을 깨뜨렸던 것이다.

3. **㉠ 본장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 표현은 무엇인가? (1절)**

- ㉡** (1)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는 표현이다.  
 (2) 여기서 ‘생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의 날’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낮(낮)과 밤이 일종의 독립된 존재로 구분된다(참조, 시 19:2).  
 (3) 그러므로 욕의 ‘생일’은 밤과 같이 암울한 것이 아니라 낮과 같이 희망적이며 생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그의 날’을 저주했다는(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5)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와질 수 있다(참조, 마 16:24).

4. **㉠ 욕이 좌절하여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욕이 자기 생일마저 저주한 것은 그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신앙이 억제되었거나 마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하나님께 대한 그의 건전한 신앙심을 흔들여 놓은 것은 엄청난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욕에게 최고의 선을 설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심의 상실에서 온 것이다.  
 (3) 시편이나 애가서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는 흔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셨고 배척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참조, 시 13:1; 44:22-26; 74:1; 애 1:19-22; 3:17, 18; 5:1-18).  
 (4) 사실 진실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맞본다는 것은 가장 괴롭고 절망적인 일이다(참조, 사 40:27).

5. **㉠ 과연 욕의 출생한 날이 멸망할 수 있는가? (3절)**

- ㉡** (1)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날(창 1:3-2:3)은 멸망될 수 없고 또 소멸될 수도 없다.  
 (2)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일종의 쓸데없는 희망이면서 극단적인 절망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3) 그러나 극단적인 절망 또한 그날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그것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과 소망이다.  
 (4) 욕은 이러한 자신의 뉘드리와 사상이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참조, 6:3).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에 지나도록 밀려오는 고

통과 절망 때문이었다.

(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고통과 절망으로 허덕이던 처량한 모습이었다.

6. **㉠** 읍이 특장적인 성(性)인 남아(男兒)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남자는 언제나 특별한 축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2) 사실 족장 시대 때는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 가문은 남아로 인해서 계승되어 나갔고 여자는 다른 가족으로 흡수되었다(참조, 민 36:1-4).  
 (3) 읍이 이러한 축복마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기인(起因)한 것이다.  
 (4) 즉 읍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참조, 10:8; 12:10; 27:3; 33:4; 창 5:1; 신 4:32) 이러한 웅석마저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5) 이처럼 신앙인의 입술에는 아무리 극한 재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담아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21:4).

7. **㉠**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이라는 읍의 소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4절)

- ㉡** (1) 이 말은 태양 빛을 구름이 가리운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좋지 못한 징조의 날로 간주되고 있다(참조, 5:14; 창 15:12; 출 10:22; 율 2:2, 10; 습 1:15; 뱀후 2:17).  
 (2) 그런 의미에서 읍은 ‘빛도 비취지 말았더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마셨더라면’이라고 동일한 내용의 시어(詩語)를 열거하였다.  
 (3) 이와 같이 읍은 의(義)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잠시 동안 그의 출생을 들보시지 않고 지나쳐 버렸으면 하는 소원을 노래하였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며 어느 때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참조, 요 15:1-5).

8. **㉠** ‘사망의 그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5절)

- ㉡** (1) ‘사망의 그늘’이란 혼돈과 어둠만이 존재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한다(참조, 10:21, 22; 12:22; 24:17; 시 23:4).  
 (2) 이 표현은 때때로 영적인 타락 내지는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사 9:2; 마 4:16; 눅 1:79).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당신 스스로 빛을 발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절망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평안을 제공하셨다(참조, 요 1:4-9).  
 (4) 이 빛은 어떤 장소나 어떤 영혼에게 임하든지 그곳을 환한 대낮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참조, 눅 1:78, 79; 요 3:19; 8:12).

9. **㉠**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5절)

- ㉡** (1) 흑자는 이것을 바람이 물고 오는 검은 구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일식(日蝕)이라고도 한다.  
 (2) 여하튼 이것들은 갑작스레 낮을 밤으로 바꾸어 버리며 아주 짙은 어두움을 가져와 은 누리에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다 준다(참조, 시 91:6).  
 (3) 성경은 이런 때에 사단의 활동이 극심하며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에 압도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참조, 겔 8:12; 마 24:29; 엡 4:18; 계 16:10).  
 (4) 그러나 이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 때 절망과 두려움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참조, 창 1:4, 5; 사 45:7).  
 (5) 이 어둠의 출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밝은 빛을 반드시 제공하실 것이다(참조, 38:12, 13).

10. ㉠ **욥이 자신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겪조린 사실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6, 7절)

- ㉠ (1) 욥은 육체와 영혼의 극심한 고통에서 자신이 존재하게 된 잉태와 출생을 탄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시 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 (2) 즉 그는 비록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범죄치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참조, 창 1:28; 시 127:3).
- (3)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특히 생명을 저주한다는 것은 배은 망덕의 범죄임에 분명하다(참조, 창 2:7; 행 17:28).
- (4)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친절과 당신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나중에서야 인식할 수 있었다(참조, 10:12).
- (5)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마음의 교만을 제하여 버릴 수 있다(참조, 대상 29:14; 마 24:47; 롬 13:1; 벧후 1:3).

11. ㉠ **'날을 저주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8절)

- ㉠ (1) '날을 저주하는 자'란 날들을 저주하며 그 날들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술사를 말한다.
- (2) 이 마술사는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라고도 한다.
- (3) 여기서 '큰 악어', 즉 '리워야단'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복하여야 할 혼돈 세계에 속하는 동물, 즉 썸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 괴물이다.
- (4) 이 괴물은 하나님의 원수이다(참조, 사 27:1). 즉 '리워야단'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 적수의 인격화한 존재이다. 그들을 격동시켜 깨우는 것이 세상을 태고(太古)의 혼돈 시대로 끌고 가는 것이 된다.
- (5) 그러나 이 괴물은 여호와와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시 104:26).

12. ㉠ **'그 밤'이란 언제인가?** (9절)

- ㉠ (1) 욥의 출생 바로 직전을 말한다.
- (2) 욥은 '그 밤'이 계속되어 새벽의 기운이 전혀 침입할 수 없었으면 하고 소원하였다.
- (3)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중단되어서라도 자신의 출생의 날이 밝아오지 않았으면 하였다.
- (4) 왜냐하면 별들은 흑암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므로 별의 계속적인 활동은 아침의 계속적 보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인간들은 가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생활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 (6)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119:18).

13. ㉠ **'모태(母胎)의 문'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 (10절)

- ㉠ (1) '모태의 문'이란 욥을 잉태했던 어머니의 자궁(子宮)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여기서 욥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배태(胚胎)한 어머니의 수고마저 무시해 버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 (3)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을 바라보며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 욥은 자신의 영적 육체적 절망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오늘까지 있게 되기까지의 모든 수고들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 (4) 신안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급함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난과 그에 따르는 절

망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4:4).

14.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라는 읍의 질문에서 성경이 줄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겠는가? (11절)
- ㉠ (1) 먼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즉 인간은 그의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참조, 10:8;33:4;창5:1).
- (2)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과 지상의 많은 피조물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해 가신다(참조, 9:12;12:9;33:13).
- (3) 두번째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때문이다. 즉 출생의 시각은 산모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아기를 죽게 하지 않고 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참조, 31:15;시71:6).
- (4)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다. 즉 읍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참조, 10:12).
15. ㉠ ‘무릎’과 ‘유방’은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가? (12절)
- ㉠ (1) ‘무릎’이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릎은 아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증표였다(참조, 창50:23).
- (2) 그리고 ‘유방’은 물론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유모를 지칭하기도 했다.
- (3) 인간이란 어릴 때는 무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강한 도움을 받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어머니의 그 뜨거운 위로의 숨결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다.
- (4)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여건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증표가 아닐 수 없다.
- (5) 그러므로 이것을 경멸하는 자는 비록 그가 타락하지는 않았더라도 생각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참조, 시22:9, 10;71:5, 6).
16. ㉠ 읍은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3절)
- ㉠ (1) 읍은 죽음을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는 것’으로 보았다.
- (2) 즉 읍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누워서 쉬는 밤으로 보았다(참조, 시 104:23;전9:10;계 14:13).
- (3)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무덤이란 현세의 모든 비극과는 정반대의 절대적 안정성을 가진 곳으로 상징되고 있다(참조, 17, 18절;전9:5).
- (4) 그리고 신약에서 죽음은 흔히 잠든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참조, 요 11:11;행 7:60;13:36;살전 4:13;5:10). 이 잠은 결코 괴로운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꿈도 찾아들지 않는 수면 상태이다.
- (5) 읍의 재난과 질병이 그에게 휴식과 평안을 빼앗아 갔던 반면에 죽음은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형태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참조, 7:21;30:23;창5:15;전 12:5).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가 차면 당신의 경륜(經綸)에 따라 이와 같은 휴식을 주실 것이다(참조, 시 127:2).
17. ㉠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修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혹자는 이 말을 황폐해지고 적막하게 된 도시를 복구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 (2) 또 다른 학자들은 쓸쓸하고 황량한 큰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본다.
- (3) 즉 피라미드와 같이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바위 무덤처럼 건축된 당시부터 적막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조물을 건축한 것으로 본다.
- (4) 여하튼 이 일을 수행한 자는 막강한 권력과 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18. ㉠ 읍은 자신이 죽으면 누구와 함께 지낸다고 생각했는가? (14, 15절)
- ㉠ (1) 읍은 자신이 죽으면 거친 터를 수축했던 세상 임금들과 의사(고관)들 그리고 금과 은

으로 집을 장식했던 목백(성주)들과 함께 지낼 것으로 생각하였다.

- (2) 질병에 허덕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욥의 마음은 사회가 그리웠고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 (3) 그에게 밀려오는 이와 같은 고독은 심각하여 수만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유일한 구원과 피난처로 생각하게 되었다.
- (4)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회의적이고 고독한 이 세상을 떠나 고귀한 사립의 세계로, 즉 믿음의 조상들(창 15:15; 25:8)과 완전한 의인의 영들(히 12:23), 그리고 그리스도(눅 23:43; 빌 1:23)와의 사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9. **㉠** 욥이 권세자들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뜰을 밟을 것을 희망했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죽음은 모든 명예와 부귀를 처음 상황(별거벗은 몸으로)으로 되돌려 보낸다(참조, 1 : 21; 사 14:11; 겔 32:23).
- (2) 그러므로 부귀와 명예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것이다. 이것으로는 결코 죽음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참조, 눅 16:12; 약 1:11).
- (3)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며(참조, 시 89:48; 전 2:14, 16; 히 4:27) 무덤에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참조, 19절; 전 3:20).
- (4) 고통당하고 있던 욥이 이러한 평등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있는 오늘을 살아 가는 성도들의 희망도 어쩌면 욥이 바라 보았던 평등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 (5)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는 절대적 동등의 세계이다(참조, 롬 10:12).

20. **㉠**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16절)

- ㉠** (1) 욥은 부지중(不知中)에 낙태한 아이가 가장 풍요한 삶을 살다 간 자로 보았다.
- (2) 왜냐하면 낙태한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귀가 열리지 않아 슬픈 소식을 접하지 못할 것이며 더우기 빛을 보지 않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최악의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낙태한 아이가 누리는 평온은 이 세상을 모두 통과한 후에 누리는 휴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았다(참조, 전 6:4, 5).
- (4) 그러나 비록 이 세상의 사물과 사건을 접하지 않고 낙태되어 죽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참조, 시 51:5).
- (5) 그러므로 성경의 눈으로 본 이 세상에서의 가장 평온함을 누리는 자는 낙태된 아이가 아니라 죄의 짐을 벗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 14:27).

21. **㉠** 욥은 악인들의 소요(騷擾)가 그치는 곳을 어디라고 보았는가? (17절)

- ㉠** (1) 욥은 악인들의 계속적인 소란과 소동이 그치는 곳을 무덤으로 보았다.
- (2)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자들'이다(참조, 사 57:20).
- (3) 악인들은 이와 같은 소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또 타인(他人)들에게마저 고통을 제공한다.
- (4)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소요를 잠잠케 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하다(참조, 엡 2:16, 17; 빌 4:7; 살후 3:16).

22. **㉠** '곤비(困憊)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17절)

- ㉠** (1) '곤비한 자'란 힘이 완전히 소모되어 지쳐버린 자를 말한다.
- (2) 여기서 욥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을 가리켜 '곤비한 자'라고 했던 것이다.

- (3) 욕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비참함과 자신의 살이 썩어 악취가 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기에 모든 힘, 즉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욕은 기진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무덤이라고 의쳤다.
- (5) 물론 무덤은 모든 수고를 끝마치고 다다르는 곳이다. 그러나 무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기진한 자에게 있음을 욕은 미처 몰랐다(참조, 마 11:28).

23. **㉠** 욕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실현되는 곳을 어디로 보았는가?(18, 19절)

- ㉠** (1) 욕은 압제자의 횡포가 그치고 모든 인간들이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곳을 '무덤'으로 보았다. 이 무덤은 곧 죽음 이후의 세상, 즉 하늘나라를 의미한다.
- (2)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모든 인격들이 새로운 자아(自我)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 20:26-28; 고후 5:17).
- (3)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義)와 평강과 화락'(롬 14:17)이라고 말하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최후의 순간에 얻어질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열망하며 오늘의 압제와 불평 등을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24. **㉠** 욕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보았는가? (20-26절)

- ㉠** (1) 욕은 자신의 고통을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뇌와 영혼의 쓰라림으로 보았다(20절; 잠 18:14).
- (2) 또한 욕은 고통을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았다(21-24절; 시 80:5; 사 30:20). 그리고 물이 넘쳐 흐르는 듯한 풍부한 것으로 보았다(24절; 삼하 22:17; 시 42:7; 88:7).
- (3) 욕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5절).
- (4) 마지막으로 욕은 자신의 고통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으로 보았다(26절).
- (5) 이처럼 고통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요소만을 안겨 주지만 이 모든 고통에 인내하고 끝내 승리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답고 값진 것이 될 것이다(참조, 약 1:2-4).

25. **㉠** 심각한 고통 중에 있던 욕의 회의(懷疑)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20-26절)

- ㉠** (1) 욕이 번뇌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攝理)와 그 신비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오묘함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어찌하여'라고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20절).
- (2)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不信)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열의에서 출발한 것이다(14:14; 10:1-7).
- (3) 그러므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4) 만약 이러한 회의 없이 다져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맹신(盲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5) 번뇌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산은 더욱 높아 보일 것이다.
- (6) 만약 이때에 욕이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았다더라면 그 고난을 참기가 딱 쉬웠으리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인정할 수 없는 의견이다.
- (7)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나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26. **㉠**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삶보다 죽음이 더욱 가치있는 것인가? (20-22절)

- ㉠** (1)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철학을 통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전 4:2, 3).
- (2) 사도 바울도 삶보다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열망하였다(빌 1:23).
- (3) 죽는다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욕이 희망한 모든 것이기도 했다(1-19절).
- (4)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전개되는 그리스도

와의 완전하고 거룩한 교제가 중요한 것이다(참조, 요 14:2, 3).

- (5)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할 것이다(마 16:24).
- (6) 또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면 결코 죽음을 동경할 필요가 없으며 낮 동안에 일하다가 밤이 오면 기쁨으로 잠들면 그만이다(요 9:4).

27. **㉠ 성도에게 있어서 자살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20-22절)**

- ㉠**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形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창 1:27, 28). 더우기 부패한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격이 바로 성도이다(참조, 요 3:5).
- (2)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된 인격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큰 범죄라 할 수 있다.
- (3)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참조, 신 30:6, 15, 19, 20).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생명과 아울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참조, 출 20:13).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백성이 자살해야만 될 지경까지는 몰아가시지 않는다(참조, 고전 10:13).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결코 자살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자살은 사단의 노예가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참조, 마 27:3-5).

28. **㉠ '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3절)**

- ㉠** (1) '길'이란 흔히 생명의 순서 내지는 인생 항로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참조, 시 1:6; 잠 4:19; 사 26:7; 렘 10:23).
- (2) 그런데 이 인간의 길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한 궁금증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며 공포에 떨 때가 있다(잠 27:1; 약 4:14).
- (3)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의 안내자로서 의인들의 길은 순조롭고 평탄하게 하시는 반면 사악한 자의 길은 공포와 시련만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참조, 17:9; 22:28; 잠 15:19; 사 26:7).
- (4) 물론 여기서 의인의 평탄함이란 현세적이라기 보다는 영적이며 미래적인 것을 말한다(참조, 시 23:4; 딤후 4:7, 8).

29. **㉠ 욕이 느꼈던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3절)**

- ㉠** (1) 그의 불만은 그가 불행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식별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 (2) 즉 그의 고난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가야 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경험되는 일이다(참조, 시 42:5; 63:2; 렘 12:1; 애 3:7).
- (3)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참조, 고전 2:11).
- (4) 인간은 한 치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이다. 하물며 그 지혜의 광대하심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무리이다(참조, 11:6; 시 36:6).
- (5) 그러므로 욕의 불만은 건전하지 못한 것이며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 (6)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 37:5; 사 26:3, 4; 롬 8:28).

30. **㉠ '하나님에게 둘러 싸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참조, 1:10).

- (2) 그러나 읍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울타리가 도리어 자기가 당하는 모든 재난을 불러 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참조, 19:8; 호 2:6).
- (3) 즉 읍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사슬에 얽매어 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또 따라 나서야 하는 길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4) 하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참조, 마 7:14).

31. **㉠** 고통 중에 있던 읍이 앓았던 소리는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24절)

- ㉠** (1) 읍의 신음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소리’란 원래 사자의 포효(咆哮)하는 소리로 사용되었으며(참조, 숙 11:3), 고난받는 자가 부르짖는 절규이기도 했다(참조, 시 22:1; 32:4).
- (3) 이 소리는 ‘물과 같이’ 장애나 제한없이 자유롭고도 풍부하게 흘러나왔다. 즉 읍의 입술에서는 고통으로 인한 절규만이 넘쳐났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소리는 읍처럼 고난 가운데 저절로 흘러 나오는 신음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이다(참조, 출 2:23-25; 시 50:15; 51:17).

32. **㉠** 읍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읍에게는 평강도 안온(安穩)도 안식도 없고 다만 남은 것이라고는 고난뿐이었다.
- (2) 여기서 읍이 당하는 고난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색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끊임없는 번민과 동요를 가리킨다.
- (3) 즉 읍은 자신의 평안하고 부유했던 생활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들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 (4)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번뇌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순수하게 하며 생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는 삶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33. **㉠**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20-26절)

- ㉠** (1)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의 휴식처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애착을 두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3:4).
- (2) 또한 성도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성도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히 11:13-16).
- (3)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작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셨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2:7; 빌 4:4).

**본장의 요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0절).



## 제 4 장 엘리바스의 첫번째 충고

단락구분 1-6 음을 짐작하다 / 7-11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악인을 향한 것임을 논하다 / 12-21 엘리바스가 환상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말하다

1 다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  
 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  
 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  
 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에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  
 고 이 일에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 구나  
 6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나 네 소망  
 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나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발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  
 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  
 의 새끼는 흠어지느니라

12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  
 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  
 이 흔들렸었느니라  
 15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떨  
 이 주뻗하였었느니라  
 16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  
 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 내가 중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17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  
 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18 하나님은 그 중이라도 오히려 먼저 아니하  
 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  
 루살이에게라도 놀려 죽을 자이겠느냐  
 20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21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  
 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 1. ㉠ 본장은 누구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과 다음 장에는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年長者)이며 유능한 자라고 생각되  
 는 (15:10)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는 고난당하고 있던 욥에게 죄가 없는 자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악인  
 만이 고난당한다는 논리를 펼쳐 욥의 유죄(有罪)를 끌어내려 하였다.  
 (3) 그런 후에 엘리바스는 그에게 나타났던 환상을 욥에게 전달하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보다더 지혜롭게 행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더욱 굳게 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정리해 보면 그는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  
 는데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5) 물론 그의 충고의 대부분이 진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죄  
 와 고통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결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6)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인간의 경험과 학식이란 아주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 2. ㉠ 욥을 위문하러 왔던 세 친구 중 제일 먼저 욥에게 말을 꺼낸 자는 누구인가? (1점)

- ㉠ (1) 다만 사람 엘리바스였다.  
 (2) '엘리바스'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이다.  
 (3) 에서의 아들 중에도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데만이라는 한 아들이 있

었다(참조, 창 36:4; 대상 1:35, 36).

(4)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에서의 아들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5) 여하튼 본장에 언급된 엘리바스는 음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年長者)일 뿐 아니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은 인물로 추측된다(참조, 15:10).

3. **㉠ ‘데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절)**

**㉠** (1) 데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성경상에서 데만은 항상 에돔의 대표적인 지방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1:9; 렘 49:7; 젠 25:13; 암 1:12, 13).

(2) 데만이라는 이름은 엘리바스의 후손이 퍼져서 한 부족을 이루기까지는 지명(地名)으로 쓰이지 않았다.

(3) 그러다가 부족을 이루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아라비아의 일부 지역을 그렇게 이름하여 불렀던 것 같다(참조, 창 36:42, 43).

(4) 데만 사람은 지혜있기로 유명하였다(참조, 렘 49:7). 이런 관계로 엘리바스의 지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상당한 지식은 인정받을 만하다(참조, 15:10).

4. **㉠ 음의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 꺼낸 말은 무엇이었는가? (2절)**

**㉠** (1) 엘리바스는 음에게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厭症)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시작하였다.

(2) 즉 이 말은 ‘만일 누가 네게 언짢은 말을 하면 너는 노하겠느냐’라는 의미로서 음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타진하는 말이다.

(3)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조심해서 하는 책망(충고)도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우리가 많은 대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충고는 자신의 지식과 의견만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충고야말로 불화를 초래하는 요소이다.

(5)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권면과 충고는 사랑과 친절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참조, 골 3:16; 살전 3:12; 5:11; 히 3:13; 벧전 1:22).

5. **㉠ 엘리바스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2절)**

**㉠** (1)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한 부분이다.

(2)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고생하고 있던 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했던 것이다.

(3) 사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은 하나님에게 대한 그의 의무였다(참조, 레 19:17).

(4) 또한 이것은 친구 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친구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참조, 잠 27:5). 그런데 우리들이 친구를 권면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5)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참조, 잠 28:23). 즉 친구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職務遺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참조, 약 4:17).

6. **㉠ 엘리바스가 말한 음의 선행은 어떠한 것인가? (3, 4절)**

**㉠** (1) 음은 먼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다. 즉 음은 이웃이 괴로와하고 불평할 때에 바로 잡아 주고 그들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권면해 주기도 하였다(참조, 26:2-4).

(2) 또한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해주었다. 즉 도덕적으로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생각과 행위들을 교정하여 주었다(참조, 히 12:12).

(3) 그리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즉 지혜의 말과 좋은 충고로 실의와 고민에 빠진 자들을 도와 주었다(참조, 29:15).

- (4) 마지막으로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즉 쇠약해져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 자나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 심각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었다(참조, 사 35:3).
- (5) 이와 같이 욥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의 규범과도 같은 생활을 하였다. 즉 그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웃에게 희생적 봉사를 다하였던 것이다(참조, 갈 6:1, 2; 요일 3:18).

7. **㉠**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 때문에 답답하여 하고 놀라한다고 했는가? (5절)

- ㉠** (1) 엘리바스는 욥이 전에 자기가 도움을 주고 권면해 주던 자들(3, 4절)처럼 고통과 실의에 빠졌기 때문에 답답하여 하고 놀라한다고 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인내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실지로 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며 타인에게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 (3) 이처럼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의 느낌을 느끼며 그의 고통을 맛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참조, 5:8; 겔 3:15; 롬 15:1).
- (4) 사실 평소에 자신 만만하던 사람도 재난이 자기에게 미칠 때는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참조, 롬 7:18).

8. **㉠**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욥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6절)

- ㉠** (1)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는 생활을 한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했던 바라고 했다.
- (2) 여기서 '경외'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15:4).
- (3)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것은 만약 욥이 자신의 경건과 의(義)를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 (4)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던 경건과 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토대가 흔들렸기 때문이다(3:20-26).
- (5) 그러므로 본서의 교훈은 자기의 토대를 하나님의 토대로 바꾸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토대 위에 경건과 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흔들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참조, 시 43:5; 마 7:24-27).

9. **㉠** 엘리바스가 지니고 있었던 심판관(審判觀)은 어떤 내용인가? (7-11절)

- ㉠** (1) 의인은 축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갈 6:7).
- (2) 그러나 그가 가진 신학은 절반 정도의 진리밖에 담겨져 있지 않다.
- (3) 결국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의인조차도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핍박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참조, 창 4:8; 행 2:22, 23).
- (4) 신명기적 신앙으로 알려진 이 사상은 신 27, 28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10. **㉠** 엘리바스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는가? (7, 8절)

- ㉠** (1) 엘리바스는 인간의 고통이 자기 자신의 범죄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았다.
- (2) 그래서 그는 고난을 어떠한 이유없이 전혀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참조, 잠 26:2).
- (3) 그리고 고난은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내적인 허물과 외적인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았다(참조, 8절).
- (4)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必然的)인 것임을 강조하였다(참조, 8절; 마 10:29). 즉 인과 응보적(因果應報的)인 귀결로 보았다.
- (5)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견해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조정하신다(참조, 눅 17:25; 롬 8:18; 딤후 1:8).

11. **㉠**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할 때에 무슨 근거로 욥의 유죄(有罪)를 선언하였는가? (8절)

- ㉠** (1)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욥을 비난하였다. 즉 그는 '내가 보건대'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통하여 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 (2) 물론 엘리바스의 말들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참조, 엡 2:8).
- (3) 기독교회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이단들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경험주의에 의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4)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체험은 하나님의 밝혀진 계시인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참조, 롬 10:17).

12. **㉠ 악인은 무엇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9절)**

- ㉠** (1)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곳김에 사라진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입기운'이란 '가볍고 부드러운 순결'을 말한다(참조, 37:10). 그리고 '곳김'은 '입기운'보다는 강한 낱말로 '입기운'은 악인을 죽게 만들지만 '곳김'은 악인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참조, 출 15:8; 시 18:15).
- (3)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 (4) 즉 하나님의 기운이 바람같이 사울에게 임하여 큰 구원을 성취했으며(삼상 11:16) 기도 온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삿 6:34).
- (5) 이처럼 하나님의 기운을 따라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운에 역행하여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13. **㉠ 성경에서 '사자'(獅子)는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10, 11절)**

- ㉠** (1) 성경에서는 악한 자 특히 압박자들을 흔히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참조, 시 7:2; 10:9; 17:12; 켈 19:3, 5; 나 2:12; 습 3:3).
- (2) 본장에서 엘리바스는 다섯 가지의 사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자란 젊은이든, 늙은이든, 중년이든, 그리고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누구나 할 것없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3) 사자로 비유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운이 다달았을 때 온 세상을 뒤흔들던 포효(咆哮)와 의인을 삼키던 이빨은 사라지고 부러져 죄악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9절).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악인의 위세와 허풍에 압도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의로우신 심판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16:33).

14. **㉠ '압사자의 새끼는 흠어지느니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이 말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자녀도 그 악인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란 뜻이다.
- (2) 즉 악인의 자녀는 그 부모의 형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죄의 누적된 영향력을 강조하는 말이다(참조, 출 20:5).
- (3) 엘리바스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욱의 자녀의 죽음(1:18, 19)이 욱의 죄악에서 기인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 (4) 그러나 성경적인 형벌관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창조자이신 당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각각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 (5) 다시 말하면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이다(참조, 켈 18:2, 3).

15. **㉠ 엘리바스가 욱에게 전했던 환상의 전내용은 무엇인가? (12-21절)**

- ㉠** (1) 엘리바스는 아무리 천사라하더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는 것이다(17, 18절).
- (2)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참조, 창 2:7; 3:19) 하

루살이처럼 내일의 생명에 대해 확실한 보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9, 20절).

- (3) 그러므로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대들 뿐이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집과 가족에게 저주를 내리신다(21절; 5:3).
- (4) 이처럼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논리를(7-11절) 이 환상을 통하여 더욱 뒷받침해서 전개하고 있다.

16. ㉠ 엘리바스에게 임했던 가는 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왕상 19:12)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음성이다(참조, 26:14; 단 4:31).
- (2) 이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히 대화할 때 사용하셨던 속삭임이다.
- (3)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가는 소리'로 말씀하신다(참조, 히 1:1, 2).
- (4) 그러나 우리는 요란한 세상과 혼탁한 교제를 하며 육체의 소리를 즐겨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는 소리를 못들으며 지낸다(참조, 마 13:15; 행 28:27).

17. ㉠ 엘리바스에게 임했던 환상은 언제 나타난 것이었는가? (13절)

- ㉠ (1) 엘리바스에게 임했던 환상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나타났다.
- (2) 여기서 '깊이 잠들 때'란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움직임이 멈춘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창 2:21; 15:12).
- (3) 즉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때를 말한다(참조, 삼상 3:1-14; 행 10:1-7).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당신을 신뢰하여 앙망하는 자에게 환상 뿐 아니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다(참조, 시 25:15; 130:7; 147:11; 사 40:31).

18. ㉠ '생각이 번거롭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가? (13절)

- ㉠ (1)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쉐이핍>은 '사색에 빠져'라는 의미로서 어떠한 일이나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2) 고대의 사람들은 꿈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했으므로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박수나 술객을 찾아가곤 했는데(참조, 창 41:8), 이처럼 사람들이 꿈을 꾸고 번민했던 것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 (3)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꿈을 꾸고 계속 번민했던 바로(창 41:8)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단 2:1), 그리고 꿈을 꾸 뒤엔 놀라며 수일을 앓았던 선지자 다니엘을 들 수 있다(단 8:27; 10:15-17).
- (4) 따라서 '생각이 번거롭다'는 것은 엘리바스가 꿈을 꾸 후에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9. ㉠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기이한 환상이 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3-15절)

- ㉠ (1) 엘리바스는 환상이 임했을 때 마음이 교란되었고 몹서리치는 두려움과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 (2) 이것은 아브라함도 체험한 적이 있는 것인데(창 15:12) 인간의 본성에는 영적 세계와 직접 부딪치면 두려워하고 떠는 특질이 있다.
- (3) 어떤 사람은 이 공포가 양심에 위배되는 죄의 결과라고 한다.
- (4) 사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이다(참조, 창 3:6-8, 16-19).

20. ㉠ 엘리바스가 분별할 수 없었던 형상은 무엇인가? (16절)

- ㉠ (1)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참조, 요 4:24) 엘리바스가 그분의 형상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표현은 정확하다.
- (2) 하나님은 그 본질적 형태로는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마치 모세의 환상(출 3:1-5)과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사6:1-13)처럼 불명료한 것이다.

- (3)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인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표현할 수 없는 형태의 미미한 인상만을 간직할 뿐이다.
- (4)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 중에는 눈으로 확인된 하나님을 간구한 결과 형상화·된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참조, 출32:1-6).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나 이상 중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21. **㉠** 엘리바스는 어떤 때에 눈앞에 나타났던 한 형상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 (16절)

- ㉠** (1) 엘리바스는 주위가 고요한 때에 그 형상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 (2) 이러한 고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조성하신 분위기이다(참조, 시 107:29).
- (3)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고요한 분위기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일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유혹에 젖어드는 생각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마 26:36-43).

22. **㉠** 엘리바스가 환상 가운데서 들었던 첫마디는 무엇인가? (17절)

- ㉠** (1)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聖潔) 하겠느냐’는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의(義)를 전제하고 한 말이다(참조, 렘 12:1).
- (3) 반면에 이 말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죄악의 심각성을 전제하고 한 말이기도 하다(참조, 전 7:20; 롬 3:9-18).
- (4)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같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참조, 롬 3:4).

23. **㉠** ‘그 종’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18절)

- ㉠** (1) ‘그 종’이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킨다.
- (2)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이 비록 거룩하다고는 하지만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참조, 벰후 2:4; 유 1:6)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 (3) 이것은 천사들의 완전한 타락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천사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참조, 15:15).
- (4)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하다(참조, 시 37:7; 62:1; 사 30:15; 습 1:7).

24. **㉠** ‘흙집’과 ‘티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9절)

- ㉠** (1) ‘흙집’과 ‘티끌’은 모두 ‘지상에 존재하는 육체들’을 말한다(참조, 33:6; 고전 15:47).
- (2)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흙(티끌)으로 빚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참조, 창 2:7; 3:19).
- (3) 그리고 ‘집’이란 육체에 대한 일종의 비유이다. 이것은 또한 ‘땅 위의 장막’으로 표현되기도 했다(참조, 고후 5:1; 벰후 1:14).
- (4) 이와 같이 ‘흙집’과 ‘티끌’에 비유된 인생이란 얼마나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존재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참조, 사 2:22).

25. **㉠** ‘하루살이에게라도 돌려 죽을 자’란 인간의 어떠한 점을 들어 한 말인가? (19절)

- ㉠** (1) 이 말은 인간이 극히 약한 존재이며 쉽게 사라져 버릴 무가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2) 즉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불분명하고 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참조, 약 4:14).

- (3)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이같이 무가치하다고 해서 그 삶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4) 왜냐하면 이렇게 미미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1:26, 27; 마 16:26).

26. **㉠** '장막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 ㉠** (1) '장막줄'이란 '비파줄' 또는 '활의 줄'을 의미하기도 하고(참조, 시 11:2), '남은 것', '유익', '풍부', '탁월'을 뜻하기도 한다(참조, 창 49:3; 잠 17:7).  
 (2) 그런데 본절에 있는 '뽑는다'는 말과 연결하여 보면 '장막줄'로 번역함이 옳을 것이다(참조, 사 33:20).  
 (3) 그러므로 이 '장막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삶의 원기와 그 모든 환경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왜냐하면 인간의 장막(육체 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장막을 설치하신(경영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잠 16:3, 4).

27. **㉠**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 (1) 이 말은 장막과 같은 인간의 육체가 장막을 지탱하고 있던 줄이 뽑힘으로 해서 무너지듯이 죽어간다는 의미이다.  
 (2)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조성시키기도 하시며 생명을 멸하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신 30:15-20; 요 6:35).  
 (4) 인간의 생명이 이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참조, 20, 21절).  
 (5) 사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이 없는 자들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참조, 요 15:1-6).

28. **㉠**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어떠한 점을 비난하였는가? (12-21절)

- ㉠** (1)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또는 영적인 완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비난하였다(17, 18절).  
 (2) 사실 피조물이 그 도덕적 영적 순수성에 있어서 창조자보다 능가하려는 것은 교만이다(참조, 롬 9:19-29).  
 (3) 비록 인간이 고차원적인 지식과 원만한 인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저급하다(참조, 고전 1:25).  
 (4)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비난은 친구 욥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었기에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참조, 빌 2:1, 2).  
 (5)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선행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3:1-3).

본장의 요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17절).

## 연구자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에 대한 고찰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영(靈)’ 이시라(요 4:24)는 점이다. 이 말은 그분의 본질(substance)을 정확하게 묘사한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본장을 비롯한(16절)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image)을 따라 당신의 모양(likeness)대로 지으셨다(창 1:26).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그림자’를 뜻하며 ‘모양’이라는 말은 <드물>으로서 ‘닮은 것’을 가리킨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꾸어 사용될 수도 있다. 아뭏든 인간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가시적인 형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義)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았으며(엡 4:24) 인간의 영적, 도덕적 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질, 동등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의 여러 속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참조, 골 3:10).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自己啓示)와 관계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모습을 띠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창 18:1-15; 수 5:13-15). 이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친히 가시적(可視的)인 육체적 형상을 취하시고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골 1:15; 히 1:3).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보며(요 1:14)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요 12:45; 14:9). 이는 인간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고 후 3:17)을 의미한다(엡 4:22-24; 골 골 3:10).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는 계시와 회복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제 5 장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충고

단락구문 1-2 미련한 자의 멸망 / 3-5 악인의 비참한 운명 / 6-7 고난의 인생 / 8-16 고통 중에 의뢰 할 하나님 / 17-27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의 누릴 복

1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 그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가 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7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8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12 하나님은 궤환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니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13 간교한 자로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14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 하나님은 곧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17 불지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권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21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을 떨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때  
 22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23 발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율리움 같으리라  
 27 불지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 된 줄 알지니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의 계속적인 연결로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2) 엘리바스는 전장에서 그의 환상과 그가 들었던 한 영(靈)의 말을 욥에게 전한 다음 이어서 자신의 의견과 충고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3) 그의 의견은 만일 욥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거두실 것이고 욥의 고통을 제거하시리라는 것이었다.  
 (4)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이 전에 누렸던 모든 번영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신다는 신앙의 일반적인 논리를 전개하였다.  
 (5) 물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어 놓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고난은 때로 성도를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經綸)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2. **㉠** ‘거룩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1절)

- ㉠** (1) ‘거룩한 자’란 ‘하나님의 종들’ (4:18) 또는 ‘천사들’ (15:15; 시 89:7) 을 가리킨다.  
 (2)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중재(仲裁)할 신적 존재인 ‘거룩한 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는 뜻에서 이 말을 하였다.  
 (3) 즉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의(義)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를 위해 변호해 줄 만한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는 논리를 전개하여 욥의 범죄 사실을 얻어 내려 하였다.  
 (4) 본장에서 처음 제시된 이 중재적 천사의 관념이 욥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 그것이 ‘판결자’ (9:33), ‘하늘의 증인’ (16:19) 그리고 ‘구속자’ (19:25)의 환상으로 발전해 나간다.  
 (5) 이와 같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번뇌와 깊은 사색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라 했는가?(2절)

- ㉠** (1)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분노와 시기(猜忌)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분노’란 불행에 빠진 자의 내적인 고통을 가리킨다. 이것은 의인들이 역경 중에서 나타내 보이는 은화하고 공손하며 조용한 자세와는 대조적이다(참조, 잠 12:16).  
 (3) 그리고 악인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좋은 상황과 결부시켜서 ‘시기심’을 나타낸다. 즉 도덕적 또는 영적으로 취약한 자만이 타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곤 한다(참조, 행 7:9; 17:5).  
 (4) 그런데 ‘분노’와 ‘시기’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 의식이 결여된 자에게서 발견되는 교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참조, 창 4:3-8; 잠 12:15; 14:3; 19:3; 24:9).  
 (5) 그러므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분노와 시기를 옹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19:29; 신 32:21; 젤 8:18).

4. **㉠** 엘리바스가 저주한 대상은 무엇인가? (3절)

- ㉠** (1)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의 뿌리박는 것을 보고 미련한 자의 집에 대해 저주하였다.  
 (2) 여기서 ‘미련한 자의 뿌리박는 것’이란 미련한 자가 심히 어리석고 들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신 29:28; 사 14:29; 40:24).  
 (3) 그리고 ‘저주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한 것을 선언하고 그 집을 중오하였다는 말이다.  
 (4) 즉 엘리바스는 고난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5)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만을 본 것으로 욥에게는 아무런 교훈도 위로도 주지 못했다.

5. **㉠** 엘리바스는 악인의 자녀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묘사하였는가? (4절)

- ㉠** (1) 엘리바스는 악인의 자녀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게 되리라고 하였다.  
 (2) 즉 악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1:18, 19).  
 (3) 여기서 ‘성문’이란 그 성의 행정 중심지였다. 주로 여기서 재판이 행하여졌고 기타 공적 업무와 일반 사무가 수행되었다(참조 창 23:10-18; 신 21:18-21; 22:13-21; 룻 4:1-11; 왕상 22:10; 왕하 7:1; 암 5:15).  
 (4) 그런데 그 당시 가족과 보호자가 없는 가련한 사람은 이 성문에서 그다지 우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참조, 31:21). 그래서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참조, 사 13:14, 15; 10:2).  
 (5)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참조, 젤 18:2-4).

## 6. Q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A (1) 추수한 뒤 곡식의 낱알을 가시나무 밑의 왕겨 옆에 보관하여 짐승이 먹거나 몰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시 농부들의 관습이었다(참조, 사7:19).  
 (2)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는다라는 것은 어떤 방어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사로 끝나 버린다는 의미이다.  
 (3)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범죄한 자의 형편이 극단적인 궁핍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 사실 악인들의 보호막이란 세상에서 가장 허술하고 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모으려고 한다(참조, 마6:19, 20; 눅12:16-21).

## 7. Q 엘리바스는 인생에 있어서 재앙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였는가? (6절)

- A (1) 모든 재앙과 고난의 배경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엘리바스는 말하였다.  
 (2)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다(참조, 미7:9).  
 (3) 그러나 만일 이러한 법칙이 모든 인생 문제에 적용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4) 사실 재앙과 고난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진 보편적인 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참조, 창3:16-19).

## 8. Q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A (1) 이것은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의미이다.  
 (2) 즉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다(참조, 시51:5; 58:3).  
 (3) 이것은 마치 불꽃이 땅으로 파고 들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질서 가운데 확립되어 있는 진리이다.

## 9. Q 엘리바스는 만약 자기가 욱의 입장에 처했다면 어떠한 태도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였는가? (8절)

- A (1) 엘리바스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말하였다.  
 (2) 즉 만약 그가 욱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에게 의존할 것이며 기도와 믿음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3) 사실 연약한 인간이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만 한다면(대상16:11) 당신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며 특히 고난받을 때에 큰 위로가 되실 것이다(참조, 시50:15).  
 (4)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참조, 12:4; 22:27; 출22:27; 대상28:9; 시34:17; 37:5).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입술로써만이 아니라 전인격의 반응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참조, 시19:14).

## 10. Q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8절)

- A (1)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려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한다(참조, 히11:6).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  
 (2) 또한 우리의 간구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참조, 약1:5). 즉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걸고 그것의 실현을 확신해야 한다.  
 (3)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심한 갈증이 있어야 한다(참조, 시63:1).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 주실 것이다(참조, 요7:37, 38). 이러한 갈증 없는 기도는 교만에서 출발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 11. Q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당연히 찾아드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안겨다 준다(참조, 시 26:3-12). 사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맛보는 평안이다(참조, 요 14:27).
- (2) 우리의 간구는 우리를 좌절과 불안으로부터 희망적인 기대에로 인도할 것이다(참조, 시 42:11). 즉 이것은 인위적인 적극적 사고 방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힘이다(참조, 사40:31).
- (3)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인 구원과 도움을 얻게 되는 통로이다(참조, 22:27; 시 37:5; 잠 16:3).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참조, 시 50:15; 마 7:7).

12. Ⓞ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 (1)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지칭하는 말이다(참조, 136:4; 145:3).
- (2)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큰 일을 행한 자가 없으며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충분히 찾아내어 추구하지도 못한다(참조, 9:10; 37:5; 시 145:3; 롬 11:33).
- (3) 그러므로 만일 욕이 이러한 하나님에게 호소만 한다면 현재와 같은 절박한 상황은 결코 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한다.
-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참조, 시 40:5; 72:18; 77:14; 136:4).

13. Ⓞ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0절)

- Ⓐ (1) ‘비’란 중동 지방에 있어서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상징되고 있다(참조, 시 68:9; 147:8; 사 30:23; 겔 34:26).
- (2) 왜냐하면 비가 드문 그 지방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곧 땅을 풍요롭게 하여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약 5:18).
- (3) 그러므로 생명을 제공하는 비는 우주를 통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피곤하고 건조할 때에 비와 같이 적절하고 흡족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이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참조, 겔 34:26).

14. Ⓞ 하나님의 섭리는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

- Ⓐ (1)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興起)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 (2)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은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55:8).
- (3) 그러므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는 외면당한 무리들을 찾아와 치료하셨을 뿐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교제하셨다(참조, 마 9:9-13).
- (4)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는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길로 형제와 이웃을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15. Ⓞ 하나님은 궤휼(詭譎)한 자와 간교한 자를 간파(看通)해 버리시는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궤휼한 자와 간교한 자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실 뿐 아니라(시 33:10; 사 8:10) 그들의 악한 꾀가 오히려 그들의 음모가 되도록 하신다(참조, 고전 3:19).
- (2) 악인이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留保)에 불과하다(참조, 마 13:25-30).
- (3) 사실 악인의 지혜는 여호와를 능가하지 못하며(잠 21:30) 그들의 삶은 그들의 악한 계

획이 수립될 때부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참조, 시 7:15, 16; 9:16).

16. **Q** ‘낮에도 캄캄함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A** (1) 이 말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의 지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절망 가운데서 허위적거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즉 그들의 앞날에 대한 소망과 그 길에 빛은 급작스럽게 사라지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 59:10).  
 (3) 이와 같은 어두움은 롯의 집 앞에서도 나타났고(창 19:11) 또 바로의 마음을 혼탁하게도 했다(참조, 출 8:15, 19; 9:12).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모든 타락한 민족에게 이러한 어두움을 조성하시고(롬 1:18-32)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5) 그러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또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요 1:1-14; 요일 2:8).

17. **Q** ‘입의 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5절)

- A** (1) ‘입의 칼’이란 말의 잘못된 사용으로 나타날 무서운 해독을 가리킨다.  
 (2) 이와 같이 악한 훼방, 즉 비방과 거짓 간사함 그리고 기타 모든 경건치 못한 일들은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참조, 시 52:1-5).  
 (3)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약 3:2-6).  
 (4) 그러므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다.  
 (5) 참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할 수 있다(참조, 잠 10:19; 12:6; 17:27).

18. **Q** 본장에서 ‘가난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가? (16절)

- A** (1) ‘가난한 자’란 문자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강한 자’에 반대되는 표현임과 동시에 ‘곤비한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2) 즉 그것은 악인들로부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참조, 20:19; 31:16; 시 72:13; 113:7).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셔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도전에 담대하게 부딪혀 나아갈 수 있다.

19. **Q**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는가? (17절)

- A** (1)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였다(참조, 히 12:6).  
 (2)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3)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약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참 자녀로서 간주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히 12:8).  
 (4) 우리의 삶에 이유없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할 것이다(참조, 시 94:12).

20. **Q**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懲戒)를 받을 때에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17절)

- A** (1)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받으면 우선 자신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  
 (2)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복종과 겸손을 배우기 때문이며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잠 22:15; 23:13, 14; 29:15).  
 (3)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며(히 12:8),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참조, 잠 22:15).  
 (4) 그리고 이 징계를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약 1:12).

(5) 이러한 이유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라는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

21. ㉠ 엘리바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8절)

- ㉠ (1)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고 하였다.
- (2) 사실 우리의 아픈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으며 그분만이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다(참조, 신 32:39).
- (3)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하나님을 떠나 더 깊은 죄악의 늪으로 빠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무조건 뛰어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며 기꺼이 받아들인다(참조, 사 55:1; 눅 15:11-24).

22. ㉠ '일곱 가지 환난'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가? (19절)

- ㉠ (1) '일곱 가지 환난' 이란 확실성과 정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수사학적(修辭學的) 효과를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참조, 창 4:24; 마 18:22).
- (2) 즉 '일곱 가지 환난' 이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어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 (3)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결국 당신의 지고(至高)하신 선을 성취하시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감격의 승리를 안겨 주신다(참조, 롬 5:3, 4).
- (4) 그러므로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된다(참조, 롬 8:28).

23. ㉠ 성경은 기근(饑饉)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절)

- ㉠ (1) 성경은 기근을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참조, 레 26:19, 20; 신 28:22-24; 삼하 21:1; 24:13; 왕하 8:1; 시 105:16; 사 14:30; 렘 24:10; 계 18:8).
- (2) 에스겔은 칼과 기근과 위협한 야수 그리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네 가지 아픔의 심판이라고 하였다(참조, 겔 14:21).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당신의 심판의 한 형태인 기근 아래 오래 머물도록 하시지 않는다(참조, 창 41:29-36; 왕상 17:10-16; 왕하 7:1-16).
- (4) 특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근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참조, 약 5:16-18).

24. ㉠ '혀의 채찍'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 ㉠ (1) '혀의 채찍' 이란 모든 비방과 저주와 가혹한 조롱을 말한다(참조, 시 31:20).
- (2)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성품과 삶을 통하여 악인의 비방과 저주를 막아 주신다(참조, 시 37:6; 단 6:5).
- (3) 또한 당신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신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하여 성도를 비난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참조, 11; 단 3:25).
- (4)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혀의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혀의 채찍' 으로부터 구원하여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

25. ㉠ '발에 돌이 너와 언약(言約)을 맺겠다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이 말은 너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맺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발의 들들' 까지도 너의 발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시 91:12).
- (2) 즉 하나님께서는 무감각한 돌마저 성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셔서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 (3) 더우기 인간 타락의 죄값으로 나타난 들짐승과의 불화마저 그치고 평화 속에서 함께 살

것이다(참조, 겔 34:25; 호 2:18).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평화의 언약의 완전한 모습이며 미래에 도래할 평화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다(참조, 민22:21-30; 사11:6-9; 렘26:6).

26. **㉠** 엘리바스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권고했을 때 그에 따르는 축복까지 제시하였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24-27절)

- ㉠** (1) 엘리바스는 욥에게 장막의 평안함과 번영(24절) 그리고 자손(25절)과 장수(26절)의 축복을 제시하였다.  
 (2)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에 널리 통용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3) 엘리바스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끌어낸 결론이라고 말하였다(27절).  
 (4) 사실 이러한 인생관과 신앙관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축복을 전제한 신앙 생활과 경건은 환난이 닦혔을 때 곧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참조, 마 19:16-22).  
 (5)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서부터 발견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으로 이뤄진 신앙과 인생관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7. **㉠** 엘리바스는 만약 욥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의 후예(後裔)가 어떠한 모습으로 번창한다고 하였는가? (25절)

- ㉠** (1)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의 후손이 땅에 풀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2) 구약에서는 후손의 번창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본절에서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였다(참조, 창 22:17; 출 32:13).  
 (3) 여기 사용된 ‘땅에 풀’ 같다는 것은 번창하는 생명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표현법보다 자연스럽다.  
 (4) 여하튼 고대에 있어서 많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에 의한 것으로도 인식되었다(참조, 사 44:3-5).  
 (5) 그러나 요즈음 들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임신 중절 수술이나 갖가지 방법의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큰 죄악이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경계해야만 한다(참조, 출 1:15-22).

28. **㉠**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6절)

- ㉠** (1) 이 말은 사람이 불시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래 살 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참조, 42:17).  
 (2) 이처럼 장수(長壽)는 영혼의 은혜일 뿐 아니라(시 92:14)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시 91:16)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3) 왜냐하면 고대에는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참조, 신 28:26; 렘 22:18, 19).  
 (4) 그러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죽음이 아닐까? (참조, 요 15:13, 14)

## 제 6 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단락구분 1-7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 8-13 욥이 안식과 위로를 위하여 오히려 죽음을 원하다 / 14-23 욥이 무정한 친구들에 대하여 질책하다 / 24-30 욥이 친구의 권면에 웃음이 있음을 지적하다

1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  
 울에 들 수 있으면  
 3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럼으로하  
 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 천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  
 여 치는구나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졌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6 심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7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8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  
 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라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  
 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  
 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한관대 오히려 참겠느냐  
 12 나의 기력이 어찌 들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늦쇠겠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 나지 아니하였느냐  
 14 피곤한 자 곧 천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빛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  
 15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  
 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취었을지라도  
 17 따듯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 때를 지은 재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들이  
 켜 광야로 가서 죽고  
 19 데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  
 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 자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  
 느니라  
 21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즉 겁내는구나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  
 원하라 하더냐 포학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  
 하라 하더냐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  
 라 내가 잠잠하리라  
 25 욥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26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27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벼를 매매  
 할 자로구나  
 28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 하지 아니  
 하리라  
 29 너희는 들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  
 하노라 너희는 들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  
 이 어찌 꿩을 분변치 못하랴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과 7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첫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은 세 가지 수사학적(修辭學的)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즉 욥의 독백(6:2-20), 친구에 대한 비난과 자기 변호(6:21-7:6), 그리고 욥의 간절한 소원(7:7-21)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그런데 본장에서 욥은 비록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해야 하지만 친구(엘리바스)의 부당한 비난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 (4)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기 의(義)를 주장한 반면 형제의 잘못된 충고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흔히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것이 옳을지라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 (6)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불유쾌한 일들마저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 2. Q 읊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라고 하였는가? (1-3절)

- A (1) 읊은 자기의 고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바다 모래'는 무수하고(창 22:17; 시 78:27) 측량할 수 없는 것(왕상 4:29; 렘 33:22)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고난이란 어떠한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가리킨다(참조, 잠 27:3).
- (4) 성경에는 그것이 개인적이든(왕하 9:25; 시 55:22), 민족적이든(사 15:1; 17:1; 19:1) 잠정적인 참화인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나타나 있다.
- (5) 그러나 이러한 고난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깊숙히 숨어 있는 죄악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자각 증세로 얻어진 고난이다(참조, 시 38:4).
- (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당신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셨다(참조, 사 53:4-12; 롬 8:1, 2).

## 3. Q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A (1)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읊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전능자의 살'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이나 고통을 통털어 표현한 말이다(참조, 신 32:23, 42; 시 7:13; 21:12, 45; 38:2; 애 3:13, 14).
- (3) 읊은 전능자의 살에 묻혀 있던 독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읊의 영혼은 그의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았다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읊은 그의 영혼에 대한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두려움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참조, 4:13-15).
- (5)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순간에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고통이 원인 없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유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6)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확신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참조, 롬 8:37-39).

## 4. Q 읊은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5-7절)

- A (1) 읊은 들나귀와 소가 자기 발 밑에 먹을 풀이 있으면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말로 자신의 불평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5절).
- (2) 즉 읊은 자신의 불평이 이러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이며 본능적인 것처럼 표현했으나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말의 의미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인한 절망감 그 자체였다(참조, 8, 9절).
- (3) 더우기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충고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로 음식물에 대하여 언급했다(6:7절).

- (4) 뿐만 아니라 욕이 음식물을 맛이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까닭 모를 고통, 즉 병을 의미할 수도 있다(Keil).
- (5)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욕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 (6)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참조, 요일2:15).

5. **Q** 욕이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8, 9절)

- A** (1) 욕이 구하고 사모한 것은 죽음이었다(9절).
- (2) 그런데 엘리바스는 욕에게 최종적이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 죽음이라고 하였다(4:9, 20, 21; 5:2).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죽음을 소원한 이유는 그의 질병이 불치의 병이고 그의 삶이 불안과 초조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사실 욕이 처음부터 바랐던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불행을 목격하지 않고 좀더 일찍 죽었으면 하는 것이었다(3:3-19).
- (5) 그가 지금 원하고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죽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종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 (6) 하지만 욕의 소원과 기대는 비신앙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행 20:24; 딤후 4:7).

6. **Q** 욕은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8, 9절)

- A** (1) 욕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았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로서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
- (2) 그러나 욕은 비록 자기의 무죄함에 대한 확고 부동한 확신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시기를 기도하였다.
- (3) 하나님은 욕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단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5:12, 14; 6:23; 고전 15:54-56; 히 2:14).
- (4) 이와 같이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파괴하기를 간구하는 어떠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 (5)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임에 분명하다(참조, 마 27:3-10).

7. **Q** 욕이 죽음 앞에서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A** (1) 욕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 (2) 즉 자기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죽음과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요 16:20-22).
- (4)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 하였다(빌 1:21).
- (5)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여 항상 그의 뜻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다(참조, 눅 8: 52-56)

8. **㉠** 욥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이르렀다고 고백하였는가? (11-13절)

- ㉠** (1) 욥은 자기가 바위처럼 강하지도 못하며 그의 몸이 늦쇠가 아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지체가 떠났으며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 (2) 이처럼 욥은 이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잃었고 다시 건강해질 아무런 기대도 남아 있지 않았다.
- (3) 욥은 이 문제를 자신의 감각과 이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만 분명하게 판단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최소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이다.
- (4) 즉 그는 하나님이 무덤의 언저리에서도 약한 자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망각했다(참조, 사38:10-20).
- (5)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이러한 좌절과 실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롬4:19; 고후 12:9; 히 11:19).

9. **㉠**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어떠한 태도로 약한 자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14절)

- ㉠** (1) 욥은 친구들이 적어도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즉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비록 전능자에 대한 신앙심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의 친구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 (3) 사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은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참조, 마 26:69-75).
- (4) 이러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은 자기의 친구들에게서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어떠한 원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원하였다.
- (5) 형제를 도우려는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러한 이해와 사랑을 때버리고 단지 의무감이나 습관에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참조, 고전 13:1-3).

10. **㉠** 욥은 자기 친구들이 성실치 못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비유하였는가? (16-20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의 성실치 않음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잿음 같다'고 하였다.
- (2) 즉 욥은 친구들이 마치 우기(雨期)에는 범람하다가도 정말 물이 필요한 가뭄의 시기인 건기(乾期)에는 바짝 마르는 와디(wadi)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 (3) 이러한 와디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큰 실망을 안겨 줄 뿐이다(19, 20절).
- (4) 흔히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 중에 이 와디처럼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참조, 마 23:1-36).
- (5)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으로 변하여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참조, 요 7:38; 고후 2:15).

11. **㉠** '데마의 때'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9절)

- ㉠** (1) 데마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아랍 민족의 한 부족이다(참조, 창 25:15).
- (2) 이들은 보통 드단(참조, 사 21:13, 14; 렘 25:23)과 더불어 언급되어 있는데 드단족은 더 큰 아랍 부족이며 카라반(사막 지방의 상인들)으로 알려져 있다.
- (3) 이 두 부족은 아마 방랑 생활을 했으리라 추측되고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광야의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 같다.

(4) 데마라는 이름은 현재 시리아에 있는 타이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시는 다메섹과 메카 사이에 있어 순례자의 여행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 욕은 자기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집을 낸다고 하였는가? (21절)

- ㉠** (1) 욕은 자기의 친구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집을 낸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욕은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의 동기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 (3) 친구들은 욕을 위로한다는 좋은 의도로 찾아왔었다(2:11-13). 그러나 그들은 욕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즉 이것은 만일 그들이 욕에게 동정을 보였다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까 하여 겁을 먹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참조, 약4:17).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참조, 요 15:13, 14).

13. **㉠** 욕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욕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정한 동정과 이해를 요구하고 기대하였다.
- (2) 모처럼 욕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한 이해와 친절이었다.
- (3) 오늘날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문제아(問題兒)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해와 친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의 행동 윤리가 철저한 겸손을 통하여 다져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3:1-11).

14. **㉠** 욕은 어떤 때에 잠잠하겠다고 하였는가? (24절)

- ㉠** (1) 욕은 친구들이 자기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 잠잠하되노라고 하였다.
- (2) 즉 욕은 친구들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 중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 (3) 욕의 친구들의 변론보다 자기의 죄가 무엇이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세상의 학문과 많은 경험은 인간을 더욱 번민하게 만들고 더 깊은 고통으로 인도할 뿐이다(참조, 전 1:13-18).
- (5)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은 인생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참평안을 제공해 주신다(참조, 시 119:105; 딤후 3:15-17; 히 4:12, 13).

15. **㉠**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26절)

- ㉠** (1) 이 말은 '너희가 제안하려느냐' 또는 '그것이 너희들의 의도인가' 라는 의미이다.
- (2) 즉 욕은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말한 말을 내 스스로 이해하라는 의미인가' 라고 친구들에게 항의하였다.
- (3) 그는 아마도 그의 탄식 가운데서 사용한 말의 경솔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 (4) 그러나 욕은 정직한 말에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사실 말에 허물이 없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 할 수 있다(참조, 약3:2).
- (6) 말이란 사람들의 삶을 즐겁게도 하고 또한 극악한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참조, 약3:6-12).

16. **㉠** 욕은 자기 친구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하였는가? (27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을 ‘고아를 제비뽑으며 벋을 매매할 자’ 라고 욱하였다.
- (2) 여기서 ‘고아를 제비뽑는다’ 는 것은 지불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참조, 왕하4:1; 느5:5; 욥3:3).
- (3) 그리고 ‘벋을 매매할 자’ 란 돈 때문에 친구를 팔아먹을 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였다(참조, 창37:28; 마26:15).
- (4) 이와 같은 욥의 말은 그 친구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친구들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에서 했던 말이다.
- (5) 사실 정직한 충고에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노골적인 것은 정직한 충고일 수 없고 도리어 형제의 감정을 폭발시킬 뿐이다(참조, 고전13:4-7).

17. ㉠ 욥은 친구들에게 ‘불의(不義)한 것이 없게’ 하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권하였는가? (29절)

- Ⓐ (1) 욥은 친구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돌이키라’ 고 권하였다.
- (2) 여기서 ‘돌이키라’ 는 말은 친구들이 욥의 입장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 (3) 즉 이 말은 ‘방법을 바꾸라’, 내가 유죄하다는 잘못된 전제보다 나의 고통을 설명하는 다른 길을 찾으라’ 는 의미이다.
- (4) 욥의 친구들은 선입 관념을 가지고 욥을 대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 (5) 이처럼 잘못된 선입 관념은 친구를 더 악한 상황에 몰아 넣어 버리고 만다. 친구의 충고는 선입 관념을 떠나 참사랑에서 출발하여야 한다(참조, 잠27:6).

18. ㉠ 욥은 자신의 판단 능력이 저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0절)

- Ⓐ (1) 욥은 자신의 미각(味覺)이 궤홀(詭譎)을 분변(分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함으로 자신의 판단 능력을 옹호하였다.
- (2) 즉 욥은 마치 미각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은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 (3) 그러나 욥의 이 같은 변호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42:3).
- (4)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깨닫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다(참조, 42:6).

### 본장의 요절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벋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 (14절).

## 제 7 장 욥의 인생관과 그의 기도

단락구분 1.6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욥의 인생관 / 7.10 욥이 '인생의 무의미를 기도로 표현하다' / 11.21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다

1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나 그 날이 품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나

2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군은 그 앓을 바라나니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끈고름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함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6 나의 날은 베짖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7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 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12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5 이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노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 사람이 무엇이판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 1. ㉠ 본장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 ㉠ (1) 전장(前章)과 연결된 본장의 내용은 먼저 욥이 그의 불행한 운명을 탄식하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1-10절).
- (2)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을 자신이 원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하나님께 호소한다(11절).
- (3)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다가(12-19절) 결론부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였다(20절).
- (4) 하지만 그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여 왜 하나님은 극단적인 복수 대신 용서를 하시지 않는가 원망하기에 이른다(21절).
- (5) 욥의 이와 같은 호소는 마치 벌하는 아버지를 향한 어린아이의 애원과도 같다. 그래서 욥기는 침울한 책이라고 일컬어진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모든 신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왜냐하면 욥이 비록 깊은 흑암에 빠졌으나 장래가 있기 때문이다(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가 있으므로).
- (7)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결코 침울하거나 비판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허락하신다(참조, 사55:1-6; 요14:27).

2. **㉠ 욥이 말했던 '전쟁'이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가? (1절)**

- ㉠** (1) '전쟁'이란 '군대' 또는 '복역', '무거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삶의 형편을 가리켜 한 말이다(참조, 14:14; 사 40:2).
- (2)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일을 하고 있으며 통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쟁'이란 표현은 적절하다.
- (3) '전쟁'이란 표현은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고전 9:7; 빌 2:2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휘 통제가 확실한 군인이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통솔하는 자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것이다(참조, 딤후 2:3, 4).

3. **㉠ 욥은 인생의 날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절)**

- ㉠** (1) 욥은 인생의 날이 품군의 날과 같다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고용된 자는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전능자가 정한 시간(年數) 내에서 당신께서 맡겨 주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참조, 14:5; 시 31:15; 39:4; 행 17:26).
- (3) 그러므로 욥이 이해했던 인생이란 낙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철저히 수동적이고 비판적인 것이었다(참조, 사 16:14).
- (4) 그러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자는 비록 품군처럼 정한 기간과 일정한 일의 내용이 주어질지라도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맡은 바를 수행해 갈 수 있다(참조, 고전 15:16-19, 31, 32).

4. **㉠ 욥은 종과 품군이 각각 무엇을 고대한다고 하였는가? (2절)**

- ㉠** (1) 욥은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군은 그 삯을 바란다'고 하였다.
- (2) 욥이 살았던 시대의 종은 아마도 아침부터 밤까지 기진 맥진 하도록 일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밤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 (3) 이런 점에서 만약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종의 노동과 같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 (4) 또한 품군은 그 삯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욥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한 말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 24:12; 마 16:27).
- (5)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 또는 품군으로 충실하게 일한 자는 분명히 쉼을 누리는 밤이 올 것이며 일생을 결산하는 삯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 19:28-30; 요 9:4).

5. **㉠ 욥은 얼마 동안 곤고(困苦)를 받았다고 하였는가? (3절)**

- ㉠** (1) 욥은 여러 달 동안 곤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 (2) 이 여러 달은 욥에게 있어서 무익한 시간이었다. 즉 욥이 질병에 걸린 이래 귀중한 시간이 아무런 뜻 없이 흘러가 버렸던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계속해서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어 있었다. 사실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자에게는 항상 밤이란 낮보다 더 지루한 법이다.
- (4) 그는 밤마다 잠이 부족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참조, 시 127:2). 잠이란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참조, 전 5:12; 렘 31:26).

- (5) 이렇게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6)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쉼이 없다면 그것은 곧 가장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5:19, 32).

6. **㉠** 욕은 자신의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였는가? (5절)

- ㉠** (1) 욕은 자기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자기 가죽은 합창(合瘡) 되었다가 터진다' 고 하였다.
- (2) 이처럼 욕은 자신의 처참한 병세를 시적(詩的)인 표현을 빌어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 (3) 욕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한때는 곳곳이 견디어 내기도 했으나(1:21, 22; 2:10) 고난이 절정에 달하여 자신의 몸이 누더기처럼 되자 삶의 희망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 (4)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이성을 때앗아 가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서 종종 사단이 이러한 고통을 이용하기도 한다(참조, 마 4:2, 3).
- (5)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의 승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마 6:13).

7. **㉠** '베틀의 북'이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6절)

- ㉠** (1) '베틀의 북'이란 육안(肉眼)으로는 식별할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이다(참조, 시 78:39; 103:16).
- (2)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틀의 북이 아무리 빨라도 직물의 짜임새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 (3) 사실 베틀의 북은 왜 실오라기 사이를 오가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계획에 의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 (4) 얼핏 보기에는 목적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전체 직물의 패턴을 따라 짜면서 오고가는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하나하나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 (6)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짧아도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큰 기제는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8. **㉠** 욕이 말했던 자신의 생명이 '한 호흡'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여기서 '호흡'이란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참조, 시 78:39).
- (2) 호흡, 즉 바람은 헛되고 급격히 변화하여 견잡을 수 없이 지나쳐 버리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참조, 잠 11:29; 전 5:16; 사 28:18; 41:29; 렘 5:13).
- (3)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輪廻說)이란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단 한번 이 땅에 주어져서 바람처럼 이 세상을 스쳐갈 뿐이다.
- (4) 그러므로 이 단 한번의 지상 생활을 의미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 (5)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시'라는 단어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앙인은 신앙의 음성이 밤을 깨우면서 들려 올 때 등잔에 가득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1-13).

9. **㉠** 욕은 왜 자신을 본 자의 눈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8절)

- ㉠** (1) 그 이유는 욕이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다시 그가 살던 사회의 일원으로 가담하지 못하며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다(참조, 전 9:9, 10).
- (3)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이라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욕이 죽은 후에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욕은 현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자신의 삶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5) 그러나 이것은 욱의 성급함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 생활 뿐만 아니라 내세(來世)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자야말로 담대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참조, 단3:13-18).

10. ㉠ ‘욱부’(陰府)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 10절)

- ㉠ (1) ‘욱부’란 히브리어로 (스울)로서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시 6:5).  
 (2) 여기서 욱은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의 사건이며 또 이 세계와의 결별로서 이 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이생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3) 처음부터 끝까지 욱의 불평은 자기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까닭없는 수난에 대하여 정의로 간섭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4) 즉 하나님이 으레 간섭하실 일인데 모르는 체하시는 것이 욱의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불평이다(참조, 10:9-13).  
 (5)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6)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참조, 시 37:7).

11. ㉠ 욱은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11절)

- ㉠ (1) 욱은 결심하기를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겠다’고 하였다.  
 (2) 욱은 짧은 생과 죽음의 새력 밑에서 반신 반의(半信半疑)의 태도로 하나님께 도전해 본다. 그는 무서운 현실과 가혹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3)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논쟁에 있어서 흔히 자신이 절대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변명은 인간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사랑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이 순종하여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인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줄 것이다(참조, 약 1:2-4).  
 (5)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에게 불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6)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명이든 자기 백성에 대한 답변이든 언제 말해야 될지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12. ㉠ 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속박에 대해 어떠한 말로 표현하였는가? (12절)

- ㉠ (1) 욱은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이 사는 세계 가운데에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막으로 설정해 주신 원시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시 89:9, 10).  
 (3) 그리고 용이란 바다의 괴물로서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다 또는 땅 속의 깊은 웅덩이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상의 동물이다(참조, 출 7:9, 10; 신 32:33; 시 91:13; 148:7; 사 27:1).  
 (4) 이처럼 욱은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반대하여 자신을 고통으로 얽매여 놓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5) 그래서 욱은 자유를 회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버려 두면 인간의 갈 곳은 깊은 구렁뿐이다.  
 (6)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갈 곳이란 전혀 없다(참조, 시 139:7).

13. ㉠ 욱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3, 14절)

- ㉠ (1) 욱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잠자리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기를 놀라게 하시고 이상(異像)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셨다고 하였다.  
 (2) 욱은 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파괴적 활동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 (3) 즉 악몽과 불면증은 심리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그는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찾으며 고통 가운데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으로 알았다. 즉 그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떠난 자로 자처하였다.
- (5)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과 번민하는 마음과 불안한 영혼에 대한 참된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참조, 시 42:5; 147:3; 사 25:4; 51:3; 66:5; 고후 1:3, 4; 7:6).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간과(看過)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참조, 시 35:10; 41:3; 42:8; 71:6). 반면 사단은 그의 두려움을 동반한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밤중에 성도의 침상에 찾아온다.

14. **㉠** 읍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였는가? (15, 16절)

- ㉠** (1) 읍은 하나님께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였고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으시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마음에 숨이 막힌다’는 것은 차라리 그런 무서운 꿈을 꾸기 보다는(14절) 숨이 막혀 질식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 (3) 그리고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읍의 모습이 질병으로 인하여 매우 수척하여져서 뼈만 남았는데 죽음은 오히려 그런 삶의 아픔보다 낫다는 의미이다.
- (4) 읍은 자기에게 고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시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으로 여겨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 (5) 그러나 읍의 이와 같은 호소는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 (6) 신앙인들은 이웃과의 대화와 하나님께로의 간구에서 항상 본성의 입술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태도이다(참조, 시 39:2).

15. **㉡** 읍은 사람을 감찰(監察)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였는가? (17절)

- ㉠** (1) 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감찰하시되 특별하고도 주의깊게 관찰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크게 여기시고’ 돌보신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신다(참조, 시 8:4; 144:3; 히 2:6).
- (4) 읍은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가려 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반역하는 경우에는 당신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인간을 채찍하신다고 보았다.
- (5) 이처럼 읍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으나 그 고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 (6)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눈을 들린다면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참조, 대하 16:9).

16. **㉢** 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시되 어떻게 감찰하신다고 하였는가? (18절)

- ㉠** (1) 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침마다 권징(權懲)하시며 분초(分秒)마다 시험하신다’고 하였다.
- (2) 읍이 묘사한 이 두려운 감찰은 예외적인 또는 가끔 행하시는 감찰이 아니라 틈이 없는 계속적이고 철저한 감찰을 의미한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염려하시며(마 10:29) 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신다(고전 9:9). 그렇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참조, 마 10:31).
- (4) 그러나 읍은 하나님의 이러한 감찰을 가장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참조, 시 34:16). 이

와 같이 완고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기뻐하지 않는다.

17. **㉠**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여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라고 욥은 간주하였다.
- (2) 사실 반역적인 마음과 범죄한 양심에는 하나님의 지켜 주시는 눈이 늘 무서운 눈일 수밖에 없다(참조, 1:10;3:23;34:21-28).
- (3)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과녁으로 삼아 고난의 화살을 쏘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4) 그러나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아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그 눈길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한다(참조, 시 8:4).

18. **㉠** 욥은 본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였는가? (21절)

- ㉠** (1)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除)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불만을 아뢰었다.
- (2) 욥은 만일 그가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욥으로서의 죄의 깊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용서하실 것으로 확신하였다(참조, 6:24, 29, 30;7:19).
- (3) 그런데 욥으로서의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4) 즉 욥은 하나님의 형벌과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참조, 히 2:10).

## 연구자료

### 하나님의 보존 섭리(保存攝理)

본서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섭리에 대해 언급된 귀절들이 가끔 나온다(1:10;36:7). 보존은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인데, 세상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활동케 하시는 신적 권능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유지된다(느 9:6;시 136:25;145:15;행 17:28;골 1:7;히 1:3). 비록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자멸해 버릴 것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보존의 섭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힘이 된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선(善)을 지향(指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 8 장 빌닷의 첫번째 충고

단락구분 1-7 하나님의 공의(公義)는 오류가 없음을 논하다 / 8-19 사곡(邪曲)한 자의 멸망에 대한 옛 시대의 교훈 / 20-22 하나님은 무죄(無罪)한 자를 기뻐하신다

-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 3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 4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 5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8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 9(우리는 어찌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땅에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 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발하지 아니하겠느냐
- 11 왕골이 진뿔이 아니고 나뭇가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 12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 다른 풀보다 일찌기 마르느니라
-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 14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 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 16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벌어가며
- 17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이갠을지라도
- 18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 19 그 길의 회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 21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 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 1. ㉠ 본장에 언급된 빌닷의 충고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본장은 욱의 친구 중 수아 사람 빌닷(2:11)의 충고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엘리바스보다 다소 덜 민감한 빌닷은 욱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하였다(4절). 그리고 욱의 말이 광풍과 같다고 비난하였다(2절).
- (3) 빌닷은 이러한 자기의 주장의 권위를 전통에 두고 있다(8-10절). 즉 욱의 문제에 대한 빌닷의 진단은 엘리바스와 동일한 것인데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교훈을 지지한다.
- (4)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욱의 범죄함을 확신하였고 자기의 신앙적 견해에 대한 추호의 예외나 모순을 생각하지 않았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충고를 할 때에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원칙론에 입각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 (6)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위(自慰) 행위로서 현대판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2. ㉠ 빌닷은 욱의 말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2절)

- ㉠ (1) 빌닷은 욱의 말이 광풍(狂風)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 (2) 여기서 광풍과 같다는 것은 마치 광풍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 버리는 거센 힘과 격노한 분노를 보여 주듯이 거세고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 한 말이다.
- (3) 또한 그것은 회개하기는커녕 선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욱의 말에 비유된다.
- (4) 이와 같이 빌닷은 욱이 고난당하는 의미를 모르면서 욱을 책망했는데 이것은 욱에게 견디기 어려운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이었다.
- (5)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정의(총고)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만을 줄 뿐이다(참조, 고전 13:1-3).

3. **㉠** 빌닷은 욱의 변론을 무슨 말로 일축해 버렸는가? (3절)

- ㉠** (1)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公義)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는 말로 욱의 변론을 일축하였다.
- (2) 그러나 빌닷의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소경을 두고 아무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라는 논리는 원인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9:1-11).
- (3) 또한 빌라도에게 피흘림 당한 자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자들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담없이 이러한 죽음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눅 13:1-5).
- (4) 이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신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유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믿음과 인내로 담대히 이겨내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4).

4. **㉠** 빌닷은 욱의 자녀가 죽은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4절)

- ㉠** (1) 빌닷은 욱의 자녀가 범죄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 (2) 빌닷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범죄에 대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다(참조, 18:7, 8).
- (3)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 죽음이 그 죄의 뒤를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 (4) 여기에서 죄가 인격화되었고 죄 자체가 파괴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5) 물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 즉 죽음을 불러오지만(참조, 롬 5:17) 욱의 자녀의 죽음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욱을 시험하시기 위한 신성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 (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뽑으시기도 하지만 자비로 그 상황을 조절하시는 경우도 있다(참조, 은 3:10-4:11).

5. **㉠** 빌닷은 욱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권했는가? (5,6절)

- ㉠** (1) 빌닷은 욱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하였다.
- (2) 이와 같은 조건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 (3) 즉 빌닷의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 (4) 오늘날도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긍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자들 중에 눈 이 같은 도덕적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 든다.
- (5) 그러나 회복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참조, 1:21).

6. **㉠** 빌닷은 회개한 후의 욱을 어떻게 내다보았는가? (7절)

- Ⓐ (1) 빌닷은 만약 욱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5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昌大)하리라’고 하였다.
- (2) 그러나 빌닷이 말한 욱이 차지하게 될 번영에 대한 전망과 욱이 실제로 번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말에는 은밀한 조소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 (3)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안과 밖이 다른 내용을 담고 이웃에게 말할 때가 있다.
- (4) 물론 이것이 순간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 속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다.
- (5)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고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이다(참조, 고후 4:18).

7. ⓐ 빌닷은 욱에게 참다운 지혜를 누구에게서 얻으라고 하였는가? (8절)

- Ⓐ (1) 빌닷은 욱에게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列祖)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이전 세대에 살았던 경건하고 현명했던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심오한 지혜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빌닷은 과거 집착적(過去執着的)인 사람으로서 전승(傳承)에 얽매어 현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 (4) 과거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흔히 현재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앙인 중에는 과거 지향성을 띤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로부터의 전통을 더욱 귀중히 여긴다(참조, 마 15:2-6).

8. ⓐ 빌닷은 자신들의 생명이 무엇처럼 짧다고 하였는가? (9절)

- Ⓐ (1) 빌닷은 자신들의 생명이 그림자와 같이 짧다고 하였다.
- (2)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는 지난 세기의 기나긴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물론 인생은 그 수한(壽限)이 그림자처럼 짧고 풀처럼 쉽게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하다(참조, 14:2; 시 102:11; 사 40:6).
- (4) 한편 옛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진리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흥미케 하는 것 중에는 옛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이 적지 않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험 위주의 신앙과 사색보다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참조, 시 119:105).

9. ⓐ 옛 성현(聖賢)들이 가르친 말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11-19절)

- Ⓐ (1)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마치 진펄과 물이 없는 왕골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11, 12절).
- (2) 그래서 그런 사람의 힘은 거미줄같이 연약하며(14, 15절) 쉽게 뽑히는 식물보다 더 연약하다고 하였다(16-18절).
- (3)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기쁨은 한갓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하였다(19절).

10. ⓐ 갈대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1절)

- Ⓐ (1) 갈대가 필요로 하는 ‘물’은 불경건한 자의 외적인 번영의 원천을 상징한다.
- (2)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악인들이 가지는 헛된 희망의 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시 10:4).
- (3) 즉 악인들의 희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된 관념이나 스스로의 도덕성 능력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그러므로 이들의 번영은 물이 다할 때까지 무성해 있을 뿐이고 물이 마르면 곧 시들어 버린다.

(5)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1. **㉠**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3절)

**㉠** (1)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란 하나님의 존재(시 14:1)와 하나님의 전지(시 50:22), 하나님의 성품(사 51:13; 64:5), 하나님의 사역(신 6:12; 시 78:1), 하나님의 말씀(호 4:6)을 망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들은 항상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참조, 롬 1:18-32).

(3)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다(시 6:4).

(4)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렘 17:5)라고 하셨다.

(5)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자신을 상실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 **㉠** '사곡(邪曲)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3절)

**㉠** (1) '사곡한 자'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뜻으로(시 106:38; 렘 3:1) 배교자(背敎者)와 불신자를 가리킨다.

(2) 즉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사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다(참조, 사 10:6).

(3) 그들의 특징은 그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네프>가 내포하고 있듯이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4) 그러나 인간의 외모보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곡함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참조, 삼상 16:7).

(5) 이와 같이 '사곡한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속이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참조, 마 25:31-46).

13. **㉠**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사곡(邪曲)한 자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4, 15절)

**㉠** (1)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사곡한 자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고 하였다(14절).

(2) 그 거미줄은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정성으로 신기하고 재치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3) 이것을 세운 목적은 시련의 날과 죽음의 날이 닥칠 때에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4) 그러나 그 거미줄은 약한 바람에도 끊어져 버리고 또 지탱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쉽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5)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며 자신의 힘으로 경영하여 항상 교만하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종(始終)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참조, 시 127:1, 2; 잠 16:1, 9).

14. **㉠** 덩쿨 식물에 비교된 불경건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6-19절)

**㉠** (1) 먼저 풍부한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마치 태양빛 아래서 수액으로 부풀어 오른 식물과도 같이 그 명성과 부는 확산될 것이다. 비록 바위가 가로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점령해 버릴 것이다(16, 17절).

(2) 다음으로 자기 도취적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치 들더미 위에 군림한 뿌리처럼 자기의 물질적 행운에 기대어 오만해 질 것이다(17절).

(3) 그러나 급작스런 파멸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뿌리가 뽑혀져 그 무성하던 것들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18절).

(4) 그리고 공적인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뿌리뽑힌 나무가 자라던 그곳에서 그 나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18:18; 20:27), 위선자는 자신이 번영하던 시기에

마음이 맞던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18절).

- (5) 마지막으로 완전한 망각이 뒤따를 것이다. 사회에서 그가 뽑힌 자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메워져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15. **㉠**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 (2)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혹 넘어질지는 모르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참조, 시 94:14; 고후 4:9).
- (3)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삼상 12:22; 15:29; 말 2:16; 3:6)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참조, 레 26:44; 신 4:31; 왕상 8:23; 시 111:5; 호 2:19; 롬 11:29; 히 10:23)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 (4)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건한 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참조, 요 10:28).
- (5) 반면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여 결코 도움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34:16; 함 1:13; 요일 1:5).

16. **㉠** 하나님께서는 순전(純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였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의 입에 웃음으로, 그리고 그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로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제공하실 것을 누누히 말씀하셨다(참조, 시 73:24; 사 25:10; 단 12:3; 눅 10:20; 12:32; 롬 2:7, 10; 8:18).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인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러한 기쁨과 행복 속에 잠기시기도 한다(참조, 습 3:17).
- (4)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기쁨과 행복은 구원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요일 4:8, 16).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늘 기뻐하는 것,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살전 5:16-18).

17.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입히실 것이며 또한 악인의 거처를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다.
- (2) 그가 이렇게 악한 자를 도말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 (3) 이렇듯 하나님의 배려는 당신의 동반자에게는 부드럽로우시나 당신의 적대자에게는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웃을 입히실 것이다.
- (4) 즉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구원과 기쁨인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곧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 제 9 장 빌닷에 대한 욱의 답변

단락구분: 1-14. 하나님 앞에서는 위롭다 할 사람이 없다 / 15-24. 하나님 앞에서 욱이 취한 태도 / 25-26 욱이 자기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을 탄식하다 / 27-35 세 가지 문제 해결법

- 1 욱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 3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 4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략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 6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 7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 8 그가 폭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밝으시며
-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 12 하나님이 때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 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함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 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 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울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 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 18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 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 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피함을 증거하리라
- 21 나는 순전하다 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 22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 23 흉연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어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 25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 28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 29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 30 내가 한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 33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 34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 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 (A) (1) 본장에서 욱은 빌닷에 대한 답변으로 빌닷의 주장을 진실성 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 없음을 지적했다(2절).
- (2)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존재인데(4절) 반하여 인간은 아주 약하고 불완전하며 무지하고 죄많은 존재라고 고백하였다(17-20절).
- (3) 그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두 사이를 중재할 판결자를 찾았으나 그 중재자를 찾지 못하였다(33-35절).
- (4) 만약 그가 이와 같은 중재자를 찾았으면 그가 자신의 무죄를 계속 변호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 (5) 이처럼 욱은 자기 의(義)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公義)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최선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2. **㉠ 욱은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2, 3절)**

- (A) (1) 욱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쟁변할 때에는 한 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다고 했다.
- (2) 이것은 욱이 빌닷이 말을 일단 수궁하면서 했던 대답임을 고려할 때,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 (3) 즉 욱은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말을(6:29) 수정하기 위한 서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에 비하여 인간의 의와 지혜가 보잘것없다고 말했다.
- (4) 따라서 욱은 이 말은 통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 욱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강박하게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형통할 수 없다고 하였는가? (4절)**

- (A) (1) 욱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므로 인간이 함부로 강박히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형통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며(대상 28:9; 시 7:9) 사람의 생각을 통촉하시고(시 139:2) 그 행위를 아시며(34:25)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34:21).
- (3)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사 46:10)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며(23:13, 14) 당신의 뜻에 항거하는 모든 것을 폐하시사 영원히 서지 못하게하신다(36:5; 37:23; 단 2:20).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全知全能)하신 힘을 믿고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잠 3:6).

4. **㉠ ‘산을 무너뜨리시며 욱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나타내는가? (5절)**

- (A) (1)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표현한 말이다. 즉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참조, 막 9:23; 11:23).
- (2) 그런데 당신께서 이러한 능력을 발하실 때는 쉽고도 자연스럽게 아무 힘도 들이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일하신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를 향한 진노의 표시로서만 사용하신다(참조, 나 1:6; 함 3:6).

5. **㉠ ‘땅의 기둥’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6절)**

- (A) (1) ‘땅의 기둥’이란 고대 중동 지방의 우주관을 기초로 표현한 시적(詩的)인 말로서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가리킨다(참조, 시 75:3).
- (2) 그러므로 ‘땅을 미신다’든지 ‘땅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말은 ‘지진’을 두고 한 말이다.
- (3) 성경에는 피조물 중에 굳은 땅보다 더 영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였다(참

조, 시 119:90).

- (4) 땅이 만들어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되었다(참조, 삼상 2:8; 시 24:1, 2; 136:6; 렘 51:15).
- (5) 이러한 땅이 움직이며 그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한 상징이다(참조, 사 13:13).
- (6) 이와 비슷한 표현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사용하셨다(마 :24:7).

6. **㉠**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7절)

- ㉠** (1) 태양은 언제나 그 창조주의 의지에 복종한다(참조, 창 1:16; 시 74:16; 136:7, 8; 렘 31:35). 즉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복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전 1:5).
- (2) 그러므로 태양은 결코 그 빛을 발하는 유일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빛나지 말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 그 빛을 발할 것이다.
- (3) 그런데 만약 태양이 흐려지거나 빛을 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욥 2:31; 암 8:9; 눅 21:25; 행 2:20).
- (4) 예를 들면 애굽인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오게 된 것이라든가(출 10:22),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사실(마 27:45) 등이다.
- (5) 그러므로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와 구원의 빛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또한 삶에 적용하지도 않는 개인과 집단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참조, 롬 1:21-25).

7. **㉠** ‘하늘을 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하늘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창 1:6) 하나님이 구름으로 온 땅을 덮으시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18:9-11).
- (2)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것은 하늘이 마치 커튼이나 천막 덮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참조, 시 104:2; 사 40:22).
- (3)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4) 사실 폭풍과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또는 본래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에 의하여 발생한 현상이다(참조, 시 68:34).
- (5)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당신의 의지대로 사용하신다(시 104:3; 147:8).

8. **㉠**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 바마티 암>은 ‘바다의 높음 위에’라고도 번역된다.
- (2) 그런데 여기서 ‘바다의 높은 데’란 궁창 위의 물을 가르킨다는(창 1:7) 해석도 있고 바다의 파도가 산처럼 높은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시 93:5).
- (3) 여하튼 바람과 물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구름과 물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용(洶湧)하고 요동하는 물결을 잠잠케 하신다(참조, 시 65:7; 89:9, 13).
- (4)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마 14:26). 이렇게 하여 창조물에 대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9. **㉠** ‘남방의 밀실(密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 (1) 갈대아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별자리(星座)로 보았는데 ‘태양의 대저택’ 또는 ‘달의 대저택’이라고 불리워졌다.
- (2)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읍은 남쪽 지평선 저 너머에 펼쳐져 있을 무한한 하늘과 땅의 공간을 두고 한 할일 것이다.
- (3) 이곳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저장하는 밀실로 이해되기도 했다(참조, 37:9; 사 21:1).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까지 이미 조성해 두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려 나가신다.
- (5) 그러므로 인간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신 일을 판단하고 측정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10. **㉠** **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조성하시며 다스려 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표현하였는가? (10절)**

- ㉠** (1) 음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말하였다.
- (2)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5:9)을 문자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탱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한 말이다.
- (3)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산물로서 특징지워 질 수 있을 것이다(참조, 시 92:5; 111:2).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일들은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는 없을 것이다.
- (5) 사실 현대의 우수한 과학으로 자연과 세계를 탐구해 가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들이 탐구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6) 그러므로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항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참조, 사 40:24; 나 1:6; 히 12:29).

11. **㉠** **음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11절)**

- ㉠** (1) 음은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였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셨으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우리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으며 느낄 수도 없었고 그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였다.
- (3)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영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참조, 요 1:5; 롬 1:21; 엡 4:18, 19).
- (4)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 (5)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격으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참조, 마 5:8; 히 12:14).

12. **㉠** **음은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2절)**

- ㉠** (1) 음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묘사하였다.
- (2)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비난의 여지도 없게 행하신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최선을 지향하며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8:28).
- (4)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당신의 능력을 왜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쁘고 만족하게 받아들였다(참조, 시 119:65; 막 7:37).

13. **㉠** **‘라함을 듣는 자’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가? (13절)**

- ㉠** (1) 여기서 히브리어 <라함>은 ‘교만’ 또는 ‘신비스러운 바다 괴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사단’을 상징한다(참조, 계 12:3-12).
- (2) 그러므로 ‘라함을 듣는 자’란 사단에 동조(同調)하여 악의 세력을 팽창하게 하고 하

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무리를 가리킨다(참조, 사 51:9).

- (3)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만 당신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세력 있는 라합과 그의 돕는 자들도 사로잡으신다고 하였다.
- (4)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전쟁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금 하나님의 발 밑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계 2:7, 8).
- (5) 이처럼 악한 자들과 라합이 연합하여 궁극적으로 항거하게 되지만 이들은 무력하게 끝 나버리고 말 것이다(참조, 시 2:1-3; 83:5, 8; 유 1:6).
- (6) 그들의 원천은 교만이다(참조, 시 10:2-4),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항거(참조, 시 12:3, 4)이며 그들의 결말은 파괴와 멸망이다(참조, 시 18:27; 잠 17:19; 사 2:11; 13:11).

14. **㉠ 욥이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辯論)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4, 15절)**

- ㉠** (1) 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다(14절).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직면했을 때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뿐이다.
- (2)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신의 무가치성과 불충분함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겸손의 옷을 걸쳐야 할 것이다(참조, 창 32:10; 삼하 7:18; 사 6:5).
- (3)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15절). 그는 자신의 친구들의 비난을 거부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 (4) 사실 하나님은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판자로서 군림하신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최선의 태도이다(참조, 롬 3:10).

15. **㉠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혹자는 이 말을 욥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지고(至高) 하시기 때문에 욥의 불평을 들으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2) 그러나 이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각시켰다.
- (4) 욥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일 뿐 아니라(참조, 잠 11:2),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잠 3:34).

16. **㉠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가? (17, 18절)**

- ㉠** (1)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 (2) 이와 같은 욥의 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참조, 2절) 단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근거가 될 만한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 (3) 그러나 만일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기만 했다면 이러한 불평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정금같이 강인하고 완숙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참조, 약 1:2-4).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6-18).

17. ㉠ **욥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처지를 어떻게 변호하겠다고 했는가? (19, 20절)**
- ㉠ (1) 욥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定罪) 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悖乖)함을 증거하리라' 고 하였다.
- (2) 이 말은 욥 자신이 인간들 편에서는 의롭고 순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의롭지 못하다는 고백인데, 여기서 우리는 욥이 인간들의 상대적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참조, 벧전 3:6).
- (4)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과 거룩에 관한 분명한 계시를 깨닫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감히 인간으로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알게 된다.
- (5)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라고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참조, 요일 1:8).
18. ㉠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천히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욥은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세상에서 분명히 주어진다는 세 친구의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믿었지만 그 순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논박(論駁)했다.
- (2)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해 자신의 순전함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겸손한 마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천히 여긴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 (3) 즉 이 세상에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 같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도 하므로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다.
- (4)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대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응(報應)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 ㉠ **'일이 다 일반이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이 말은 '문제는 하나이다' 또는 '그것은 모두 하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의인과 악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음으로 서로 같은 존재이다. 즉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참조, 갈 3:22).
- (3) 그렇다면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참조, 전 9:2).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형편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마 1:21).
20. ㉠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22, 23절)**
- ㉠ (1)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구별하지 않고 함께 절망과 시련의 늪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22절).
- (2) 즉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전쟁과 기근, 질병 등의 재난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많은 의인들이 악인과 더불어 고난을 당해야 했다(참조, 창 18:24).
- (3)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은 대체로 인류의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상태를 개선시키고 신앙을 자극하였으며 더 나은 삶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참조, 말 3:18).
- (4)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엄정하게 다스리시며 인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악인에게 있어서는 심판으로 느껴졌겠지만 의인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참조, 42:2-6).
- (5) 더우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악한 자를 비웃으시는 반면(시 2:4) 당신의 백성과 그

들의 슬픔은 결코 비웃지 않으신다(참조, 출 3:7; 마 23:37; 요 11:35).

21. **㉠**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과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가? (24절)

- ㉠** (1)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과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 (2)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임에 틀림없다(참조, 출 9:29; 시 42:2, 7; 83:18). 그러므로 욥은 악인의 나쁜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수여받은 행위라고 보았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을 도모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선(善)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참조, 히 9:28).
- (4)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면(異面)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기만 했다면 그는 이러한 실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2. **㉠** 욥은 자신의 생(生)이 무엇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였는가? (25절)

- ㉠** (1) 욥은 자신의 생이 체부(遞夫)보다 빨리 지나간다고 한탄하였다.
- (2) 이 당시에 발이 빠른 사람은 종종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직업에 고용되었는데 이들을 체부(遞夫)라고 칭하였다. 또한 왕은 이런 봉사자들을 왕궁의 일원으로 몇 명씩 보유하고 있었다(참조, 대하 30:6).
- (3)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정규의 보발군이 있었다(렘 51:31). 한편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앞선 욥 시대에 조직적인 통신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발 빠른 사람들이 고용되었을 것이다.
- (4) 욥은 그의 생이 이처럼 발 빠른 전령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한 번영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한스러웠던 것이다.
- (5)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어떠한 이치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할 것이다(참조, 19:27; 빌 1:23).

23. **㉠**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27, 28절)

- ㉠** (1) 욥은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였다(27절).
- (2) 즉 그는 어두운 얼굴 표정을 고치고 마음의 기운을 회복하여 평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참조, 10:20; 시 39:13).
- (3) 그러나 욥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28절).
- (4) 이처럼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
- (5)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이 절대적인 평안을 얻는 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참조, 시 42:5, 11; 43:5; 50:15).

24. **㉠**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나친 고통으로 인해 결국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28, 29절)

- ㉠** (1) 욥은 자신이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셨다고 결론지었다(28절).
- (2) 즉 욥으로서의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로 또는 하나님이 무죄한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는 하나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욥은 더 이상 자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29절).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결론(28절)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 (4)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자신들의 수고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고 생각한다(참조, 학 1:6).
- (5) 그러나 성도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참조, 고전 15:58).

25. **㉠** 욥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30, 31절)

- ㉠** (1) 욥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하였다 (30절).  
 (2) 여기서 ‘눈 녹은 물’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키며 ‘잿물’이란 더러워진 것을 깨끗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뜻한다.  
 (3) 즉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추구하려 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당성을 인정치 않으시고 도리어 진흙탕으로 쳐넣어 이전보다 더욱 추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욥은 고백했다(31절).  
 (5) 사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의 존재가 밝혀질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참조, 42:2-6).  
 (6)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죄(有罪)를 인정해야 하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인격을 새롭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참조, 빌 3:3).

26. **㉠** 욥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문제를 재판할 수도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32, 33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재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즉 이것은 욥이 피조물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말이다.  
 (3) 그래서 욥은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며 그 양자를 화해시키는 판결자 혹은 증재자를 요구하였다(33절).  
 (4) 즉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罪性)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고 증재자를 요구하였다.  
 (5)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 즉 인간의 한계성을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펴서 위로와 사랑을 전할 것이다.

27. **㉠** ‘양척(兩隻)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3절)

- ㉠** (1)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증보자 또는 제 3자로서 활동하는 분을 가리킨다.  
 (2) 이 증보자는 인간의 특성만을 가지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32절), 또한 하나님의 위치만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신 한 증보자를 예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딤후 2:5).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참조, 요 5:22)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증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참조, 빌 2:6-8).

28. **㉠** 욥은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아뢰었는가? (34, 35절)

- ㉠** (1) 욥은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하였다(34절).  
 (2) 여기서 ‘막대기’는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 또는 무기를 가리킨다(참조, 시 23:4).  
 (3)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고난당하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공포 가운데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35절).  
 (4)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 버리고 자비와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종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5)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바른 방법이다(참조, 시 119:159, 160).

## 제 10 장 하나님을 향한 욕의 기도

단락구분 1-7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한 욕의 탄식 / 8-13 욕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고백하다 / 14-19 욕이 하나님의 엄정한 다스림에 대해 탄원하다 / 20-22 지친 욕이 죽기 전 잠시의 안식을 간구하다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피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5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시나이까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8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10 주께서 나를 쫓과 같이 쫓으셨으며 영긴 것처럼 영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옵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까

17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 있어도 없던 것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저으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같고 죽음의 그늘이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빌닷에 대한 욕의 답변이 기도문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 (2) 본장에서 욕은 주로 3, 4, 7장과 비슷한 사상으로 답변을 시도하였으나 그의 어투는 좀더 분노가 누그러져 부드럽게 전개되고 있다.
- (3) 그런데 본장에서 욕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공의(公義)의 관점은 무시한 채 단순히 자비를 호소하는 간절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살피지 못한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의 잘못된 판단과 억측을 일삼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 2. ㉠ 욕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困憊)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욕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그를 괴롭혔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한 큰 번뇌와 고민이었을 것이다.

- (2) 만약 욱이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깊이 인식했다면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 (3) 그러나 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또한 고난을 주셨다는 회의가 일게 되자 그의 영혼은 곤비하기에 이르렀다.
- (4)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아무 상관없이 있는 분으로 느껴졌을 때 보다 더 괴로운 때는 없다(참조, 사40:27).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 이상의 의미가 있다(참조, 시 30:5;63:3).

3. **㉠ 욱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으면 했는가? (2절)**

- ㉠** (1) 욱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定罪)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사실 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징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쁘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참조, 시 50:15).
  - (3)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의롭다 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만드신다(롬 8:30).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롬 11:29).
  - (4) 하나님께서는 비록 때때로 당신의 자녀에게 가리우시는 경우는 있지만(사 54:8) 결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참조, 히 13:5).
  - (5)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비록 비천한 것일지라도 정죄치 않으실 것이다(참조, 사 1:16;43:25;요일 1:9).

4. **㉠ 욱이 정죄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욱은 하나님께 ‘무슨 연고(緣故)로 나로 더불어 쟁변(爭辯)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서 ‘쟁변’이란 하나님과 불신앙하는 죄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이다(참조, 요 16:8, 9). 또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당신의 백성과도 쟁변을 벌이신다(참조, 미 6:2;계 2:4, 5).
  - (3)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인과(계 3:1)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들과(계 3:15, 16) 쟁변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창 32:24) 쟁변하신다.
  - (4) 그러므로 욱의 간구는 성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의(眞意)를 깨닫지 못한 간구였다.

5. **㉠ 욱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어떤 항변(抗辯)을 하였는가? (3-6절)**

- ㉠** (1) 욱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불공평하게 취급하시는 것에 대해서(3절)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라고 항변하였다.
- (2) 그러나 욱의 이러한 항변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6:7).
  - (3)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같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불꽃같이 날카로우시며(계 1:14) 숨겨진 모든 것을 찾아내시며(28:10) 그 눈의 능력은 무한하시다(42:2).
  - (4)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초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욱은 자신의 좁디 좁은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 들었다.
  - (5)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것으로 만약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버리는 것이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이다(참조, 시 37:5).

6. **㉠ 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아시며 자기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 어떤 말로 표현하였는가? (7절)

- Ⓐ (1) 욥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삶의 영역을 규정지었다.
- (2) 이처럼 욥은 아직도 자신의 무죄성(無罪性)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 (3)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가진 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참조, 수 1:9).
- (4)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빼앗아 갈 자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참조, 시 139:7-12; 롬 8:35-39).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 5:8-10; 행 2:38).

## 7. ㉠ '백체(百體)를 이루었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백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한 사빔>인데, <야한>은 여러 지체들로 결합되어 있는 몸의 복합적이며 집단적인 상태를 가리키며, <사빔>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의 전체적인 형상을 의미한다.
- (2) 욥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귀중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인해 비참하게 변한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 (3) 사실 욥은 고난의 초창기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2:10)라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었다.
- (4) 그러나 고난이 더욱 심해지고 더우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자로 변신한 것 같을 생각이 들자(9:21-24) 욥은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 (5) 결국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는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

## 8. ㉠ 욥은 자기의 출생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였는가? (8-12절)

- Ⓐ (1)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 (2)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 뿐만 아니라(8-11절)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영을 지켜 주셨다고 하였다(12절).
- (3) 즉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그리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으며 평화와 번영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 (4)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 사람에게만 영(靈)을 주시고(창 2:7)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 (5) 그러므로 영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롬 8:15; 히 12:9).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시 100:3).
- (6) 이런 이유에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참조, 35:10, 11; 시 22:10; 45:11).

## 9. ㉠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욥의 고백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2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흙과 티끌로 인간의 몸을 지으셨으므로 그 몸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전 1:29).
- (2)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롬9:19-21).

- (3)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몸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도 안 될 뿐더러 함부로 천대해서도 안 된다(참조, 골 2:23).
- (4) 인간의 몸이 이처럼 흠에서 벗어난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당신이 거주 하시기를 원하신다(참조, 고전 3:16; 고후 4:16; 12:10).

10. **㉠**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여기서 ‘이것들’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으나 멸하기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욱의 고백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8-12절).
- (2) 즉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조처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욱에게 생명과 은총을 허락 하셨지만(12절) 동시에 욱을 징벌하시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다.
- (4) 욱은 자신의 고난이 그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불행과 관련된 목적하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 (6)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을 위로하시고(참조, 롬 8:28) 또한 경고하신다(참조, 시 33:15; 잠 15:3).

11. **㉠** 욱은 만약 자신이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실 것으로 보았는가? (14절)

- ㉠** (1) 욱은 만약 자신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았다.
- (2) 이와 같은 사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살피시며(참조, 시 33:13-15; 69:5; 잠 15:3; 히 4:13)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참조, 출 20:5; 롬 6:23)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관점에서 틀리지 않았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벌하시려고 숨어 기다리신다는 것과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라는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78:38; 130:3).
- (4)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방지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멈추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참조, 롬 3:25, 26).

12. **㉠** 욱이 비록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욱은 비록 자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한 이유로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며 자신이 자신의 환난을 목도(目都)한 점을 들었다.
- (2) 여기서 욱이 부끄러워 한 이유는 그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자신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13. **㉠** 욱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16, 17절)

- ㉠** (1) 욱은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욱 자신을 사냥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였다(16절).
- (2) 뿐만 아니라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몰려온다고 하였다(17절).
- (3) 이처럼 욱은 범죄치 않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휴식을 빼앗아 가시고 항상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다고 하였다.

- (4)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달갑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하나의 새로운 증거가 되게 한 것 같다.
- (5)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에게 있어서 이유없는 고통이 닥쳐왔을 때 흔히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 (6) 그러나 고난의 배후에 계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추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믿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로 바뀐다.

**14. Q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원망을 하였는가? (18, 19절)**

- A**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胎)에서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원망하였다(18절).
- (2) 이처럼 욥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자기가 태(胎)에서 나온 이후부터 생겨났다고 보았다(3:3-10).
- (3) 여기서 욥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는데 태에서 자기를 나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이다(참조, 시 21:6; 22:19).
- (4) 그러나 그는 생명의 태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였고 또한 경시하였다.
- (5) 사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도전한다거나 거부하는 일은 죄가 된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할 자로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비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살전 5:16-18).

**15. Q 욥은 최후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하였는가? (20, 21절)**

- A** (1) 욥은 자기가 죽음을 맞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겐 펼치신 고통의 손길을 거두시고 '저에게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였다(20절).
- (2) 즉 욥은 그의 고통이 순간적이거나 경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간구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과연 진정한 평화가 찾아들까 의심스럽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영원한 평안을 공급하신다(참조, 요 14:27).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한다(참조, 시 17:8; 50:15).

**16. Q 욥은 인간이 최후에 머무를 곳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1, 22절)**

- A** (1) 욥은 인간이 최후에 머무를 곳을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였다(21절).
- (2) 그는 계속해서 이곳을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22절).
- (3) 즉 이곳은 질서가 없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만이 존재하는 혼돈의 세계라 할 수 있다(참조, 창 1:2).
- (4) 이와 반대되는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낙원이다(참조, 계 3:12). 이곳은 어둠이 없으며 빛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참조, 계 21:23).
- (5) 그리고 혼돈된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득찬 영광스럽고 정돈된 곳이다(참조, 계 21:7).

## 제 11장 소발의 첫번째 충고

단락구분 1.6 소발이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는 욕을 질책하다 / 7.12.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 12. 20 회개에 따르는 축복

-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 3 네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 4 네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 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 6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별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 7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 9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

- 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 12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 13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 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 15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이리니
- 16 곧 네 환관을 잇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풀이 풀리감 같을 것이며
- 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 18 네가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 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침을 드리리라
- 20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꺾침이리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욕에게 했던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다른 두 친구보다 더욱 무뚝뚝하고 무정한 소발 역시 욕이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2) 소발은 욕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6절).
- (3) 소발의 충고는 엘리바스의 경우와 같은 종교적 경험이나 빌닷의 전통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직감이나 상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4) 그러므로 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에게 옳게 보이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라 간주하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흑백 논리(黑白論理)로 해결하려 한다.
- (5) 소발은 하나님의 역사(役事)의 신비를 밝히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지 욕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길을 이해하려는 욕의 태도를 꾸짖고 경멸하였다.
- (6) 이처럼 비록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내세우기 보다 자신의 논리만을 전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다.

### 2. ㉡ ‘입이 부푼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가? (2절)

- ㉡ (1) ‘입이 부푼 사람’이란 문자적으로는 ‘입술의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말이 많은 자’

를 가리켜 한 말이다.

- (2) 여기서 ‘말이 많은 자’는 성경을 통해 볼 때 항상 경고를 당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전5:3)로 취급되거나 죄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잠 10:19).
- (3) 소발의 이와 같은 말은 선한 이유를 가진 자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잠 10:19).
- (4) 하지만 그는 고난자의 진지한 자기 무죄에 대한 변명을 무시해 버리는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참조, 3, 4절).
- (5)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형제가 말이 많고 그 사연이 구차하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형제의 사정을 듣고 위해서 도와 주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7).

3. **㉠ 소발은 욱의 변론이 잘못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 충고하였는가? (5, 6절)**

- ㉠** (1) 소발은 욱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울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고 하였다.
- (2) 소발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욱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욱의 모든 교만함과 자신감이 좌절되어 사라져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 (3)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피상적인 관찰로서는 알 수 없다. 그 비밀은 당신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 (4) 즉 세상 지혜는 인간의 인내와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로 알아낼 수 있으나(잠 2:3, 4),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간의 한계 밖의 일이다(약 3:17).

4. **㉠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무엇인가? (5, 6절)**

- ㉠** (1)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참조, 요 1:14).
- (2) 즉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었는데, 모든 존재의 고민하고 풀지 못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 (3) 그런데 이분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인간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 (4) 그분은 순결하신 분으로 모든 영혼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모든 인류의 양심에 전하셨다.
- (5) 인간이 그 분이 하신 일을 용납하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당신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또한 완전히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참조, 고전 2:4-13; 고후 4:2; 살전 1:5).

5. **㉠ 소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소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벌하심이 인간의 죄보다 경하다’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합당한 것보다 적게 벌하시며 또한 용서하시고 계실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벌하심보다 더 무겁다는 뜻이다(참조, 스 9:13).
- (3)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대로 모두 보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참조, 시 130:3).
- (4)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죄를 그 무게대로 갚으시지 않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과거에 축적해 놓은 선(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다(참조, 시 103:8-11).
- (5)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긍휼을 동시에 베푸시는 분이다(참조, 합 3:2).

6. **㉠ 소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는가? (7-9절)**

- ㉠** (1) 소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의 존재는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규정짓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존재는 그 본질과(36:28;37:23), 그의 인격(창32:29;요 1:1;10:30), 그의 속성(시 147:5), 그의 지혜(사 40:28;롬 11:33), 그의 사역들(5:9;9:10) 그리고 그의 길(나 1:3;롬 11:33)에 있어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신다.
- (4)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의해서 그를 알 뿐이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 (5)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밝혀진 계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부딪혀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7. **㉠ 소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절)**

- ㉠** (1) 소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開廷) 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나’ 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두루 다니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하로프>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력들 가운데(참조, 사 21:1) 은 세상을 두루 다니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창 3:8).
- (3) 그리고 ‘개정하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크힐>은 공개적으로 열렸던 고대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정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는데, 그것의 어원은 ‘모오다’ 를 의미하는 <카할>에서 유래했다.
- (4) 그러므로 본절의 내용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 ‘허망한 사람’ 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가? (11절)**

- ㉠** (1) ‘허망한 사람’ 이란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는 자’ 즉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으나 속으로는 모든 불의를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시 26:4).
- (2) 하나님은 이렇게 ‘허망한 사람’ 의 중심을 아시며 또한 숨겨 놓은 죄악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은 소발이 욱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 논리이다.
- (3) 사실 소발로 보아서는 욱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 (4) 일반적인 논리로 소발의 말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계시는듯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자세히 살피고 계시면서(눅 12:7) 언젠가는 반드시 보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잠 16:9).
- (5) 그러나 ‘허망한 사람’ 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무시하기 때문에(참조, 시 10:4, 11) 자신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
- (6)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롬 2:5).

9. **㉠ ‘허망한 사람’ 의 특징은 무엇인가? (12절)**

- ㉠** (1) ‘허망한 사람’ 의 특징은 지식이 없고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은 것이다.
- (2) 여기서 ‘지식이 없다’ 는 말은 마음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참조, 9:4; 12:3).
- (3) 그리고 ‘들나귀 새끼’ 란 길들여지지 않은 것으로서 난폭하며 언제나 자행 자지(自行自止)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인다.
- (4)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욱무에 스스로 빠지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호 4:6).

10. **㉠ ‘마음을 정한다’ 는 말과 ‘손을 든다’ 는 말은 각각 무슨 뜻인가? (13절)**

- ㉠** (1) 여기서 ‘마음을 정한다’ 는 말과 ‘손을 든다’ 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 (2) 즉 ‘마음을 정한다’란 예배를 위한 영적 준비로서 예배에 불필요한 모든 거리끼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정직하고(시 78:8) 흠이 없는 마음을 가치고(참조, 삼상 7:3; 대하 19:3; 29:15; 눅 1:17; 딤후 2:21)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대하 20:33).
- (3) 그리고 ‘손을 든다’란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서(참조, 시 28:2; 63:4; 134:2; 141:2; 사 1:15; 애 2:19; 3:41) 회개하는 것을 나타낸다(애 3:40-42).
- (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요 4:23, 24).

11. **㉠**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전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했는가? (14절)

- ㉠** (1) 소발은 욥에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말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은 연약하여 동일한 죄악과 미혹될 수도 있다.
- (3) 그러므로 죄악된 것은 그 모습이라도 버려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떠나 보내는 것이 회개자의 자세이며 성도의 본분이다(참조, 시 1:1; 살전 5:22).
- (4) 사실 진정한 회개란 마음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죄를 입술로써 고백하고 최종적으로 그 삶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참조, 삼상 7:3; 시 34:14; 사 1:16; 55:7; 마 3:8).
- (5) 그리고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의 가정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모든 불의한 것을 제하라는 의미이다.
- (6)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치해 있는 그 환경마저도 책임질 줄 아는 폭 넓은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삼상 2:29-36; 4:12-22; 마 5:13-16).

12. **㉠**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이 말은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 (2) 한편 소발은 욥이 회개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같은 논리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 (3) 다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 (4)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참조, 3:26; 6:4; 7:14).
- (5)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의 구조악에 얽매인다 하더라도 영혼은 크나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롬 8:18-21; 고후 3:17).

13. **㉠** ‘물이 흘러감 값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이 말은 15절과 같은 회개한 이후의 상태에 머물게 될 때에, 죄로 인해 당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의 징계를 잊게 되는데 심지어 그 환난에 대해 회상하고자 해도 물이 흘러내려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2)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영혼이 누리는 기쁨은 이전에 자신의 죄악으로 당하였던 고난과 비교하여 보면 그 고난이 너무 약한 인상만을 남기기 때문에 현재의 기쁨이 그것을 상쇄해 버린다는 것이다.
- (3)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14. **㉠** 소발은 욥에게 어떻게 하면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고 하였는가? (17절)
- ㉡** (1)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면 (13, 14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는 말은 밝은 장래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참조, 잠 23:18; 24:14).
- (3) 이것은 물론 죄악 중에 누리던 질은 흑암(10:21, 22)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강렬한 밝음을 의미한다(참조, 잠 4:18).
- (4)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과 진노는 모두 과거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참조, 요 5:24).
- (5) 그러므로 회개자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참조, 롬 6:3-5).
15. **㉠**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18절)
- ㉡** (1)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모든 삶의 확신을 주는 활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 (2)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현세의 영원한 소망은 번영과 행복에 대한 보장을 의미했다.
- (3)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 오면서 이 소망은 영적으로 풍성한 약속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안정감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참조, 롬 5:5; 엡 6:17; 살전 5:8).
- (4)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엡 2:11-13).
- (5) 만약 이러한 소망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5:19).
16. **㉠** ‘참(諛)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참을 드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라 프네>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거나 유쾌하게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2)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드물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도 있으며(시 45:13; 잠 16:6), 아침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 (3) 여기서는 아침하다라는 의미보다 은혜를 간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욥이 회개하면 다시 옛날과 같이 그의 위치가 회복될 것을 암시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떠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위로부터의 은혜와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참조, 시 45:10-12).
17. **㉠** 소발은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묘사하였는가? (20절)
- ㉡** (1) 소발은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의인의 형통과(15-19절) 대조적인 표현이다.
- (3)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진노의 칼을 빼신다면 악인은 안전한 피난처를 얻지 못할 것이다(참조, 신 28:65; 렘 25:35; 암 2:14).
- (4) 그리고 그 악인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질 것인데, 영혼 이것은 또는 생명의 호흡이 단절된다는 의미이다. 즉 궁극적으로 멸절해 버리고 만다는 뜻이다(참조, 3:21, 22; 6:7, 8).
- (5) 이처럼 악한 자에게는 다른 소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참조, 롬 5:12; 약 1:15).

## 연구자료

### 바람직한 신앙 상담

#### 1. 상담의 필요성

과학 기술의 침단을 견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및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신 그 부작용으로 '인간성 상실'이라는 일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은 대화의 단절과 극도의 소외감을 맛보게 되었고 급기야는 심리적(신앙적)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현대인들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이 가장 두드러진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담은 사회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분야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신앙 상담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말세적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2. 성경에 나타난 신앙 상담의 사례(事例)

성경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공식적 상담 사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의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담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참조, 4-37장; 요 3:1-21; 4:5-42). 특히 그 중에서도 본서에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과(4-37장),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요 4:5-42)은 신앙 상담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좋은 사례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담 사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신앙 상담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과 권장되어야 할 기본 원리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구분	욥의 친구들의 상담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
상 담 과 정	<p>① 그들은 상담자로서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로 상담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갔다.</p> <p>② 그들은 내담자(욥)가 처한 상황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데에만 주력했다.</p>	<p>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내담자(사마리아 여인)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물을 요청하셨고(요 4:7) 시종 일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이끌어 나가셨다.</p> <p>② 그리스도께서는 내담자의 현실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도 정확히 간파하셨다(요 4:16, 21).</p>

상담과정	③ 그들은 내담자의 호소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④ 그들은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⑤ 따라서 그들은 인격적, 신앙적으로 신앙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였다.	③ 내담자의 문제(죄)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셨다(요 4:16-18). ④ 영원한 생수에 대해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시고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찾도록 유도하셨다. 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 신앙적으로 신앙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다.
평가	음의 친구들은 음에게 조언과 충고를 던지고 있지만 그들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갈등, 신앙적 시험을 겪고 있는 음에게 조금의 도움조차 줄 수 없는 무능한 상담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상담은 신앙 상담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은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이 상담은 신앙 상담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신앙 상담의 제반 원리를 제공해 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 3. 바람직한 신앙 상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신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앙적으로 시험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담은 그들의 신앙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 상담은 내담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바로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의 상담 지식을 비롯해 성숙한 신앙 및 인격 등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이 요구되어진다. 다음으로 위 도표에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을 토대로 한 상담의 제반 원리들이 상담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 제 12장 소발에 대한 욱의 답변

단락구분 1-3 욱이 친구들의 지적(知的)인 교만을 비난하다 / 4-12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친구들의 견해를 비난하다 / 13-25 진지 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1 욱이 대답하여 가로되  
 2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 하나님께 불려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느니라  
 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 이니라  
 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이 이룰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0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1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

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15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7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21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22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 만국을 키치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24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25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 1. ㉠ 본장에 제시된 욱의 답변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본장에서 시작되는 소발에 대한 욱의 답변은 세 장(12, 13, 14장)에 걸쳐서 계속된다.  
 (2) 여기서 욱은 처음으로 그의 친구들을 강력한 어조(語調)로 비난했으며 또한 조롱하였다(2-4절; 13:4-13).  
 (3) 그런데 친구에 대한 그의 비난과 조롱은 그에게 있어서 2차적인 문제에 불과했고 그가 의도한 바는 자신이 앞에서 주장한 의견(6, 7, 9, 10장)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었다.  
 (4) 특히 본장에서 욱은 모든 사건의 진행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25절).  
 (5) 즉 욱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6) 그러나 비록 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강조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더라도

악의 근원적인 요소를 하나님에게 두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2. **㉠** 욕은 친구들의 지혜에 대하여 어떤 말로 비난하였는가? (2절)

- ㉠** (1) 욕은 오만한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비난하였다.  
 (2) 사실 욕의 친구들은 욕에 대한 충고를 통하여 욕을 위로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과 경험에 대한 자랑을 일삼았다.  
 (3) 이것은 욕으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들었으며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4) 이처럼 지적인 교만과 경험에 대한 자신을 높여 주기 보다는 친구와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며 끝내 그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다.  
 (5)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지성(知性)과 경험에 대한 우월성을 내세우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참조, 빌 2:5-8).

3. **㉠** 욕은 친구들의 충고로 말미암아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4절)

- ㉠** (1) 욕은 친구들의 잘못된 충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려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고 하였다.  
 (2) 여기서 ‘하나님께 불려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는 것은 욕 자신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욕의 속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욕 자신을 비난하여 모든 사람이 욕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11:3).  
 (4) 사실 한 개인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동기는 개인적인 감정(창 21:9) 과, 신체적인 결함(왕하 2:23),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애 2:15) 그리고 철저한 경건(시 42:3) 등으로 볼 수 있다.  
 (5)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불신앙의 자녀로부터 까닭없는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참조, 사 22:7; 마 26:67, 68; 행 2:13; 히 11:36; 유 18절).  
 (6) 우리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경험하게 될 때에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때문이다(참조, 마 5:11, 12).

4. **㉠** 욕은 자신이 평안한 사람들로 부터 비난과 조소를 듣게 된 근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5절)

- ㉠** (1) 욕은 자신의 발이 실족하여 재앙에 빠졌기에 평안한 자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편의(便益)에만 집착하여 있는 자들은 이웃의 재난을 동정하기 보다는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참조, 막 2:17).  
 (4)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종교와 형식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7).

5. **㉠** 욕은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욕은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즉 욕은 악인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며 모든 사건의 귀결을 당신에게 연관시키고 계신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악인의 성공을 장려하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서 완전히 떠난 절대 선(善)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참조, 례 19:2; 요삼 1:11).
- (5)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비록 순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성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날은 길지 못하다(참조, 시 37:35, 36).
6. **㉠**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 물어 보라고 하였는가? (7-12절)**
- ㉠** (1) 욥은 먼저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에게 찾아가 물어 보라고 하였다(7-9절).
- (2)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솜씨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의 전지 전능하신 주권에 복종하고 있다(참조, 시 104:26-30).
- (3) 사실 이것은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보고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참조, 시 19:1).
- (4) 계속해서 욥은 인류의 모든 종족도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였다(10절). 그러므로 인생의 유한한 경험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7. **㉠** **욥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략과 명철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욥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략과 명철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에게만 지혜와 권능과 모략 그리고 명철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 (3) 그분은 어느 한 때에 더 지혜롭거나 더 강하고 다른 때에는 덜 지혜롭고 덜 강하신 것이 아니다.
- (4) 시간과 경험 등이 그의 완전하신 속성에 첨가될 수 없다. 즉 그의 지혜와 힘은 변함이 없으시다.
- (5)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획득한 것이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그 분의 말씀과 인격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 119:105; 잠 1:7).
8. **㉠**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25절)**
- ㉠** (1) 먼저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없이 헐으신다(14절).
- (2) 두번째로 땅의 물들을 마르게도 하시며 넘치게도 하신다(15절).
- (3) 세번째로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하신다(17절).
- (4) 네번째로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18절).
- (5) 다섯번째로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신다(19절).
- (6) 여섯번째로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19절).
- (7) 일곱번째로 충성된 자들의 말을 폐지시키어 믿음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신다(20절).
- (8) 여덟번째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신다(21절).
- (9) 아홉번째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신다(22절).
- (10) 열번째로 나라들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를 주관하신다(23절).
- (11) 열한번째로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아 가신다(24, 25절).
- (12)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의

미한다.

9. ㉠ 욥은 인간의 삶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가? (14절)

- ㉠ (1) 욥은 인간의 삶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을 재난이나 다른 환경으로 에워싸 가두어 두시는데 그것은 인간에게서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해 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3:23; 19:8).  
 (3)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자는 그 어떤 세력도 해방시켜 줄 수 없다.  
 (4) 그러나 이 가혹하게 보이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롬 11:32) 라고 하였다.  
 (5) 이처럼 하나님의 가두어 두심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 수 있다(참조, 창 39:20-23).

10. ㉠ 욥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는다’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참조, 왕상 8:35), 또한 열어보일 수도 있는 분이시다(참조, 렘 14:22).  
 (3) 구체적인 실례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한재(旱災)를 허락하시고(왕상 17:1), 한편으로는 홍수로 세상을 덮으셨다(창 7:17-24).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통괄하셔서 당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 그것을 다스려 나가신다(참조, 창 6-9장).

11. ㉠ 하나님의 행사에 오류가 있는가? (16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오류도 없이 온전하게 계획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그러므로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목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믿음이 없는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시며(왕상 22장) 또한 당신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참조, 겔 14:9).  
 (4)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속이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된다(참조, 왕상 22:20-25; 사 19:13, 14; 겔 14:9; 살 후 2:1-4).

12. ㉠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인가? (18절)

- ㉠ (1)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표현이다(참조, 요 13:4).  
 (2)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군왕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이 사용하던 속박 정책을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 돌리신다는 의미로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사장들의 무리들을 수 치스럽게 하실 것이다(19절).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애쓰셨는데, 그러한 수 고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참조, 롬 8:2).

13. ㉠ ‘충성된 자’와 ‘늙은 자’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20절).

- Ⓐ (1) '충성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에마님>은 '신뢰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성뿐 아니라 윗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 (2) '늙은 자'는 산전 수전(山戰水戰)을 다 겪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12절; 잠 20:29), 이들의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산지식이다.
- (3)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충성된 자'와 '늙은 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14. ⓐ '은밀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2절)

- Ⓐ (1) '은밀한 것'이란 깊이 숨겨져 있는 계획을 말한다. 즉 악한 자가 어두움 속에서 꾸미는 음모를 가리킨다.
-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인 현상과 제한된 이성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6:17).
- (3)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까지 영향을 미치신다(참조, 요 14:26; 16:7-14).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신다. 즉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밖이라고 생각되었던 음부의 자리마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참조, 시 6:5; 139:8; 잠 15:11; 암 9:2).
- (5)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어두움을 빛으로 화하셔서 모든 것을 밝혀하시지만 이 세상 최후의 날에 있어질 심판에서는 더욱 분명히 하신다(참조, 고전 4:5).

### 화보자료

여호와와 그의 손. 아래의 사진은 지상에 빛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한 제단의 장식으로서 15세기의 작품이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와 그의 손'이라는 표현은 주로 그분의 활동(시 8:3)과 능력(9절; 출 8:19; 눅 11:20)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 제 13 장 계속되는 욕의 답변

단락구분 1. 13 욕이 친구들의 독선(獨善)을 질책하다 / 14-19 하나님을 향한 욕은 확신을 말하다 / 20-22 욕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간구하다 / 23-28 욕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3 참으로 나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5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꾀함을 말하려느냐  
 8 너희가 하나님의 낫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 만일 가만히 낫을 좇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11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12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임이요 너희의 망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6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달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짐벌을 따르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 피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27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28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썩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서 시작되었던 소발에 대한 욕의 답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2) 욕은 자기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자기도 알고 있음을 밝히면서 친구들이 그들의 이론을 욕에게 잘못 적용시켰다고 질책하였다(1-13절).  
 (3) 계속해서 욕은 그의 친구들에게 대한 비난에서 돌이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말하기로 결심하였다(14-19절).  
 (4) 마지막으로 욕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한 고통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20-28절).  
 (5)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주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곧 승리와

구원을 의미한다. 사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다.

2. **㉠** **㉠** **욥이 보고 듣고 통달하였다고 말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이것’이란 12:13-25에 언급된 사실을 가리킨다.  
 (2) 즉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당신의 주권으로 악인과 선인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한다.  
 (3) 이처럼 욥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듣고 그리고 그 분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하였다고 고백하였다.  
 (4) 사실 여호와 신앙은 피상적이고 초월적이어서 인간의 오감(五感)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에 기초한다(참조, 요일 1:1).  
 (5) 이와 같은 인간의 경험을 완전히 만족시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受肉) 사건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적 조건을 충족시킨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참조, 요 1:14).

3. **㉠** **㉠**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지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지적 수준에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2) 조금 전만해도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나이와 경험을 토대로 욥을 훈계하고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었다(참조, 4:8;5:27;8:8-10).  
 (3)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이 이미 간파(看破)하고 있던 사실들을 늘어놓음으로써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4) 이처럼 고난 받는 자에게는 원리 원칙을 내세워 거기에 그 개인의 상황을 맞추는, 이른 보다는 가슴으로부터 가슴에 전해지는 사랑과 위로가 더욱 필요하다.  
 (5) 그런데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 자라도 능히 위로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다(참조, 고후 1:2-4).

4. **㉠** **㉠** **욥이 ‘하나님과 변론(辯論)하려 하노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한 말인가?**

- ㉠** (3절)  
 (1) 이와 같은 욥의 말은 하나님과 다투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원한다는 의미이다(Keil).  
 (2)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과 변론하기를 원하신다(참조, 사 1:18).  
 (3) 하나님께서 인간과 변론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징책하고 정죄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義)를 따라 인간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고자 함이다.  
 (4) 이와 같이 인간이 당신 앞에서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지에 의한 것이다(참조, 사 55:1-6).

5. **㉠** **㉠** **분노한 욥은 친구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는가? (4절)**

- ㉠** (1)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가리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醫員)’이라고 하였다.  
 (2)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었다(2:11). 그리고 그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의사로 자처하였다.  
 (3) 그러나 그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와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욥을 위안하기 보다는 욥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는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고 말았다.  
 (4) 이처럼 사랑 없는 공의와 이해 없는 충고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더 큰 회의와 번민으로 몰아 넣고 만다.  
 (5)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떠한 상처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인류의 유일한 의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마 9:13).

(6)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다 (시 41:3, 4).

6. **Q**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충고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5, 6절)

- A** (1) 욥은 친구들에게 충고 대신에 침묵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그들의 지혜라고 하였다.  
 (2) 그 친구들은 처음 욥에게 찾아왔을 때는 7일간을 잠잠한 가운데 지냈었다(2:13).  
 (3) 사실 침묵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한 특징이다(참조, 잠 17:28).  
 (4)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지혜로운 자의 자리를 떠나 어리석은 변론으로 친구 욥을 번뇌케 하였다.

7. **Q** 욥이 말한 것을 기초로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한 사람들이었는가? (6-11절)

- A** (1) 욥의 생각에는 자기 친구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위해 변호한다고 보았다.  
 (2) 그러나 그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욥에게 적용시켰을 뿐이다.  
 (3) 즉 이 세상의 번영이나 파멸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욥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4) 어쨌든 욥은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10, 11절).  
 (5) 욥의 견해처럼 요즈음 인기와 부(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는 샅군 목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참조, 미 6:8).

8. **Q** 욥은 친구들의 충고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2절)

- A** (1) 욥은 친구들의 충고가 재같은 속담이고 그들이 방어하는 것은 토성(土城)과 같다고 하였다.  
 (2) 즉 욥은 친구들의 충고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하였다.  
 (3) 이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언어와 깊은 사고에서 출발한 충고라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다.

9. **Q** 욥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멸망을 초래시키지 않겠다는 뜻에서 어떤 말을 하였는가? (14절)

- A** (1) 욥은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는 말로 자신이 고의적인 멸망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내었다.  
 (2) 즉 욥은 사나운 맹수가 서로 상대방을 물고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고의적으로 파괴하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욥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고난의 이유는 깨닫지 못했다.  
 (4)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유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자신의 결백만을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  
 (5)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 이러한 겸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참조, 잠 3:34).

10. **Q** 욥이 했던 ‘내가 소망이 없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 16절)

- Ⓐ (1) '내가 소망이 없노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그를 믿노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2) 즉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죽일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말이다.
- (3) 욥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할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참조, 히 12:2).

11. Ⓢ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그에게 행하시든(13절)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지라도(15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이다.
- (2) 이처럼 욥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하였다.
- (3) 욥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사곡(邪曲)한 무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즉 그는 자신의 무죄성(無罪性)을 믿고 있었고 결국 그 무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참조, 시 15편).
- (5) 구원이 선행이나, 선물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대단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다(참조, 1:1; 약 5:11).
- (6)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을 아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고 진실된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다(참조, 단 3:8-18; 6:10-27).

12. Ⓢ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18, 19절)

- Ⓐ (1)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의(義)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구속자의 자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총에 근거한 것이었다(참조, 19:25-27).
- (2)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과 자비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義)를 주장할 수 있다(참조, 시 26:1; 사 38:3; 요 21:17; 롬 9:1; 요일 3:21).
- (3) 그러나 자신의 의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워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죄인의 생각임에 분명하다(참조, 시 143:2; 롬 3:20).
- (4) 그런데 비록 아무리 피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가까이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의 칭호를 허락하신다(참조, 롬 8:1; 히 4:6; 7:25; 10:22).
- (5) 이러한 은택을 힘입은 자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롬 8:33) 라고 외칠 수 있다.

13. Ⓢ 욥이 하나님께 간구한 2가지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욥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것과 다음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21절).
- (2) 만약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노라고 하였다(20절).
- (3)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또한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성(無罪性)을 변호하겠노라고 하였다.
- (4) 이와 같이 욥은 고난의 조건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호소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는 처사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50:15; 눅 23:40-43).

14. Ⓢ '주의 손을 대지 말아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 (1) 이 말은 '주의 고난의 손길을 대지 말아 달라'는 말이다. 즉 욥은 그의 육체적인 고난

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참조, 2:10).

- (2) 사실 하나님의 손은 가끔 지혜와 능력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참조, 삼상 5:6, 7; 시 32: 4 ;38:2; 사1:25).
- (3) 하나님은 고난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참조, 33:17-19; 잠 3:11, 12; 젤 20:37) 그것을 제거하시는 능력도 소유하셨다(참조, 시 66:12; 마 5:4; 요 16:20).
- (4)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성도에게 내리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영혼을 더 연단시키고 순수하게 만드는 데 유익하다(참조, 36:8, 10; 사 48:10; 히 12:11).
- (5) 그러므로 신앙 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영혼이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참조, 42:5).

15. **㉠** 욱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한 내용은 무엇인가? (23절)

- ㉠** (1) 욱이 하나님께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2) 이런 욱의 기도는 참으로 적절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 (3) 사실 범죄한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성(罪性)을 분명하게 발견 할 수 없을 뿐 더러 범죄 사실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다.
- (4) 하나님의 깨우침이 아니고는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였던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죄악을 옳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참조, 시 69:5; 73:23; 눅 16:15).
- (5)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과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시고(참조, 시 94:12; 롬 7:9) 성령의 조명(照明)으로 알 수 있게 하신다(참조, 요 16:8).

16. **㉠** 욱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에 놓였다고 보았는가? (24-27절)

- ㉠** (1) 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였다(24절).
- (2) 사실 욱은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16절).
- (3) 그러나 그는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굉장한 간격을 두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4)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처럼 큰 간격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상실하였다고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이다(참조, 시 30:5; 63:3).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러한 고통을 맛보셨다(참조, 마 27:46).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2).

17. **㉠** 욱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어디까지 소급해 올라가 생각해 보았는가? (26절)

- ㉠** (1) 욱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이미 회개하여 잊어버린 그의 젊었을 때의 죄악까지 소급해 올라가 생각해 보았다.
- (2)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신다. 즉 하나님은 결코 당신 스스로 용서하신 범죄를 다시 기억하여 처벌하지 않는다(참조, 사 43:25; 마 7:18, 19).
- (3)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용서받지 못한 젊은 날의 범죄 사실은 종종 늙어서 갑작스럽게 기억될 경우가 있다.

- (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 악인으로 하여금 그의 젊은 날의 무절제와 방탕함에 대해서 노년에 이르러 그 아픈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하시는 것이다.
- (5)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생활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참조, 전 12:1). 그리고 젊은 날의 기억을 더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된다(참조, 시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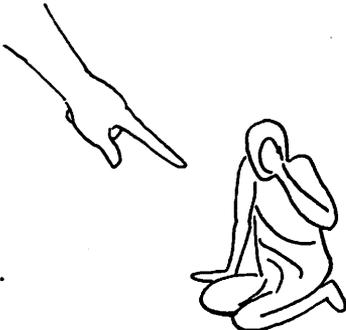
18. **㉠** 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유를 모두 박탈해 가셨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27절)

- ㉠** (1) 욘은 '내 발을 착고(着網)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대'라는 표현을 빌어 자신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2) 이처럼 고난받는 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냉혹한 분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는 마치 죄수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3) 그는 예레미야(렘 20:2;29:6)와 바울 그리고 실라(행 16:24)의 단순한 경우처럼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죄수의 자격으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 (4)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욘의 오해에 불과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 하는 자를 결코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49:25; 대하 14:11; 시 37:40; 121:1, 2).
- (5) 그러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아 자유를 모두 상실해 버렸다고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19. **㉠** 욘은 자신의 지금 형편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28절)

- ㉠** (1) 욘은 자신의 지금 형편이 '썩은 물건의 후패(朽敗)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다'고 하였다.
- (2) 즉 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고 자유마저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와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고 말했다.
- (3)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된 자는 아무런 존재 가치와 소망을 찾을 수 없다(참조, 시 10:11; 13:1; 호 4:6-10).
- (4)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먹은 의복이나 아무 쓸데없는 물건 같으나 끝내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이며 새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참조, 시 37:24; 잠 24:16).

본장의 요절



'사곡(邪曲)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6절).

# 제 14 장 욕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단락구분 1-6 욕이 하나님에게 고난의 자리를 옮겨 달라고 탄원하다 / 7-12 인간의 생(生)이 매우 짧다고 하다 / 13-15 내세(來世)에 대한 욕의 신앙 / 16-17 욕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호소하다 / 18-22 욕이 죽음을 예견하다

1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2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5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 그에게서 눈을 들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군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7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 물 기운에 움이 들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찾아서 마름같이  
 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13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일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나이다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었고 나는 대답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16 그러하오나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17 내 허물을 주머리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까  
 18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흠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 물은 들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까  
 20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21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이다

## 1. ㉠ 본장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소발에 대한 욕의 마지막 답변이 기도문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2) 본장에서 욕은 하나님의 예지(豫知)를 인정하는 한편(5절) 인생의 유한성을 강조했다.  
 (3) 욕은 자기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들이며 죄성의 본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4) 이런 이유에서 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하지 않게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5) 이와 같이 그는 구원에 대한 소원을 표시하였지만(13-17절) 곧이어 희망을 상실한 슬픔에 잠기게 된다(18절).  
 (6)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의감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7)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들마저도 인간적인 꾀에 빠져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성 과 판단을 더욱 의지하므로 실의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2. **㉠**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1, 2절)

- ㉠** (1)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욥은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괴롭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철저한 비판 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 (3) 여기서 인생이 꽃과 같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시 103:15; 사 40:6; 약 1:10) 거의 대부분이 순간적인 생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벤 전 1:24).
- (4)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자와 같다는 표현은 불투명한 존재로서 밤의 장막 속에 곧 묻혀 버릴 인생을 두고 한 말이다(참조, 8:9; 시 102:11; 144:4).
- (5) 그런데 이러한 비판주의적 입장이 지나치게 부정적일 때는 그 삶을 포기해 버린다거나 잘못된 인생 방향을 설정하여 일생을 망쳐 버릴 수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비판주의적 입장이 신앙 안에서 생성될 때는 오히려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을 준다. 즉 이 세상을 향하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은혜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참조, 시 39:4-7; 90:1-17).

3. **㉠** 욥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감시에 대한 방어적 수단은 무엇인가? (3절)

- ㉠** (1) 욥은 하나님께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성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 (2) 그는 이러한 나약함과 죄악성을 내세워 이렇게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 (3) 그러나 성경에는 비록 인간이 나약하고 죄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창 4:7; 출 32:33; 겔 18:4).
- (4) 사실 인간이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악에 대항할 수 없거나 땅위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 (5)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약하고 죄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신 앞에서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창 6:3, 5; 시 103:14).

4. **㉠** 욥이 인간을 가리켜 모두 죄인임을 시사(示唆)한 말은 어떤 것인가? (4절)

- ㉠** (1)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말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시사하였다.
- (2) 욥의 이 말은 인간이 자신들의 원죄(原罪)로 인해 순수함이 자신들 안에 내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즉 모든 인간은 유전적인 타락성으로(참조, 창 5:3; 6:5; 시 51:5; 롬 15:12-20; 고전 15:22; 엡 2:3) 한 사람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참조, 11:12; 시 58:3; 잠 22:15).
- (4)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 3:6).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뜻이다(참조, 롬 7:4).

5. **㉠** 욥이 하나님의 예정(豫定)하심을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制限)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 (2) 욥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한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삶을

두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그어 놓으셨다고 하였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언제 죽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참조, 단 5:26).

6. **㉠** 욕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6절)

- ㉠** (1) 욕이 하나님에게 간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고 품군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해달라는 것이다.
- (2) 즉 욕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찾지 말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화의 휴식과 마음껏 숨쉬는 순간을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 (3) 계속해서 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 한번 죽음의 날을 이미 정하셨으니(5절) 자기를 끊임없는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 넣지 마시고 품군과 같이 그 끝나는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 (4) 이처럼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영혼이 공포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의 기한마저 채우기를 거부한다.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에게 이러한 고통이 밀려 왔을 때 결코 참아내지 못하고 자포 자기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참조, 사 57:21).
- (6) 그러나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시 32:1)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33:26; 시 89:15; 요 16:22)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평안함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7. **㉠** 욕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였는가? (7-12절)

- ㉠** (1) 욕은 인간이 나무보다도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 (2) 즉 나무는 비록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므로 소망이 있거나 인간은 한 번 찍혀 버리면 드러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참조, 잠 11:3).
- (3)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진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통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1:10).

8. **㉠** 욕이 말한 '음부'(陰府)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욕이 말한 '음부'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나 무덤이기 보다는 죽은 영들의 거주지일 것이다(참조, 10:21, 22).
- (2) 욕은 이 '음부', 즉 어두움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회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기를 원하였다.
- (3) 이처럼 욕은 음부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휴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재난을 피하여 숨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 (4) 그러나 욕은 이러한 음부에서의 생활을 영원히 지속하려 하지 않았다. 즉 음부에서의 일정한 기간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였다.
- (5) 이런 의미에서 욕은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사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자는 어떠한 삶의 위치에 머문다 할지라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참조, 창 8:1).

9. **㉠** '나의 싸우는 모든 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인가? (14절)

- ㉠** (1) '나의 싸우는 모든 날'이란 욕이 이 세상에 살아 있었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욕은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비록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의 생애의 모든 기간을 참아 견디어 내겠다고 하였다.
- (3) 사실 성도들이 험난한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생(生)이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4) 만약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무가치하고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5:16-19).

10. **Q** **욥은 자기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하겠노라고 하였는가? (15절)**

- A** (1) 욥은 자기가 음부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 대답하겠노라고 하였다(참조, 13절).
- (2) 즉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신다는 것은 음부에 있는 욥을 위로하시며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뜻한다(Matthew Henry).
- (3) 그리고 욥이 대답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의미한다.
- (4) 욥이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 (5)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 즉 욥의 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참조, 10:8-12).
- (6)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도 평안함과 소망을 지닐 수 있다(참조, 시 23편; 요 15:9).

11. **Q**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관찰하신다는 의미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 (16, 17절)**

- A**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살피신다는 의미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나의 죄를 살피신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 '내 죄악을 싸매신다'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 (2) 이처럼 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태도가 자신을 보호해 주시려는 사랑(13-15절)에서가 아니라 죄를 철저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해서라고 보았다.
- (3) 여기서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허물을 간직하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허물들을 끄집어 내어 욥에게 정죄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신 32:33, 34).
-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실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살피신다. 특히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참조, 시 33:13; 롬 8:27).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율법을 불리하게 적용시키지도 않으신다(참조, 11:6).

12. **Q** **욥은 번영하던 인간의 파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8, 19절)**

- A** (1) 욥은 '급작스런 산의 붕괴'와 '제자리에서 옮겨진 바위' 그리고 '끊임없는 물의 흐름에 의해 닳아진 돌'과 '넘치는 물에 의해 제거된 티끌'이라는 말로 번영하던 인간의 파멸을 묘사하였다.
- (2) 즉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순간적인 시간이나 기나긴 시간 속에 산이나 돌이 사라지듯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어떤 한 시점(時點)에 멸망해 버린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욥은 인간의 허약함을 자연의 여러 현상을 통하여 묘사하였다.
- (4) 여기서 인간의 존재가 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참조, 시 90:1-17).
- (5)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여 자신의 허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13. **Q**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계획과 스스로 기뻐하셨던 모든 기대를

꿨으신다는 말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내리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육체와 함께 땅에 묻어 버리신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죽음은 세상적인 확신 위에 세워지고 세상적인 위로와 기쁨만을 주는 모든 소망들을 끊어버리는 작용을 한다.
- (4) 무력한 인간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참조, 히 9:27).
- (5)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록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불멸의 소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참조, 벰전 1:3).

14. **㉠** **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항상 승리한다고 하였는가? (20절)**

- ㉠** (1) 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신다고 하였다.
- (2) 즉 욕이 말했던 이 싸움은 생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서 하나님이 늘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신다고 하였다(참조, 전 6:10).
- (3)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코 생명을 주관할 수 없을 뿐더러 죽음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참조, 전 8:8).
- (4)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승리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참조, 시 104:29).
- (5) 그러므로 자기의 이러한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눅 23:39-43).

15. **㉠** **욕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음부로 떨어져 버린 자의 형편이 어떠한다고 했는가? (21절)**

- ㉠** (1) 욕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음부로 떨어져 버린 자는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卑賤)하나 그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즉 음부로 떨어져 버린 존재는 그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가 인연을 맺고 있었던 형제들의 소식마저 전해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참조, 7:10; 20:9; 시 103:16).
- (3)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죽은 자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전 9:5).
- (4) 이와 같은 간격은 아무도 좁힐 수 없다(참조, 눅 15:7; 16:2; 히 12:1).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6. **㉠** **욕은 음부로 내려간 자의 마음과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22절)**

- ㉠** (1) 욕은 음부로 내려간 자의 육체는 아픔을 느끼며 그 마음은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했다.
- (2) 즉 욕은 죽은 자의 시체는 분해의 과정을 겪는 동안 극단적인 고통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마음(영혼)은 그의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간혹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절망적인 감정을 가질 때도 있다(참조, 시 6:5).
-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라면 자신의 없어진 육체나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동경해서 탄식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8:23).

## 제 15 장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

단락구분 1-6 엘리바스가 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하여 비난하다 / 7-10 엘리바스가 음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탓하다 / 11-16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 음을 책망하다 / 17-35 엘리바스가 전래적인 교훈으로 악인의 종말을 거론하다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3 어찌 유초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떡하였구나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숨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7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8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11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은유하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12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13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14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15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실 같이 하는가 중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17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19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음으로 외인은 그

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20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헛수는 작정되었으므로  
 21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22 그가 어두운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갑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23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25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26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27 그 얼굴에는 살이 지고 허리에는 기름이 영기었고  
 28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들 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29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30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가 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가 떠나리라  
 31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장이 될 것임이라  
 32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33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4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것이라  
 35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에 궤환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음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첫번째 논쟁(3-14장)이 끝나고 본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지 두번째 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에서 엘리바스는 과격한 말투로 욱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는 욱이 헛된 말장이며(1-6절) 연장자(年長者)의 지혜를 무시하고(7-10절)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11-16절) 자라고 비난하였다.
- (3) 그리고 고대 현인(賢人)들의 지혜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4) 이처럼 친구들의 위로와 의견에 대하여 전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욱과 그 친구들 간의 간격은 변론이 거듭됨에 따라 더욱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흔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충고와 변론을 서로간의 감정이 충돌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가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 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빌2:1-3).

2. ㉠ ‘동풍(東風)으로 그 품에 채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여기서 먼저 ‘동풍’이란 일종의 열풍으로서 근동 지방에서는 농작물에 해로운 바람이다(참조, 창41:6, 23; 렘18:17; 젤17:10; 호13:15).
- (2) 그러므로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운다’는 말은 마음속에 동풍과 같이 무가치 하고 해로운 것으로 어지럽다는 말이다.
- (3) 엘리바스가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을 빌어 욱을 비난하게 된 것은 욱이 처한 현실을 옳바로 이해해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 (4)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범하는 과오 중에 하나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신앙관을 바탕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다.
- (5) 이러한 판단은 결국 또 다른 판단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참조, 마7:1, 2).
- (6) 그러므로 성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참조, 요17:17).

3. ㉠ 엘리바스는 무엇을 근거로 욱이 ‘하나님 경외(敬畏)하는 일을 폐(廢)하였다’고 하였는가? (4절)

- ㉠ (1) 엘리바스는 욱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지나친 발언을 일삼은 것(13:3, 15, 22)과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것(13:18),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13:16)을 떠벌렸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였다고 하였다(참조, 3절).
- (2) 즉 엘리바스는 상식에서 벗어난 욱의 발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욱의 불경건한 발언이 욱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도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하였다.
- (4) 욱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자기의 경건 생활 뿐만 아니라 형제의 신앙 생활마저 망쳐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임이 분명하다(참조, 마23:13; 막9:42).

4. ㉠ 엘리바스는 욱을 정죄(定罪)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5, 6절)

- ㉠ (1) 엘리바스는 욱을 정죄한 것이 엘리바스 자신이 아니라 욱의 입술이라고 하였다(6절).
- (2)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욱이 종교성을 구실로 삼아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엘리바스는 욱을 외식(外飾)하는 자로 몰아 세워 욱의 범죄 사실을 단정지으려 하였다.

- (4) 사실 외식하는 자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일삼지만 결국 그 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定罪)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참조, 눅 19:22; 딛 3:11).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말을 꺼내기 전 자신의 삶 주위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 엘리바스는 무엇을 예로 들어 욥의 지식과 경험을 책망하였는가? (7-10절)
- ㉡** (1) 엘리바스는 욥이 인류 최초의 사람도 아니며(7절)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전달받은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8절) 욥이 그 친구들의 나이보다 어리다는 것(9, 10절)을 예로 들어 욥의 지식과 경험을 책망하였다.
- (2)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논리 전개는 늙은 사람이 지혜와 인품에 있어서 젊은 자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데 있었다.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레 19:32) 이 말씀은 노인의 오랜 세월을 통한 체험과 인생의 산지혜를 존경하라는 뜻이다.
- (4)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그 심판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겔 9:6).
- (5) 또한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대신들의 충고보다 어린 자기 또래의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참조, 왕상 12:6-20).
- (6) 오늘날 많은 젊은 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부모들조차도 세대 차이(世代差異)를 내세우면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7) 이와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만든다.
6. **㉠**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1절)
- ㉡** (1)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참조, 고후 1:3; 7:6). 즉 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연민(시 103:13)과 남편의 사랑(호 2:14)으로 인간을 위로하신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었다(참조, 고후 1:5; 빌 2:1).
- (3)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 (4)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7. **㉠**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12, 13절)
- ㉡** (1)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의 말과 행동이 교만하고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으로 보였다.
- (2) 즉 욥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 오만 불손하고 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서 결코 겸손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12절).
- (3) 더우기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고 하였다(13절).
- (4) 그러나 욥이 발언한 내용은(3, 6, 7, 9, 10, 12-14장)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저주한 것은 아니었다.
- (5)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비판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성급한 판단을 삼가해야 한다.
- (6)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춧돌 위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7:17).
8. **㉠**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인간관(人間觀)은 어떤 것이었는가? (14-16절)
- ㉡** (1) 엘리바스는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깨끗치 못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욥에 대한 반박의 말이다.
- (2) 그러나 욥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고 있었으나(9:20; 14:4) 단지 욥의 주장은 자기

가 당하는 징계가 자기 악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 (3)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한 ‘거룩한 자들’ (15절)이란 이어져 나오는 ‘하늘이라도’란 말에 비추어 볼 때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존재이다 (참조, 사 6:2).
- (4)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보다 못한 인간은 더욱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 (5) 인간은 자기의 위치가 완전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고 자신의 죄인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7)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바로 알 때 참된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된다(참조, 롬 7:25).

9. **㉠** 엘리바스는 참된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는가? (17-19절)

- ㉠** (1) 엘리바스는 참된 지혜가 나이 많은 자나 조상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다(10, 18절).
- (2) 이와 같은 견해는 진리 변증에 있어서 전통주의(傳統主義)에 속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는 말은 그들이 옛부터 이어받은 권위 있는 전통적인 지혜가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가르침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4) 즉 엘리바스의 주장은 욕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단순히 전통적인 권위를 내세워 욕의 생각을 교정시키려는 의도인데 이것은 권위에 호소한 논리적인 모순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적인 권위주위는 사도적 신앙의 전승(傳承)이 지닌 권위와 같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참조, 갈 4:13-15).

10. **㉠**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 준 말에 의하여 악인이 당할 환난과 벌은 어떤 것이라고 하였는가? (20-24절)

- ㉠** (1) 먼저 악인은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다(20절).
- (2) 두번째로 악인의 생(生)은 이미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악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 (3) 세번째로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소식이 갑자기 들린다고 하였다(21절).
- (4) 네번째로 형통(亨通) 하는 듯하지만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였다(21절).
- (5) 다섯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다고 하였다(22절).
- (6) 여섯번째로 어떤 대적이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22절).
- (7) 일곱번째로 방황하며 음식을 구하게 된다고 하였다(23절).
- (8) 여덟번째로 사망할 날의 임박함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23절).
- (9) 마지막으로 환난이 악인을 계속 위협하다가 반드시 삼켜버린다고 하였다(24절).
- (10)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파멸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서 고금(東西古今)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다(참조, 살 후 2:8; 계 19:15).

11. **㉠**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25-28절)

- ㉠** (1)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25, 26절).

- (2) 사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교만스러운 거부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서 기인한다(참조, 눅 19:14, 27; 롬 8:7).
- (3)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27절). 즉 그들의 신(神)은 배(복부)이다(참조, 빌 3:19).
- (4) 사치스러운 삶은 모든 사람이 목적하는 것이지만(참조, 눅 12:19), 이것은 때때로 악인의 특징을 규정짓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시 17:14; 73:7; 눅 16:19).
- (5) 바울은 이런 점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하였다(딤후 6:10).
- (6)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감각하다고 하였다(28절). 악인들의 양심과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져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 (7) 왜냐하면 모든 죄는 양심의 무감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참조, 엡 4:19).

12. **Q** 엘리바스는 악인과 재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었는가? (29절)

- A** (1) 엘리바스는 악인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구히 보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즉 악인의 형통(亨通)함은 그의 재산에 있어서도 영원하지 못하고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3) 악인들의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있다면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재산을 모으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 (4)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아무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물 그 자체가 유한한 것이며 또한 그 재물을 탈취하려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참조, 마 6:19; 눅 12:16-21).
- (5) 예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재물을 하늘나라에 축적하라고 했다(마 6:20). 즉 모든 재물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치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다.

13. **Q** 엘리바스는 악인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보았는가? (30절)

- A** (1) 엘리바스는 악인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았다. 즉 악인은 흑암한 데(23절)를 떠나지 못하고 불꽃이 가지를 말려 열매나 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불꽃’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참조, 사 5:24; 29:6).
- (3) 이처럼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모두 타 없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입김에 그의 바라던 것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참조, 4:9; 사 30:33).
- (4) 그러므로 소망 없는 악인에게 접근하여 순간적인 부와 명예를 나누고자 하는 자는 악인과 같은 소망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14. **Q** 엘리바스는 악인들에게 주어질 보응(報應)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31절)

- A** (1) 엘리바스는 악인들에게 주어질 보응은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악인을 떠받들고 있는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이며 쓸모없고 궁극적으로 사라져 버릴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 (3) 이러한 보응은 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업 자득인데 그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며 그들이 계획한 악한 꾀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피곤하고 무가치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가장 값진 것으로 드러나는 신령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37:1-6; 갈 6:9).

15. **Q** ‘그의 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32, 33절)

- A** (1) ‘그의 날’이란 악인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끝나는 날을 가리킨다.
- (2) 악인은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죄과로 인하여 마치 설익은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듯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33절).
- (3)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죄과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할당될 것이며 그의 삶은 충분히

지불될 것이다. 그 값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다(참조, 롬6:23).

- (4) 이처럼 악인은 그의 생명의 자연적인 종말이 되기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는 반면 경건한 자는 생명의 연장이라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다(참조, 왕하 20:8-11; 시 55:23).

16. **㉠** ‘사곡(邪曲)한 무리’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34, 35절)

- ㉠** (1) ‘사곡한 무리’란 때묻고 불경건하며 외식(外飾)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2) 즉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로서 종교를 사칭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의(義)를 미끼로 삼아 인간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말한다(참조, 27:8; 36:13).  
 (3) 이러한 자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에 간사한 일을 예비하기 때문이다(35절).  
 (4) 요즘읍 교회가 시끄럽고 교계가 어지러운 것은 이와 같이 ‘사곡한 무리’들의 악한 소행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화보자료**

노인. 아래의 사진은 도시의 문 가까이에 앉은 현자(賢者)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근동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레 19:32; 잠 16:31). 본장에서 엘리바스는 욕에게 나이 많은 자의 충고를 들으라(10절)고 권면하고 있다.

# 제 16 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번째 답변

단락구분 1-5 욥이 무정한 친구들을 질책하다 / 6-16 욥은 자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다 / 17 욥이 자기의 기도가 정결(淸潔)하다고 하다 / 18-22 욥은 자기의 무죄를 증거함. 증인이 하늘에 있다고 하다

1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  
 녀게 하는 안위자로우나  
 3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  
 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  
 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  
 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라  
 7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  
 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  
 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  
 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9 그는 진노하시나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10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친  
 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  
 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쥐으시며 내 목  
 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  
 녀를 삼으시고  
 13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쬐고 내 쓸개로 땅에 흩어나오게 하시  
 는구나  
 14 그가 나를 쥐고 다시 쥐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5 내가 굶은 베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  
 는 정결하니라  
 18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  
 음으로 쉼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  
 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  
 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욥은 엘리바스의 노골적인 비판에 대하여(15장) 본장과 17장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변 호하였다.
- (2) 본장에서 친구들의 충고에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밝힌 다음 자신의 증보자인 하나님께 이 모든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 (3) 욥은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증보자도 없음을 밝힌 적이 있다(9:33). 그러나 본장에서 욥은 ‘증인’ 또는 ‘보인’(保人)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4) 이처럼 욥은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된 신인(神人)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보자되심을 알지 못하였으나(답전 2:5)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참조, 히 1:3; 2:9, 10, 17, 18; 4:14-16).

(5)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발견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게 만든다(참조, 42:2-6; 약 1:2-4; 5:11).

2. **㉠** 욱은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하였는가? (2절)

- A** (1) 욱은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煩惱)케 하는 안위자(安慰者)라고 하였다.  
 (2) 즉 욱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대신에 격노케 하였으며 치유 대신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고, 도움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하였다.  
 (3)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은 마련해 주지 않고 일상적인 진리만을 늘어 놓아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그의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고통을 가중시켰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불편한 이웃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높은 지식 수준과 많은 경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로해야 할 것이다(참조, 빌 1:8).

3. **㉠** ‘머리를 혼드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행동인가? (4절)

- A** (1) ‘머리를 혼드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정죄(定罪)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이다(참조, 시 22:7; 사 37:22; 렘 18:16; 마 27:39).  
 (2) 이 말을 꺼낸 욱의 의도는 만일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이 자기의 현재 위치(고난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도 친구들을 향하여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논조(論調)로 친구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3) 이처럼 욱은 친구들의 권면이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일축해 버렸다.  
 (4) 사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편에서 말하기를 즐겨하며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쁘다(참조, 잠 18:13).  
 (5)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해 주며 또한 상대방의 고난을 함께 걸머지는 실천적 사랑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잠 17:27, 28; 갈 6:1-5).

4. **㉠** 욱은 만약 자기가 친구들의 위치에 있다면 무엇으로 친구들을 강하게 하며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는가? (5절)

- A** (1) 욱은 만약 자기가 친구들의 위치에 있다면 ‘입으로’ 친구들을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친구들의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이 말은 물론 욱이 실지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진리와 공의(公義)를 말하는 친구들의 태도를 질책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3) 사실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소유했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고전 13:2) 욱의 친구들은 입술로만 그의 고난에 동참했지 욱의 함께 나누는 사랑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4)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입술의 사랑을 종결시키고 행동하는 사랑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3:18).

5. **㉠** 욱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6절)

- A** (1) 욱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는 말로 표현하였다.  
 (2)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대화가, 또 어느 때는 침묵이 위로가 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욱은 그 어느 방법으로도 위안을 찾지 못했다.  
 (3) 그가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라기보다는 고난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참조, 7-17절).  
 (4) 이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평안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그 고난의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5) 그러나 이러한 고뇌의 이유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곧 새로운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참조, 히 7:25).

6. **㉠** ‘나의 무리를 패괴(敗壞)케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가족을 멸망시켰다는 말이다.

(2) 여기서 욥은 자기의 고난 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무리들의 고난과 죽음마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3) 이처럼 행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은 신앙의 기능(機能)인 동시에 신앙의 즐거움이다.

(4) 이와 같이 환난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의지한다(참조, 호 6:1-3).

(5)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진노와 불행만을 조성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사랑과 은혜의 주체로서 이해해야 한다(참조, 시 94:12; 잠 3:12; 히 12:6; 계 3:19).

7. **㉠** 욥은 자기가 범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8절)

**㉡** (1) 욥은 자신의 만신 창이가 된 육체가 범죄한 인간임을 증거해 준다고 하였다.

(2) 즉 자신의 쇠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친구들이 그 육체를 보고 자기를 극악한 죄인이라고 비방하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3) 흔히 사람들은 이웃의 외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

(4)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웃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8:3-11).

8. **㉠** 욥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9절)

**㉡** (1) 욥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 나를 짓고 군박(窘迫)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뵈족한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하였다.

(2)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미워하신다고 하였다. 실제로 욥은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3)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극단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자를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는 행동이다(참조, 시 35:16; 37:12).

(4) 그리고 ‘뵈족한 눈으로 본다’는 표현은 ‘날카로운 칼같은 눈으로 본다’(Targum 역), 즉 죽이려는 기세로 노려보는 것을 묘사하는 시적인 묘사이다.

(5) 이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극한 고통을 의미한다.

(6)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대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7)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당신의 백성에게 대적(對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당신의 백성에게 엄정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로서 나타나실 뿐이다(참조, 히 12:5-9).

9. **㉠** 욥은 자기의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였다고 했는가? (10, 11절)

**㉡** (1) 욥은 자기의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뱀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고 하였다(10절).

- (2) 여기서 욥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 불경건한 자 또는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당하는 모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 (3) 욥의 고난은 다윗의 경우와 유사한데(시 3:1, 2)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 (4) 즉 ‘입을 벌리며’(시 22:13), ‘천대하여 뺨을 치며’(미 5:1), ‘함께 모여 대적한다’(시 35:15) 라는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다(참조, 마 26:67; 27:30; 눅 22:64; 요 18:22).
- (5) 여하튼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신 것같이 말하고 있다(11절).
- (6) 성도에게 있어서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린 바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한다(참조, 사 40:27).
- (7) 왜냐하면 성도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6:68).

10. **Q**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12-14절)

- A** (1)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고난을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부상한 상처에 비유하였다. 즉 참아 견딜만한 것이 아니라 지독한 아픔으로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참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참조, 고후 12:7; 약 1:2; 벰전 1:6).
- (3)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었다.
- (4)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어찌면 욥과 같은 고난의 연속(14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참조, 약 1:2-4).

11. **Q** 욥은 고난 속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 16절)

- A** (1)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굵은 베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굵은 베를’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위치가 변하였다는 것과 깊은 애도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시 35:13; 사 3:24; 단 9:3; 마 11:21).
- (3) 그리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한 것은 그의 권세와 명예, 그리고 품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 (4) 더우기 그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며 고통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뿌렸던 것이다(참조, 왕하 20:1-7; 시 56:8; 사 22:12; 눅 6:21; 약 4:9).
- (5) 이처럼 욥은 고난 중에서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기도야말로 미래가 약속되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히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덧입히시기 때문이다(참조, 약 4:6).

12. **Q** 욥은 자신의 행위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17절)

- A** (1) 욥은 자신의 행위와 기도에 대해서 ‘내 손에는 포학(暴虐)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고 하였다.
- (2) 이처럼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의 악행(惡行)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였다.
- (3) 성도의 삶에 악행과 범죄의 흔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참조, 사 1:5).

(4) 즉 기도란 삶과 동떨어진 피상적인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모아 하나님께 아뢰는 사실적인 언어이다(참조, 마 6:5-15; 7:21).

13. **㉠** **Q** **음**은 만약 자기의 손에 포학(暴虐)이 있었고 자기 기도에 부정(不淨)이 곁들였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였는가? (18절)

**㉠** (1) 음은 만약 자기의 손에 포학이 있었다면 그것이 숨겨지지 않기를 원하였다.

(2) 이런 의미에서 음은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즉 내가 흘렸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의 무죄한 피를 가리우지 말라고 하였다(참조, 창 4:10, 11).

(3)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도에 부정이 곁들여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다.

(4) 우리의 기도에 순수함이 없고 그 속에 부정과 자기 이익이 숨어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참조, 시 66:18; 약 4:3).

14. **㉠** **Q** **음**은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이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9절)

**㉠** (1) 음은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이에 대하여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保人)이 높은 데 계시니라’고 하였다.

(2) 즉 음은 이 세상은 비록 그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하늘에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자가 계시어서 그가 자기의 호소를 들으시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였다.

(3) 형제로부터 까닭없이 책망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어서 조만간에 모든 것을 밝히시리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된다(참조, 요 5:31, 37).

(4) 그런데 무엇보다도 음은 그의 재난의 원인으로 바라 보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또 다른 신앙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뜻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동안 더 넓은 믿음의 시야와 더 정결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신다(참조, 23:10; 42:2-5).

15. **㉠** **Q** **음**은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였는가? (20절)

**㉠** (1) 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였다.

(2) 즉 음은 이 세상에 눈을 돌려 자기의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며 피난처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참조, 시 121:1, 2).

(3) 그는 자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여 때로는 불평과 죽음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4)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끊어버리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16. **㉠** **Q** ‘인자’(人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1절)

**㉠** (1)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마 8:20; 요 13:31) 여기서는 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2)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이 적대시하는 사람의 아들[人子], 즉 음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길 음은 간구하였던 것이다.

(3)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변호하신다. 즉 당신께서는 음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므로 자신에게 대항하는 음을 변호하신다(참조, 롬 3:26; 갈 3:8).

- (4) 여기서 욕이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 (5)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의 무죄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중재를 해 오신 분이시다(참조, 롬 5:18).
- (6)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참조, 롬 3:27; 갈 6:14).

17. **Q**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2절)

- A** (1)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 (2) 이것은 죽음을 통해 인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음부로 내려간다’ (7:9)란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 (3)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길’이란 이 세상에 영원히 정주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인 하늘 나라로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참조, 창 37:35; 삼하 12:23; 전 12:7).
- (4)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다 간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참조, 마 13:43).

연구자료

악인의 운명. 잠언에서는 악한 자를 어리석은 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는 ‘어둠의 길’ (잠 4:19)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서를 비롯한 구약에서는 이들이 처할 운명을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구절	내용
20:7; 잠 14:32	멸망
20:11; 시 34:21	죽음
20:26; 시 37:20	소멸됨
시 9:5	이름이 영원히 도말됨
시 9:17	음부로 돌아감
시 11:6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심
시 31:17	음부에서 잠잠케 됨
시 37:10, 15	스스로 멸망함
시 37:35, 36	쇠망(衰亡)
잠 10:27	단명(短命)

# 제 17 장 죽음을 기다리는 욥의 탄식

단락구문 1-2 욥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다 / 3-5 하나님의 중보(中保)를 호소하다 / 6-9 욥의 비참한 처지와 의인들의 형편 / 10 친구들의 지혜를 꾸짖다 / 11-16 욥은 자기에게 더 할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다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 함을 항상 보는구나

3 청권대 보충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5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6 하나님께서 나로 백성의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8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9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0 너희는 다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11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의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게 하는구나

13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끼고

14 무덤더러 너는 네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진대

15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16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서 시작된 욥의 변론이 계속 이어져 기록되고 있다.
- (2) 본장에는 친구들이 욥을 위해 충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물들에 관한 욥의 불평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1-12절).
- (3)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무덤을 갈망하고 있다(13-16절).
- (4) 이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욥의 사고 방식은 신앙적이며 희망적인 것에서부터 돌이켜 자기의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망과 격한 자기 연민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일컬어지는 욥마저도 극심한 고난 앞에 간혹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6)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바로 알 때에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 2. ㉡ 욥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

- ㉡ (1) 욥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하였다.
- (2) 즉 욥의 지금 상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최후의 상태였다.
- (3) 이처럼 흙으로 벗어진 인간은(창2:7) 그의 호흡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흙으

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 (4)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참조, 사 2:22).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허무로 그 생을 끝마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참조, 눅 23:42, 43).

3. **㉠** 욥은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2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 (2) 그들은 욥의 불행을 희롱하였으며 그의 순전함을 비웃었고 공공연하게 그를 패역한 악인이요 완전한 위선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라고 비난했었다(참조, 12:4).
- (3) 그러나 자기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욥은 친구들에게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3, 4절).
- (4) 이처럼 세상에서의 위로와 소망이 끊어져버린 상태에서 자포 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넘어짐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시 37:24; 50:15).

4. **㉠** 욥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가? (3절)

- ㉠** (1) 욥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분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청컨대 보증물(保證物)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保主)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기도하였다.
- (2) 욥은 자기의 무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13:18)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보증물을 주시기 원하였다. 더우기 하나님 자신이 욥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 (3) 그리고 여기서 '손을 친다'는 말은 도와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외에 자기를 위해 증재할 증보자가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은 욥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재적(仲裁的) 사역을 예표한 것이 되었다(참조, 롬 8:33, 34).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보증과 증보자가 되신다(참조, 히 7:22).

5.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3절).

- ㉠** (1)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용서의 보증이 되신다(참조, 엡 4:32).
- (2) 두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시다. 즉 그는 우리의 사랑의 보증이 되신다(참조, 요일 4:10).
- (3) 세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거듭난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와진 인격의 보증이 되신다(참조, 요 3:3-15; 고후 5:17; 엡 2:15).
- (4)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앞날에 소망을 안겨 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희망의 보증이 되신다(참조, 벧전 1:3).

6. **㉠** 욥은 친구들의 어리석은 충고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았는가? (4절)

- ㉠** (1) 욥은 친구들의 어리석은 충고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출발한 것으로 보았다.
- (2) 즉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올바른 충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다.
- (3)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충고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

기 때문이다(참조, 사6:9, 10).

- (4) 그러므로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회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8:32;17:17).

7. **㉠** ‘친구를 지적(指摘)하여 해를 받게 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5절)

- ㉠** (1)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란 욥에게 잘못된 충고를 하여 욥으로 하여금 격동케 했던 욥의 세 친구들을 가리킨다.  
 (2) 사실 이 친구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를 위로하고 도와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여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자들이다.  
 (3)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죄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참조, 레 19:14;신 27:18).  
 (4)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해를 받으라고 저주한 것은 이웃의 불행을 원하는 악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까닭없이 고난 받는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하다.  
 (5) 그러나 무고한 자를 정죄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시 35:19-23;109:3-10). 따라서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8. **㉠** 욥은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비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는가? (6, 7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비방한다고 하였다.  
 (2)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욥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마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기진하여 오래 지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7절).  
 (4)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의 도움과 소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분으로 이해될 때 그것만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없을 것이다.  
 (5)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攝理)와 경륜(經綸)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더욱 강건케 하실 것이며 또 다른 희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 31:9-15).

9. **㉠** 욥은 정직한 자가 무엇 때문에 놀란다고 하였는가? (8절)

- ㉠** (1) 욥은 정직한 자가 욥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고 놀란다고 하였다.  
 (2) 즉 그토록 진실하고 신앙적이며 순전하던 욥이(1:1) 하나님에 의하여 그 무서운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정직한 자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3) 욥의 시대에 있어서 부(富)와 건강은 선한 자들에게 그리고 고난과 절망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4)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완숙한 인격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욥의 고난을 오해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참조, 히 2:10).  
 (5) 오늘날도 자신의 좁은 성경관과 인생관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웃을 정죄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15-17).

10. **㉠** 욥은 선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변영하는 불공평함 속에서도 의인(義人)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였는가? (9절)

- Ⓐ (1) 욥은 불공평한 세태(世態) 속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독실(篤實)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하였다.
- (2) 즉 의인은 세상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놀라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확고하고 끈기있게 전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눈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의인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난관이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발은 확고히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이다(참조, 행 20:23, 24).
- (4) 그리고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진보가 따를 것이다.
- (5) 확실히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 은혜에 사로잡힌 영혼은 결코 침체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장과 진보가 없는 신앙 생활은 불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11. Ⓞ 욥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1절)

- Ⓐ (1) 욥은 자신의 처지가 이제 소망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라고 하였다.
- (2) 사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도 끝나 버릴 것이다(참조, 마 16:25, 26; 눅 12:16-21).
- (3)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죽음도 그 뜻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욥의 극단적인 허무는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이요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그 때에 오히려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참조, 빌 4:11-13).

12. Ⓞ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쇠약함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는가? (12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쇠약함을 보고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고 말했다.
- (2)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밤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을 낮과 같이 하여 지루하고, 피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3)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말로서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어두움은 새벽이 가깝다는 말로서 욥의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 (4)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욥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이미 회생(回生)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11절).
- (5) 이처럼 행동으로는 이웃을 해롭게 하면서 입술로는 형제를 위로하는 무리들의 처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참조, 딤후 1:16).
- (6)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성(二重性)을 버리고 언어와 행위가 일치된 사랑을 형제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3:18).

13. Ⓞ 욥은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3-15절)

- Ⓐ (1) 욥은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음부(히, 스울)로 그 집을 삼는 것이었다.
- (2) 즉 욥은 지난날의 번영이라든가 평안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미래에 거할 집인 무덤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 (3) 이런 의미에서 욥은 무덤더러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고 하였다(14절).
- (4) 욥의 이러한 희망은 일종의 어두운 절망에 불과하다. 즉 무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욥은 그의 희망을 죽음, 즉 무덤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내세(來世)의 생활을 사모함이 옳았을 것이다.

(6) 사실 성도의 소망이 이 세상 또는 죽음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 그 자체가 모두 무가치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참조, 고전 15:19).

14. **Q**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A** (1)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욕이 지니고 있던 소망이 부숴지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다.
- (2) 이처럼 욕은 자신의 운명에 낙인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제 살지도 못하고 이전에 누렸던 기쁨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이 잃어버렸던 모든 희망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 하셨다(참조, 42:10-17).
- (4) 이렇게 욕은 하나님으로 인해 죽게도 되고 다시 살게도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참조, 삼상 2:6).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정황을 만나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6-18).

15. **Q**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소망은 유한(有限)한 것인가? (11-16절)

- A**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소망은 결코 유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3:13; 15:58).
- (2) 또한 이 소망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결코 실패함이 없다(참조, 사 40:31).
- (3)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말씀)에 의해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쇠함이 없다(참조, 히 10:23).
- (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된다.

본장의 요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篤實)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9절).



## 제 18 장 빌닷의 두번째 변론

단락구분 1-4 빌닷이 욕을 경박한 자로 몰아 붙인다 / 5-21 빌닷이 위인들에게 대하는 재앙을 염거하다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  
 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  
 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움  
 기겠느냐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  
 은 꺼질 것이요  
 7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 지고 그 베풀 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8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얽  
 는 줄을 밟음이며  
 9 그 발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울무  
 에 얽힐 것이며  
 10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었으며  
 11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  
 를 쫓아 올 것이며

12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 그의 백제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뿔려서 무서움  
 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  
 리니 유향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16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  
 자가 짝할 것이며  
 17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18 그는 평평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 날 것이며  
 19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  
 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20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  
 의 두려워하던 것같이 놀라리라  
 21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욕에 대한 빌닷의 두번째 충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첫번째 충고(8장) 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로 욕을 위로하였으나 본장에서는 대단히 화난 어조(語調)로 욕을 비난하고 있다.
- (2) 빌닷은 욕이 모든 악의 화신(化身)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었으므로 어떠한 형벌도 그에게는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3) 결국 빌닷은 욕을 위로하려고 찾아 온 위안자(慰安者)가 아니라 욕을 정죄(定罪)하고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 (4)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추진해 가는 중에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사단의 악한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되고 만다.
- (5)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또한 겸손하게 그 일의 성취를 고대해야 할 것이다.

### 2. ㉠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1, 2절)

- ㉠ (1) 이 말은 언제까지 변명할 말을 늘어 놓겠느냐는 말이다.
- (2) 이렇게 빌닷은 욕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욕이 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욕의 말을 책잡아 비난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욥이 자기가 말한 것(8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꾸짖었다. 이것은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성급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반면 자신의 논리를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많은 애를 쓴다(참조, 잠 18:13).
- (5)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주의 깊게 이웃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참조, 약 1:19).

3. **㉠** 빌닷은 무엇 때문에 욥을 향하여 분하게 생각했는가? (3절)

- ㉠** (1) 빌닷은 욥이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不淨)하게 본다고 하여 분하게 생각했다.
- (2) 실제로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경건치 못하고 악한 자들(16:11), 또는 지혜가 없는 자들(17:10), 그리고 이해가 부족한 자들(17:4)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다.
- (3) 그러나 욥은 그들을 가리켜 짐승 또는 부정한 자로 몰아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빌닷은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표현한 셈이다.
- (4) 이처럼 아집으로 가득차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인 자들은 이웃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 (5)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대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被害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6)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벽을 쉽게 허물 수 있다(참조, 빌 2:5-8).

4. **㉠** 빌닷은 욥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4절)

- ㉠** (1) 빌닷은 욥이 자기들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스스로 찢는 자’라고 욥을 비난했다.
- (2) ‘스스로 찢는 자’란 자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격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히브리인들은 수치나 모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다(창 37:29,34;44:13;민 4:6;수 7:6;삿 11:35;삼하 13:19;왕상 21:27;왕하 2:12;5:8;18:37;대하 34:19;스 9:5;에 4:1;렘 41:5;마 26:65;행 14:14 등).
- (4) 따라서 빌닷은 욥이 당연히 회개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분노함으로써 자신을 찢고 있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것은 무죄한 욥을 더욱 괴롭게 하는 모욕적인 말로서 친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5. **㉠** ‘땅’과 ‘바위’는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4절)

- ㉠** (1) ‘땅’과 ‘바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가 욥의 불평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 빌닷의 견해이다(Keil).
- (3) 사실 인간이 보기에 제아무리 부당한 것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의 뜻에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참조, 사 45:9).
- (4)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건고한 질서 앞에 순종할 따름이다(참조, 롬 9:19-23).

6. **㉠** 빌닷은 악인의 번영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였는가? (5, 6절)

- ㉠** (1) 빌닷은 악인의 번영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라고 하였다(5절).
- (2) 계속해서 빌닷은 악인의 번영 뿐만 아니라 악인의 가족의 행복도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그 장막(帳幕)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라고 하였

다(6절).

- (3) 이처럼 악인은 아무리 그 삶이 행동하고 번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꽃이나 등불과 같이 곧 꺼져 사라질 일순간의 번영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에 분명하다(참조, 20:5).
- (4) 그러나 의인의 형편은 비록 현재의 삶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빛이 되시므로 그 삶은 영원하며 소망이 있는 것이다(참조, 시 27:1; 잠 14:32).

7. **㉠** 빌닷은 악한 죄를 사용하는 악인의 결국이 어떻다고 하였는가? (7-10절)

- ㉠** (1) 빌닷은 악한 죄를 사용하는 악인은 결국 자기의 죄에 얽매여 멸망하고 만다고 하였다(참조, 시 7:15).
- (2) 이와 같이 멸망하는 악인에 대해서 빌닷은 ‘그물’, ‘장애’, ‘울무’, ‘함정’이라는 짐승 잡는 도구들과 연결시켜 그들을 짐승과 동류(同類)로 취급하였다.
- (3) 사실 악인들의 행동은 비록 지혜롭게 보이고 훌륭하게 여겨지지만 결국 그 죄는 짐승처럼 어리석고 잔인한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참조, 시 64:8).
- (4) 그리고 악인의 멸망은 우연한 넘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임이 분명하다. 그 진노를 목격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참조, 시 9:16).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비록 악인의 멸망이 지연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다(참조, 벴후 2:9).

8. **㉠** 빌닷은 악인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1절)

- ㉠** (1) 빌닷은 악인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무서운 것’이란 이어져 나오는 ‘사방’이란 말과 연관지어 볼 때 악인이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 (3) 사실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들이다(참조, 잠 28:1). 악인은 어떠한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과 평안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9. **㉠**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란 말은 그의 불행이 그를 삼킬만큼 굶주려 있음을 의미한다.
- (2) 빌닷은 악인이 그 죄악을 계속 고집하면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참조, 암 5:18, 19).
- (3) 사실 죄악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며 영원한 혼돈으로 인도한다. 이 불안한 양심의 공포는 가인과 유다에서와 같이 영원한 파멸의 전조이다.
- (4)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같은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에 이미 참여하였다(참조, 롬 8:1, 2).

10. **㉠** ‘사망의 장자(長子)’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3절)

- ㉠** (1) ‘사망의 장자’란 지독한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가리킨다(참조, 고후 1:10). 아랍 지방에서는 지금도 악성 열병들을 가리켜 운명의 딸 또는 사망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 (2) 빌닷은 사망의 장자가 악인의 온 몸을 쳐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 버린다고 하였다.

11. **㉠**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 15절)

- ㉠** (1) 이 말은 악인이 자기를 도우리라고 믿던 그 모든 것이 떠나고 이제 의뢰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자신의 거처(육신)마저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 (2)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혼란시키시

며 영원한 허무를 맛보게 만드신다(참조, 시 3:1-3; 젤 4:16, 17).

- (3) 여기서 '무서움의 왕'이란 사단이라기보다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참조, 롬 5:17). 이 세상에서 악인의 결국은 죽음으로 장식될 것이다(참조, 약 1:15).
- (4) 그리고 죽음은 그 악인 대신에 그의 장막에 거하며 온갖 파멸과 두려움을 제공할 것이다(15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향을 그 처소에 내리셔서 그 장막을 완전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참조, 창 19:24; 신 29:23; 시 11:6).
- (5) 이처럼 악인은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12. **㉠**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 17절)

- ㉠** (1) 이 말은 빌닷이 욥의 가족이 멸절한 것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1:18, 19).
- (2) 즉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사망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보고 악인의 가족은 희망이 없으며 머지않아 전멸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였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자의 가정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이다(참조, 출 20:5). 이것은 그의 공의로운 형벌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무리들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 삶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참조, 17절; 잠 10:7).
- (5)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은 사람의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 될 것이다(참조, 출 20:6; 시 112:6; 눅 10:20).

13. **㉠**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말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악인의 운명을 가리킨다.
- (2) 즉 악인은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히어 세상에서 추방된다는 말이다(참조, 잠 14:32).
- (3) 여기서 '몰려 들어간다'는 말과 '쫓겨 날 것'이라는 말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시 1:5)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 (4) 이처럼 악인의 삶의 거처에는 결코 평안함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늘 불안함 속에 살아 갈 뿐이다.
- (5)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다(참조, 사 57:20, 21).

14. **㉠** 빌닷은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는가? (20절)

- ㉠** (1) 빌닷은 악인(욥)의 패망에 대하여 같은 시대 사람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마저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번영하던 악인은 멀지 않아 두려움과 놀라움의 대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며 이 무서운 죄는 결국 놀라운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 신 28:37; 렘 25:9, 18; 고후 7:21).
- (4) 그러나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세상은 이와 같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 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오히려 이날이 승리와 환희의 날이 될 것이다(참조, 시 37:34).

15. **㉠** 악인의 결말이 패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악인의 결말이 패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의적인 무지(無知) 때문이다(참조, 롬 1:18-23).
- (2)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모든 범

죄를 부담없이 저지르게 된다.

- (3) 그러므로 이들의 종말은 완전한 파멸일 수밖에 없다(참조, 살후 1:8).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파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건져내시고 그 죄된 육체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참조, 엡 2:1-10).
- (5)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엡 2:4, 5).

**화보자료**

욥의 세 친구들. 아래 사진은 9세기 이탈리아 사본의 삽화에 나타난 욥의 친구들로서 왼쪽에서부터 소발, 빌닷, 엘리바스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 왔지만 그들의 종교는 도리어 욥을 조롱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16:20;17:2). 본장에 나타난 빌닷의 대답도 욥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반발하는 자로 여기면서 꾸짖는 일종의 비난이다.

# 제 19 장 빌닷에 대한 욱의 두번째 답변

단락구분 1-6 욱이 비정(非情)한 친구들에게 반박하다 / 7-12 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열거하다 / 13-22 욱이 자신의 형편을 친구들에게 고하고 지나친 증고(증고)를 삼가해 달라고 말하다 / 23-27 내세(來世)와 부활에 대한 욱의 확신 / 28-29 욱이 친구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다

- 1 욱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 4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궁하며 내게 수치 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 6 하나님이나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 7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 9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뿔뿔 뽑으시고
-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 13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 14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 15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제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 16 내가 내 증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 17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 18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 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겨뜰뿐이로구나
-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꺾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 24 첩필과 연으로 영영히 들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26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옥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27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 1. ㉠ 본장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욱이 빌닷의 맹렬한 비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욱은 친구들의 불친절한 태도를 공박하고(1-6절) 친구들에게 동정과 자제를 호소하였다(21, 22절).
- (2) 그리고 그의 고난에 대한 일관된 사상으로서 자기의 현재 형편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성된 것임을 확신하였다(7-12절).
- (3) 계속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결백이 밝혀지는 것을 포기한 채 내세와 부활에 대

한 소망으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23-27절).

- (4)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버린 자에게만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5) 욱이 자기 의(義)와 현세에서의 회복을 회구하고 있었을 때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무덤 이후의 생(生)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 가는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모든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골3:1,2).

2. **㉠ 욱은 비정(非情)한 친구들에게 어떤 말로 책망하였는가? (1-6절)**

- ㉠** (1) 욱은 먼저 친구들이 자기를 꾸짖고 학대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책망하였다(3절).
- (2) 또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관하지 말라고 책망했다(4절).
- (3)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친구들은 이러한 섭리에 왈가 왈부하지 말라고 책망하였다(6절).
- (4) 이처럼 우리는 욱의 친구들과 같이 가끔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진리로 그 형제를 판단하고 권면할 때가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맞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형제에게 완전한 위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위와 같은 성급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1:3-7).

3. **㉠ 욱은 친구들이 몇 번이나 자기를 꾸짖고 학대하였다고 말했는가? (3절)**

- ㉠** (1) 욱은 친구들이 ‘열 번’이나 자기를 꾸짖고 학대하였다고 했다.
- (2) 여기서 ‘열 번’이란 말은 정확하게 열 번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주 또는 반복을 나타내는 상수수이다(참조, 창 31:7, 41; 민 14:22; 느 4:12; 단 1:20).
- (3) 즉 욱의 친구들은 욱을 죄인으로 몰아 한두 번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겹도록 되풀이 하면서 욱의 마음을 뒤엎어 놓았던 것이다(참조, 시 69:20).
- (4) 이처럼 그들은 친구답지 않게 무자비하였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상대방을 벼랑까지 몰아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떠나가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5)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참조, 빌 2:1-4).

4. **㉠ 욱은 자기 친구들이 먼저 무엇부터 알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할 말을 하도록 했는가? (6절)**

- ㉠** (1) 욱은 자기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이 욱을 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로 욱을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2) 즉 욱은 친구와의 논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3) 또한 이 말은 욱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표명하고자 했던 표현이다.
- (4) 이와 같은 욱의 확신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는 고백과(1:21) 일치되는 것이다.
- (5)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참조, 시 69:26, 27).
- (6)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을 이해한 자는 고난의 수렁을 헤치고 나온 자이기 때문이다.

5. **㉠ 욱은 포학을 당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는가? (7절)**

- ㉠** (1) 욱은 포학을 당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고 하였다.

- (2)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욥의 오해에 불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며(참조, 시 102:17) 슬픔에 잠긴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참조, 사 41:10; 42:2; 고후 12:9).
- (3)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실의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참조, 시 103:13; 사 63:9; 히 4:15).

6. **㉠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다고 하였는가? (8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의 첩경(捷徑)에 흑암을 두셨다고 하였다.
- (2)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과 같이 높은 울타리로 두른 공간에 하늘의 빛을 차단하여 그곳에 감금하셨다고 하였다.
- (3)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밝은 계시가 완전히 차단되고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들리지 않는 곳에 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참조, 시 74:9).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외부적인 눈을 완전히 차단시키실 때는 반드시 영혼의 눈을 열어 당신의 귀한 법을 깨닫도록 하신다.
- (5)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 넣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참조, 왕상 17:18)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신다(참조, 시 42:10, 11).

7. **㉠ 욥은 자신의 변영을 무엇으로 표현하였는가? (9절)**

- ㉠** (1) 욥은 자신의 변영을 영광과 면류관(冕旒冠)으로 표현하였다.
- (2)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변영을 상징하는 영광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고 하였다.
- (3) 즉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던 영예와 사회적 명성, 그리고 정신적인 품위마저 욥으로부터 탈취해 갔으므로 자기는 알몸 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 (4)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인격의 고상함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안겨 준 의인된 표시로서의 면류관과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예복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벗기지 않을 것이다.

8. **㉠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떠한 자로 취급하신다고 하였는가? (10-12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같이 취급하셔서 진노하신다고 하였다(11절).
- (2) 사실 욥은 그의 불행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 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참조, 13:24; 16:9).
- (3)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기 주위에 배치해 두셨다고까지 고백하였다(12절).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중에도 가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괴로움으로 물고 가실 때도 있다(참조, 시 73:16; 77:19).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지만(참조, 계 3:19) 당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9. **㉠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고통 위에 무엇을 더 첨가시켰다고 비탄해 했는가? (13-19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겐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과 동정마저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고 비탄해 했다.

- (2)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인간들에게서 소외되어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 (3) 특히 욕은 소외된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터이라 건강과 부를 잃은 지금에 와서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음에 분명하다.
- (4)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욕에게 주었을까 하는 의문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것이다.
- (5) 그러나 고난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1:4).

10. **㉠** 욕은 자신의 육체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는가? (20절)

- ㉠** (1) 욕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겨풀 뿐이로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 (2) 이처럼 욕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분노가 그를 앙상하게 만들어 그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생기라고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3) 여기서 ‘남은 것은 겨우 잇겨풀 뿐이로구나’ 라는 말은 극심한 육체적 쇠약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4) 욕의 이러한 상황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참조, 시 39:11).
- (5)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유한하고 쉽게 변해 버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참조, 사 2:22).

11. **㉠** 욕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구하였는가? (21, 22절)

- ㉠** (1) 욕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다만 동정만을 구하였다(21절).
- (2) 욕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의 비난을 삼가하고 동정을 베풀 것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 (3) 그런 의미에서 욕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느냐’ 고 호소하였다.
- (4) 여기서 ‘내 살을 먹는다’ 는 말은 일반적으로 썩죽 계통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이웃을 거짓말로 중상 모략하는 것을 뜻한다.
- (5) 이처럼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위치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여 그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참조, 롬 12:19-21).

12. **㉠** 욕은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가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였는가? (23, 24절)

- ㉠** (1) 욕은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책에 기록되거나(23절) 철필(鐵筆)과 연(鉛)으로 영영히 들에 새겨지기를 원하였다(24절).
- (2) 친구들의 이해와 동정마저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욕은 눈 앞의 슬픈 현실을 떠나 멀리 장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 (3) 즉 그는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책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들에 새겨 놓아 후대의 판단을 기다릴 심정이었다.
- (4) 여기에서 욕이 열렬하게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허락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욕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그 책이 읽혀지든지 누구나 욕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 (5) 그러나 이것은 욕의 의도대로 후대의 판단을 얻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루어 주심은 결국 당신의 사역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13. **㉠** ‘나의 구속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25절)

- ㉠** (1) ‘나의 구속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것은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위해 피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참조, 삼하 14:11).  
 (2) 또한 이 <고엘>은 죽은 친척의 소유를 사거나 저당된 것을 찾을 권리가 있고 죽은 친척의 뒤를 이을 자녀를 낳도록 해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참조, 레 25:25; 신 25:5-10; 룻 2:20; 3:9).  
 (3) 그리고 압박받는 자를 보호하는 자 특히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잠 23:10, 11).  
 (4) 그러므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구속자’는 사람일 수가 없다. 그는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의 빛을 갠으실 뿐만 아니라 보호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5)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셨다.

14. **㉠** 욥은 자기의 구속자(救贖者)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25절)

- ㉠** (1) 욥은 자기의 구속자에 대해서 ‘후일(後日)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2) 즉 욥은 자기의 구속자가 최후의 날(참조, 사 44:6; 48:12; 계 10:6)에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위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었다.  
 (3) 이와 같은 욥의 신앙 고백은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 성취될 것이다(참조, 요 1:9-14; 51).  
 (4)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서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이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다(참조, 시 12:5).  
 (5) 욥이 이렇게 최후의 날의 구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참조, 창 50:24).

15. **㉠** ‘육체 밖에서’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26절)

- ㉠** (1) ‘육체 밖에서’란 말은 히브리 원문의 뜻인 ‘육체에서’라는 말을 의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영어 번역본(KJV)에서는 육체 안에서(in my flesh)로 풀이하기도 했다.  
 (2) 그러므로 개역 성경의 ‘육체 밖에서’란 번역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즉 죽음으로 인해 육체를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원문대로 하면 욥은 육체에 있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이다.  
 (4) 즉 죽은 바로 그 몸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합당한 몸인 신령한 몸으로서(부활체로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이다(참조, 고전 15:44).  
 (5) 이와 같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6)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단지 음부로 규정되었던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러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비록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를 향하여 더 나은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약 1:2-4).

16. **㉠**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7절)

- Ⓐ (1) 이 말은 욥이 죽은 후 즉 자기의 구속자를 보게 될 때에 (25절) 외인 즉 적대자들의 말처럼 자기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다.
- (2) 이와 같이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 (3) 그래서 그는 고난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탄식했는데, 이 말은 욥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인 앞에 하루 속히 서고 싶어서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낸다(시 84:2; 119:82).
- (4) 이처럼 확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한 특징이다(참조, 고후 5:8; 빌 1:23).

17. Ⓒ 욥은 친구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였는가? (28, 29절)

- Ⓐ (1) 욥은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 커녕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비난과 조소를 하며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2)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자기에게는 기쁨을 가져 올 것이지만 친구들에게는 칼의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3) 여기서 '칼'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렘 46:10).
- (4) 사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하며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 대해 악의를 품는 자들은 그것이 곧 그들이 받을 진노이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치장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참조, 마 5:21-26).

화보자료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욥. 아래의 사진은 본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피렌체의 라우렌찌아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욥은 자신의 전재산과 자식들을 잃으며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도리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까지도 지니고 있었다(26절).

## 제 20 장 소발의 두번째 변론

단락구분 1-3 소발이 대답의 동기됨. 진술하다 / 4-11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이 잠간이라고 하다 / 12-29 악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논(論)하다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2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5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간이니라  
 6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 자기의 동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 가리니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로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 그 기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14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16 그가 독사의 독을 핏떡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7 그는 강 곧 골과 영긴 것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초치 못하겠고  
 21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러니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22 풍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니 밤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아지리라  
 24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눈 활이 쏘아 썰 것이요  
 25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 번쩍하는 축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26 모든 감잡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28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흩어가리니  
 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욥의 훌륭한 신앙 고백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인 소발은 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고 있다.  
 (2) 본장에서 그는 앞서 언급한 강렬한 적의(敵意)가 담긴 말에다(11장) 거칠고 무례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  
 (3) 그의 모든 이야기는 욥을 악한 자요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처럼 소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목은 신앙과 욥에게 대한 몰인정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 (5)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이익과 불경건을 숨겨 둔 채 하나님의 이름을 허울 좋게 사용하여 이웃을 비난하고 파멸로 몰아 넣는 경우가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참조, 삼상 16:7).

2. **㉠ 소발이 욕의 말에 답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1-3절)**

- ㉠** (1) 소발은 욕의 말에 답변하게 된 동기가 먼저 자기의 ‘중심이 초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즉 자기는 성급하고 참울성이 없기 때문에 욕의 말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 (2) 또한 소발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욕의 말에 답변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소발은 욕이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발동시켜 대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격앙으로 인하여 지나친 말을 함부로 꺼낼 때가 있다.
- (4)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잠 14:29).
- (5) 그러므로 입술을 제어하는 것(잠 10:19)이 현명한 자의 자질이며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전 5:2),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약 1:19)이 성도의 바른 태도이다.

3. **㉠ 소발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악인과 사곡(邪曲)한 자의 변영이 잠간이라고 하였는가? (4, 5절)**

- ㉠** (1) 소발은 모든 세대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악인과 사곡한 자의 변영이 잠간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이 땅 위에 존재할 때부터 있어 온 죄를 지은 자는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 (2) 성경은 악인이 조만간에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참조, 사 3:11).
- (3) 비록 악인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진리 편에서 활동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시시 비비(是是非非)를 가려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참조, 계 3:17).
- (4) 악인들이 잠시 동안 주어지는 세상의 행복을 즐기다가 멸망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성도들은 순간적인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한다(참조, 시 39:6, 7; 고전 7:29-31; 고후 4:18; 요일 2:15-17).

4. **㉠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 7절)**

- ㉠** (1) 이 말은 악인의 결국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만큼의 완전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다.
- (2) 여기서 ‘똥’이란 모든 종류의 찌꺼기인 ‘재’를 의미하는데(2:8) 이 말을 일종의 지독한 조롱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참조, 왕하 18:27).
- (3) 이처럼 악인의 변영이 절정에 이를지라도(참조, 시 73:9; 단 4:22)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것을 심판하여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눅 16:15).
- (4)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똥이 매우 천대받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악한 계획과 명예는 끝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5. **㉠ 소발은 극한 죄인의 변영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였는가? (8, 9절)**

- ㉠** (1) 소발은 극한 죄인의 변영이 꿈과 같이 또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8절; 사 29:7, 8).
- (2) 그리고 악인의 변영이 놀랄 정도로 빨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인간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3)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악인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4) 비록 이 세상이 악인의 수중에서 불의와 불법으로 만연해 있지만 의(義)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빛을 발하셔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만드실 것이다(참조, 말 4:1-3).

6. **Q 소발은 악인의 자녀들이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는가? (10절)**

- A** (1) 소발은 불의로 취한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의 자녀들이 가난해져서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아버지의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주 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참조, 겔 18:2).
- (3) 또한 부정하게 얻어진 이익은 대개 그 사람의 집에 기쁨 대신에 불행을 가져온다(참조, 창 13:11).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얻은 부에 대한 반환을 은총의 힘으로(참조, 눅 19:8) 또는 후회와 고통으로(참조, 마 27:3-5)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음의 손길로(참조, 시 39:6; 행 5:1-11) 강요하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37:1-3).

7. **Q 소발은 악인의 죽음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였는가? (11절)**

- A** (1) 소발은 악인에게 대하여 '그 기골(氣骨)이 청년같이 강장(強壯)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고 하였다.
- (2) 즉 악인은 원기 왕성한 기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연히 죽음이 임하면 그러한 기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 (3) 이처럼 악인이 비록 이 세상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된다(참조, 눅 12:16-21).
- (4)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눅 12:5)고 하셨다.

8. **Q 소발은 악인이 악(惡)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하였는가? (12-14절)**

- A** (1) 소발은 악인이 악을 대하는 태도가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다'고 하였다(12, 13절).
- (2) 이처럼 악인은 악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 영적이고 거룩한 믿음의 기쁨을 외면한 채 결코 그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 (3) 여기서 악인이 계속 악을 입 속에 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완고하게 그의 죄를 고집하며 거듭해서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겔 23:19).
- (4) 그러나 악인은 그가 먹은 맛있는 음식이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 것처럼(14절) 전에 기뻐했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행해 질 것이다.
- (5) 여기서 기록자는 고대인들이 뱀의 독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독은 뱀의 쓸개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였다.
- (6) 여하튼 성도들은 악을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생각하여 그것 먹기를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성도는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참조, 시 19:7-10).

9. **Q 소발은 불의한 재물을 삼킨 자는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는가? (15, 16절)**

- A** (1) 소발은 불의한 재물을 삼킨 자는 결국 그것을 다시 토할 것이라고 하였다(15절).
- (2)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반드시 도로 내놓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15절).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시며 악한 계획을 침몰시키신다.

- (3) 또한 소발은 불의한 재물을 삼킨 자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16절).
- (4) 여기서 독사의 독을 빨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만족해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손해(損害)를 보게 될 것이다(참조, 약 1:15).

10. **㉠**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이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가? (17절)

- ㉠** (1)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이란 그 주위의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어 풍성한 산출이 있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 (2)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참조, 출 3:8; 13:5).
- (3) 그런데 악인들은 이러한 풍요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풍요를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17절).
- (4)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악인들을 향해서 물질적 풍요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참조, 시 17:14; 73:3-12).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동안만이다(참조, 시 73:18, 19; 롬 2:4).

11. **㉠** 소발은 악인이 불의의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며 그 재물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8, 19절)

- ㉠** (1) 소발은 악인이 불의의 재물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며 그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수고한 것이 모두 불의의 동기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수하신다(참조, 왕상 21:1-29).
- (3)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득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참조, 약 5:1-6).
- (4) 오늘날 부를 축적하여 만족을 누리는 자들 중에는 이처럼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이웃에게 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낙인 찍혀 끝내 패망의 자리로 떨어질 것이다(참조, 눅 12:16-21).

12. **㉠** 소발은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는 악인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는가? (20, 21절)

- ㉠** (1) 소발은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는 악인은 ‘마음에 족할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한다’고 하였다.
- (2) 즉 그의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약탈하게 된다.
- (3)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난파선(難破船)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목이 갈하여 바닷물을 마실 같이 점점 더 갈증이 심하여 결국은 죽게된다.
- (4) 그러므로 그의 불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 (5)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며 또한 감사할 줄도 안다.
- (6)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 23:1)라고 노래하였다.

13. **㉠** 악인이 풍족할 때에 받아야 할 재난에 대해 설명하라(22, 23절).

- ㉠** (1) 그에게는 ‘풍족할 때에도 곤액(困厄)이 이른다’란 말은 악인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만큼 부유해져 있을 그 때에 재앙이 이른다는 의미이다.

- (2) 계속해서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궁핍한 자들에게 행한 불의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괴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기 위해 밥을 먹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평안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데, 불행을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징계하신다(롬 1:18;2:2,9).

14. ㉠ 소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4, 25절)

- ㉠ (1) 소발은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낫활이 쏘아 췌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고 표현하였다.
- (2) 이처럼 멸망받도록 정해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한 심판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심판이 악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악인의 전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데 있지만 성도들의 전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데 있어야 한다(참조, 롬 12:2).

15. ㉠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26절)

- ㉠ (1)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란 사람의 손으로 피운 불이 아닌 자연 또는 초자연적인 불을 말한다.
- (2) 그것은 아마도 하늘로부터의 번개불 또는 유황불을 의미하는 것 같다(참조, 18:15).
- (3) 이처럼 악인의 멸망은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로써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4)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草芥) 같을 것이라' (말 4:1)고 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형편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멸망에 노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자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16. ㉠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7-29절)

- ㉠ (1)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은 하늘과 땅의 은택과 보호를 얻을 수 없는 것(27절)과 그 가산(家産)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사라져 버리는 것(28절)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여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현세적 심판을 언제나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참조, 겔 33:8).
- (3)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격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 5:24).

## 제 21 장 소발에 대한 음의 두번째 답변

단락구분 1-6 음이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그 친구들의 주장을 즉각하다/7-16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도 잘되는 일이 있다고 하다/17-21 악인들이 결국에는 멸망하나 그러한 심판은 오랫동안 보류된다고 하다/22-26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다양하다고 하다/27-34 악인들이 현세적(現世的)인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친구들의 주장을 공격하다

- 1 음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 3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 4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 5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 6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잠는다
- 7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 8 새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 9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 10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다
- 11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 13 그 날을 행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 15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 16 그들의 복욕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라 그들을 끈고케 하심이나
-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 19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 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 21 그의 달 수가 진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 22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 24 그 그릇에는 것이 가득하며 그 꿀수는 윤택하였고
- 25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 26 이 들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는구나
-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꾀해도 아노라
- 28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 29 너희가 짐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 30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 31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충하라마는
-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 33 그는 끝까지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 34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나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는가?

㉡ (1) 본장에는 소발의 의견에 대한 음의 비난이 열거되어 있다. 즉 음은 소발의 주장(20:10

-29)과는 반대로 악인은 때때로 변영한다는 논리를 펼쳐 고난과 범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계속해서 욥은 악인이 때때로 변영된 삶을 누리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확실히 악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자기의 의(義)를 주장했던 것이다.
- (3) 그러나 욥은 악인의 복록(福祿)도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였다. 악인의 변영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인정되고 있다(참조, 시 73:1-28).
- (4) 사실 인간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5) 그러나 악인의 행위를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인정하시며 옹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자세히 듣고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했다. 즉 욥은 자기의 말이 곧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2절).
- (2) 이 말은 친구들이 죄인은 언제나 벌을 받을 것이며 욥더러 그중의 하나라는 훌륭한 조언(勸言)을 했으니 이제 욥 자신이 하려는 말이 친구들이 말한 위로의 본질을 폭로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사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욥을 위한 안위자(安慰者)라고 자처하였으나 실제로는 욥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대적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만일 이렇게 정죄와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위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리를 결코 회복시켜 줄 수 없게 된다.
- (5) 이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발언만을 일삼지 말고 이웃의 사정과 변호를 들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 **㉠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란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이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기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 놓거나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냐란 의미이다.
- (2) 즉 욥은 자신의 처지를 사람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결과적인 도움만을 구하였던 것이다.
- (3) 만일 욥의 원망이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영도 초급하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존경해 주지도 않고 올바르게 이해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욥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조급함과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외치고 도움을 호소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조급함만을 더할 것이다.
- (6) 하지만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따라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참조, 롬 12:19).

4. **㉠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5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섭리를 보고 친구들은 다만 놀라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에게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가만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다.

- (3) 사실 우리들은 악인이 흥하고 경건한 자가 환난을 겪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4) 하나님의 계획과 행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급한 판단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만을 고대해야 할 것이다.

5. **㉠** **㉠** **음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는가? (6절)**

- ㉠** (1) 음은 자기의 일을 '추억하기만 하여도'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 (2) 즉 그는 자기가 확실히 현재의 고난에 해당될 만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과 두려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 (3) 특히 그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존경을 얻는 사실이 자기의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4)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 들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딪치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두려움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6. **㉠** **㉠** **음은 고난 중에서 어떠한 의문을 품게 되었는가? (7절)**

- ㉠** (1) 음은 고난 중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壽)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 (2) 음이 가졌던 이 의문처럼 악인이 외적으로 번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사악함을 보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처벌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 (3) 그것은 단지 그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신 판단을 진노의 날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롬 2:5).
- (4)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녀들을 연단하시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
- (5)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세(來世)에 있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음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해결될 것이다(참조, 시 17:14, 15).
- (6)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7. **㉠** **㉠**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씨'란 이어져 나오는 귀절의 '자손'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참조, 창 4:25; 7:3; 15:3; 21:12; 22:18; 수 24:3; 왕하 11:1; 느 9:8; 사 6:13; 53:10; 57:3; 행 7:5, 6; 갈 3:16 등).
- (2)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란 '그들의 목전(目前)에서'와 같은 의미로서 악인들이 자기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표현이다.
- (3) 즉 악인이 후손의 형통함을 계속 보며 불행을 당하기는 커녕 행복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4) 이것을 통하여 음은 자기 친구들이 악인의 자손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바를(18:19) 반박하고 있다.
- (5) 그래서 음은 자기 자녀들이 모두 죽었지만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지 않았으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1:21)라고 고백했다.
- (6)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면을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8. **㉠** **㉠** **음은 악인들의 산업이 번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0절)**

- Ⓐ (1) 욥이 거주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생업은 주로 목축이었으므로 소나 양 그리고 나귀와 같은 것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이러한 가축들의 수가 번성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참조, 신 28:11-14).
- (2) 그러므로 욥은 악인들에게도 우양(牛羊)이 번성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주장하였다.
- (3) 이와 같은 욥의 견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참조, 마 5:45)을 믿는 신앙이다.

9. ⓐ 욥은 악인들의 죽음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였는가? (13절)

- Ⓐ (1) 욥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頃劦間)에 음부(陰府)에 내려가느니라' 고 하였다.
- (2) 여기서 '경각간'이란 말은 '순간적으로'라는 뜻이다. 이것은 악인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살다가 죽을 때에도 별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평안히 죽게 된다는 뜻이다.
- (3) 그리고 '음부'란 히브리어로 <스올>인데,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아바돈>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뒤에 묻히는 무덤을 가리킨다(참조, 창 37:35; 시 30:3).
- (4) 그런데 욥이 악인이 편안히 죽어 모든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간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 악인이 사후에도 땅에 살 때처럼 평안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5) 악인의 형통함과 평안함은 단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으로서 내세에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참조, 눅 16:19-31).
- (6)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으로서(참조, 시 116:15)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참조, 잠 14:32).

10. ⓐ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망발(妄發)을 한다고 했는가? (14, 15절)

- Ⓐ (1)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기도할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는 망발을 한다고 했다.
- (2) 사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14절).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계는 그들을 만족시켜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며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한다. 그들은 기도 없이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15절).
- (4)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평가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마 28:18) 또한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 (5) 이러한 이유로 악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롬 1:28)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감사치도 않는다(롬 1:21).

11. ⓐ 욥은 악인들의 번영의 근본 동인(動因)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16절)

- Ⓐ (1) 욥은 악인들의 번영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그들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에서 온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 (2) 욥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번영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7).
- (3)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의 번영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성취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던 것이다(14, 15절).
- (4) 이런 이유에서 욥은 악인의 계획, 즉 악인의 인생관과 자기의 인생관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5) 사실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성도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자신의 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만 악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채 자신에게 몰두한다.

**12. ㉠ 욥은 악인이 항상 고난당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 어떠한 말로 친구들에게 도전하였는가? (17, 18절)**

- ㉠** (1) 욥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는 말로서 악인이 반드시 고난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 (2) 이와 같이 욥은 악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악인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 (3) 악인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경우도 있고(행 12:23) 어떤 자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다(눅 16:23).
- (4)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절하고 말 것이다(참조, 시 1:4; 35:5; 83:13; 사 17:13; 29:5; 렘 13:24).
- (5)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악인의 현세적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릇된 징벌관(18:5, 12)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13. ㉠ 욥은 악인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을 경우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친구들의 주장(5:4; 20:10)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가? (19-21절)**

- ㉠** (1) 욥은 친구들의 주장(5:4; 20:10)에 반대하였다.
- (2) 그 주장의 근거는 만일 그 악인의 죄의 대가가 악인에게 임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허물을 끝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19, 20절).
- (3) 왜냐하면 그 악인은 죽은 후에 자기 가족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1절).
- (4) 이와 같은 욥의 주장은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그 자손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참조, 출 20:5; 신 5:9) 반대해서 한 말은 결코 아니다.
- (5) 이것은 악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철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참조, 사 26:11; 계 14:10).

**14. ㉠ '높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2절)**

- ㉠** (1) '높은 자들'이란 하늘에 있는 피조물, 즉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인간들 중에 지혜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 (2) 그렇지만 '높은 자들'(히, 라뫼)이 천사들 혹은 권세 있는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욥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욥이 자기의 말기운에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믿음 또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경배받을 수 있다.

**15. ㉠ 욥은 인간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끝난다고 하였는가? (23-26절)**

- ㉠** (1) 욥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를 가릴 것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며 가장 비천한 자에게서부터 가장 고귀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그의 규정과 율법 안에서 이해하신다.
- (3)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든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오해한 처사이다.

- (4) 특히 물질 만능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 (5)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한 결과임을 확신하고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8:28).

16. ㉠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꾀활(詭譎)’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7절)

- ㉠ (1)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꾀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악하게 행하고자 했던 모의(謀議)’가 된다.
- (2) 이와 같이 욥은 자기의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하여 욥을 죄인으로 몰아 붙여 그를 고통스럽게 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 (3) 그 이유는 그의 친구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 자신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4)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나타내기도 하므로(참조, 요 9:1-7) 고난당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며 고난의 원인을 알아보기 보다는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勸勉)에 힘써야 한다.

17. ㉠ 욥은 친구들에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지 아니했느냐고 했는가? (28-30절)

- ㉠ (1)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는뇨’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악인들은 분명히 죄값으로 멸망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반대 의견을 진술했다.
- (2) 그 진술의 내용은 자기가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 즉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7-14절).
- (3) 욥은 자기의 진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 편견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 가는 자들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다.
- (4) 이러한 욥의 논리 전개는 분명 그가 내세(來世)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 (5)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후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진리이다(참조, 눅 6:22-26; 14:12-14; 16:25).
- (6)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악인에게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즉각적인 분노를 발하지 말고 선(善)을 유지하라고 권고하였던 것이다(참조, 롬 12:17-21).

18. ㉠ 욥은 악인이 살아 있을 때의 일과 죽은 후에 그의 육체가 당한 것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1-33절)

- ㉠ (1) 욥은 악인이 살았을 때와 죽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 외형만 볼 때는 더없이 평안하고 안락해 보인다는 것이다.
- (2) 즉 그 악한 군주나 부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의 악행을 면전에서 충고하지 못했으며 그 옹호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세력이 막강했다는 것이다(31절).
- (3) 뿐만 아니라 그가 죽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떼어 가서 장사지내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세울 만큼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32절).
- (4) 그리고 그가 무덤 속에서 흙덩이를 달게 여길 만큼 평안한 인상을 보여 주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까지 착취했던 그를 영광

스럽게 하고 있었다(33절).

- (5) 이처럼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욕의 주장이다.
- (6) 성도들이란 이러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자들이다(참조, 히 11:13; 벰전 2:11).

19. **Q** 욕은 소발에 대한 두번째 답변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였는가? (34절)

- A** (1) 욕은 소발에 대한 두번째 답변의 결론으로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나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고 하였다.
- (2) 이처럼 욕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말에 의해 굴복될 수 없으므로 자기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 (3) 우리는 때때로 욕의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불행당한 이웃에게 찾아가 단지 자신의 선입견을 동원하여 그 불행을 평가할 때가 있다.
- (4) 그러나 이렇게 고정된 선입 관념에 입각해서는 이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불행한 문제에 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의 탑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동정만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참조, 빌 2:1-8).
- (6)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사랑과 위로로써 그 이웃의 불행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1:3-6).

**화보자료**

춤추는 여자. 아래의 사진은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는 예멘의 젊은 무희(舞姬)의 모습이다.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며 그 자녀들이 춤추고 즐기며 형통하게 지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도(7-13절) 욕에게는 의문점이었다(18절).

## 제 22 장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

단락구문 1-3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 4-11 여러 가지 죄를 들어 욕을 공격하다 / 12-20 욕의 반론을 꾸짖고 악인들의 멸망에 대하여 의인들이 기뻐한다고 하다 / 21-30 욕을 함하여 회계를 권유하다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나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나 네 죄악이 극하니라  
 6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붙잡으며 험악한 자의 의복을 벗기며  
 7 갈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 권세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9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 이르러도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흘연히 너를 침범하며  
 11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는니라  
 12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 뿔뿔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15 네가 악인의 밭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이르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20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컨대 너는 그 입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24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취리라  
 29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30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욕에 대한 엘리바스의 세번째 충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어조로 욕의 오만하고 맹목적인 독선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
- (2) 그래서 그는 욕의 선행이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입증한 다음 가상적(假想的)인 욕의 범죄 행위를 열거하였다.
- (3) 이처럼 비교적 냉정한 입장에서 출발한 엘리바스의 충고(4장)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열을 띠게 되고 친구로서의 예의를 망각한 채 지독한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다.
- (4)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감정에

핍싸여 인간의 본능적인 언어를 구사할 때가 있다.

- (5)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철저한 경건 훈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인간 본능의 소리를 제거하고 사랑과 겸손의 언어들만을 쏟아 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갈 2:20).

2. **㉠**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 말은 지혜로운 것이 인간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 (2) 즉 인간의 지혜와 관찰은 하나님의 지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3)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3:14; 시 115 3; 사 40:18; 롬 11:33-36).
- (4)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3절). 왜냐하면 그는 절대 완전하신 의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65:5).
- (5) 물론 그는 인간의 의로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만 인간의 의란 사실상 제한된 의로움이다.
- (6) 반면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참조, 시 116:12; 롬 11:35).

3. **㉠**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4,5절)

- ㉠** (1) 엘리바스는 욕이 극한 고난에 처한 것은 분명히 자기가 범죄한 죄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 (2)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욕의 범죄가 다른 일반적인 죄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극악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5절).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기에서 욕을 벌하셨는지는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 사실 욕은 엘리바스가 제시한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었다.
- (4) 욕의 양심이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듯이 욕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참조, 1:1; 2:3).
- (5) 엘리바스는 엄격한 법적인 보응과 어떤 의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고난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참조, 히 12:10).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의 처지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4. **㉠**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붙모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이 말은 욕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웃의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뜻이다(참조, 느 5:2-11).
- (2)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다(참조, 출 22:26). 하나님은 이런 형제나 이웃에 대한 악행을 싫어하신다(참조, 출 22:22-24; 신 27:19; 잠 14:31; 22:22, 23).
- (3)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행위를 원하신다(참조, 약 1:27).

5. **㉠**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즉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태도인가? (7절)

- ㉠** (1) 성경은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버려야 할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참조, 롬 15:2; 약 4:17).
- (2) 사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는 그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참조, 요일 3:14, 17).

- (3) 인간이 누리는 부와 건강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참조, 고전 4:7).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참조, 눅 12:42-44; 16:12).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건강과 부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참조, 눅 12:45-48).

6. **㉠** ‘권세 있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 (1) ‘권세 있는 자’란 무력을 가진 자, 즉 힘이 강한 자를 가리킨다.
- (2) 이들은 아마도 욱의 부하를 뜻하는 것인 듯하다. 엘리바스는 그들이 욱의 지시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불의에 재물을 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3) 이러한 비난은 다른 비난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참조, 29:16, 17).
- (4) 하나님께서 특권층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심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권세를 받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압제의 수단으로 또는 재산 축적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 (5) 인간이 가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참조, 롬 13:1) 겸손하게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7. **㉠** 엘리바스가 욱에 대해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는 비난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9절)

- ㉠** (1) 엘리바스의 비난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 (2) 즉 욱은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29:13)고 고백할 만큼 과부를 위해 일하였던 사람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29:11, 12)고 담대하게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 보살피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참조, 신 10:18; 사 1:17; 약 1:27).
- (5) 그러므로 이들을 돕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은 큰 죄악임에 분명하다(참조, 출 22:22; 신 27:19; 렘 7:6; 22:3; 숙 7:10).
- (6)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공물을 받지만(마 5:7) 이웃에게 공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 심성이다(약 2:13).

8. **㉠** 엘리바스는 욱이 행한 범죄 때문에 욱이 어떠한 지경에까지 놓였다고 하였는가? (10, 11절)

- ㉠** (1) 엘리바스는 울무가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침범하며 어두움이 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漲水)가 욱을 덮는다고 하였다.
- (2) 이와 같은 현상이 실지로 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3) 왜냐하면 그가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공의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은 그것을 받는 자의 죄과(罪過)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참조, 시 18:24-26).

9. **㉠** 엘리바스가 열거한 죄악상은 욱에게 해당되는가? (5-11절)

- ㉠** (1) 엘리바스가 제시한 죄악상과 그 보응은 진실에 가깝지만 그것이 욱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참조, 21:16).
- (2)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잘못 적용하게 될 때에 많

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것은 악을 병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3) 이러한 일은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데, 자신의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다.

(4)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성도에게 선행되는 일에 선블리 나서지 말라고 하였다(약 3:1).

10. **㉠**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1) 그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아시며 그것들을 통치하신다는 뜻이다(참조, 사 11:4; 전 5:2; 엡 4:10).

(2) 엘리바스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3)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결코 인식할 수 없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참조, 요 1:1-14).

11. **㉠**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활동하심을 어떻게 묘사하였다고 비난했는가? (13, 14절)

**㉠** (1)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관하실 수 있으랴 뿔뿔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穹蒼)으로 걸어나시실 뿐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묘사하였다고 비난하였다.

(2) 그러나 욥은 그가 했던 많은 말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었다.

(3) 여기서 흑암 중에 계신다거나 뿔뿔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다.

(4) 그리고 이런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참조, 시 18:11; 97:2).

(5) 여하튼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죄를 거듭짓고 있다(참조, 사 29:15; 렘 23:24; 겔 8:12).

12. **㉠**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15, 16절)

**㉠** (1) 그 길은 악한 자들이 추구한 삶의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서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한 길(창 6:12) 또는 니므롯 후손들에 관한 언급일 것이다(창 10:8, 9).

(2) 엘리바스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 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河水)로 인하여 함몰되었다고 하였다.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을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 해석하고 있다.

(4)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사상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서처럼(마 7:26) 단지 악인의 갑작스런 파멸에 관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악인에게 임하는 파멸이 갑작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벌을 예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3. **㉠** 엘리바스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 의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는가? (17-20절)

**㉠** (1) 엘리바스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無罪者)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는 말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와 같이 조소와 조롱은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임에 분명하다(참조, 시 2:6;58:10;107:40-42;잠 11:10).
- (3)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조차도 조소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조소를 퍼붓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 (4)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격은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하기 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갈 6:1;빌 2:4).

14. **㉠**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서두르라고 했는가? (21절)

- ㉠** (1)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면하였다.
- (2) 여기서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네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라 그리하면 네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사실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평안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성취 불가능한 것이다.
- (4)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제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참조, 요 14:27).
- (5)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다(참조, 엠 2:16, 17).
- (6)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얻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평안이 자신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것이다(참조, 요 16:33).

15. **㉠**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22절)

- ㉠** (1) 엘리바스는 먼저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마음에 둔다’는 것은 지, 정, 의의 죄소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말이다(참조, 신 6:6;잠 3:3;7:3;약 1:21).
-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참조, 고후 13:5).
- (4)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염매이게 하는 것인지를 살피보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벰전 2:8).

16. **㉠**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는가? (23절)

- ㉠** (1)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였다.
- (2) 즉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신앙이 변절된 상태로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은혜를 회복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 (3) 그는 계속해서 욥에게 ‘네 장막에서 불의(不義)를 멀리 버리라’고 권면하였다.
- (4) 이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죄인들이 명심해야 할 은혜 회복의 단계임에 분명하다.
- (5)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먼저 자신의 전의지(全意志)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난 다음 지난 허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모두 제거해야 할 것이다.
- (6) 이처럼 회개란 단순한 인식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행위를 통한 전인격의 뉘우침이어야 한다.

17. **㉠** ‘오빌의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24, 25절)

- ㉠** (1) ‘오빌의 금’이란 굉장한 부를 상징하는 말로서 오빌은 금이 다량으로 산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왕상 9:28;10:11 ;22:48;대상 29:41;시 45:9;사 13:12).

- (2) 여기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는 자는 먼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보배 또는 오빌의 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3) 사실 우리들은 자신의 삶 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만다(참조, 마 6:24).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참조, 마 13:44-46;눅 9:62).
- (5) 우리가 이렇게 뼈아픈 포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 결국 이러한 포기야말로 모든 것을 획득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믿어야 한다(참조, 요 12:25).

18. **㉠** 엘리바스는 욥에게 만약 그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어떠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는가? (26-30절)

- ㉠** (1) 엘리바스는 욥에게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이상 현재와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다(26절).
- (2)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서원(誓願)한 것을 모두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27절).
- (3)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 그 길을 비출 것이라고 하였다(28절).
- (4) 그가 겸손해진 까닭에 비록 낮춤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였다(29절).
- (5)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조차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30절; 약 5:16).
- (6)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이다(참조, 시 37:4, 5).
- (7)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편을 방임해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신다(참조, 롬 1:18-32).

본장의 요점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29절).



# 제 23 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

단락구분 1-5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다 / 6-7 욥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다 / 8-9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욥의 탄식 / 10-14 욥의 신앙 고백 / 15-17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다

- 1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 4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 7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 9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 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 14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 15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 16 하나님이 나로 님스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 17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 1. ㉠ 본장에 나타난 욥의 심정은 어떠한가?

- ㉠ (1) 본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22장)을 문제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살피 주실 것을 확신한 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망하였다.
- (2)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뜻대로 욥을 만나 주시지 않자 욥은 깊은 탄식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기만 고대했다.
- (3) 이처럼 욥이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친구들의 무정한 비난이나 하나님의 무자비한 처사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두려운 사실과 거기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 때문이었다.
- (4)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 (5) 하지만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그가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신앙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 2. ㉡ 욥은 오늘도 혹독(酷毒)하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욥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는 말은 그가 받는 재앙이 너무 커서 신음 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욥이 혹독히 '원망'한다는 말은 물론 '불평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묵상

한다' 또는 '기도한다' 그리고 '애절하게 호소한다' 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4)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욕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저주를 했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해석인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 이상으로(3장) 하나님과 이웃을 저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 (5)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애타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 (6) 이처럼 성도가 극한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참조, 시 50:15).

3. **Q** 욕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3절)

- A** (1) 욕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고독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말해 준다.
- (3) 즉 욕은 옛날의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에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느낌을 가졌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였다.
- (4)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 (5)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늘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참조, 행 17:28).

4. **Q** 욕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 무엇을 하기를 원하였는가? (3-5절)

- A** (1) 욕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辨白)할 말을 입에 채우고'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다.
- (2) 이처럼 욕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확신하였던 것이다.
- (3)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입에 채운다'고 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주요 아버지로 믿고 자기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로 고백하는 행위이다(참조, 삼상 1:15; 시 62:8).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 또는 구원자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다(참조, 잠 8:17; 마 7:7).

5. **Q** 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으로 확신했는가? (6절)

- A** (1) 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하여 그 크신 힘으로 억누르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처지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믿었다.
- (2)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대단히 엄정(嚴正)한 분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사정을 아뢰지 못하고 자신만의 고민으로 남겨 둘 때가 있다(참조, 마 25:24, 25).
- (3)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고지식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참조, 시 103:13-17).
- (4)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하시며(참조, 시 94편; 약 5:16)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참조, 시 9:12).
- (5)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나 인간은 자기의 그릇된 피로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참조, 마 7:7, 8).

6. **Q**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A** (1) 이 말은 나의 권리를 영원히 회복하리라는 뜻이다.
- (2) 즉 욕은 만일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3) 이처럼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확신하고 하나님도 결국은 자기의 무죄와 권리를 인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4) 사실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다(참조, 요일 3:21).
- (5)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소유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요일 3:22-24).

7. **㉠ 욥은 하나님을 만나 보겠다는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8, 9절)**

- ㉠** (1) 욥은 하나님을 만나 보겠다는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다.
- (2) 욥의 이와 같은 말은 그가 하나님께 가서 그의 처지를 변론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방에서 찾아 헤맸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욥의 정신적인 슬픔과 아무 결실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는 마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지친 영혼의 상태와 비슷하다(참조, 마 27:46).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회피하지 않으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
- (5) 단지 욥처럼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것 같은 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불응답이다(참조, 시 42:1-5).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향한 간구의 소리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50:15; 사 43:2; 히 13:5).

8. **㉠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뵈지 못하는 실의(失意) 중에서도 어떤 소망을 지녔는가?(10절)**

- ㉠** (1)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뵈지 못하는 실의 중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精金) 같이 나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 (2) 즉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아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3) 사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시 1:6)과 그가 굽게 하시는 악인의 길(시 146:9) 모두를 알고 계신다(참조, 시 139:2).
- (4) 그러므로 욥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금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정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믿었다.
- (5) 즉 그는 자기의 고난에는 궁극적으로 순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참조, 시 12:6; 사 1:25; 렘 6:29, 30; 9:7).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모든 삶을 지배하셔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끝내 영화롭고 순수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참조, 약 1:2-4).

9. **㉠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을 어떻게 지켰다고 하였는가? (11,12절)**

- ㉠** (1) 그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난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 (2)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행위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입의 말씀을 자기 가슴(중심) 속에 귀하게 간직하였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욥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음을 강력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큰 억울함이며 슬픔이었다. 즉 욥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만 하나님이 그 공의의 법을 실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다.

(5) 욱의 불만은 단지 인간적인 오해일 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0. **㉠ 욱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 또는 확고 부동하심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3, 14절)**

- ㉠** (1) 욱은 하나님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편애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참조, 약 1:17).
- (2) 사실 하나님은 용이하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시며 말 씀으로 그것을 시행하시기도 한다.
- (3)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진행시켜 나가신다(참조, 시 115:3; 사 46:10, 11; 앰 1:11). 즉 패배하지 않고(참조, 대하 20:6; 사 43:13) 또 실패하지도 않는다(참조, 창 18:4; 눅 1:37; 앰 3:20).
- (4) 그러므로 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이미 작성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실 것으로 믿었다(14절). 이러한 대항할 수 없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큰 힘이 된다.
- (5) 이러한 이유에서 지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의 몫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11. **㉠ 하나님의 절대 의지 앞에 선 욱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15절)**

- ㉠** (1) 하나님의 절대 의지 앞에 선 욱은 떨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 (2) 이처럼 욱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거의 친구를 잃은데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 (3)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며 두려움이 된다(참조, 시 77:3).
- (4)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 (5)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롬 8:15)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참조, 요일 4:18).

12. **㉠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용기를 빼앗아 가버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다(참조, 신 20:3; 사 7:4; 렘 51:46).
- (2)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깨닫는 것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 (3) 즉 영적 또는 도덕적으로 장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난 인간의 부족함과 비천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긴장으로 인도하고자 만다(참조, 사 6:5; 눅 5:8; 계 1:7).
- (4)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란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와해되거나 비통해 하는 일은 결코 없다(참조, 42:6; 출 4:10; 사 6:5).
- (5)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참조, 눅 5:8).
- (6)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욱 잘 알고 계신다.

13. **㉠ 하나님께 대한 욱의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욱의 불평은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였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다.
- (2) 즉 그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함과 괴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련을 겪기 전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이처럼 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재의 고통으로 인한 갈등을 계속 겪었던 것이다.
- (4) 물론 이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은혜로운 자비를 알지 못하는 불완

전한 지식 때문일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과 성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시 37:7; 사 30:15).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며 의뢰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셔서 구원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습 3:17).

## 화보자료

제철소의 쇳물. 아래의 사진은 쇳물이 도가니로부터 흘러나와 철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욘은 자신의 고통을 단련 중에 있는 금으로 비유했다(10절). 이는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 후에는 도리어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참조, 13:20-22).

## 제 24 장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다

단락구분 1 욥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고 싶어하다 / 2-12 포악한 죄인들을 벌하시지 않음에 대하여 항의하다 / 13-17 여러 악한 자들의 악행의 모습 / 18-21 여러 악한 죄인들이 당할 결국 / 22-25 악인이 편히 살고 편안히 죽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다

1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 어떤 사람은 지계표를 읊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붙도잡으며

4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땅아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6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 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붙도잡으므로

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주리면서 곡식단을 메며

11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물을 밟느니라

12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랴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16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지 못할 것이라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피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20 태가 그를 잊어 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썩이리라

21 그는 잉태치 못하므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들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22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23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라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24 그들은 높아져서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베임을 입느니라

25 가령 그렇지 않음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전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이다.  
 (2) 본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한 불평을 토로했는데 그 불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한 인간들을 징벌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에 의해서 그 징벌을 유보(留保)하시는 것뿐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성급함과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는 인내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7-21).

2. **Q** **☉** **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불만을 발설하였는가? (1절)**

- A** (1) 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時期)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
- (2) 여기서 ‘시기’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도덕적 지배자로 행동하실 때 그 자신을 나타 내시는 특별한 시기이며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고 죄인을 보응하실 때 취하시는 특별한 시기를 의미한다.
- (3) 이러한 날은 예언서에서 여호와와의 날로 언급되어 있다(참조, 사 2:12; 3:18; 4:1; 스 1:7, 14).
- (4) 그런데 욘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굉장한 의문점으로 안고 있었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당신 혼자만 알고 제실 뿐 인간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 한다(참조, 행 1:7). 이것은 인간을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참조, 전 3:11; 7:14; 고전 8:1).
- (6)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정확히 알려시지는 않지만 이런 때가 가까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징조들을 보이시고 계신다(참조, 마 24:3-51).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고 더욱 긴장한 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1-13).

3. **Q** **☉** **욘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말로써 한탄하였는가? (2-4절)**

- A** (1) 욘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지 못함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지계표(地界標)를 옮 기며 양 때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한탄하였다.
- (2) 이러한 표현은 자주 이주하는 유목 민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3) 하나님은 이웃의 땅을 탈취하는 자를 약속받은 타인의 땅을 침범한 자로 여기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참조, 신 27:17; 잠 23:10).
- (4) 그리고 이웃의 양을 빼앗고(참조, 잠 22:22, 23)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이다(참조, 출 22:22; 신 24:17; 시 94:6; 사 1:23; 렘 5:28).
- (5) 또한 힘있는 자의 횡포로 약하고 무능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 시는 것 중에 하나이다(참조, 사 5:6; 히 11:38).

4. **Q** **☉** **욘은 악한 자들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고 탄식했는가? (5-8절)**

- A** (1) 먼저 그들은 들나귀같이 사방으로 뛰면서 먹을 것을 구한다고 하였다(5, 6절). 또한 그들은 추수 때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 둔 포 도를 따는 등의 일들을 한다고 하였다.
- (2) 그리고 그들은 옷이 없으므로 찌저린 추위를 맞보아야 한다고 하였다(7절).
- (3) 뿐만 아니라 몸을 가리울 만한 공간(집)이 없기 때문에 바위를 그 은신처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8절).
- (4)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세력 있는 자들의 횡포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방황하는 자들, 특히 도시의 철거민들이 바로 그들이라 할 수 있다.
- (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호소를 떨치치 않으실 뿐 아니라 횡포하는 자 들의 기도와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사 1:10-17).

5. **Q** **☉** **욘은 성중(城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탄하였는가? (9-12절)**

- A** (1) 욘은 성중에서는 악인들이 매우 잔인하여 채무에 대한 배상으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채무자의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 노예로 삼는다고 했다(9절; 왕하 4:1; 느 5:5).

- (2) 또한 악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옷을 불모로 잡아 그들을 벗은 몸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였다(9절).
- (3) 모세 율법에서는 옷을 불모잡는 일을 허용하고 있지만(참조 출 22:26; 신 24:12, 13) 단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게 그의 옷을 밤에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출 22:27; 신 24:13).
- (4) 그리고 세력이 없는 자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그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굶주리며 목말라한다고 하였다(10, 11절).
- (5) 그러므로 성중에서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신음하며 피해당한 자들이 부르짖고 있다고 하였다(12절).
- (6) 그러나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욕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의혹스러운 일이었다.
- (7) 하지만 이것은 욕의 조급한 태도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해 두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롬 1:18-32; 12:17-21).

6. **㉠**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13-17절)

- ㉠** (1) 이성과 양심 그리고 율법의 빛을 전적으로 거부한 채 악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킨다.
- (2)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무관하며, 또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참조, 요 1:9-11).
- (3) 또한 그들은 살인(14절)과 간음(15절), 강도질(16절)을 반드시 어두운 때, 즉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 일을 치룬다.
- (4) 이처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참조, 요 3:19-21; 8:12; 12:35; 롬 13:12; 엡 5:8-14).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침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며 이들의 모든 숨겨진 악행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참조, 시 101:8; 습 3:5).

7. **㉠** 욕은 불의한 자의 종말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8-20절)

- ㉠** (1) 욕은 불의한 자의 생명과 그 재산은 결국에 저주를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8절; 9:26; 호 10:7).
- (2)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음부(무덤)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9절; 시 49:14).
- (3)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자에게도 잊어버린 바 되고 구더기가 그의 육체를 맛있는 식사로 여기게 될 것이며 모든 악한 계획이 꺾여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20절; 19:10; 전 11:3; 단 4:10).
- (4) 이처럼 욕은 악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참조, 약 1:15).

8. **㉠** '잉태치 못하므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확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 ㉠** (1) 이 말은 매우 연약하고 방어할 수 없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확대한다는 말이다.
- (2) 즉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치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참조, 삼상 1:5-8; 3:1-10) 해산치 못한 여인을 억압한다는 것은 극도로 잔인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 (3)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있는 자에게는 횡포를 일삼지 못하는 반면에 힘없고 보호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다(참조, 마 9:9-13).
- (5) 요즈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인 교회에서마저도 연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피난처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9. **㉠**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취급하신다고 하였는가? (22-24절)

- ㉠** (1)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악인들의 삶에 형통함을 더하신다고 하였다(22절). 물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는 유일한 분깃일 뿐이다(참조, 시 17:13-15; 렘 12:1, 2).
- (2)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며, 악인은 주어진 평안함 속에서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23절).
- (3) 즉 이처럼 악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높아지게 되지만 결국은 낮아지고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24절).
- (5)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하였다(참조, 5:26).
- (6) 물론 악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 (7)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10. **㉠** 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25절)

- ㉠** (1) 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辯駁)할 자 누구랴'라고 결론을 내렸다.
- (2) 이 같은 결론은 욥이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승리적인 표현이며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경험한 데서만 표현되는 것이다.
- (3) 즉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항상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반드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 (4) 그러나 욥의 이러한 주장은 악인의 죄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용이 지연되고 있을 뿐 확실히 임하는 것으로 믿었다.
- (5) 사실 폭풍 전의 고요가 더 무섭듯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가 크면 클수록 종국에 그들이 받을 형벌은 더욱더 가혹할 것이다(참조, 롬 12:19, 20).

### 본장의 요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22절).



## 제 25 장 빌닷의 세번째 변론

단락구분 1-3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논(論)하다 / 4-6 빌닷이 인간은 아주 저급한 존재임을 역설하다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6 하물며 별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 1. ㉠ 본장이 제공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빌닷은 욥의 견해를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감히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미천함을 강조함으로써 욥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외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이와 같은 빌닷의 주장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여전히 열쇠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부한 것이었다.
- (3) 그렇지만 그는 소발의 야비한 험박(20:5-9)과 엘리바스의 분별력 없는 비난을 피하고 있다(22:5-9).
- (4) 본장에서 언급된 빌닷의 논리는 물론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된 것은 잘못이지만 그의 주장은 진리임에 분명하다.
- (5)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가 얼마 만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 빌닷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빌닷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주권과 권위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였다(골 1:16). 이 권능은 독립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동일한 권능을 가질 수 없다(참조, 창 14:19; 신 10:14; 왕하 19:15; 시 95:3; 잠 8:15; 마 11:25; 벰전 2:14).
- (3) 그리고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굴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이다(참조, 신 5:29; 10:12; 수 24:14; 시 2:11).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불화(不和)를 가라앉히신다고 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위엄만을 소유하신 엄한 분이 아니라 인류에게 평화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 (6)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참조, 엡 2:14), 또한 그 분이 친히 평화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요일 4:9, 10).

### 3. ㉠ 빌닷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놀라우신 섭리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절)

- ㉠ (1) 빌닷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그 군대를 어찌 계수(計數)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군대'란 천군을 뜻하는데(시 103:21) 이 천군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이며(시 68:17; 히 12:22; 계 5:11), 질서 정연한 군대이며(신 4:35),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시 104:4; 마 25:31),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복종하는 군대를 가리킨다(속 6:5; 마 24:21; 히 1:14).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의 군대를 소유하신 무한한 능력 그 자체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 나가신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의한 은총의 빛으로 온 인류를 덮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묘사되기도 한다(약 1:17).
- (5) 하나님의 선하심은 먼 거리에까지 미치고(시 33:5)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시 145:9) 또한 실패함이 없으시다(시 100:5).
- (6)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는 빛으로 상징화 되어 있으며(참조, 사 2:5; 요 12:35; 고후 4:4),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참조, 요 1:4; 9:5).
- (7) 이 빛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구원의 계시를 하기 위해 비취진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태양처럼 온 지구를 두루 비취도록 되어 있다(참조, 시 19:4; 롬 10:18).

4. **㉠**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였는가? (4절)

- ㉠** (1)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2)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참조, 9:2; 시 143:2; 사 57:12; 롬 3:20; 엡 2:9; 딤후 3:5).  
 (3) 그런데 빌닷은 인간의 부정에 대해서 그 기원이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14장 **㉠**2를 참조하라.

5. **㉠** 빌닷은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5, 6절)

- ㉠** (1) 빌닷은 인간을 벌레 또는 구더기에 비유하였다(6절).  
 (2) 여기서 인간을 구더기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찮은 존재이며 동시에 허물 많은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참조, 렘 17:9; 롬 3:4, 10-15).  
 (3) 그리고 성경에는 벌레 또는 구더기라는 표현 외에 인간을 가리켜 진토와 같다(시 103:14), 또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다(시 62:9), 그리고 풀과 같다(사 40:6), 안개와 같다(약 4:14)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낱 죄인이며 아무 쓸데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행할 때에야 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참조, 시 138:6; 고후 12:9, 10; 약 4:6; 벰전 5:5).  
 (6) 그러나 만일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다면 그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세력에 의하여 파멸되고 말 것이다(참조, 시 119:21).

# 제 26 장 빌닷에 대한 욱의 세번째 답변

단락구분 1-4 욱이 자기를 괴롭게 한 빌닷에게 반문하다 / 5-14 욱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열거하다.

- 1 욱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뉘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 5 음령들이 큰 풀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 6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 7 그는 복면 하늘을 허공에서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 8 풀을 딱딱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밀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니라

- 9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 12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흥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 13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찢르시나니
- 14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라

## 1. ㉠ 본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부터 본서의 중요하고 가장 실속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섯 장(26-31장)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 (2) 특히 본장에서 욱은 빌닷의 마지막 충고를 피상적이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시한 후 논쟁적인 문제를 떠나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 (3) 무엇보다도 본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욱이 고백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때문이다.
- (4) 이처럼 욱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 (5)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고 있으며 당신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임을 확신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6)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 2. ㉠ 욱은 빌닷의 세번째 충고를 듣고 난 다음 어떠한 응답을 하였는가? (1-4절)

- ㉠ (1) 욱은 사상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말로만 자신을 도우려는 빌닷의 행위를 비유적으로 공박하였다.
- (2) 즉 욱은 자기에게 적합하지 못한 빌닷의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 (3) 오히려 빌닷은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묘사하거나 인간의 저급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차라리 상한 심령과 상처 투성이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이 나왔을 것이다.
- (4) 이처럼 말이란 제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합한 말이 되지 못할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염려가 있다(참조, 잠 15:23;25:11).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을 할 때에 먼저 상대방에게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를 살핀 다음 말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 15:28; 고전 14:19).

3. **Q** '음령(陰靈)들'이란 어떠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가? (5, 6절)

- A** (1) '음령들'이란 죽은 자, 즉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기쁨이 없는 존재이며 우울한 존재로서 빛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시 88:11; 잠 2:18; 9:18; 사 26:14, 19).
- (2) 그런데 욥은 이러한 음령들이 거하는 음부에서도 전능자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두려움에 떠한다고 묘사하였다(참조, 시 139:8; 잠 15:11; 약 2:19).
- (3) 즉 빛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서 당신의 눈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으며(참조, 히 4:13) 음부의 깊은 구멍도 숨겨질 수 없다고 하였다.
- (4)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는 우리는 또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참조, 마 16:18; 계 1:18; 20:13, 14).

4. **Q**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를 섭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13절)

- A** (1) 욥은 북쪽 하늘에 별들을 조성해 두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땅을 우주 가운데서 만들어 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7절). 즉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온 우주가 조성되어 지탱된다고 하였다.
- (2)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대기의 기상 법칙을 당신의 주권으로 운행해 가시는 분이므로 당신의 섭리하심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도록 하신다고 했다(8, 9절; 시 104:3-13; 암 9:6).
- (3)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경계를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의 경계까지 설정해 두셨다고 하였다.
- (4)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제한하신 것처럼(행 17:26) 바다의 한계와 낮과 밤의 교체를 규정해 두셨다고 하였다(참조, 창 1:4; 잠 8:29).
- (5)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다고 하였다(11-13절; 시 29:3-8; 41:5; 104:32; 합 3:10).
- (6) 이처럼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영역에서 더욱 놀랍게 발견되어진다.

5. **Q** '라합'과 '날랜 뱀'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12, 13절)

- A** (1) '라합'이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을 상징한다(9:13).
- (2) 그리고 '날랜 뱀'이란 흑자는 어떤 별자리의 이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고도 한다.
- (3)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연계 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어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거부하는 모든 무리들을 파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유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대상 29:12; 시 103:19; 행 10:36; 17:24; 엡 4:6).

6. **Q** 욥은 지금까지 고백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14절)

- A** (1) 욥 자신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의 능력은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신비로워서 도저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써 마무리 지었다.
- (2)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부분적인 것으로서 결코 인간의 짧

은 지식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참조, 고전 13:9).

- (3) 그러므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라고 고백하였다.

## 연구자료

라합(Rahab)과 용(dragon). '라합'이란 바다 괴물(sea monster) 또는 용을 가리키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을 의미한다. 이 말은 '자만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라합>이나 '휘젓다', '책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카드어 <라아부>에서 유래된 듯하다. 이 '라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만물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절과 관련해서만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힘으로 대결하여 라합을 이기셨다는 것이다(12절; 9:13; 시 89:10; 사 51:9). 이러한 귀절들은 모두 바다를 제어(制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적할 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런데 이 중 사 51:9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말은 이어 나오는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사 51:10)라는 말을 통하여 애굽을 가리키는 시적(詩的), 은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지적하는 것이다(참조, 출 14장). 한편 히브리어로 <탄닌>으로 불리는 '용'은 대체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데(계 12:13, 16, 20) '뱀'(serpent)이라고도 일컬어진다(계 20:2).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리워야단'(Leviathan), 히브리어로 <리웨야탄>이라 불리우는 짐승도 등장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사 27:1), '악어'(3:8; 41:1; 시 74:14; 104:26)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리워야단과 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당하고 마는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참조, 사 27:1; 계 20:1-10) '라합', '용', '리워야단'은 실재하는 짐승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여러 상징임을 알 수 있다.

# 제 27 장 친구들에 대한 욱의 마지막 답변

단락구분 1-6 욱이 자신의 순결을 끝까지 확신하다 / 7-12 욱이 자신의 적대자를 향하여 저주하다 / 13-23 욱이 악인들의 비극적인 앞날에 대하여 논하다

- 1 욱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 2 나의 의를 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 3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꾀함을 발하지 아니하리라
- 5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 6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 7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8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 9 환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려 아뢰겠느냐
- 11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주

-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 13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 14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 15 그 남은 자는 염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 17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 18 그 지은 집은 쯤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 19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 20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때앗아 갈 것이며
- 21 동풍이 그를 날려 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 22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 23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 1. ㉠ 본장에 언급된 욱의 변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욱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는 부분으로서 욱은 죽기까지 자기의 무고(無故)함을 주장할 것을 선언한 다음 악인들의 분깃과 그들의 소망 없는 운명을 논하였다.
- (2) 흑자는 악인에 대한 욱의 견해(7-23절)가 비록 소발이라는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소발의 세번째 연설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흑자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욱의 풍자적 논의를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여하튼 이 부분은 악인이 한때는 변명하여도 항상 혹은 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님을 욱이 약하게나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 (4) 사실 인과 응보(因果應報)의 견해는 성경에 제시되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며 욱은 그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 (5) 이처럼 욱은 자신의 순결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악인과 그들의 운명에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웃을 정당하게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삶을 둘러 보고 하

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증거를 얻도록 노력해야 옳을 것이다.

2. **㉠** ‘비사’(譬詞)란 무엇인가? (1절)

**㉠** (1) ‘비사’란 시 형태를 빌어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것을 뜻한다.

- (2) 이와 같이 여태껏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비사)를 갑자기 소개한 것은 현재의 논의가 앞선 모든 논의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즉 본서의 내용이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하다.

3. **㉠** 욥은 무엇을 가리켜 맹세하였는가? (2절)

**㉠** (1) 욥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 (2) 이제 엄숙한 상황에서 정당한 판단을 위하여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 그는 그의 증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말하려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일러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3)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살아계신 전능자라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이 맹세할 때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8:19; 룻3:13; 삼상14:39; 삼하4:9; 왕상2:24; 왕하5:20; 대하18:13; 렘38:16).  
 (4) 그런데 욥은 자기가 호소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고 억제하는 자라고 첨가하고 있다. 즉 욥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하나님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9:32-35; 13:31; 23:3-7).  
 (5) 그러나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불신앙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13:15).

(6)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이시며 도움을 주시는 자시며 구속자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19:35)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4. **㉠**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먼저 사람이 살아 있는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졌기 때문이다(참조, 창2:7).

- (2) 이런 관점에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자신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참조, 10:8, 9) 그의 코는 하나님의 기운에 의존하여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3) 즉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4)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보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때에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5)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참조, 롬8:31-39).

5. **㉠** 욥은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4절)

**㉠** (1) 욥은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꾀를 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언어 생활이 순결했음을 확신하였다.

- (2) 이러한 욥의 확신은 잘못이 없으며 자신을 과장하는 지나친 주장도 아니다(참조, 고후11:31; 갈1:20).  
 (3)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가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참조, 창12:13; 26:7) 그들은 거의 거짓말을 삼가했고(참조, 출20:16; 레19:11; 시34:13), 비진실성도 미워했으며(참조, 잠13:5), 거짓 주장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참조, 사63:8; 골3:9).

- (4) 그런데 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렘 17:9)을 미처 몰랐던 것만은 확실하다.
- (5) 사람은 자기 행실에 흠이 없고 언어에 제아무리 실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6. **㉠ 욥은 자기의 순전(純全)함을 언제까지 계속 주장하겠다고 하였는가? (5절)**

- ㉠** (1) 욥은 자기가 계속 살아 있는 한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2) 이러한 욥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義)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부과시키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3) 사실 욥이 소유하였던 그 순전함은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은 것이며 질병과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던져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보물이었다.
- (4) 욥이 소유했던 이러한 순전함은 세속의 영향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참조, 요 21:15).

7. **㉠ 욥은 장차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선언하였는가? (6절)**

- ㉠** (1) 욥은 과거에도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는 미래의 삶에도 가책이 없는 동일한 길을 굳게 잡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2) 즉 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겠노라고 공포하였다(참조, 행 23:1; 24:16; 고전 4:4; 딤후 1:3; 요일 3:21).
- (3) 욥이 이처럼 자신의 신앙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고후 1:12).
- (4) 사실 사람의 의지란 순간적이어서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에 먼저 자신의 감정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결정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6) 성경에는 육체적인 의지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열거하고 있다(참조, 행 5:1-5; 갈 5:17).

8. **㉠ 욥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노라는 소원을 품고 있었는가? (7절)**

- ㉠** (1) 욥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소원하였다.
- (2) 여기서 욥의 대적, 또는 일어나 욥을 치는 자는 일반적으로 불경건한 자가 아니라 욥의 순전함을 비난하고 욥에게 저항하여 일어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 (3) 이처럼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민하게 분개하고 있었다.
- (4)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기 마련이다(참조, 마 10:22; 요 15:19).
- (5)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근본적으로 사고 구조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참조, 벧전 3:16, 17; 4:4).
- (6)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고난과 비난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감정과 혈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12).

9. **㉠ '사곡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 (1) '사곡한 자'란 위선자 또는 거짓말장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욥은 이처럼 사곡한 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많은 이익을 획득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참조, 막 8:36, 37).
- (3)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현세에서 어떠한 복을 향유한다 하더라도 그는 소망

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참조, 눅 12:16-21).

- (4) 하지만 현세에서는 내세울 만한 특권이나 부는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참조, 잠 14:32).
- (5)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느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평온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삼하 23:5; 시 17:15).

10. **㉠**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결코 들으시지 않는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악한 무리와의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3) 즉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신다(참조, 잠 1:24-31; 15:8).
- (4)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 선을 베풀지 말라고 하시기까지 그들을 멀리하신다(참조, 렘 7:13-16; 11:14; 14:11; 행 8:18-24).
- (5)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사 1:10-17).

11. **㉠** 욕은 사악한 무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는가? (10절)

- ㉠** (1) 욕은 사악한 무리와 하나님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악한 무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2) 사실 사악함, 즉 위선과 거짓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간시킨다.
- (3) 즉 악인의 본능적인 기질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매력이 있는 세상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참조, 톰 1:21-23).
- (4)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그의 임재 앞에서 거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12. **㉠** 욕은 친구들의 충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서론적으로 어떤 말을 꺼내었는가? (11, 12절)

- ㉠** (1) 욕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1절)고 하였다.
- (2) 즉 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13-23절).
- (3) 욕이 친구들에게 지적한 것은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과 (20-23절) 사악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는 사실이다(23절).
- (4) 이렇게 욕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다고 그들을 책망하였다(12절).
- (5) 우리가 겪는 대인 관계의 아픔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견해 차이와 이해 결핍에서 온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인 관계를 형성해 가기에 앞서 먼저 개개인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참조, 약 1:19).

13. **㉠** 욕은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분깃은 어떤 것이라고 하였는가? (13-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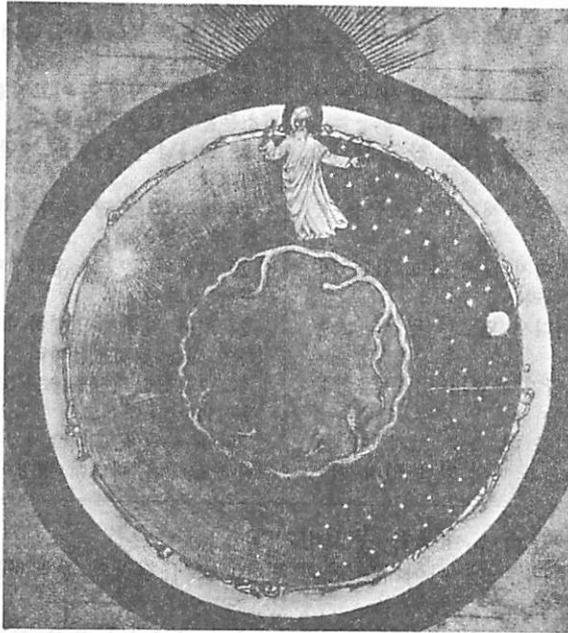
- ㉠** (1) 욕은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분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그 자손은 칼에 죽을 것이며 기근과 악질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13-15절).
- (2) 두번째로 그의 부유한 재물은 의인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

였다(16-18절).

- (3) 마지막으로 악인 자신은 하나님께 끊어짐을 받아 무서운 재난에 빠질 것이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19-23절).
- (4) 여기서 칼이나 식물에 배부르지 못함이라든지 엄병 그리고 두려움 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꺾으시는 당신의 의지의 표현이다(참조, 램 14:12).
- (5) 그러므로 악인들이 끝내 당하고야마는 고난들은 결코 우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겪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 (6)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 (7)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마저 증거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 화보자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의 사진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삽화로서 14세기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기도서에 삽입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옴은 비록 자신이 재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2절)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

# 제 28 장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

단락구분 1-11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의 지식 / 12-22 지혜와 그 값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 23-28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아신다

- 1 은은 나는 땅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 2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 3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
- 4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 5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 6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 7 그 길은 슬개도 알지 못하고 때의 눈도 보지 못하며
- 8 위엄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 10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 11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취었던 것을 맑은 데로 내느니라
-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 13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 14 깊은 물이 흐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

- 하다 하느니라
- 15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 17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 18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 20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 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 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 23 하나님만이 그 길을 깨닫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 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 25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 26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뢰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 27 그 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의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 1. ㉠ 본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 이어지는 욥의 변론으로서 전장의 문맥과는 약간 단절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2) 그래서 혹자는 본장의 내용이 후기에 첨가된 것이거나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본장은 분명히 욥의 고백으로서 본서 전체의 흐름에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 (4) 본장에서 욥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다운 지혜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역설하였다.

- (5) 그가 강조했던 지혜란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철학적이고 현실 타개적인 피가 참다운 지혜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 (7) 따라서 사람이 본래적으로 지닐 수 있는 지혜란 전혀 없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신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다운 지혜임을 알게 된다.

2. **㉠** **음**은 인간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의미로 어떤 말을 하였는가? (1-4절)

- ㉠** (1) 음은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에(陰翳)와 유암(幽暗) 중의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음예와 음유'이라는 말은 가장 절망적이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인간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헛된 상태를 뜻한다.
- (3) 이처럼 사람들은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보다 훨씬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 (4) 물질울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은 모든 영적, 도덕적 법규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3. **㉠** **음**은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 6절)

- ㉠** (1) 음은 지상 세계를 식물을 조성하는 곳으로, 지하 세계를 불로 뒤집는 것같이 뜨겁고 그 속에는 귀한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우리는 지상과 지하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 (3)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식물은 보석류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확보하기에 좋도록 지상 세계에 두신 것이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것으로 인간은 다만 그 앞에서 경탄과 찬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4. **㉠** **음**은 인간(광부)의 능력을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7-11절)

- ㉠** (1) 음은 인간(광부)의 능력을 술개와 매 그리고 위험스러운 짐승과 사나운 사자에 비교하였다(7, 8절).
- (2) 즉 음은 인간이 눈이 좋은 새나 냄새를 잘 맡는 맹수도 찾아낼 수 없는 곳에서 부(富)를 얻기 위해 은밀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들보다 더욱 우월한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보았다.
- (3) 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큰 힘 앞에서도 자신의 물질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타개해 나간다(9-11절).
- (4)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 용기 그리고 위험에 대한 도전 등은 모두 인간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추구는 그 한계가 있을 뿐더러 끝내는 허무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보석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이름 이외에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참조, 행 3:6).

5. **㉠** **음**은 지혜와 명철이 인간 삶 속에 내재(內在)해 있다고 보았는가? (12-14절)

- ㉠** (1) 음은 지혜와 명철이 인간 삶 속에 내재해 있지 않을 뿐더러 피조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였다(13, 14절).
- (2)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란 박학 다식한 선생들이 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찰이나 경험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자질과 재능을 초월하여 있는 것으로서 생을 살며 인생의 운명을 완성해 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23-28절).

6. **Q** **욥은 참다운 지혜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는가? (15-19절)**

**A** (1) 욥은 참다운 지혜를 화려하고 값나가는, 진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얻은 농부처럼(마 13:45, 46)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였다(참조, 잠 3:14, 15; 8:10, 11).

(3) 그런데 이 지혜는 본질적으로 인간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고전 1:21).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인간에 의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없다(참조, 롬 11:33).

(4) 그리고 그 가치도 인간에 의하여 측정될 수 없다(참조, 마 16:26). 하나님의 지혜의 값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비싸며 그 가치도 크다(참조, 고전 1:24).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투자하여서라도 지혜 얻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약 1:5).

7. **Q**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가리워진 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0-22절)**

**A** (1) 욥은 옛날 점장자들이 새를 이용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는데, 먼 곳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러한 새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의 계시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2) 또한 멸망과 사망, 즉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도 이와 같이 높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3) 이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존재들마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다.

(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 당신의 모습과 참지혜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2:8, 9).

8. **Q** **욥은 누가 참지혜의 본거지를 알고 있다고 하였는가? (23절)**

**A** (1) 욥은 하나님만이 참지혜의 본거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였다.

(2) 즉 욥은 하나님만이 참지혜가 어디 있으며 지혜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까지 얼마나 멀리 전해질 수 있는가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였다.

(3) 사실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은 모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참조, 골 2:3).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유한 그 지혜를 공개하시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는 그 지혜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9. **Q** **욥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능력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4절)**

**A** (1) 욥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은 천하를 두루 보시며'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이 지상의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며 하늘의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 또한 무한하시다.

(3)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별 같은 하늘의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과 목적과 원칙과 법칙 등을 알고 계신다.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으로써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며 모든 것을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신다.

(5)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단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시 139:6).

10. **㉠** **☐** **육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5, 26절)
- ㉠** (1) 육은 '바람의 경중(輕重)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고 하였다.  
 (2) 사실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한 표현이다(참조, 잠 8:27-31).  
 (3) 특히 바람의 힘을 조절하는 법칙을 확정하시며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비구름이 모여서 비가 오게 하신 일과 번개와 그 경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훌륭히 나타낸 것이다(참조, 시 95:3).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지나치지 않은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고 찬양함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참조, 시 19:1-6).
11. **㉠** **☐** **'그 때에'란 언제를 말하는가? (27절)**
- ㉠** (1) '그 때에'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를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당신이 만드신 우주를 완전한 질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것이다.  
 (3)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을 이미 선포하시었고 또한 미리 계획하셨다고 할 수 있다(참조, 창 1:1-31).  
 (4)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등의 인물에게도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창조의 계획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법칙을 선포하셨다.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외 없이 당신의 선한 계획과 모든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시며 선포하신다.  
 (6)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참조, 딤후 3:15-17).
12. **㉠** **☐**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와 명철은 과연 무엇인가? (28절)**
- ㉠** (1)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계시)하셨다.  
 (2)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지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참조, 잠 1:7; 전 12:13).  
 (4)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지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다(참조, 시 33:8).  
 (5) 이러한 경외는 모든 순수한 지혜의 참된 근원이며 시작이다(참조, 시 111:5; 잠 9:10).  
 (6)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모순이다.  
 (7)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단호한 결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참조, 시 4:4; 잠 3:7; 8:13; 16:6; 사 1:16).

### 본장의 요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28절).

## 제 29 장 욕의 마지막 독백

단락구분: 1-6 전날에 욕의 신앙 생활과 가정 생활 / 7-17 전날에 받은 욕이 존경 / 18-20 전날에 욕이 가졌던 소망 / 21-25 전날 누리고 있었던 욕의 지도자적 위치

1 욕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2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같이 되었으면  
 3 그 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취었고 내  
 가 그 평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4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 그  
 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5 그 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  
 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 띠터가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반석이 나를 위  
 하여 기쁨시내를 흘러 내었으며  
 7 그 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8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  
 나서 서며  
 9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10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 천장  
 에 붙었었느니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12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  
 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  
 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  
 었느니라

14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  
 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15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며 생소한 자의 일  
 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쥐고 그 잇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19 내 뿌리는 풀로 뿔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  
 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팔은 내 손  
 으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21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  
 잠히 기다리다가  
 22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  
 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었나니  
 23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  
 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  
 하였었느니라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  
 나니 왕이 궁중에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  
 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 1. ㉠ 본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 ㉠ (1) 본장은 주로 이전에 욕이 누렸던 번영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상  
 당한 문명 생활을 누 던 사람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여기서 과거를 돌이켜 회상함으로써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장의 욕  
 처럼 지난날의 행복만을 회고하는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부유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취했던 태도를 회상하는 과거 지향에  
 빠지거나 현재의 삶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비극적인 결과만 초래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4)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묻어 두고 현재와 미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감사와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2. ㉠ 고난에 처해 있는 욕은 넓두리처럼 어떠한 소원을 읊조렸는가? (2절)

- ㉠ (1) 욕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그때를 동경했다.  
 (2) 즉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처지를 돌보시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켰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3)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시 42:1-5).

3. **Q**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3절)

- A** (1) '등불'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며 본장에서는 특히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참조, 시 18:28).
- (2)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는 등불을 켜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거두실 때에는 등불을 끄신다고 말씀하신다(참조, 18:6; 21:17).
- (3) 사실 인간이 걸어가는 흑암의 길, 즉 고통과 고난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필요하다.
- (4)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인간의 유일한 등불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였다(시 119:105).
- (5)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두움의 길을 벗어나 생명과 당신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4. **Q** '나의 강장(強壯)하던 날'이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4절)

- A** (1) '나의 강장하던 날'이란 원어대로 하면 '나의 삶이 절정에 달했을 때'이다.
- (2) 이 말은 아마도 그의 결심이 풍부하던 날 또는 완전하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고난이 읍에게 닥치기 바로 전까지 이런 경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 (3) 읍은 이러한 경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정, 즉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조언(助言)이 자기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 (4) 즉 읍은 자기 최상의 번영의 날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정한 친구와 같은 분위기로 교제를 나누었다고 술회하였다.
- (5) 성도가 가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경우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성도의 게으름과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5. **Q** 읍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던 때의 가정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6절)

- A** (1) 읍은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뼈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盤石)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다'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읍에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즉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시 127:3; 138:3).
- (3)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잊지 않으셨다. 그의 집에는 젖과 기름이 항상 넘쳤던 것이다(참조, 신 32:13).
- (4)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얻지만 간혹 물질적인 풍요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단지 한 개인의 배만을 채워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전 10:23,31).

6. **Q** 읍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고통당하기 직전까지의 그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가? (7-10절)

- A** (1) 고통당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읍의 사회적 위치는 명실 상부한 지도자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 (2) 즉 그는 온 성읍의 장로요 재판관으로서 남부 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 (3) 이같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읍을 존경한 것은 그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의로움

과 사랑에 찬 행동 때문이었다(12-17절).

- (4) 이와 같은 욱의 행동은 오늘날 혼탁한 교계(敎界)와 정계(政界)에 귀감이 된다.
- (5) 즉 자신의 위엄과 권위만을 내세워 교인을 우롱하고 백성을 매도하는 지도자들은 먼저 잘못된 자신의 처사를 해결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 욱은 지난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11절)**

- ㉠** (1) 욱은 자신의 판결과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자들이 자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 (2) 이처럼 욱은 자신의 직위와 부 때문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으나 단 한 사람도 그를 시기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결백하고 온화한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3) 물론 그가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늘 동행하셨기 때문이다(2절).

8. **㉠ 욱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2-17절)**

- ㉠** (1) 그가 불쌍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도움이 되었으며 정의의 편에 서서 그릇됨이 없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그는 자기 사회에서 소외된 자, 즉 빈민과 고아와 소경 그리고 절뚝발이, 이방인과 같은 생소한 자들을 도와 주어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 (3)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돌보아 준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며 지극한 사랑의 정신에 의해 행동한 것이다.
- (4) 이것은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참조, 롬 12:3-21).
- (5) 또한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 생활이다(참조, 약1:27).

9. **㉠ 욱은 자기가 철저히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절)**

- ㉠** (1) 욱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고 표현하였다.
- (2) 욱은 의로 옷을 지어서 그것을 스스로 입었는데 이 옷으로 그의 자연적인 모든 불완전성을 덮어 버렸으며 이것이 그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참조, 시 109:18, 19).
- (3) 그런데 욱이 착용했던 의의 옷과 도포와 면류관은 원래 욱이 만들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의로 입히신 것이다(참조, 사 61:10).
- (4)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4).

10. **㉠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善終)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이 말은 불의의 사고 없이 자기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늙어 자연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리라는 뜻이다
- (2) 욱의 이러한 고백은 교만하거나 욕심에 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할 것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다(5절).
- (3)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대한 이런 기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수할 것이라는 소망마저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며 삶에도 즐거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5)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악인들이 이러한 기대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지극히 교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1. **㉠ 욱은 자신의 번영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9, 20절)**

- Ⓐ (1) 욥은 '내 뿌리는 물로 뺏어 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와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고 하였다.
- (2) 이처럼 욥은 자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 비교함으로써 끊임없이 수분의 공급을 받을 것이며 또한 밤마다 이슬에 젖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번영이 결코 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3) 그리고 욥은 자기가 지닌 강력한 힘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두려움과 파멸의 세력 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 (4) 여기서 그가 말한 활은 장부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이다(참조, 창 49:24; 렘 49:35).
- (5)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의 삶에 평안이 깃들 것이며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활할 것이다(참조, 렘 17:7, 8).

12. Ⓞ 욥은 자기의 말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는가? (21-23절)

- Ⓐ (1) 욥은 자기의 말, 즉 자기가 결정한 것들이 백성들에게 받아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또한 그들을 소생시키고 활기를 불어 넣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하였다.
- (2) 그래서 욥은 자신의 발언이 백성들에게 이슬, 비 그리고 늦은 비와 같았다고 하였다.
- (3) 욥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을 백성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과 혀로만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3:18).
- (4) 또한 그 당시 욥의 말은 사사로운 감정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듣는 무리에게 감화력과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말로써 형제를 권면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말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 Ⓞ 욥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4절)

- Ⓐ (1) 욥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말없이 미소만 주어도 그들이 힘을 얻었다고 했다.
- (2) 여기서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는 말은 욥의 이 같은 위로와 사랑의 태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 (3) 욥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모든 슬픈 자와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참조, 고후 1:3-7).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참조, 요 13:1; 14:1) 지금도 그 위로와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다.

14. Ⓞ 욥은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하였는가? (25절)

- Ⓐ (1) 욥은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치는 왕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와도 같았다고 하였다.
- (2) 즉 욥은 백성들이 항상 자기의 충고를 따랐으므로 실제적인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 (3) 사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욥처럼 백성들이 모두 필요로 하며 도움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 (4) 만약에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오히려 백성에게 불필요한 존재로서 괴로움과 수고만을 제공한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다.

## 제 30 장 하나님을 향한 욕의 한탄

단락구분 1-8 무가치한 자들의 비난을 한탄하다 / 9-15 전날의 영광이 변하여 수치가 됨을 한탄하다 / 16-23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한탄하다 / 24-31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 하지 못한 자니라  
 2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라  
 3 그들은 꿈 궁핍과 기근으로 파괴하매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 떨기나무 가운데서 찬 나뭇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5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 나서  
 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7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 난 자니라  
 9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0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11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끈고케 하시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12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13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14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15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16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17 밤이 되면 내 뼈가 쭈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8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지 않 하시나이다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없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하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25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대었더니 흑암이 왔구나  
 27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30 내 가족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닳구나  
 31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넘치는 부귀와 영광과 자식의 축복까지 받았다고 한 전장(前章)의 욕의 고백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본장에서 욕은 자기가 인간들의 조롱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과 불

확실한 삶의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존재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불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 (3) 본장은 본서 전체를 통하여 가장 애처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 (4) 그러나 욥의 이러한 한탄들은 성급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경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참조, 약 1:13).
- (6) 다만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실 뿐이다(참조, 2:2-6; 약 1:2-4).

2. **Q** 욥은 누가 자기를 기롱(譏弄)한다고 한탄하였는가? (1절)

**A** (1) 욥은 자기보다 젊은 자들이 자기를 기롱(희롱)한다고 한탄하였다.

- (2) 여기서 동양의 관습으로 본다면 젊은이들은 부모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장자(年長者)인 욥에게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는 것은 그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 (3) 이것은 어느 정도로 욥이 그 사회의 전체 구성원에게서 배척받고 있는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 (4) 이런 이유에서 욥은 자기를 희롱하는 무리의 아버지들을 가리켜 ‘나의 양 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 만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하였다.
- (5) 여기서 ‘개 중에도 들 만하지 못한 자’란 생활 수준과 문명의 격차를 따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도 그 언어와 행위가 패역하고 불의로 가득찬 자를 가리킨다(참조, 신 23:18).
- (6) 사실 제아무리 곤란한 처지에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동정을 보이기는커녕 하나님의 계명과 인륜(人倫)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는 자들은 진정 타락한 무리들이다(참조, 레 19:32; 사 3:5).

3. **Q** 욥은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의 아버지를 가리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는가? (2절)

**A** (1) 욥은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의 아버지를 가리켜 ‘장년(壯年)의 기력이 쇠한 자’라고 하여 아무 쓸모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그들이 극도로 약하게 된 까닭은 그들의 부패한 심성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다(1, 8절).
- (3) 욥의 이러한 지적에서 우리는 죄악과 부도덕 등은 육체적 힘과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해치는 경향이 있으며 끝내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 **Q** 욥은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이 그 양식으로 무엇을 먹고 있다고 했는가? (3, 4절)

**A** (1) 욥은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이 그 양식으로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쨌 나물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식물을 삼는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마른 흙을 씹는다’는 말은 거친 들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 같은 것을 먹는다는 의미이다. 사실 나무 뿌리를 먹게 되면 흙을 씹게 마련이다.
- (3) 그리고 ‘쨌 나물’이란 해안 지대와 광야에서 자생하는 푸성귀, 즉 별가치가 없는 나물을 가리키며 대싸리란 콩과 식물의 일종으로서 그 뿌리는 매우 쓴 편인데 지극히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에서만 식물로 이용된다.
- (4) 이 궁핍한 자들의 우울한 모습은 사라져 가는 종족이나 쇠퇴하여 버림 받은 종족 그리고 비참한 유랑 민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발견되곤 한다.

- (5) 물론 이러한 빈곤한 형편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몽둥그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좌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빈곤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삼가하고 그들의 빈곤의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요 9:2-7).

5. **㉠** **㉠** 음은 자기를 회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이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다고 하였는가?(5-7절)

- ㉠** (1) 음은 자기를 회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 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 고 하였다.
- (2) 즉 그들은 사람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현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취급하여 그들을 몰아 내었기 때문이다(5절).
- (3) 음이 그들을 이와 같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그들의 비천한 신분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 영적 타락 때문이었다(1, 8절).
- (4)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을 선블리 내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악에게 도전을 받았을 때에 분노를 터뜨려야 할 것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6. **㉠** **㉠** 음은 자기를 회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의 신분이 어떠한 자라고 하였는가?(8절)

- ㉠** (1) 음은 자기를 회롱하는 자들의 아버들의 신분이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故土)에서 쫓겨 난 자'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미련한 자' 란 학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당할 자를 가리킨다.
- (3) 이처럼 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한 것은 합당한 일이다.
- (4) 왜냐하면 성도는 마땅히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자를 향해서 분노와 멸시를 발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시 15:4).
- (5) 그러나 성도가 내뱉는 비난과 멸시는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문제에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참조, 롬 12:9; 요이 1:10, 11; 유 1:23).

7. **㉠** **㉠** 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무리들에게서조차 조롱을 당한다고 하였는가?(9-11절)

- ㉠** (1) 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소유와 재산을 빼앗으시고 질병까지 주셔서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한다고 하였다.
- (2) 즉 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경이 그의 박해자들로 하여금 모든 억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어 자기에게 모욕을 가한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음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4) 음의 이러한 태도는 고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자를 찾는 것이 곧 고난의 해결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5:18).

8. **㉠** **㉠** 음은 자기를 대적하는 젊은 무리들에게 어떠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탄했는가?(12-15절)

- ㉠** (1) 음은 자기를 대적하는 젊은 무리들이 마치 군대의 진격처럼 자기에게 몰아 닥쳐서 파괴 행위를 일삼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고 한탄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놀람뿐이라고 하였다(15절).
- (3)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종종 음처럼 악인으로부터 불가항력적인 공격을 받고 깊은 절망

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참조, 고후 7:5).

(4)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 대신에 오히려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딤후 3:12).

(5)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 17절)

**㉠** (1) 이 말은 내 진정한 영혼이 이제는 내게서 아주 떠나가 버린 느낌이라는 말이다. 즉 두려움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혼미한 상태에 놓였다는 말이다(16절).

(2) 욥은 자신의 정신과 영혼의 상태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상태도 항상 고통 중에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탄하였다.

(3) 욥이 당했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고통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분명히 욥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10. **㉠** 욥은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8, 19절)

**㉠** (1) 그는 지독한 피부병 상처에서 나오는 화농이 그의 뼈와 살에 말라 붙어 옷을 더럽히고 불품 없는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고 하였다.

(2) 본절에서 ‘진흙 가운데 던져졌다’는 말은 고통과 절망의 가장 깊은 상태로 몰아 넣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참조, 시 40:2; 69:2, 14).

(3) 그리고 그는 자신이 티끌과 재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대상이 되는 불결하고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4) 그런데 이 모든 누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욥은 말했다.

(5)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한 일이다(참조, 2:10).

(6) 그러므로 성경은 욥을 가리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였다(약 5:11).

11. **㉠** 욥은 그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20절)

**㉠** (1) 욥은 그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실 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예수께서도 이런 때에 가장 절망스러운 태도를 취했음을 본다(참조, 마 27:46).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진지한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무응답하시지는 않는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도전하여 수정시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단지 그분의 때가 찰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참조, 히 10:36).

12. **㉠**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신다고 한탄하였는가? (21-23절)

**㉠**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자기를 잔혹히 대하시고 핍박하며 바람으로 불려가게 하신다고 한탄하였다.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붙어 있는 생명마저 앗아가시고 끝내 자기를 아무 희망이 없는 무덤으로 몰아 넣어 버리실 것이라고 한탄하였다(23절).

- (3) 그런데 여기서 음이 하나님을 자기의 적대자로만 생각하여 자기의 전생(全生)을 포기해 버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는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지니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다(참조, 19:25-27).
- (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비록 음처럼 한순간의 좌절과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끝내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 (6)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간혹 우리의 오행으로 단절된 듯한 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시키신다(참조, 요 13:1).

13. **㉠** 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불평의 말을 하였는가? (24-26절)

- ㉠** (1) 음은 고통 중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는 그의 마음이 근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였다(24, 25절).
-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을 향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와 고난으로 갚으셨다고 한탄하였다.
- (3) 그러나 이러한 음의 불평과 한탄은 전적으로 성급한 태도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조그마한 일에서조차 보상해 주실 것이다(참조, 마 25:34-40).
- (5) 우리들이 음처럼 성급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세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14. **㉠** 음은 현재 처해 있는 내적 상태와 외적인 모습이 어떻다고 하였는가? (27, 28절)

- ㉠** (1) 음은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 씬을 얻지 못하고(27절) 햇볕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검게 되었다고 하였다(28절).
- (2) 즉 그는 까닭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내적인 상태는 불안하고 혼돈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였다.
- (3) 그리고 슬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생기를 잃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찬 채 있다고 한탄하였다(참조, 30절; 시 119:83; 애 4:8; 5:10).
- (4)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음은 결코 한 가닥 남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28절).
- (5)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다운 신앙인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구만은 닫지 않는다(참조, 행 27:14-26).

15. **㉠** 음은 자신의 처지를 무엇에다 비교하였는가? (29절)

- ㉠** (1) 음은 자신의 처지를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벼' 이라고 하여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짐승에다 비교하였다.
- (2) 성경에서 이리와 타조는 슬픔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간주되고 있다(참조, 미 1:8).
- (3) 즉 음은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버렸고 희망과 기쁨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 (4)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소외되어 전혀 희망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일이다.

16. **㉠** 음은 자기의 슬픔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1절)

- ㉠** (1) 음은 자기의 슬픔을 '내 수금(瑟琴)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哀痛聲)이 되었다' 는 말로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수금과 피리는 원래 기쁨을 알리는 활기찬 악기로 사용되었다. (참조, 21:12; 창 31:27; 시 33:2; 단 3:15; 마 11:17; 눅 7:32).

- (3) 그런데 기쁨을 노래하는 악기들이 읊에게 있어서는 슬픈 가락을 뽑아 내는 악기로 변했다고 말함으로 읊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 (4)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쁨 뿐만 아니라 슬픔의 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하는 계기가 된다.
- (5)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던 슬픔의 노래는 성도들의 귀에 절망과 좌절을 제공하기 보다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신비로움을 제공한다.
- (6) 그러므로 읊이 현재는 슬픔의 곡조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지만 훗날 돌이켜 보면 그때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연구자료

### 하나님의 현현(顯現, theophany)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기 위해 읊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언급했다(9:5-11).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顯現)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심을 ① 불과 연기의 구름(출 3:2; 33:9; 시 78:14; 99:7) 속에서와 ② 폭풍(38:1; 시 18:10-16) 속에서와 ③ 세미한 음성(왕상 19:12)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인 것이다. 특히 구약에서는 삼위(三位) 가운데 제 2위되신 여호와와 사자의 현현이 두드러진다(창 16:13; 31:11; 출 23:20-23; 말 3:1).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셨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에서 최절정을 이루었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자신을 인간의 위치로 비하(卑下)시킨 것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 있다(참조, 요 1:1-3, 14, 18; 롬 5:8).

# 제 31 장 읍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단락구분 1-4 내적 순결을 주장하다 / 5-8 거짓과 탐심을 멀리하였다고 주장하다 / 9-12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 13-15 종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 16-23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아 주었다고 주장하다 / 24-28 재물과 자연을 우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 29-32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 33-40 자신의 죄악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1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 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을 무엇이겠느냐

3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하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하겠느냐

4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5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썩음에 빠졌던가

6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7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8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나라

9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10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나라

11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13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14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17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19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20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듬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하지 아니하였던가

21 나뭇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22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나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24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25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26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28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뽑내었던가

30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31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32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33-34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35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36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37 내 곁음의 수효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8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여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39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40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쥘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음의 말이 그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음의 변론이 이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음은 그에게 교묘하거나 단호하게 행한 모든 잘못된 친구들의 비난에 대하여 엄숙한 변호로 끝을 맺었다.
- (2) 즉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의 개인 생활에서(1-12절), 그의 이웃에 대하여(13-23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24-34절) 결코 어떠한 헛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였던 것이다.
- (3) 결론 부분에서 음은 자신의 순결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모든 행위에 관하여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선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음의 태도를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 (5) 본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연 음처럼 자신의 순결함을 힘주어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 '내가 내 눈과 언약(言約)을 세웠나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음이 자기 눈을 위하여 어떤 단호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음은 범죄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내적 순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눈으로 더불어 유혹의 대상은 보지도 않기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다.
- (3) 이같은 높은 윤리 표준은 구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순결과 상통하는 태도이다(참조, 마 5:28).
- (4) 이처럼 음이 의지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잠 4:23; 마 6:22-24; 18:8, 9).
- (5) 더우기 그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확연하게 아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마 6:3, 4).

3. ㉢ 음이 말한 '분깃'과 '산업'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 3절)

- ㉢ (1) '분깃'과 '산업'은 음욕을 품고 거기에 탐닉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형벌을 가리킨다(참조, 20:29; 27:13).
- (2) 그들이 받을 분깃과 산업은 환난과 재앙, 즉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파멸이라고 하였다(3절; 잠 22:14).
- (3) 사실 음욕을 품고 거기에 탐닉하는 것은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합 1:13)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이다.
- (4) 음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죄를 삼가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창 39:9).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고매한 인격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4. ㉣ 음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4절)

- Ⓐ (1) 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감찰(鑑察)하시며 자기의 걸음을 모두 세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참조, 시 37:23).
- (2) 즉 욕은 인간의 날카로운 모든 경계는 비록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길을 감독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 (3) 이러한 사실은 자주 사악한 자들에 의해 부인되고(22:13) 경건한 자에게도 망각되는 경우가 있지만(사 40:27)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이 인간 생활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 (4)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참조, 히 4:13).
- (5)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까지 모두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 ‘허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 6절)

- Ⓐ (1) ‘허탄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산다는 말이다.
- (2) 이 같은 위선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참조, 잠 19:22; 사 1:10-17).
- (3) 예수께서는 이렇게 위선과 거짓된 자들은 자기 자신만 어두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안겨 준다고 책망하셨다(참조, 마 23:13-36).
- (4) 욕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러한 허탄함을 결코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5) 그가 어느 만큼 이 사실을 믿고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 보듯이 다 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자기를 내맡기기까지 확신하고 있었다(6절).
- (6) 사실 하나님은 진실이라는 당신의 표준에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참조, 단 5:27).
- (7)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시고 계신다(참조, 시 51:6).

6. ⓐ 욕이 말한 ‘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7, 8절)

- Ⓐ (1) ‘길’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제시하신 길, 즉 율법과 계명들을 가리킨다(참조, 신 9:12, 16).
- (2) 그러므로 욕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했다는 말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당신의 명령은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 (3)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자기 눈에 비춰진 세상의 것들에 자기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눈은 인간을 유혹하는 최초 통로일 수도 있다.
- (4) 또한 그는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고, 즉 자기는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참조, 2:3).

7. ⓐ 욕은 무엇을 가리켜 ‘중죄’ 또는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라고 했는가? (9-12절)

- Ⓐ (1) 욕은 간음죄를 가리켜 중죄 또는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라고 하였다.
- (2)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창설하신 가정 제도(창 2:21-25)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스라엘에서는 간음한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중벌로 다스렸다(참조, 레 20:10; 신 22:22; 요 8:5).
- (3)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간음죄를 사사로운 비행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으로도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그러나 욥은 만약 자기가 이 같은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자기 아내는 남의 소유(종)가 되고(10절; 사 47:2) 자기는 불에 타 죽고 자신의 전 소유는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11, 12절; 잠 5:8-14; 7:26, 27).

(5) 이처럼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규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예수께서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단호함을 요구하고 계신다(참조, 마 5:27-32).

8. **㉠ 욥은 자기의 종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았는가? (13-15절)**

- ㉠** (1) 욥은 자기의 종들을 자기와 동일한 인격과 생명을 가진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2) 그는 이런 의미에서 '나를 태 속에 만드는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15절)고 간증하였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모든 개개인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셨다(참조, 행 17:26).  
 (4)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은유하며 자유로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욥은 이미 그 시대 사람보다도 먼저 종을 자유인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 거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을 것이다(참조, 딤후 6:2; 몬 1:16).  
 (6)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냐 자유자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존재임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형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9. **㉠ 욥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 주었다고 하였는가? (16-18절)**

- ㉠** (1) 욥은 자기는 천성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 왔다고 진술하였다.  
 (2) 성경에는 남으로부터의 보호가 꼭 필요한 자(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였다(참조, 잠 14:31; 28:27).  
 (3)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하였다(참조, 약 1:27).  
 (4)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은 신분이 미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더우기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한 형제로서 대우하며 필요를 따라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 68:5; 146:9; 말 3:5; 마 25:40).

10. **㉠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기 원하였는가? (19, 20절)**

- ㉠** (1)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만을 바랐다.  
 (2) 그런 의미에서 욥은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하였다.  
 (3) 즉 욥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 준 적이 있으므로 그들은 욥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4)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욥이 도와 주었던 불쌍한 사람들보다는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들에게 아부하여 그들로부터 칭찬과 축복받기를 즐겨하고 있다.  
 (5) 그러나 성경적인 구제와 봉사는 욥처럼 도저히 보상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이다.  
 (6) 이러한 구제와 봉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이며 사랑이다(참조, 마 25:34-40).

11. **㉠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23절)**

- ㉠** (1) 이 말은 욥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자신의 친구 내지는 잘 아는 자가 말았다는 말이다.

- (2) 즉 욱은 어떤 경우 고아와 자신이 범정에 설 일이 있었을 때 그 재판장이 자기의 친구 입을 깨닫고 고아를 학대하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3) 욱은 만약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발견되었다면 그의 어깨가 어깨 뼈에서 떨어질 것이며 그의 팔 뼈는 부러짐이 마땅하다고 하였다(22절).
- (4) 그런데 욱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재앙과 위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23절).
- (5) 이처럼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야말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이다(참조, 잠 3:6, 7).

12. **㉠** 욱은 자신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였는가? (24, 25절)

- ㉠** (1) 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은 보화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주어 의뢰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 (2) 즉 그는 물질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의뢰하는 가장 큰 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자의 태도이다.
- (3) 물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욱구는 필요하다.
- (4) 그러나 그 물질을 향해서 온 정열을 쏟거나 그것을 최고의 선 또는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 (5)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한 증거이기 때문이다(참조, 엡 5:5).
- (6)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참조, 막 10:24; 요일 2:15).

13. **㉠** ‘손에 입맞추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인가? (26, 27절)

- ㉠** (1) ‘손에 입맞추는’ 행위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한 표현으로서 우상에게 존경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손에 입을 갖다 댄다(참조, 신 4:19; 왕상 19:18; 왕하 23:5; 호 13:2).
- (2) 이것은 단순한 외적 표현이 아니라 타락한 영혼과 어리석은 마음의 상징적 표현이다.
- (3) 그런데 욱이 부인했던 일월성신(日月星辰)에 대한 숭배는 가장 오래되고 비교적 순박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다.
- (4)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특별히 이러한 숭배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참조, 신 4:19).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조 세계에 대한 경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왕하 23:5, 11; 젤 8:16).
- (6)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당신 이외의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는 자들에게 철저한 징벌을 가하신다(참조, 출 20:3-6).

14. **㉠** 욱은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였는가? (28절)

- ㉠** (1) 욱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물질의 신이나 자연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 (2) 더우기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까지 하였다.
- (3) 사실 모세 율법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죽음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참조, 신 17:27).
- (4)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타종교의 수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망쳐 버리는 파멸 행위인 것이다.
- (5)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으며 그 삶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참조, 롬 1:18-32; 엡 2:1-3).

**15. ㉠ 욘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고백하였는가? (29, 30절)**

- ㉠ (1) 욘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았을 뿐더러(29절) 그와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결코 바라지도 않았다고 하였다(30절).
- (2) 자신의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악마적이며 끝내 자신도 그 원수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참조, 잠 17:5; 24:17; 미 7:8).
- (3) 성경은 오히려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참조, 마 5:44; 19:19; 롬 13:9; 갈 5:14; 약 2:8).
- (4)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원수가 없을 수 없으나 그 모든 원수들이 성도의 삶을 좌지 우지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악한 감정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참조, 요 15:20; 딤후 3:12).

**16. ㉠ 욘은 자기 주위의 사람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어떻게 대접했다고 하였는가? (31, 32절)**

- ㉠ (1) 욘은 그의 친구와 친족은 물론이고 모든 부류에 속한 낯선 자와 나그네에게도 식탁을 준비하고 불편 없이 대접하였노라고 하였다.
- (2)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재물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도록 하게 하시려고 맡기신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의 식탁에는 궁핍한 자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4) 옛날 아브라함이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했던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궁핍한 자를 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창 18:1-8; 히 13:1, 2).
- (5) 즉 우리가 행하는 이 조그마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마 25:34-40).
- (6) 더우기 우리는 영의 양식이 마련된 식탁을 모든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헌신이 날마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참조, 행 2:44-47; 롬 12:13).

**17. ㉠ 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義)를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33, 34절)**

- ㉠ (1) 욘은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문에 나간다'는 말은 공적인 일로 성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욘의 고백은 욘이 이웃의 멸시를 무서워하여 자신의 허물을 가리울 목적으로 바깥 출입을 삼가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참조, 창 3:8).
- (4) 사실 인간의 심리란 자기 속에 숨겨진 죄가 있거나 이미 공적으로 알려진 허물이 있을 때에는 남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5) 그러나 우리가 인간 앞에서 제아무리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의로움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면전(面前)에서는 감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 (6)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 성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롬 3:10-18).

**18. ㉠ 욘은 무엇을 자기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노라고 하였는가? (35-37절)**

- ㉠ (1) 욘은 만약 자기 대적이 자기 허물을 지적하여 하나님과 대중에게 고소하는 소송장(訴

訟狀)을 자기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노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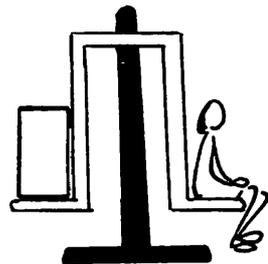
- (2) 여기서 어깨에 멘다는 것은 그 고소장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둔다는 말이다(참조, 사9:6;22:22).
- (3) 즉 그는 만약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고소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 놓겠노라고 장담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그는 비굴함이나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자기의 대적에게 맞서서 왕족처럼 의젓한 태도를 취하겠노라고 하였다.
- (5)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의 판단으로 결코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와 같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 **Q** '내 토지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8-40절)

- A** (1) 이 말은 만일 욱이 자기의 토지를 그릇된 방법이나 도적질로 획득한 것이었다면 그 토지가 욱의 소유권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왕상 21:1).
- (2) 약속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법적인 소유주를 살해함으로써 해서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은 족장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 (3) 욱이 만일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땅에 모든 재물이 내려 결실하지 못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40절).
- (4) 사실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은 날마다 탈취한 물건 뒤에서 들리는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듣게 될 것이다.
- (5) 이 소리는 자신의 양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 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소리이다.

**본장의 요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케흠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6절).



## 제 32 장 엘리후의 첫번째 변론

**단락구분** 1-5 엘리후가 변론을 나누는 읍과 세 친구에게 노(怒)를 발하다 / 6-10 전능자가 주신 총명으로 발언할 것을 선언하다 / 11-14 세 친구의 효과 없는 변론을 비난하다 / 15-22 자신의 발언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다

1 읍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2 랍 족속 부스 사람 바라젤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읍에게 노를 발함은 읍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발함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읍을 정죄함이라

4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읍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6 부스 사람 바라젤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7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벌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8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9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1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12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읍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 당신들이 흑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4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16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18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9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같이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될 같구나

20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니

22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지금까지 대화를 이끌어 온 읍과 세 친구 외에 새로운 한 인물, 즉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여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
- (2) 엘리후는 읍과 세 친구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을 때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입을 열었다.
- (3) 본장에서 엘리후가 입을 열어 노를 발한 이유는 먼저 읍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며 읍의 친구들에게는 읍에게 정당한 비난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서도 그를 단죄한 것이 확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 (4) 사실 읍과 그 친구들의 변론이 있게 된 동기는 읍의 까닭없는 고난 때문이었다.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배설하신 것이다.
- (5) 그런데 읍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혀지지지는 않고 오히려 인간의 감정의 대립만이 조성되자 하나님은 그 대화의 흐름을 당신의 계획대로 돌리시기 위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키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며 또한 당신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참조, 고전 10:13).

2. **Q** **음**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의 말을 잊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A** (1) 그들이 정죄했던 음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즉 자기가 당한 고난의 근본 이유가 될 만한 허물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2) 즉 그들과 음은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3) 그들은 더 이상 음을 추궁할 수 없게 되자 음을 단죄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단죄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이처럼 우리도 남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측으로 밀고 나갈 경우가 있다. 이때는 대부분 자신의 의(義)는 보호한 채 상대방의 헛점과 허물을 들추어 내는 인신(人身) 공격으로 변하곤 한다.  
 (5)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라면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이고 상호 타당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3. **Q**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A** (1) ‘엘리후’란 ‘그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다(참조, 삼상 1:1; 대상 12:20; 26: 7; 27:18).  
 (2)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은 바라벨인데 그 이름 역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그 이름의 뜻은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이다.  
 (3) 이상 두 이름을 통하여 볼 때 본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가정은 유일신교, 즉 여호와 신앙이 확고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엘리후가 분명하게 신적인 능력 아래서 말한다고 주장한 점(8절; 33:4)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점(33:6)을 보더라도 엘리후의 등장은 의미 심장하다.  
 (5)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장차 임하게 될 복음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는 속죄와 고난의 치유적 성격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겠다고 한 것(33:14-30)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등장한 인물임을 어느 정도 시사해 주는 내용이다.

4. **Q** 엘리후는 어디 출신 사람이었는가? (2절)

- A** (1)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소속된 부스 출신이었다.  
 (2) 여기서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것 같다(참조, 창 11:29; 22:20, 21).  
 (3) 그러므로 엘리후는 아라비아 출신이긴 하지만 셈 계통이라 할 수 있으며 부스는 우스의 형제인 가담에(1:1; 창 22:21) 음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볼 수 있다.  
 (4) 그리고 람 족속은 역사적으로 유다 족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족속이었다(참조, 룻 4:19; 대상 2:9, 10).  
 (5)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엘리후의 주장은 올바른 신학적 기초를 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5. **Q** 엘리후가 음에게 노(怒)를 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엘리후는 음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노를 발하였다.  
 (2) 사실 음은 자기 자신을 친구들에게 변론하였고(6:24-30) 그 모든 변론이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한 논조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참조, 40:8).  
 (3) 그러나 음이 한 때 그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참조, 9:20; 14:16, 17)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것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9:1)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6. **Q**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怒)를 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A** (1) 그들이 욥을 설복(說服)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다.  
 (2) 그들은 원래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실의에 빠져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 온 자들이었다(2:11-13).  
 (3) 그러나 그들은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잘못된 근거 안에서 비난하였던 것이다(참조, 22:6-9).  
 (4)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구들을 위로한답시고 우리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친구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5)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학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웃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는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1:3-5).

7. **Q** 엘리후가 자기의 발언을 억제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 노인을 존중하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한 증거이다.  
 (3) 노인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人倫)에 합당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된다.  
 (4) 그러나 이러한 존중이나 겸손이 인간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게 한다면 이것들은 나약하고 부정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참조, 엡 6:1).

8. **Q** 엘리후는 자기가 발언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6-10절)

- A** (1) 엘리후는 자기가 발언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大人)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설명하였다(8, 9절).  
 (2) 사실 지혜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연장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3) 즉 개인의 우수함이나 연륜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왜냐하면 지혜는 인간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대화는 없을 것이다(참조, 딤후 4:12).  
 (5) 반면에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 든 사람이라도 그 젊은이로부터 그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Q** 엘리후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였는가? (8절)

- A** (1) 엘리후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心靈)이 있다고 하였다.  
 (2) 혹자는 이 심령이란 말이 곧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한다고 하였다(참조, 창 2:7).  
 (3) 성령은 인간 안에 내재(內在)하셔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대로 생활하도록 만드신다.  
 (4)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소유하는 일은 결코 나이와 경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5)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선하신 경륜을 따라 사람들에게 전해진다(참조, 마 10:19, 20).  
 (6)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당신의 깊은 뜻에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

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한다(참조, 삼상 3:16, 17).

10. **㉠** 엘리후는 인간에게 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8절)

**㉠** (1) 엘리후는 인간에게 총명을 주는 것이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였다.

- (2) 즉 사람에게 있는 생명과 지혜와 총명 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연적 혜택은 아니라는 말이다.
- (3) 따라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 지적인 분별력, 종교적인 이해의 근원은 연령이나 능력 또는 우연한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출발하는 것임에 분명하다(참조, 창 41:38; 출 31:3; 사 11:21; 요 16:13; 고전 2:10).
- (4)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오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 **㉠** 엘리후는 욕의 세 친구들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하였는가? (11-14절)

**㉠** (1) 엘리후는 욕의 세 친구들에게 욕을 당할 자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욕을 겪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 (2) 엘리후는 그가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논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욕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4절).
- (3) 그는 욕의 세 친구들이 주장한 방법을 피해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자 했다(14절).
- (4) 이처럼 우리가 이웃과 대화의 창구가 막힐 때 특히 의견 충돌이 지나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때 방법을 달리하여 그 대화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12. **㉠** 엘리후는 욕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다는 것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였는가? (15-20절)

**㉠** (1) 그는 욕에게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17절) 참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할 말이 가득하다고 하였다(18절).

- (2) 즉 그는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렘 20:9) 마음속이 불붙는 것같이 끝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었던 것이다.
- (3) 그래서 그는 욕에게 말을 하여야만 속이 시원할 것이라고 하였다(20절).
- (4)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렬함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답답하게 된다.
- (5)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조성된다. 참된 진리는 개인적인 각성이나 주관적인 영웅심에 의해서 전파될 수 없다.
- (6)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러한 열렬함은 많은 순교자의 가슴속에 담겨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건설이 확장 진행되고 있다.

13. **㉠** 엘리후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취하여 가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21, 22절)

**㉠** (1) 엘리후는 만약 자기가 사람들에게 아침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하나님께서 자기를 취하여 가실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그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거나 훗날의 안녕을 위해서 아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또 아침 그 자체를 죄악시하였다.
- (3) 그는 남들에게 좀 무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리만을 실천해 가겠노라고 하였다.
- (4) 사실 이 아침은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침하는 자의 삶을 제거하실 것이며 그들의 내일을 불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 3:9; 12:2, 3; 78:30; 잠 2:16; 7:21; 20:19; 28:33).

# 제 33 장 엘리후가 욥의 변론을 반박하다

단락구분 1-7 엘리후가 욥과의 담판을 시도하다 / 8-12 자기 의(義)를 주장했던 욥을 공격하다 / 13-18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 19-22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간이 고��당하다 / 23-28 인간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 29-33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

1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3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은즉

7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8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9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10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이뇨

14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16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17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9 흑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썩심의 징계를 받나니

20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와지느니라

23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기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7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9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30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들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취려 하심이니라

31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33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 Ⓐ (1) 본장은 엘리후가 욱의 잘못된 변론을 수정하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욱에게 성실한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 (2) 즉 그는 욱의 자기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언사에 대하여 공박하였으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3) 여기서 엘리후가 주장한 고난관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고난을 주시며 또한 순결한 인격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더 이상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4) 마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떠한 지경에 몰고 가시든지 그 모든 섭리하심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이 사실을 익히 아는 자만이 그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의 입술에는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치게 될 것이다.

2. Ⓞ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음미해 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말을 꺼낸다는 의미이다.
- (2)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은 즉흥적이거나 미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물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참조, 잠 15:2).
- (3) 엘리후의 이러한 행위는 실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 (4)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이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오랫동안의 부딪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가? (3절)

- Ⓐ (1) 엘리후는 자기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 신실함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 (2) 즉 그는 자기의 마음이 사악하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는 말은 가식이나 허영에 차지 않은 말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 (3)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능숙한 언어를 자랑하기 위하여 사악한 발언을 일삼기 보다는 엘리후의 이런 태도와 같이 진실 그 자체만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전 2:2; 벰전 4:11).
- (4)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며(참조, 고전 10:31) 듣는 사람에게 진리의 교훈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 14:3; 고후 13:10).

4. Ⓞ 엘리후는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4절)

- Ⓐ (1) 엘리후는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다.
- (2) 즉 그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 (3)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받고 그분의 영감을 받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욱에게 충고의 말을 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 (4)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권면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 (5)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간을 지도해 나가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6:13-15).

5. Ⓞ 엘리후는 욱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제안을 하였는가? (5-7절)

- Ⓐ (1) 엘리후는 욱에게 허심 탄회(虛心坦懷)한 대화를 제안했다.
- (2) 여기서 엘리후는 욱과 같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한 피조물임으로(창 2:7) 자신의 존

제가 욱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참조, 9:34;13:21).

- (3) 즉 엘리후는 욱에게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머무른다. 이런 의식이 없이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이웃과의 대화에 앞서서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방종의 성(城)을 무너뜨리는 일이 중요하다.
- (5) 이러한 성벽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대화에 임한다면 그 대화는 결국 다툼과 분쟁으로 끝나고 만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겸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빌 2:1-8).

6. **㉠ 엘리후는 욱이 실수한 말이 어떤 것이라고 하였는가? (8-12절)**

- ㉠** (1) 엘리후는 욱 자신이 죄와 허물과 불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의 잘못된 주장이다.
- (2) 왜냐하면 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인(義人)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동인(動因)이 될 만한 범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7:20, 21).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욱의 순결함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터였다(참조, 1:8;2: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드러난 외적 환경(욕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욱을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출발한 사람인 경우에도(32:8), 가끔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내세울 때에 그릇된 판단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7. **㉠ 엘리후는 욱에게 사람이 하나님과 변쟁(辯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엘리후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인간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교만한 욱의 질문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지 못한데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다.
- (3)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알기 알부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참조, 롬 9:19-23).
- (4)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행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8. **㉠ 엘리후는 욱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4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당신의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데 반해 인간은 그 계획에 별 관심이 없이 행동한다고 하였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당신 자신의 방법을 지니고 계신데 그것은 욱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 (3)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용한 가르침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깨닫지 못한다. 대신 사람들은 보다더 놀랄 만하고 감동적인 것을 원하곤 한다(참조, 마 12:38-40).
- (4)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전심을 내어 맡겼던 것이다(참조, 26:14; 삼상 3:3-14; 왕상 19:11-14).

9. **㉠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어떻게 전달한다고 하였는가? (15, 16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異像)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제한된 지혜를 소유한 인간을 가르치시기 위해 꿈과 이상을 통해 인간의 우둔함을 여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
- (3)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 일이 종종 있었다(참조, 창 31:24; 38:5, 9; 41:1-7; 왕상 3:5; 단 2:28; 4:5-18).
- (4)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5) 여기서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분명히 전달하셔서 인간이 그 교훈을 날마다 묵상하게 만드신다는 말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행동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0. **㉠** 엘리후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17, 18절)

- ㉠** (1) 엘리후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간이 승화되고 순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사실 인간이란 자신의 짧은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장악하려고 한다.
- (3)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 (4) 만일 이러한 인간 위주의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며 또한 지나친 교만이라 할 수 있다.
- (5)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방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참조, 시 119:105).

11. **㉠**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통한 가르침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을 깨우치신다고 하였는가? (19-22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시기도 한다고 하였다.
- (2) 그 고통이란 뼈가 늘 쑤시고 (19절) 식물을 멀리하고 (20절), 몸은 쇠약해지고 (21절) 마침내 죽음이 가까와 온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22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신다.
- (4) 인간에게 몰아닥친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채찍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이 몰아닥쳤을 때 그 고통의 이면(裏面)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12. **㉠**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또는 '해석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3, 24절)

- ㉠** (1)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의 시중을 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참조, 말 3:1).
- (2) 그리고 '해석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쉽게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당신의 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 (3) 이처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와 '해석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전혀 안 될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24절).
- (4)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참조, 요일 4:10).

13. **㉠** 엘리후는 해석자(解釋者)가 수행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3, 24절)

- Ⓐ (1) 엘리후는 해석자가 수행하는 일이란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정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밝히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23절).
- (2) 뿐만 아니라 해석자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4절).
- (3) 또한 그는 죽음에 이르러 있는 자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대속물(代贖物)을 얻었다’고까지 한다고 하였다.
- (4) 즉 인간을 구원해 낼 속죄의 대가를 찾아 기뻐한다고 하였다(참조, 출 21:30; 잠 13:8).
- (5) 해석자가 발견한 인간을 위한 대속자는 다름 아니라 해석자,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바쳤던 것이다(참조, 요 10:11).

14. Ⓒ 엘리후는 해석자(解釋者)의 활동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는가? (25-28절)

- Ⓐ (1) 엘리후는 해석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먼저 정력이 왕성한 청년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사 40:31).
- (2)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격없는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창 25:21; 출 8:26; 시 44:4; 147:11; 사 42:1).
- (3) 더우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하신다고 하였다(26절).
- (4)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였다(27, 28절). 그 노래는 새롭게 된 그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케 하시는 은총을 입고 구원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자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149:1-9).

15. Ⓒ 엘리후는 하나님의 계시(啓示)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9, 30절)

- Ⓐ (1)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 (2)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결코 그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고 전생을 당신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롬 8:28).

16. Ⓒ 욥에게 권면하는 엘리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31-33절)

- Ⓐ (1) 엘리후는 자기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믿고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다.
- (2) 그러면서도 엘리후는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32절)라고 말함으로써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태도를 보였다.
- (3) 욥의 친구들의 권면을 살펴보면 정의로움은 있었으나 사랑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 (4) 사실 제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된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들이 될 수 있다.
- (5)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충고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히 행하라고 하였다(빌 2:1-5).
- (6) 또한 사랑 없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자신의 몸을 희생할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참조, 고전 13:1-3).

## 연구자료

평범한 의인 욕의 고난. 본서는 흔히 '왜 선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가' 혹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생각되어 왔다. 물론 우리는 본서를 통하여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뚜렷한 이유없이 고난을 받는 '평범한 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본서의 또 다른 교훈, 즉 신앙인들이 고통 가운데 지녀야 하는 자세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먼저 욕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악창(惡瘡)까지 나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생일을 저주하고(3:1,11), 하나님을 원망하였다(21:4;23:2).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의하며 악에서 떠난 자'(1:8)라고 인정받은 자였으나 재난을 당하자 불평과 원망을 토로(吐露)하였다. 결코 그는 타고난 의인이 아닌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뛰어난 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7:12)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現象)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며(9:4, 10, 15) 인간들이 볼 때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거기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인간의 죄값으로 고통과 재난이 임한다는 욕의 친구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이 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욕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약한 일면을 보이기도 하였다(7:21;13:23, 23,28).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10:2-22) 자신의 호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12:5;30:34).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義)를 드러내는 욕의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적이 결코 없었다는 욕의 솔직한 고백을 볼 수 있다. 아뭏든 그는 고통 중에서도 감각을 못 느끼는 인형이 아니라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9:17) 늘어놓으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의인'이었다. 한편 본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지 불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1:22). 물론 그의 고통을 고려해 보더라도 욕의 원망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욕은 재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으니(31:30) 이것이 고통 가운데 그의 기쁨이 되었다(6:10). 따라서 우리는 욕을 결코 완전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현실의 고통

을 이겨나가는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신앙인에게 주는 본서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가 곧 '의인'이다. 욥은 고통을 이겨낸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42:10). 많은 재산, 여러 자녀, 주위의 위로와 인정 등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지만(42:10-14)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신앙이었다. 왜냐하면 시험을 거친 욥의 신앙은 더욱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욥이 시험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두텁게 했으며 신앙이 더욱 성장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연단을 통하여 강해지고 보다 성장하게 된다.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애 2:5) 보일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욥의 친구들은 재난의 원인을 인간 편에서 찾았으나 욥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의 이유와 그 해결책을 하나님 편에서 찾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思考)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욥은 바로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 축복을 받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기'(엡 1:11) 때문에 인간들에게 자신의 목적이 명백히 전달되지 않더라도 굳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밝히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사 55:8) 인정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내는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롬 8:18). 욥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23:10)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고통을 통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본서는 선한 사람에게 생기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이유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는 책이라 하겠다.

## 제 34 장 엘리후의 두번째 변론

단락구분 1-10 욱을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한 자로 때도(鵲倒)하다 / 11-15 인류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 16-20 신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 / 21-30 하나님이 공의를 온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이유 / 31-37 욱을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로 정죄하다

-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 2 지혜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 3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 4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 5 욱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 6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 7 어느 사람이 욱과 같으랴 욱이 꾀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 11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 14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 15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 16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 17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 18 그는 왕에게라도 비부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 19 왕족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 20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 21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 22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 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 25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 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 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 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 29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뵈을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 30 이는 사투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31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정제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피치 아니하겠나이다
- 32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 33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값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 34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 35 욱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하리라
- 36 욱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 37 그가 그 죄 위에 때액을 더하며 우리 중에

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 하는구나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서 엘리후는 욥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총명한 자들에게 말을 돌리고 있다. 즉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다루고자 했던 것이다.
- (2)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난했다고 공박하였다. 반면에 그는 전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여러 각도로 변호했다.
- (3) 그러나 결국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접근도 기본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 흡사한 것이 되고 말았다.
- (4) 즉 그는 하나님과 욥이 모두 옳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서 죄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 (5) 이처럼 제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도(32:8) 자신의 좁은 견해로 이웃을 판단한다면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조명되는 진리와 공의(公義)여야 할 것이다.

2. **㉠ 엘리후는 욥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누구에게 호소하려 했는가? (2절)**

- ㉠** (1) 엘리후는 욥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했다.
- (2)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이란 욥과 치열한 변론을 치루었던 욥의 세 친구들인지 아니면 이 논쟁을 들으려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인지 확실하지 않다.
- (3) 그는 자신의 견해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기 견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동조(同調)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호소를 한 것이었다.
- (4)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편협되고 오류가 가득찬 논리를 확고한 진리로 변장시키기 위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거나 대중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 (5) 그러나 진리란 대중적인 여론이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6) 즉 진리란 다수(多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우주적인 법칙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이다.

3. **㉠ 엘리후는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3, 4절)**

- ㉠** (1) 엘리후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귀라고 하였다.
- (2) 즉 그는 말하기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辨別)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3절)라고 하였다.
- (3) 이와 같이 엘리후가 오류의 가능성이 짙고 한계가 분명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일임에 분명하다.
- (4)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의 판단 기준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집에 휩싸여 남을 판단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 (5)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상한 사람들에게서조차 발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인생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참조, 요 17:17).

4. **㉠ 엘리후는 욥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했는가? (5, 6절)**

- ㉠** (1) 엘리후는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했다.

- (2) 사실 욕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의(義)를 주장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었다(13:18).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 (3) 여기서 욕이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27:2)라고 말한 것은 엘리후가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릇된 판단을 하시며 부당하게 그를 징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욕이 소망하는 판결을 미루신다는 의미이다.
- (4) 이상과 같이 엘리후가 공박했던 욕의 주장은 욕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좁은 경험과 학식에 의해서 해석된 것일 뿐 욕이 의도했던 대로 해석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는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려 들 때가 있다.
- (6)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판에 앞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과 겸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요 13:1-15).

#### 5. ㉠ 엘리후는 욕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9절)

- ㉠ (1) 엘리후는 '욕이 꾀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떠벌이고 있다면서 욕의 죄악된 모습을 정죄하였다.
- (2) 여기서 '꾀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비난한다는 뜻이다.
  - (3)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다'는 말은 욕의 언행이 악인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참조, 시 1:1).
  - (4) 그런데 엘리후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엘리후가 이같이 주장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다면 욕이 악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비난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판단하려 든다.

#### 6. ㉠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12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고 묘사하였다.
- (2)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시 62:12; 잠 24:12; 렘 32:19; 롬 2:6; 벰전 1:17; 계 22:12).
  - (3)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단시일 안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방종할 때가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어느 때에 인간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자세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다(참조, 마 25:31-46).

#### 7. ㉠ 엘리후는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13-15절)

- ㉠ (1) 엘리후는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다.
- (2) 즉 온 우주와 인류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맡긴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였다.
  - (3)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운을 거두신다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멸망하고 사랑도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 (4) 여기서 우리는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입김과 그의 은총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한 시라도 지탱해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며 또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

길 수 있는 것이다(참조, 벰전 4:19).

8. **㉠** 엘리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선(善)과 전지(全知)가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였는가? (16, 17절)

**㉠** (1) 엘리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선과 전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의를 미워하는 자 시면 어찌 치리(治理)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2)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전지하심이 없이는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간에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참조, 창 18:25; 마 12:25; 롬 3:5).

(3)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과 공의의 기준이 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연계에 나타난 일반 계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질서와 조화만 유지해가고 있다.

(4)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9. **㉠**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력과 부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8-20절)

**㉠**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력과 부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19절).

(2) 이 세상에서 제아무리 높은 위치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

(3)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을 세상에 보내시고 각 가지 지위를 주시며 그들의 다양한 직업과 일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 은혜와 진노를 내리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자신의 공의로써 그들을 정죄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다.

(5)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정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밤중 순식간에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20절; 살전 5:1-3).

10. **㉠**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하였는가? (21, 22절)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들이 없느니라’ 는 말로 사람을 철저히 알고 계신다고 하였다.

(2)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힘과 능력과 기질과 약함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는 각자의 몫을 알맞게 측정하여 편애를 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3) 그런데 악인들은 저물기를 바라며(24:15) 밤에 악을 행함으로 해서(24:16) 그들의 악행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이라 해도 마치 태양 아래의 사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 139:11, 12; 렘 23:24; 암 9:2, 3; 히 4:13).

(5) 이와 같은 사실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된다(참조, 히 4:15).

11. **㉠** 엘리후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이 시간적으로 어느 만큼 지체한다고 보았는가? (23, 24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고 또한 그 죄악의 진상을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신다는 말로서 악인에 대한 심판 결정이 시간적으로 전혀 지체함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상태를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보신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마음의 상태를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의 내용까지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참조, 24:1).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나아가 회개의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되 그들을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하나님의 제명을 떠났을 때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周知)시키기 위해서이다.
- (2) 또한 악인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참조, 시 111:7, 8).
- (3)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을 때에 먼저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기뻐해야 할 것이다.
- (4) 사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인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슬픔의 날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환희의 날이 아닐 수 없다(참조, 출 12:29-42).

13. Ⓞ 하나님께서 악인을 공개적으로, 또 강력히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등졌기 때문이다(27절).
- (2)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모든 길을 등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외의 다른 신에게 자신의 전 삶을 내맡기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한다는 뜻이다(참조, 왕하 17:15-18).
- (3)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이다(참조, 출 20:3-6).

14. Ⓞ 엘리후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케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8절)

- Ⓐ (1) 그 원인이 악인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즉 악인의 죄악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보복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그에 따르는 보복을 하시게 만든다(참조, 출 2:23, 24; 22:23, 24; 시 12:5).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손은 약하고 방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벌하신다(참조, 사 1:24; 3:12-15; 암 5:11, 12; 미 3:1-4; 함 1:13).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15. Ⓞ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의 지식과 주권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는가? (29, 30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의 지식과 주권에 대해서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뵈을 수 있으랴' 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란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에'라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즉각적으로 다스리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 죄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말이다.
- (3) 또한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도움의 손길을

꿨어 버리신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시 104:29).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는 사람에게나 나라에게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 (5) 즉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어느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밖으로부터의 또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직 파멸과 파괴가 있을 뿐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참조, 시 4:6).

16. **㉠** 엘리후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해결책으로 무엇을 권유하고 있는가?(31, 32절)

- ㉠** (1) 엘리후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고통의 해결책으로 욥의 친구들처럼(5:8;8:5;11:13-15)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 (2) 어떻게 보면 징계 또는 고난은 일종의 학교와도 같은 것으로 고난에 참가한 자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배우게 될 뿐더러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 (3) 그러므로 이 고난의 목적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만약 이러한 고난의 목적을 깨달은 자가 있다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완악해지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1:9).

17. **㉠**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값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33절)

- ㉠** (1) 이 말은 욥이 자기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2) 이와 같이 엘리후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욥을 판단하고 더 이상 욥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 (3) 오히려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영적인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고 있었던 처지였다. 이러한 욥의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엘리후의 경우와 같이 종종 편견에 치우친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비록 우리가 정의로운 목적하에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의 척도가 우리라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 (5) 사실 우리는 제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자부하더라도 교만과 자기 욕심 그리고 정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18. **㉠**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공박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34-37절)

- ㉠** (1)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신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총명한 자와 자기 말을 지지하는 지혜있는 자들을 끌어들이어 그들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 (2) 물론 이러한 방법은 여론을 환기시켜 하나의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하나 한두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 (3)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형제를 옥박지르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이웃의 힘을 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4)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권면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상대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웃의 도움을 얻어 권면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18:15-17).

## 제 35 장 엘리후의 세번째 변론

단락구분 1-8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못되는 인간의 선악 / 9-16 믿음이 없는 자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 2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 3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 4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 5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 6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었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었으며
- 7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 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 9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

- 는 자의 팔에 늘리므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 10-11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 12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 13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들아보지 아니하심이라
  - 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옵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라
  - 15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뵈옵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 16 이제 너 읊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엘리후는 경건한 생활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며 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지도 못한다는 읊의 주장에 대하여 논박하고 있다.
- (2)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義)나 혹은 의의 부족 때문에 죄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죄우되는 쪽은 인간일 것이다.
- (3) 그러나 엘리후의 이 견해는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과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며(참조, 고후 9:7; 엡 5:9),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근심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6:6; 시 78:40; 엡 4:30).
- (4)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비록 의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족과 헛된 내용 때문이라고 하였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참조, 행 16:25).

### 2. ㉡ 엘리후는 읊에게 그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여 어떠한 경박한 말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는가? (1-3절)

- ㉡ (1) 엘리후는 읊이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라는 경박한 말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2) 그러나 읊은 결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발설한 일이 없었다.

- (3) 그런데도 엘리후는 욕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9:22-24;10:3;12:6) 극단적인 논리의 문제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 (5)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단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마땅히 침묵해야 할 것이다.

3. **Q** '하늘'과 '궁창'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5절)

- A** (1) '하늘'과 '궁창'은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자료이다.
- (2) 즉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하고 제한된 모습을 발견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 (3) 이런 면에서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2절).
- (4) 사실 인간과 하나님은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크나큰 간격이 놓여 있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접근할 수 없다.
- (5) 더우기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모든 선한 사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천한 것으로 자랑과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4. **Q** 엘리후는 인간의 선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6, 7절)

- A** (1) 엘리후는 인간의 선악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 (2) 사실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그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이다. 우리의 선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선행을 해 놓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삶 속에 모시지 않는 증거이다. 더우기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착각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위치해야 할 곳을 바로 찾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이다.
- (4)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 줄 뿐이다.

5. **Q** 엘리후는 인간의 악과 선이 어느 한계 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는가? (8절)

- A** (1) 엘리후는 인간의 악과 선이 단지 인간 세계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 (2) 즉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존재이며 인간 세계를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악 개념은 인간 세계에서만 통용된다고 하였다.
- (3) 그러나 엘리후의 견해를 전적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소유한 신앙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말 것이다.
- (4)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경륜에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6:6; 시 78:40; 고후 9:7; 엡 4:30; 5:9).
- (5) 그러므로 엘리후와 같은 이원론적(二元論的)인 신앙관은 잘못하면 인간의 지나친 교만과 자울을 충동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6. **Q** 엘리후는 사람들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하였는가? (9-11절)

- A** (1) 엘리후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거나 세력있는 자의 팔에 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였다.
- (2) 사실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에서 세력을 가진자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웃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참조, 사 1:23; 3:14, 15; 호 5:10; 암 4:1).
- (3)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10, 11절) 다만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불평과 신음만을 할 뿐이다.

- (4) 이처럼 그들이 살아계셔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록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신앙에서라기 보다는 단순한 뉘두리에 불과한 것이다.
- (6)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구원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참조, 시 50:15; 행 16: 23-26).

7. **Q**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0, 11절)

- A** (1)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 (3) 더우기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밤중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하신다.
- (4)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밤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흔히 발견되며 특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참조, 행 14:22).
- (5) 그러나 어떠한 밤도 하나님께서 사망과 슬픔의 그늘을 환희와 기쁨의 아침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참조, 암 5:8).
- (6) 홍해의 위험에서 이스라엘로 찬송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출 15:11) 다윗과 바울처럼 가장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삼하 22:1; 행 16:25).

8. **Q**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2, 13절)

- A** (1) 엘리후는 고난받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헛된 부르짖음' 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3절).
- (2) 즉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식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참조, 약 4:3).
- (3) 그리고 그 기도는 공허함과 자만심으로 가득차 있으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뉘두리이며 격노의 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4)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하며 또한 진실하고 겸허하고 경건하게 헌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참조, 시 66:18; 사 1:15; 잠 28:9; 요 9:31).

9. **Q**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또한 욥이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엘리후가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A** (1)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은 뇌울 수 없고 일의 시비(是非)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 (2) 즉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너에게 숨어 계시고 너를 대적으로 여기고 계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 시겠느냐고 공박했던 것이다(참조, 9:11; 22:3, 8-10).
- (3) 사실 성도들이 당하는 큰 시험에는 욥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대해 실망함으로써

오는 좌절이 있다(참조, 시 42:6; 77:7-9; 88:6; 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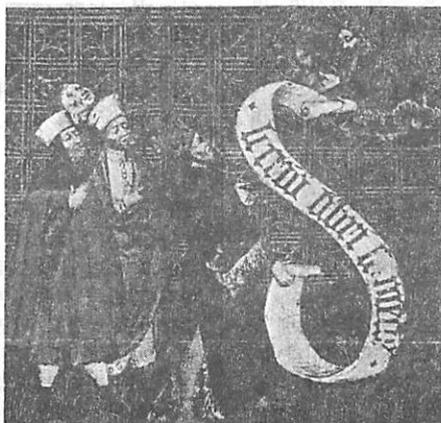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망과 실의에 빠진 자들의 모든 사정을 날날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창 16:13; 출 3:7).
- (5)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하려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베푸심에 대해 확실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시 62:5; 애 3:26; 미 7:7; 합 2:3).

10. **㉠** 엘리후는 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 16절)

- ㉠** (1) 엘리후는 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다' (15절)고 묘사하였다.
- (2) 즉 이 말은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므로 그가 그의 진노로 찾아오셨다. 하지만 그가 내 죄를 벌하심에 있어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라는 뜻이다.
- (3)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당신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모두 행사하셨다면 이 세상에 지금도 존속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간들의 허물을 모두 보용하지 않으셨기에 지금도 인간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연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화보자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왕과 사사(士師)들. 아래의 사진은 기아르 데 무랑의 성서에 삽입된 삽화로서 현재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엘리후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욕이아말로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지적한다(10-16절).

## 제 36 장 엘리후의 네번째 변론

단락구분 1-7 만사를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 8-15 하나님이 인간을 벌주시는 목적 / 16-23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는 음의 죄 / 24-33 미땅히 진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

-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 2 나를 잠간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들려 보내리라
- 4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 5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시라
- 6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며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 7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아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 8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 9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 11 만일 그들이 청중하여 섬기면 형통히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 12 만일 그들이 청중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없이 죽을 것이니라
- 13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 14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 16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 17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 18 너는 본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 19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 20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한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 21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 22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 23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 24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 25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 26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 27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 28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 29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의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 30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밀도 가리우시며
- 31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증비히 주시느니라
- 32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시라 폭탄을 맞추게 하시나니
- 33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 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시니라

### 1. ㉠ 본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엘리후는 지금까지 음의 신관(神觀)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 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음을 공박했었다(33-35장).

- (2) 그러나 본장에서부터 다음 장까지는 더 실제적이고도 권면적인 충고를 하고 있다.
- (3) 즉 그는 사람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불가사의(不可思議)와 완전한 공의, 지혜 그리고 능력을 생각 하여 인내하고 단념하며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 (4) 계속해서 그는 욥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귀하게 허락된 기회임을 상기시키면서 욥으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고백을 그만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유하였다.
- (5) 본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불가사의한 섭리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충고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는가? (1, 2절)

- ㉠** (1)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충고하는 모든 것이 단순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하였다(2절).
- (2)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 (3) 즉 설교자들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계산에 넣은 숨은 어떤 동기를 설교에 가미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만 주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4:2).
- (4)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제공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여야 하며(참조, 고전 2:2-7; 살전 2:2) 인간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참조, 고전 2:4, 13).
- (5) 그러므로 설교자는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이 순수한 것인지 또한 교리가 확실하며 목적 의식이 뚜렷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 '먼저서 지식을 취하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지금보다 먼 시점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얻는다는 말이다(참조, 대상 17:17; 대하 26:15; 사 37:26).
- (2) 그러나 참된 지식과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장래나 항상 진리 그 자체로 남아 있게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시간적인 구별보다는 그것이 진리이며 참된 지혜인지를 가려서 그것을 취하거나 버려야 할 것이다.
- (4)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조금도 흠이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참조, 요 14:6; 17:17; 벰전 1:24, 25).

4. **㉠** 엘리후가 말한 '나를 지으신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엘리후가 말한 '나를 지으신 자'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킨다.
- (2) 엘리후는 자신의 육체 뿐 아니라 영혼까지 조성하신(참조, 창 2:7)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요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다짐하였다.
- (3)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욥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더 짙다.
-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인기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큰 죄이다(참조, 출 20:7).

5. **㉠** '지식이 구비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4절)

- Ⓐ (1) '지식이 구비한 자'란 엘리후 자신을 가리킨다.
- (2) 즉 엘리후는 자신의 교훈의 절대적 진리성을 강조하고 자기 지식의 완전한 구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식이 완전히 구비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참조, 삼상 2:3).
- (4) 그러므로 지식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빛을 통하여 단지 아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전할 뿐이다(참조, 요 3:11; 고후 4:13).
- (5) 여기서 더 뛰어 넘으려는 태도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입하는 지적인 오만이라고 규정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 6절)

- Ⓐ (1) 엘리후는 우주의 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의면하시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였다(참조, 시 40:17; 마 10:29).
- (2) 이러한 사실은 자연계에서 가장 하찮게 생각되는 풀이나 벌레조차 당신의 보살핌과 보존을 위한 풍성한 은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참조, 마 6:28-30).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완전한 파멸을 선사함으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신다(6절). 그런데 이러한 공의로운 피압박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결과가 된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배후에는 또 다른 사랑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 엘리후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절)

- Ⓐ (1) 엘리후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요'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 (2)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인간이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활동하신다(참조, 창 7:1; 출 3:7; 대하 16:9; 시 1:6; 34:15; 139:1; 잠 10:3; 사 26:7).
- (3)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관심은 휴식이 전혀 없으며 의인의 삶 한 동작 한 동작을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신다(참조, 시 121:3, 4).
- (4)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5:11; 삼상 2:8; 시 113:7, 8).

8. Ⓞ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8-10절)

- Ⓐ (1) 엘리후는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창 39:20; 렘 40:1; 단 3:21; 마 14:3; 행 12:6; 16:24; 24:17).
- (3) 그러나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경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경계와 보호의 끈을 늦추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 (4)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인간의 적나라함을 보이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바로 깨닫게 만드신다(9절).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도록 훈련시키기도 하신다(10절; 42:5).
- (6)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자의 참모습을 갖게 하신다(10절).
- (7)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참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히 12:7-13).

9. Ⓞ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에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였

는가? (11, 12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에 대처하는 인간에 대해서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히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을 당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참조, 시 16:6; 렘 7:23; 26:13).
- (3)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고(自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참조, 33:18).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의인과 악인을 정밀하게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7:24-27).
- (5) 그러므로 우리는 까닭 모를 고난이 닥쳐 왔을 때 불평과 좌절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10. ⓐ 엘리후는 마음이 사곡(邪曲)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가? (13절)

- Ⓐ (1) 여기서 먼저 사곡한 자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용납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 (2) 이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 (3) 즉 이들은 비록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는 커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더욱 증가되어 쌓이게 될 것이다(참조, 롬 2:5).
- (4)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롬 1:18-32).

11. ⓐ 엘리후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14절)

- Ⓐ (1) 엘리후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男娼)과 함께 망한다’는 말로써 그들의 결국을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젊어서 죽는다는 말은 한창 번성할 나이에 죽는다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혼의 생명력이 점차로 죽어 간다는 말이다.
- (3) 그리고 ‘남창’이란 음탕한 우상 숭배하는 데 바쳐진 남자(참조, 왕상 14:24; 15:12) 또는 매춘 행위를 하는 불결한 남자(참조, 신 23:17)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경계시되는 자들이었다(참조, 레 18:22; 20:13).
- (4) 그러므로 사곡한 자들이 남창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말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명예에서조차 무가치한 자로 취급되고 말 것이다.

12. ⓐ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순종하여 잘 참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입히신다고 하였는가? (15, 16절)

- Ⓐ (1)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의 대부분은 치유적인 행위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만일 끈고한 자가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곧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참조, 시 119:67, 71; 히 12:11).
- (2)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참조, 42:5).
- (3)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옛날의 번영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로서 욥에게 회개할 것

을 중용하고 있다.

-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엘리후가 언급한 회복의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할 것이다(참조, 출 3:8; 사 18:10; 왕하 20:6; 시 34:19; 118:5).

13. **㉠**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욱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7, 18절)

- ㉠** (1) 엘리후는 욱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릴 벌을 내리게 하였다고 보았다.  
 (2) 더우기 그는 욱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징책을 대적하다가 완전한 패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18절).  
 (3)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의 오해로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 욱을 고난받는 자신의 좁은 신앙관으로 정죄하고 말았다.  
 (4) 이처럼 우리들도 가끔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 개인이나 사회는 반드시 인간의 소리와 사상이 팽배하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 삼상 3:1).

14. **㉠** 엘리후는 허탄한 부르짖음에 지쳐 있는 욱에게 어떠한 충고를 하였는가? (19-21절)

- ㉠** (1) 엘리후는 허탄한 부르짖음에 지쳐 있는 욱에게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한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20, 21절)고 충고했다.  
 (2) 여기서 ‘밤’이란 심판과 절망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제한을 받아 무덤에 눕기를 갈구한 욱의 반복적인 뉘그러에서 따온 말이다(참조, 6:9; 7:5).  
 (3) 엘리후는 이와 같은 욱의 희망, 즉 죽음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적 태도임으로 그것을 고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4) 계속해서 그는 욱의 고통은 그를 악으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주어졌음으로 마음을 악에 기울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권유했다.  
 (5)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욱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시행된 무미 건조한 충고임에 분명하다.  
 (6) 우리가 충고할 때에 일반적인 진리를 내뱉듯이 이웃에게 전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먼저 사랑과 이해로 이웃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빌 2:1-5).

15. **㉠** 엘리후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교훈을 베풀거나 그분을 향해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2, 23절)

- ㉠** (1) 엘리후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사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음으로 피조된 우리는 그분에게 교훈을 주고 길을 안내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시 66:7).  
 (3)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섭리적인 지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일련의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4)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그 깨우친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인식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5)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빛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와 권세의 확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6) 물론 이러한 태도는 말씀의 빛에서 떠난 태도이며 무속 신앙(샤머니즘)에 깊이 몰든 자

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6. **㉠** 엘리후는 욥에게 모든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무엇만 하라고 하였는가? (24, 25절)

- ㉠** (1)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하였다 (24절).  
 (2) 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버티고 있던 욥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인간의 위치로 낮아져서 조물주 하나님의 업적을 경외와 기쁨으로 우러러보고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였다.  
 (3)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업적에 대해 경외와 놀라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외심으로 보는 것이 곧 찬양이며 예배이다.  
 (4) 그러나 제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성가대가 갖추어지고 또한 장엄한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업적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예배 또는 찬양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외식적인 행위를 경멸하시는 반면에 겸손하고 상한 심령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참조, 시 51:17; 사 1:10-31).

17. **㉠** ‘우러러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 (1) ‘우러러본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다는 뜻이다 (참조, 사 47:13).  
 (2) 그런데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지만 단지 ‘먼 데서’ 볼 뿐이다.  
 (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단지 먼 데서 보는 것처럼 불확실할 뿐이다 (참조, 고전 13:12). 하지만 그 하나님의 행사가 불투명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거나 의심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4) 그러나 이 회미함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그 회미한 그림자조차도 감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탄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애적인 감각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8. **㉠**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6절)

- ㉠** (1)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2)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제아무리 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깊이는 탐지할 수가 없으며 (참조, 고전 2:10)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측량할 수 없다.  
 (4)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여 그의 존속 기간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원 전과 영원 후에 관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19. **㉠** 엘리후는 비가 땅에 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7, 28절)

- ㉠** (1)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고 설명하였다.  
 (2)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의 생성 과정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는 땅이 결코 살아 숨쉬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참조, 창 2:5, 6).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물을 위해서 비를 내리심으로 해서 땅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은 삶의 원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4) 그러므로 비가 이 땅에 내려진 것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이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의 한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20. **㉠** '그의 장막'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9, 30절)

- ㉠** (1) '그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장막', 즉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시 18:11).  
 (2)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울려 퍼지는 천둥의 무서운 소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하며 전능하고 헤아릴 수 없는 초월자의 활동을 깨닫게 한다.  
 (3) 여기서 구름의 빠른 형성이라든지 그 구름의 응집 그리고 급작스레 온 하늘을 뒤덮은 현상 등은 자연의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이며 인간은 이것들을 설명하거나 깨닫기가 매우 힘들다.  
 (4) 물론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러한 현상을 규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인 출발과 그 종결을 완전히 파헤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5)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이러한 자연 현상마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 엘리후가 말했던 '바다'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30절)

- ㉠** (1) 엘리후가 말했던 '바다'란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거대한 뇌운(雷雲)을 의미하거나 혹은 증발로 인해 구름 속에 수증기가 퍼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 같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다'조차도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운행해 가신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다.  
 (3) 이와 같은 엘리후의 견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날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 준다.  
 (4) 사실 문명의 이기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자연의 현상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할 때가 종종 있다.  
 (5)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부정적 견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全)우주를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22. **㉠**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전개해 나가신다고 했는가? (31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만민을 징벌하시며' 또한 '식물을 풍부(豐備)히 주신다'고 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농작물을 파괴하시고 홍수로 광범위한 피해를 내며 천둥 번개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메마른 땅에 풍족한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이 생기를 얻게 하신다고 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연 변화를 통하여서도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모든 만물에게 주신다.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단순히 물질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5)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고 하였다.

23. **㉠**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는가? (32, 33절)

- ㉠** (1)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이 '육축에게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즉 엘리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는 육축의 울음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육축에게까지 인지(認知)된다고 하였다.  
 (3)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도 바람과 바다만이 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참조, 막 4:41) 들짐승도 그 사나움을 잊고 주님 주위에 모여 들었다(참조, 막 1:13).  
 (4)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여러 징후 가운데 이리가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

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다(사 11:6-9).

- (5) 그러나 이 모든 육축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인지할 뿐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 (6) 왜냐하면 지구 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 연구자료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욥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11:7)라고 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 능력에 대하여 신랄하게 거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은폐(隱蔽)하셨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자연 계시(일반 계시)와 초자연 계시(특별계시)인데 여기서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계시의 양식과 대상에 따라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지으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여겨 같이 취급하려 한다. 자연 계시는 인간의 의식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로서 말씀에서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계시를 말한다. 물론 자연 계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계시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의 세상은 창조주를 반영하여 부분적이거나 창조주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배울 수 있으며(참조, 27-32절; 롬 1:20), 또한 그분의 능력을 우러러보고 찬송하기도 한다.

## 제 37 장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단락구분 1-5 되성(雷聲)과 번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 6-13 눈과 비와 바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 14-20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 21-24 큰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敬畏)

1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3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급치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7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8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9 남방 밀밭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10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느니라

11 그가 숨기로 뿔뿔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퍼신즉

12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상에 이루려 함이라

13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금을 폐부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14 읊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15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시어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16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17 남풍으로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네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18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19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20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21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22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과 연결된 엘리후의 변론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
- (2) 본장에서 엘리후는 육축에게 미친 결과로부터 인간에게 미친 결과까지 언급한 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다른 자연적인 증거, 즉 눈, 큰비, 광풍, 얼음 등 여러 가지를 열거하였다.
- (3) 계속해서 그는 읊에게 그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설득했으며 경외와 동경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최후로 호소하였다.
- (4) 이처럼 자연의 무궁 무진한 현상 가운데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미약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계신다.
- (5)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인간에게 날마다 보여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경륜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램 33:3).

2. **㉠** 엘리후는 번개와 천둥 소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엘리후는 번개와 천둥 소리에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는 말로서 그 반응을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자기 처소에서 떠난다'는 말은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디를 떠나는 것 같은 불안정함을 가리킨다.
- (3) 즉 천둥과 번개 소리에 혼이 나갈 정도라고 하였다.
- (4) 엘리후가 이렇게 천둥과 번개 소리에 놀라게 된 것은 그 소리를 단순한 자연의 소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 (5) 사실 어리석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두려움과 놀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창 3:6-10).
- (6) 그러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큰 기쁨과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 10:14, 15; 계 22:20).

3. **㉠**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6-10절)

- ㉠** (1) 이 말은 밖에서의 일상적인 일을 끝마치고 휴식의 시간을 취하게 하신다는 말이다.
- (2) 즉 농사하는 사람들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잡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한 말이다.
- (3) 그런데 사람들이 손을 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눈과 비와 광풍과 구름 등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엘리후는 힘주어 말했다(참조, 신 11:14; 시 147:16-18; 욥 2:23; 숙 10:1; 약 5:7).
- (4)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봉하시는 목적은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7절).
- (5)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가한 시간에 자기 반성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드셨다.
- (6) 사실 인간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온 힘과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가끔은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 버릴 때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연 변화를 통하여 인간들을 쉬게 만드신다.

4. **㉠** 엘리후는 구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하였는가? (11-13절)

- ㉠** (1) 엘리후는 구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에서 습기를 끌어 올려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 속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시다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땅 위에 다시 돌려 보내신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비를 내리게 명령하시는 것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 (4)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는 심하거나 엄청난 비로 이 땅을 벌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자신의 특별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거나 또는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운택하거나 메마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의 행위는 약간의 동인(動因)이 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창 3:17;6:5-12;약 5:17, 18).

5. **㉠**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설명한 후 어떠한 말로 그에게 권면하였는가? (14-17절)

- ㉠** (1) 즉 엘리후는 욥을 세상 죄에 얽매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귀를 열어 자연과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다.  
 (2) 또한 그는 욥에게 인내를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사실 서두르는 경솔한 삶은 피상적이기 쉽다.  
 (3)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하였다.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나태에 빠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4)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스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지적(知的)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딤후 3:14).

6. **㉠** 엘리후는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어떠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가? (18-20절)

- ㉠** (1)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변론할 수 없다고 단정지음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구고 있다.  
 (2) 사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도 허물 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의 의(義)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한다(참조, 고전 15:10).  
 (4)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7. **㉠**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나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21, 22절)

- ㉠** (1) 이 말은 '북방에서 좋은 날씨가 나오나니'라는 뜻이다.  
 (2) 즉 이 말은 북쪽 하늘이 맑게 개이고 거기에서 금빛 같은 태양이 나타나 어둠던 온 대지를 비추인다는 의미이다.  
 (3) 여기서 '금빛'은 자연적인 햇살을 뜻하지만 간혹 하나님의 권위와 당신의 출현을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시 19:5, 6).  
 (4) 하나님의 출현 또한 세상에 찌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5)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현상마저 당신의 주권으로 지배하심을 인정할 때에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다.

8. **㉠**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3,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과 공의(公義)를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2) 그런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해 하는 인간을 돌아보시지 않는다.  
 (3)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즉 당신 안에는 더 큰 지혜가 내재해 있다.  
 (4) 그러므로 인간은 다만 그를 경외할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지혜이다(참조, 잠 1:7).

## 제 38 장 하나님의 첫번째 말씀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옴을 향하여 물으시다 / 4-30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기사(奇事)를 보이시며 옴에게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시다 / 31-41 하나님께서 옴에게 인간이 무력한 존재임을 가르치시다

1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옴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12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13 그것으로 땅 끝에 비취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4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 친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가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18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9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20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21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 때에 났었나니 너는 년수가 많음이니라

22 네가 눈 공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24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으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흠어지느냐

25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뢰의 번개 길을 내었으며

26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27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28 비가 아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 얼음은 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31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였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32 네가 열 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었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였느냐

33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34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였느냐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였느냐

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37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 하였느냐 누가 하늘의 별을 쏟아

38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였느냐

39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였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었느냐

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음의 까닭없는 고난으로 인해 벌어졌던 말잔치가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 (2)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건의 결말을 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신 장면은 모두 네 장 (38 - 4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이 대비해서 기록되어 있다.
- (3) 음은 종종 자신의 순결함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바랬고 더우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열망하고 있었던 터였다.
- (4)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시기 보다는 음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간격을 제시하셔서 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토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 (5)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인간의 지적 한계선 밖에 있고 또 그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선 밖을 침범하려는 외람된 일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당시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셨다.
- (6)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신의 크나큰 간격을 발견하는 자야말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가운데서 음에게 전달되었는가? (1절)**

- ㉠** (1)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가운데서 음에게 전달되었다.
- (2) 여기서 폭풍, 즉 회오리바람은 하나님의 출현과 더불어 있어지는 현상으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참조, 느 1:3; 시 18:7-15; 젤 1:4; 속 9:14).
- (3) 그런데 하나님은 음의 기대에 응하려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뜨리신 것뿐이다.
- (4) 그리고 계시의 내용이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으나 아뭏든 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
- (5)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아직 모르나 여하튼 그의 의식 가운데 뚜렷해진 사실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돌보고 계시다는 압도적인 느낌이었다.
- (6)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희망적인 소리보다도 더 희망과 용기를 준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애독해야 할 것이다.

3. **㉠ 폭풍 가운데서 음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 (1) 폭풍 가운데서 음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내용은 '무지한 말로 이치(理致)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이치를 어렵게' 하였다는 말은 음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과 근본적인 원리를 어렵게 하였고 잘못 전하였다는 말이다.
- (3) 사실 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도덕적인 다스림 (21:7-26) 과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 (16:7-14) 과 공의 (19:7; 31:1-35) 를 의심했었다.
- (4)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음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고와 사상으로 왜곡시켜 전할 때가 많다.

4. **㉠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란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A** (1) 이 말은 '네가 자주 용감한 영웅인 체했던 것처럼'이란 의미이다.
- (2) 욥은 전에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공언하였으며(13:18, 22)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자신을 대하신다고 불평했었다(19:7).
- (3)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 그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의 죄상에 대하여 소송장을 내시는 것보다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31:35-37).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시며 그에게 성실한 대답을 하겠노라고 응답하셨던 것이다.
- (5) 그러나 욥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0:4)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 (6)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만하여 방종한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는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참조, 눅 5:8).

**5. C** 하나님과 대면하여 쟁론하리라던 욥의 도전에 대해 하나님은 무슨 말로써 응전을 시작하셨는가? (4-7절)

- A** (1) 도전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은 욥이 창조 행위 그 자체의 성질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무한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전제함으로 시작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욥이 그보다 더욱더 심오한 일을 어찌 알겠느냐는 뜻으로 이러한 전제를 하셨다.
- (3) 여기서 '땅의 기초'란 우주 공간의 물질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26:7)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 (4) 사실 우주의 기원과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생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5)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기원을 모를 때 스스로 교만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원과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참조, 시 37:5).

**6. C**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A** (1)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천사) 들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1:6; 2:1).
- (2) 즉 그들은 하늘나라에 사는 영적 능력을 지닌 무리들이다(참조, 시 68:7; 마 18:10).
- (3)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번째로 창조되고 처음으로 부름 받은(참조, 창 3:24; 시 8:5) 무리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참조, 시 103:20) 하나님을 시중하는 역할을 한다(참조, 요 1:51).
- (4) 그런데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참조, 시 2:7; 요 1:18; 행 13:33).
- (5)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중생한 성도들(요 1:12)에게 봉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히 1:14).

**7. C**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닷물을 제어하신다고 하셨는가? (8-11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다를 갓 태어난 아이처럼 다루시며 또한 제어하신다고 하셨다(참조, 7:12; 9:8, 12; 시 104:6-9; 렘 5:22).
- (2) 이것은 '태에서 나옴같이' (8절)란 말과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9절)란 말과 같이 그 상대가 하잘것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바다에게 지구의 표면을 덮지 못하도록 하시고 지금 있는 위치를 사수하도록 명하셨던 것이다(참조, 창 1:9; 시 104:8).
- (4)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바다의 위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푸셨던 것이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넘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바다를 이렇게까지 제어하시며 다스리시는 이유는 인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땅 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자신의 부패한 의지대로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다의 경계를 해제하셔서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다 (참조, 창 7:13-24).

8. **㉠** 새벽과 아침이 오게 하는 빛은 누가 주관하는가? (12-15절)

- ㉠** (1) 새벽과 아침이 오게 하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신다(참조, 창 1:3-5, 14-19).
- (2) 사실 제아무리 우주의 순환을 많이 이해하는 천문 학자라 하더라도 비록 그 법칙들을 연구할 수는 있으나 그가 그 작용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
- (3) 단지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 (4) 즉 빛이 순종하는 유일한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긴 하나님의 명령이다.
- (5) 그런데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즐겨 찾는 악의 무리에게 당신의 공의로우신 빛을 투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부(恥部)를 보게 하신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빛의 주관자로서 뿐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빛, 즉 정의와 공의의 주관자로서도 온 우주를 통치해 가신다(참조, 요 1:4,5).

9.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한계가 뚜렷한 육체의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욕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가? (16-18절)

- ㉠** (1) 하나님께서 욕에게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들었었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
- (2) 사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모두 살핀다든지 땅의 넓이를 오차 없이 측량하고 더우기 사망의 문, 즉 바다보다 더 깊고 낮은 죽음의 처소를 모두 살핀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밝히 아시고 그것들의 진행 방향도 이미 알고 계신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당신의 능력으로 풀어가시며 온전케 하신다.
- (5) 그러므로 한계가 뚜렷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 이상으로 그 삶과 환경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의 해결책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로 욕이 시간적으로도 유한한 인간임을 말하셨는가? (19-21절)

- ㉠** (1) 하나님께서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는 질문을 통하여 욕이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역설하셨다.
- (2) 여기서 '광명'은 천체의 일월 성신(日月星辰)과는 별개의 독립된 자연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참조, 창 1:1). 또한 흑암도 독립된 자연의 힘으로 묘사하신 듯하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年數)가 많음이니라' (21절)는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말로서 욕의 한계성을 꼬집어 말씀하셨다.
- (4) 사실 욕은 전능자 하나님만큼 나이가 들지도 않았으며 태초부터 존재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안다면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론(持論)이었다.
- (5) 이런 관점에서 만약 세계를 통치하시며 그 근원과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

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거나 더 우월한 자가 되어야 한다.

(6)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일 뿐 결코 하나님의 나이와 견줄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11. **Q**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왜 창고에 저장해 두신다고 하셨는가? (22-24절)

- A** (1)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눈과 우박을 창고에 저장하여 두신다고 하셨다(22절).
- (2) 여기서 눈과 우박은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무기였다(참조, 출 9:18-29; 수 10:11; 시 18:12, 13; 78:47, 48; 105:32; 사 30:30; 겔 13:11, 13; 계 8:7; 16:21).
- (3)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곤 하셨다.
- (4)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힘 전체를 당신의 선한 의지 안에 두시고 그것이 필요한 때마다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신다(참조, 잠 21:30, 31).
- (5) 그런데 24절에 언급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을 동반해 와서 모든 생물을 태우는 해풍(害風)을 가리킨다.
- (6) 이것 역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해풍을 사용하셔서 악을 징계하신다.
- (7) 이상과 같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눈에 드러난 자연의 힘(눈, 우박, 해풍)만을 두려워할 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한다.

12. **Q**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미치게 하신다는 의미로 어떠한 언급을 하셨는가? (25-27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비를 내리시며(참조, 마 5:45) 또 사람이 사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한결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다(26, 27절).
- (2)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계획 추진해 가신다.
- (3) 그러므로 제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4)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고대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이다(참조, 마 26:51-54).

13. **Q** 물질계 특히 수분의 생성과 그 변화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인가? (28-30절)

- A** (1) 물질계 특히 수분의 생성과 그 변화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 (2)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수분을 만들기도 한다.
- (3)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모든 자연계에 유익을 줄 만큼 생성 또는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더우기 엄밀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무(無)에서 수분을 조성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수분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결정체를 만들 수도 없다.
- (4) 즉 인간은 자연 현상에 대해 매우 많이 알고 그것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현상의 기원과 진행 그리고 결말을 주관할 수는 없다.
- (5)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며,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 드려야 한다.

14. **Q**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31-33절)

- A** (1) 이 말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의 경로를 조절하는 '하늘의 법도'를(참조, 시 119:90, 91; 148:6) 읊이 알지 못한다면 읊 자신이 그러한 법칙을 세워서 이 땅에 시행할 수 있

느냐는 말이다.

- (2) 사실 성좌(묘성, 삼성, 열두 궁성, 복두성)와 밤하늘을 수놓는 유성,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운, 궤도를 벗어나서 떠도는 혜성 등은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별의 움직임은 이 땅의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4)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서 빚어지는 일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기 때문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당신의 의지대로 조성하셨다(참조, 창 1:1-2:7).
- (6)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단 한 피조물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바로 인간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인간을 더 생각하신다.

15. **Q** 지구 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 또는 소멸되는가? (34, 35절)

- A** (1) 지구 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 즉 하늘에서 발생하는 천둥, 번개, 공기 중에 일어나는 전류 그리고 지구상의 무한한 모든 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 (2)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전개되는 모든 자연 현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그의 지혜에서 기인한 것이다.
- (3) 그러므로 한계가 뚜렷한 욕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

16. **Q** 인간은 지혜와 총명을 어디에 간직하고 있는가? (36-38절)

- A** (1) 인간은 가슴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총명을 간직하고 있다(36절).
- (2)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관하여 그 이름과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참조, 마 16:2, 3).
- (3) 비록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시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위엄을 기꺼이 인정해 주려고 하신다.
- (4) 그러므로 인간의 지능은 인간이 멸시해서는 안 될 고귀한 은사로서 그것을 성실히 키워 나가야 한다.

17. **Q** 야생하는 동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39-41절)

- A** (1) 비록 야생하는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 (2) 사람은 흔히 하찮은 야생 동물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 (3) 하나님은 이제 욕에게 동물 세계의 신비를 직면케 하여 그의 무지함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쟁론하는 심판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하신다.
- (4) 사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된 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참조, 롬 1:20).
- (5) 사람이 동물을 하찮게 생각하듯이 고난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통해 볼 때는 분명히 절대 필요한 것이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의한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참아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벧전 1:6, 7).

## 제 39장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단락구분 1-4 산 염소와 암사슴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 5-12 들나귀의 거처와 들소의 성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 13-18 타조를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 / 19-25 말에게 힘과 용맹을 주신 하나님 / 26-30 매와 독수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 그것들은 몸을 꾸꾸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6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7 들나귀는 성음의 지꺼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9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끝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11 그것의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 그것이 네 곡식을 짐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13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14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15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16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패념치 아니하나니

17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폄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18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흘날리는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 그것이 끝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22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23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24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 나팔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26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28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거하며

29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 그 새끼들도 피뎀 빠나니 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 1. ㉠ 본장의 내용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전장(前章)에서 언급된 자연계와 생물계의 기이한 현상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밝히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 여기서 하나님은 질문 형식을 빌어 음의 무식함과 무능함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셨다.

(3) 그러므로 본장과 전장에서 의도한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며 인간의 무능력으로 자연의 신비스러움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려는 데 있다.

2. **㉠** '산 염소'란 어떤 종류의 동물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산 염소'란 주로 바위가 많은 광야 황무지에서 생활하는 야생 동물로서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2) 그리고 '암사슴'이란 위에 제시된 산 염소의 암컷을 가리키는 말이다.  
 (3) 한편 하나님은 구석에서 소외되어 생활하는 이런 동물들까지 관심을 두고 계신다.  
 (4) 하나님께서는 전우주적이고 엄청난 일들을 수행해 가지지만 그 반면에 이렇게 하찮은 동물의 앓고 일어섬조차도 놓치지 않으신다(참조, 마6:26).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인이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다.

3. **㉠** 들나귀의 자유는 누가 준 것인가? (5-8절)

- ㉠** (1) 들나귀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2) 이 들나귀는 들에서 자생하는 동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  
 (3) 이 동물은 성질이 사나워서 가축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집에서 기르는 나귀와는 차이가 난다(7절).  
 (4) 이러한 두 동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롭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 쓸모없는 이 들나귀의 생계마저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초장(草場)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거주하게 만드셨다.  
 (6) 이처럼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에는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는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사55:8).

4. **㉠**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야생하는 들소의 힘마저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9-12절)

- ㉠** (1)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창1:28-30)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들소의 힘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참조, 창3:6-19).  
 (2)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피조물이 없게 하셨으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3) 더우기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로 부터 공격과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4) 즉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모든 자연 현상이 본래의 질서를 상실하고 인간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5) 그러므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권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새롭게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떨리는 목소리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 타조가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으며 또한 그 새끼에게 무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3-18절)

- ㉠** (1) 타조가 자기의 알을 품지 않고 그 새끼에게 무정한 이유는 총명이 없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서는 타조가 이렇게 어리석어 제 새끼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께서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시고 있다. (17절).  
 (3)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지적(知的)인 문제마저 관찰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

- (4) 여기서 우리는 타조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읍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는 고난 배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하고 생을 더 메마르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에서조차 당신의 선한 뜻을 개입시켜 역사하신다.

6. **㉠**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馬)의 힘과 그 용맹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19-25절)

- ㉠** (1)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용맹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 (2) 즉 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천적인 힘을 얻어 어떠한 싸움터에서도 용감히 나팔소리와 함께 돌진한다. 즉 말은 순종과 용맹이 겸비된 훌륭한 동물이다.
- (3) 이러한 말의 순종과 용맹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된다.
- (4)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과 같이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적이고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 (5) 그것은 인간보다 미친한 말이 힘과 용맹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7. **㉠**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그 이유는 매가 기후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이기 때문에 그 본능상 남쪽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다.
- (2) 이처럼 인간이 보기에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철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선사하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만드셨다(참조, 렘 8:7).
- (3)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계의 어떠한 움직임마저도 그것이 우연한 발생이나 소멸 또는 자생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4)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외적 형태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생리와 본능 그리고 삶의 지혜까지 조성하신 것이다.
- (5) 이와 같이 만물의 어떠한 삶마저도 하나님과 관련짓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듯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삶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 (6) 더우기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성도의 삶은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할 것 없이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 독수리의 삶의 지혜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27-30절)

- ㉠** (1) 독수리의 삶의 지혜는 먼저 사람의 손이 근접치 못하는 험준하고 높은 곳에 그 거처를 두는 것으로 묘사되었다(27, 28절).
- (2) 또한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29절).
- (3) 그리고 그 새끼들에게 자신이 취한 먹이를 공급하여 그 새끼들이 그 먹이에서 나오는 피를 빨도록 하게 한다고 묘사하였다(30절).
- (4) 그런데 독수리에게 이와 같은 날카로움과 지혜를 주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뿐 아니라 인간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에게도 깊은 관심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 (6) 그러나 비록 이 같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지 창조주로밖에는 더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
- (7) 하지만 인간은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다(참조, 마 6:26-32).

# 제 40 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욥의 침묵

단락구분 1-2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다 / 3-5 욥이 대답을 삼가하겠다고 하다 / 6-9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의(義)를 꾸짖으시다 / 10-14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욥을 꾸짖으시다 / 15-24 하나님께서 하마를 예루 들어 당신의 능력을 설명하시다

-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 2 번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 4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5 내가 한두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 6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 8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 9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울지니라
- 11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날날이 낮추되
- 12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써서

- 어둑한 곳에 들지니라
-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 15 이제 소갈이 풀을 먹는 하마를 불지어다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 16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 17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릿대는 철장같으니
- 19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 20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 21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발 가운데나 못속에 었드리니
- 22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들렀구나
- 23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 24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당신의 첫번째 말씀을 욥에게 전하신 후(38, 39장) 다시 본장에서부터 당신의 두번째 말씀을 전개해 가셨다.
- (2)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서 욥의 변론을 듣기 원하셨으나 욥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침묵할 것을 맹세하였다.
- (3) 그러나 욥의 '왜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는 이성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 침묵하였던 것이다.
- (4) 욥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좀더 깨우치실 말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풍자적인 묘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욥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욥을

고통에 방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와 당신의 깊은 뜻을 전달하셨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극히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욥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을 믿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에 그는 반드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로써 욥에게 두번째 당신의 말씀을 꺼내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변박(辨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담할지니라’는 말로 당신의 두번째 말씀을 시작하셨다(2절).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깨우치시기 위한 교훈적인 말씀이다.
- (3) 여기서 ‘변론하는 자’란 대화 상대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잔소리꾼이라는 의미로 붙인 말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을 겸비하고 계셔서 당신의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치 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3. **㉠**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3-5절)

- ㉠** (1) 욥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 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 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2) 참으로 욥은 지혜로웠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깨어지고 겸손해지며 더 이상 자기에게 있 는 여러 증거와 자신의 고난 문제로 하나님과 맞서려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변호하 려 하지도 않았다.
- (3) 여기서 욥이 자신을 미천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도덕적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 (4)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히 그중에서 인간의 진위(眞爲)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보다 인간을 더 깊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시다.

4. **㉠**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인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 (4, 5절)

- ㉠** (1)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옹호하거나 공허한 말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자 신의 부정한 입을 가리우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참조, 사6:5).
- (2)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 른 태도는 하나님을 조용히 찬미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참조, 삼상3:10).
- (3)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지각 없이 말한 자신의 과거의 말과 행위를 생각하여 하 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참조, 42:3-6).

5. **㉠**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겠노라고 답변했던 욥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5절)

- ㉠** (1)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욥은 점차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느꼈던 것이다.
- (2) 즉 욥은 ‘자기’라는 우상에 집착되어 있던 그의 이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순수하고도 새 로운 유일신교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 (3) 다시 말하면 그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입장으로 옮겨 가고 있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얽매어 편협하고 방종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얽매었던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가 있다.

(5) 그리고 편협되고 방종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롭고 순전한 모습을 닮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참조, 히 12:2, 3).

6. **Q**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A** (1) 38장 **Q**3을 참조하라.

7. **Q**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A** (1) 이 말은 욱이 자신이 당한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욱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계시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을 불의(不義)한 자로 몰아세우는 행위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욱의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시고 그의 생각을 교정시키고자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상의 지혜와 관찰력으로써 인간을 다스려 나가신다.
- (3)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어로 몰아치는 패역한 일임에 분명하다(참조, 요일 1:8-10).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하셨으며 실제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롬 3:9-12).
- (5)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들어 의롭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 18:13, 14).

8. **Q** 성경에서 '팔'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인가? (9절)

- A** (1) 성경에서 '팔'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5:16; 시 77:15; 89:10; 사 53:1; 요 12:38).
- (2) 모든 인간의 힘을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팔의 힘을 결코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자신의 힘의 유한함을 깨닫는 자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께 의지함이 마땅한 처사이다(참조, 시 89:13; 사 51:9).

9. **Q**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는' 자는 누구인가? (10-14절)

- A** (1)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 (2) 하나님은 언제나 권위와 능력으로(시 93:1) 치장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다(시 104:1). 또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을 때 빛을 입으신다(시 104:2).
-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옷을 입으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뜻도 있지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인을 진멸하시려는 의도도 있다(참조, 5:11; 삼상 2:7).
- (4) 여기서 '위엄과 존귀'는 인간적인 권위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악행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위엄과 존귀가 인간 세계에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체험한 인간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참조, 대상 29:11).
- (5)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를 드러내기에 족하다.
- (6) 인간은 결코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치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소유자와 더불어 기뻐할 수는 있다.

10. **Q** 하나님께서 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2, 13절)

- A** (1)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이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塵土)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한 곳에 둔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라든지 '얼굴을 싸서 어두한 곳에 둔다'는 말은 악인들이 죽어서 죽은 자들의 어두운 세계에 내려감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다(참조, 잠 16:18).

(4)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목숨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탑을 더 높이 쌓아 가고 있다.

11. **㉠**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9 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욥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욥이 모두 할 수 있다면 욥은 하나님과 감히 다투려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욥은 자신의 자주성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자신과 논쟁할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다.

(2) 사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을 영위하는 존재가 되려는 시도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참조, 창 3:5; 막 15:31).

(3)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 양 또한 자기 구원의 완성자인 양 행세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4) 이러한 큰 범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기 부정이 결행(決行)되어야 할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욥을 지은 것같이 무엇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가? (15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욥을 지은 것같이 소처럼 풀을 먹는 하마를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하마(히, 베헤모트)란 단순히 큰 짐승(맘모스,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그러므로 본장에서 말하는 하마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짐승은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4) 즉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인간에게 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짐승도 당신이 친히 지으셨다는 것이다(참조, 31:15; 33:6).

(5) 이와 같이 욥이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에게는 뜻이 계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6)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였다(고후 7:10).

(7)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을 크나

랴 보게 될 것이다.

**떻게 묘사하셨는가? (16-19절)**

'해서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 는 철장 같으니' 라고 묘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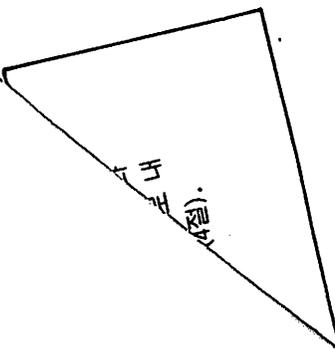
커다란 짐승이긴 하지만 하마는 육식 동물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인간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 '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당신의

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 권면하였던 것이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13. **㉠**



- (1) 이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우월성을 나타낸 말이다.
- (2) 즉 하마는 그 자신의 영역과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 (3) 그런데 인간이 그 하마를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쓸모없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천양지차(天壤之差)로서 본성적인 인간과 하나님과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성적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15. **Q** 하나님께서 하마에게 주셨다고 하신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A** (1) 하나님께서 하마에게 주셨다고 하신 ‘칼’은 그가 지닌 치아(齒牙)를 의미한다.
- (2) 하마는 마치 칼이나 낫으로 베듯이 그 앞니를 사용하여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 즉 아무리 인간의 눈 밖에 있는 야생 동물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역사와 그 삶의 현장을 연구하려 할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창 1:25).
16. **Q** 하나님께서는 하마를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만드셨는가? (21-23절)
- A** (1) 하나님께서는 하마를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만드셨다.
- (2) 이것은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그는 주로 엎드려 있으며(21절) 어떤 일이 발생해도 좀처럼 놀라지 않고(23절), 자약(自若)한 모습을 흐트리지 않는다.
- (3)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쩌면 나태한 인간과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의 느긋한 성격이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느긋한 성격과 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조급한 모습을 꼬집으시려고 하신 것이다(참조, 딤후 3:3, 4).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찮은 동물을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전달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을 해치려는 뜻에서 창조하시지는 않았다(참조, 창 1:27-31).
17. **Q**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24절)
- A** (1) 하나님은 인간이 하마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로써 당신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셨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자연계 안에서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모든 현존 세계에서 인간을 초월해 계신다.
- (3)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연약해지고 또한 낮아질 수 있을 믿음의 능력도 소유하고 계신다(참조, 빌 2:5-8).

### 본장의 요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다.’

# 제 41 장 악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단락구분 1-11 하나님께서 옴의 한계성을 지적하시다 / 12-17 악어의 지체와 힘과 구조를 설명하시다 / 18-21 악어의 행동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 22-24 악어의 단단한 체질과 마음을 묘사하다 / 25-34 인간은 도저히 악어와 겨루어 이길 수 없다

- 1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뿔 수 있겠느냐
- 2 줄로 그 코를 뿔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뿔 수 있겠느냐
- 3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  
한 말로 네게 이야기 하겠느냐
- 4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
- 5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악 놀  
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두  
겠느냐
- 6 어찌 어부의 떼가 그  
고들 가운데 나눌 수
- 7 네가 능히 차  
로 그 머리를
- 8 손을  
각니

-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  
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 19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뿔이 뛰어나며
- 20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솔이  
뿜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 21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  
에서 나오며
- 22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  
서 뛰는구나
- 23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  
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 24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뿔들 아래쪽 같구나
-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  
황하며
-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  
기 없구나
- 먹을 초개같이, 낫을 썩은 나무같

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  
같이 여기우는구나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

와투같으니 진흙  
는구나  
게 하며 바다

사람의 보  
려움

이것이 악어의 혀를 낚을 수 있겠느냐 / 이것이 악어의 코를 뿔 수 있겠느냐 / 이것이 악어의 아가미를 뿔 수 있겠느냐 / 이것이 악어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 /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악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두겠느냐 / 어찌 어부의 떼가 그 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는가 / 네가 능히 차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는가 / 네가 손을 각니 /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뿔이 뛰어나며 /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솔이 뿜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뿔들 아래쪽 같구나 /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황하며 /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기 없구나 / 먹을 초개같이, 낫을 썩은 나무같이 / 이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같이 여기우는구나 /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하리라 / 와투같으니 진흙은구나 / 게 하며 바다 / 사람의 보려움

에서는 그 두번째 예로서 악어를 사용하시어 전장과 동일한 요점을 강조하셨다.

- (2) 본장에서 말하는 악어는 바다에 있는 피물로서 인간이 잡을 수 없으며 또한 햇빛을 떨하기도 하고 (3:8; 26:13)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야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74:14) 보통 악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악어임에 분명하다.
- (3)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듯이 욕도 이 악어 앞에서는 꾀잡 못할 것이라면서 오직 당신께서만이 그것을 조정하시고 노리개같이 놀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욕에게 계속적으로 알리심으로 욕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다.
- (5)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위대하신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 욕에게 어떤 방법으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뭍을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뿔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뿔 수 있겠느냐' 고 질문하셨다.
- (2) 아마도 욕이 살던 시대에는 낚시나 끈 또는 갈고리로 물에 사는 물고기 종류를 잡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로는 악어를 잡지 못했다.
- (3) 즉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악어만은 손도 댈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마는 결국 하찮게 보이는 동물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하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 (4)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3. **㉠**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 라는 말의 이면(裏面)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인가? (4절)

- ㉠** (1) 이 말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악어의 강한 힘을 꺾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창 3:6)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조 세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모든 피조 세계와 불화하게 되고 말았다(참조, 창 3:18).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지배하는 모든 피조물들과도 불화한다.

4.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어와 싸워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악어의 꾀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비록 한 번 겨루어 싸운다 하더라도 두 번 다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3) 하나님께서 욕에게 왜 이렇게 악어와 싸우려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욕은 '무것도 아닌 악어마저도 나를 죽일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 (4) 사실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반항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4)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목숨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탑을 더 높이 쌓아 가고 있다.

11. **Q**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욥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욥이 모두 할 수 있다면 욥은 하나님과 감히 다투려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욥은 자신의 자주성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자신과 논쟁할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다.

(2) 사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을 영위하는 존재가 되려는 시도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참조, 창 3:5; 막 15:31).

(3)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 양 또한 자기 구원의 완성자인 양 행세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4) 이러한 큰 범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기 부정이 결행(決行)되어야 할 것이다.

12.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욥을 지은 것같이 무엇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가? (15절)

**A**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욥을 지은 것같이 소처럼 풀을 먹는 하마를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하마(히, 베헤모트)란 단순히 큰 짐승(맘모스,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그러므로 본장에서 말하는 하마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짐승은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4) 즉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인간에게 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짐승도 당신이 친히 지으셨다는 것이다(참조, 31:15; 33:6).

(5) 이와 같이 욥이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에게는 뜻이 계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6)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였다(고후 7:10).

(7)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13. **Q**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16-19절)

**A** (1)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모습에 대해서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릿대는 철장 같으니'라고 묘사하셨다.

(2)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세고 몸집이 커다란 짐승이긴 하지만 하마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채식 동물이다(15절).

(3) 만약 이러한 힘의 소유자가 육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인간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4) 즉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딤후 4:4)라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14. **Q**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이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우월성을 나타낸 말이다.
- (2) 즉 하마는 그 자신의 영역과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 (3) 그런데 인간이 그 하마를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쓸모없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천양지차(天壤之差)로서 본성적인 인간과 하나님과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성적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15. ㉠ 하나님께서 하마에게 주셨다고 하신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 하마에게 주셨다고 하신 ‘칼’은 그가 지닌 치아(齒牙)를 의미한다.
- (2) 하마는 마치 칼이나 낫으로 베듯이 그 앞니를 사용하여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 즉 아무리 인간의 눈 밖에 있는 야생 동물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역사와 그 삶의 현장을 연구하려 할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창1:25).

16. ㉠ 하나님께서는 하마를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만드셨는가? (21-23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마를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만드셨다.
- (2) 이것은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그는 주로 엎드려 있으며(21절) 어떤 일이 발생해도 좀처럼 놀라지 않고(23절), 자약(自若)한 모습을 흐트리지 않는다.
- (3)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쩌면 나태한 인간과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의 느긋한 성격이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느긋한 성격과 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조급한 모습을 꼬집으시려고 하신 것이다(참조, 딤후 3:3, 4).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찮은 동물을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전달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을 해치려는 뜻에서 창조하지는 않았다(참조, 창 1:27-31).

17. ㉠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24절)

- Ⓐ (1) 하나님은 인간이 하마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로써 당신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셨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자연계 안에서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모든 현존 세계에서 인간을 초월해 계신다.
- (3)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연약해지고 또한 낮아질 수 있을 믿음의 능력도 소유하고 계신다(참조, 빌 2:5-8).

본장의 요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다’ (4절).

# 제 41 장 악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단락구분 1-11 하나님께서 욥의 한계성을 지적하시다 / 12-17 악어의 지체와 힘과 구조를 설명하시다 / 18-21 악어의 행동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 22-24 악어의 단단한 체질과 마음을 묘사하다 / 25-34 인간은 도저히 악어와 겨루어 이길 수 없다.

1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뿔 수 있겠느냐  
2 줄로 그 코를 뿔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뿔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  
한 말로 내게 이야기 하겠느냐  
4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  
5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  
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때어 두  
겠느냐  
6 어찌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  
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7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  
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8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 보라 싸울 일이 생  
각아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9 잡으려는 소망은 헛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10 아무도 그것들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  
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은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2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  
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  
이로 들어가겠는고  
14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  
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두루 있는  
15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16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  
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17 서로 연합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  
구나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  
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19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뿔이 튀어나며  
20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숲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21 그 숨이 능히 솟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  
에서 나오며  
22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  
서 뛰는구나  
23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 몸에 견  
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24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땃돌 아래쪽 같구나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  
겁하여 창황하며  
26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  
살도 소용이 없구나  
27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  
이 여기니  
28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  
매들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29 뿔등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  
게 여기며  
30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목같이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31 깊은 물로 습의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  
로 젖은 향기를 갈게 하고  
32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  
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33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34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  
의 왕이 되느니라

1. ㉠ 본장은 어떤 동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 (1) 전장(前章)에서 하나님은 하마를 예로 들어 당신의 능력을 욥에게 소개하셨는데 본장

에서는 그 두번째 예로서 악어를 사용하시어 전장과 동일한 요점을 강조하셨다.

- (2) 본장에서 말하는 악어는 바다에 있는 괴물로서 인간이 잡을 수 없으며 또한 햇빛을 떨 하기도 하고(3:8;26:13)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야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시 74:14) 보통 악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악어임에 분명하다.
- (3)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듯이 욕도 이 악어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면서 오직 당신께서만이 그것을 조정하시고 노리개같이 놀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욕에게 계속적으로 알리심으로 욕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다.
- (5)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위대하신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 욕에게 어떤 방법으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떨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고 질문하셨다.
- (2) 아마도 욕이 살던 시대에는 낚시나 끈 또는 갈고리로 물에 사는 물고기 종류를 잡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로는 악어를 잡지 못했다.
- (3) 즉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악어만은 손도 떨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마는 결국 하찮게 보이는 동물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하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 (4)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3. **㉠**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내 종이 되겠느냐' 라는 말의 이면(裏面)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인가? (4절)

- ㉠** (1) 이 말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악어의 강한 힘을 꺾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창 3:6)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조 세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모든 피조 세계와 불화하게 되고 말았다(참조, 창 3:18).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도 불화한다.

4.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가? (7-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어와 싸워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셨다(8,9절).
- (2)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악어의 겉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싸울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비록 한 번 겨루어 싸운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도전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 (3) 하나님께서 욕에게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악어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욕이 악어를 만드사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논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이다(10절).
- (4) 사실 피조 세계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변경시키거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라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불합리한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신뢰해야만 한다.

5. ㉠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이 말은 ‘누가 내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뜻대로 날 묶어 놓고 그가 지시한 대로 지내게 하겠느냐’는 뜻이다.
-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무의 빚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3)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하신다거나 자신의 어떠한 행위의 이유를 스스로 밝혀 주신다면 이는 순전히 당신의 자비와 친절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 (4) 왜냐하면 ‘은 천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 우주의 생성자이시며 주인이시므로 결코 누구에게 얽매어서 당신의 활동을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참조, 롬 11:36).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 우주 앞에 당신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실 뿐이지 피조 세계에 낱알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시 50:9-12; 롬 1:19, 20).

6. ㉠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12-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어의 지체(肢體)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12절).
- (2) 즉 악어는 아주 길긴 가죽과 튼튼한 근육을 지닌 아가미(13절)와 어떤 음식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다(14절). 더우기 그의 이빨(약60개)은 두려울 정도로 날카롭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비늘을 소유하고 있다(16절). 이것은 인간으로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악어의 강인한 몸 구조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참조, 7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어의 강인한 몸 구조를 설명하신 까닭은 욥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 (4)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이 한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한계를 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7.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어의 위세는 사실적(寫實的)인가? (18-21절)

- ㉠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어의 위세는 사실적(寫實的)이라기 보다는 인간에게 좀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표현일 뿐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공포에 휩싸일 만한 자연 현상들을 예로 들어 그것이 곧 악어가 지닌 무기 또는 능력으로 묘사하고 계시다. 사실 악어는 맹렬한 야수로서 인간에게 공포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동물이다.
- (3) 여기서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라는 표현은 어둠을 뚫고 비치는 새벽 햇살같이 악어의 눈이 날카롭다는 의미이다.
- (4) 하나님께서 악어의 모습을 이렇게 긴장되게 묘사하신 것 역시 욥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 (5) 사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인간의 육체란 안개, 풀, 나그네 등 아주 연약하고 순간적인 존재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시 37:2; 90:5; 103:15; 사 40:6; 히 11:13; 약 1:10; 4:14).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육체를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참조, 사 2:22).

8. ㉠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2-32절)

- ㉠ (1) 이 말은 악어라는 존재가 사람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에게 주는 두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 (2) 그러므로 이 말은 악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반드시 그곳에 공포를 조성하며 사람들

과 다른 피조물들은 두려워 떨며 달아나며 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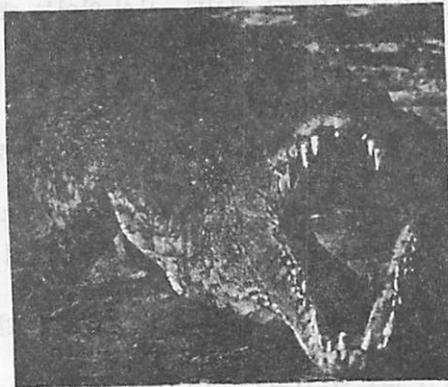
- (3) 이처럼 악어가 가는 곳곳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간과 및 다른 피조물들에게 위압을 주는 이유는 그의 지나칠 정도로 튼튼하고 강력한 육체 때문이다(23-32절).
- (4) 그런데 이러한 육체를 조성하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 (5)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단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육체적 힘이나 자연의 놀라운 현상만을 바라볼 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참조, 롬 1:18-23).
- (6) 이런 관점에서 성도란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자신의 시야를 고정시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자신의 눈을 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히 11:1-3).

9. **Q**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결국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는가? (33, 34절)

- A** (1)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한 육체를 지닌 동물로 만드셨으며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 (2) 그리고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는 교만한 것의 왕이 되게 하셨다.
- (3) 그러므로 악어는 자신의 시야권에서 발견되는 모든 다른 동물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다른 동물들도 교만한 것일 수 있지만 악어는 그 가장 교만한 것보다도 더 교만하다.
- (4) 그런데 이런 교만함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모르게 만든다.
- (5) 사실 교만은 어떤 형태로 변형한다 하더라도 결국 패망을 초래하는 악의 씨앗이다(참조, 잠 16:18).

**화보자료**

악어. 아래의 사진은 본장에서 강한 피조물의 대표로 등장한 악어의 모습이다.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웨야탄>은 (1, 12절) 사 27:1에는 선에 대항하여 싸우는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

## 제 42 장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단락구분 1-6 욥의 회개 / 7-9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번제를 드리다 / 10-17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리시다

-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 2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 8 그러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우매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 10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밋 전에 აღ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 12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겻시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 15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 16 그 후에 욥이 일백 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 17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라.

- ㉠ (1) 본서에 나타난 논쟁들은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과 욥의 영혼이 혼란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난과 영혼의 혼란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한편 하나님과 공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그릇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 (2) 그는 친구들과 반대의 입장을 취했으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신(神)의 섭리를 잘못 인식하였던 것이다.
- (3)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달은 욥이 처음에는 침묵하려고 결심하였으나(40:3-5) 이제는 그의 내적 태도와 그의 고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앙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른다.
- (4) 사실 욥이 고난받은 것은 어느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즉 사단의 도전은 선행을 위한 욥의 동기, 바로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 동기의 순수성과 절대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 (5) 본장에서 욕은 그 자신의 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지극한 겸손을 통한 최대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
- (6)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인간의 구원과 승리의 길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역설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 6:24-34; 10:37-39; 16:24-26).

2. **㉠ 욕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하기에 앞서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였는가? (1, 2절)**
- ㉠** (1) 욕은 하나님을 '무소 불능(無所不能) 하시으며 무슨 경영(經營) 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찬양하였다.
- (2) 이처럼 욕은 38-41장을 통하여 자기에게 그토록 장엄하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
- (3) 그리고 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행하신 세세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격해 했다.
- (4)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의 생각과 앞날까지도 또한 그가 숨겨 놓은 어떠한 일이라도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참조, 시 139:2; 히 4:13).
- (5) 욕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3. **㉠ 욕이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 (1) 욕이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은 '무지한 말로 이치(理致)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다.
- (2) 이처럼 욕은 자신이 이때까지 전개해 왔던 논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이나 저주를 내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무지한 말로 진리를 흐트려 놓았던 것이다.
- (3) 사실 지식 없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성도들이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 (4) 하나님은 우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며 또 인생을 사랑하신다. 비록 하나님의 설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불가해(不可解)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經綸)을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이다.
4. **㉠ 욕은 자신의 무지(無知)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절)**
- ㉠** (1) 욕은 자신의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호소하였다.
- (2) 그는 38:3과 40:7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호소를 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를 겸손하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 (3) 하나님의 말씀은 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식에 대해 그가 얼마나 무지하며 그것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무능한가를 느끼게 하였다.
- (4) 여기서 '주여 들으시고' 라든지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말은 욕으로 하여금 전통적 사고 방식과 무지함에서 돌이키며 새로운 진리를 발견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 (5) 그러므로 참진리에 무지한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올바른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

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부딪치게 하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5. **㉠** 욥은 자신의 발전된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절)

- ㉠** (1) 욥은 자신의 발전된 신앙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 말은 욥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 들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체험적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었다는 말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지금 그가 영적인 눈, 즉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과 진정한 위대함을 지니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 (4) 다시 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겨루고 논쟁하며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사 6:1-5).

6. **㉠** 욥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인식하고 난 후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6절)

- ㉠** (1) 욥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인식하고 난 후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서 '스스로 한한다'는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저주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회개자의 바른 자세이다(참조, 눅 5:8; 18:10-14).
- (3)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만든 상태에서 회개한다는 의미이다(참조, 스 4:1; 렘 6:26; 절 27:30; 마 11:21).
- (4) 이와 같은 욥의 외침은 인간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참조, 사 6:5).
- (5) 왜냐하면 피조물의 유한성은 조물주의 무한성의 돌발적인 공격에 분쇄되고 말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존재를 포괄하고 계시는 분 앞에 드러난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7. **㉠**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당신의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2)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였던 인과 응보(因果應報)의 원리를 초월해 계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특수한 고난이 모든 범죄에 대한 즉각적, 보편적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철저히 인과 응보적인 하나님의 심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약 1:2-7; 5:10, 11; 뱀전 3:14, 17; 4:12-19).
- (4) 한편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만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에 맞는 정확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진리를 이용하여 친구인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들의 의(義)를 세우기에만 급급했다.
- (5) 이처럼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의 편협된 신앙관과 인생관 등을 가지고 형제를 몰아세우는 일일 것이다.
- (6)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인간이 지닌 견해는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진리일 뿐이다(참조, 요 17:17).

8. **㉠**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잘못 적용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용서의 한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잘못 적용시켰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용서의 한 방법으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燔祭)를 드리라'고 지시하셨다.
- (2) 여기서 번제의 제물은 모세의 율법에서처럼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지정된 대개물이었다(참조, 레 23:18; 민 23:1, 14, 29; 28:11, 19, 27; 대상 15:26; 대하 29:21; 겔 45:23).
- (3) 우리는 욥의 시대에서조차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속죄의 제물이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히 9:22).
- (4) 이러한 제사는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참조, 히 9:11-14; 10:1-5).
- (5)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와의 시비가 붙었을 때에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훌륭한 사과의 말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해서 서로의 아픈 상처를 싸매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구를 통하여 드리라고 명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당신의 종 욥을 통하여 드리도록 명하셨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나 가혹한 처사를 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보 기도(中保祈禱)를 기쁘게 받으실 준비를 갖추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4) 물론 욥의 이러한 중보적 사역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히 7:20-25).
- (5)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중보적 사역을 인정하시고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의 죄과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려는 것은 욥의 세 친구의 의로움과 수고를 생각해서라기 보다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참조, 요일 4:10).

10. **㉠**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다.
- (2) 이렇게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 욥이 사단에게 도전받을 때부터 당신께서는 욥을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1:8).
- (3) 그리고 '내 종'이라는 단어는 후일에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사 50:10; 53:11).
- (4)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계급 사회에서 정의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기꺼이 맡기실 당신의 동역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

11. **㉠**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9절)

- ㉠** (1)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 즉 그들은 이제까지의 회의와 방황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다.

- (2) 두번째로 그들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놀리던 욥에게 정중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 (3) 마지막으로 그들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자신들과 어긋난 것이었다해도 그 판결에 묵묵히 따랐던 것이다.
- (4) 사실 그들의 이 모든 행위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취하는 적절한 태도임에 분명하다.

12. **㉠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10절)**

- ㉠** (1)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끈경을 들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하셨다.
- (2) 즉 욥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표시로 영육간(靈肉間)에 축복해 주셨던 것이다(참조, 마 6:12-15; 18:32-35).
- (3) 이처럼 욥의 생애의 전환점은 그를 경멸하고 핍박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이다(참조, 마 5:44).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간과(看過)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뿐만 아니라 그 기도자의 필요까지도 채워 주신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기도 생활을 청산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中保祈禱)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 **㉠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자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11절)**

- ㉠** (1) 욥의 회복을 보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그들이 각각 가져온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는 관습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방문할 때, 특히 재난을 당한 자가 그 재난을 극복한 후에 얻게 되는 것들이었다(참조, 대하 32:23).
- (3) 그러나 이들은 욥이 지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냉대했던 자들이었다(참조, 19:1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욥이 옛날의 영광과 부를 회복하게 되자 뻔뻔스럽게도 다시 욥을 찾아와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 (5) 사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간 본연의 자세임에 분명하다.
- (6) 그러나 인간의 이렇게 쉬운 배신과 뻔뻔스러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버려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수 1:5; 마 28:20).
- (7)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 27:10).

14. **㉠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12, 13절)**

- ㉠** (1)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얻었다(12절).
- (2) 이것은 그가 처음 소유한 것보다 꼭 두 배나 많은 분량의 재산이다(1:2, 3). 이것은 물론 욥의 선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것이다.
- (3)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다. 이 자녀들의 수자는 먼저

죽은 자녀와 동일한 수자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2, 19).

- (4) 욥은 이전의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먼저 하나님께 갚을 뿐이기 때문이다.
- (5)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자는 종국에 가서는 잃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참조, 막 10:29-31).

15. **㉠** 욥이 새로 얻은 세 딸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14, 15절)

- ㉠** (1) 욥이 새로 얻은 세 딸의 이름은 그 첫째가 ‘여미마’였고, 둘째는 ‘긱시아’, 그리고 막내는 ‘게렌합복’이었다.
- (2) 여기서 욥의 첫째 딸 이름인 ‘여미마’는 ‘비둘기’를 의미하고 둘째 딸 ‘긱시아’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흔히 ‘향나무’ 또는 ‘계피(빛)’를 뜻한다. 그리고 막내 ‘게렌합복’은 ‘아름다운 빨’ 또는 ‘초록색 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3) 이와 같이 욥의 딸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밝혀질 정도로 당시 그들의 아름다움과 행실이 두드러졌던 것 같다.
- (4) 이처럼 욥은 그의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자신의 현재의 삶이 고난 이전의 삶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5) 즉 욥의 딸들의 이름과 아름다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화려함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참조, 잠 11:22; 31:30).

16. **㉠** 욥은 자기가 새로 얻은 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15절)

- ㉠** (1) 욥은 자기가 새로 얻은 딸들에게도 남아(男兒)들처럼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 (2) 이처럼 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똑같은 양의 유산을 물려 준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 (3) 모세 율법에서는 기업을 이을 자 중에 남자가 없을 때에만 여자에게 재산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조, 민 27:28).
- (4) 이와 같이 욥이 당시의 관례를 깨고서 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규정한 규칙과 관습을 초월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7. **㉠** 욥은 그가 환난을 겪은 후 몇 년간을 더 살았는가? (16, 17절)

- ㉠** (1) 욥은 그가 환난을 겪은 후 140년간을 더 살았으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기한(期限)이 차서 죽었다.
- (2) 욥은 지극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나서 생명의 고귀함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 (3)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생명의 연한 또한 하나님밖에는 아시는 분이 없다.
- (4)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에야만이 생명다움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참조, 고후 5:17).
- (5) 그러므로 욥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서 장수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 (6)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장수와 자연스러운 죽음은 신약 시대에서 더 확대되었다(참조, 고후 4:16-5:9).
- (7) 즉 죽음은 죽음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상과 이 땅의 기나긴 생명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상이다.

## 연구자료

### 성경과 부(富)

#### (1) 구약에서의 부(富)

구약에서 나타난 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아브라함(창13:2;14:23)과 솔로몬(왕상 3:13) 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로 많은 부를 누렸다. 또한 신 28:1-14에서는 언약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당시에는 영적 축복이 물질적인 풍요로 표현되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받기 이전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창 12:2, 비교, 갈 3:16). 또한 솔로몬이 의로운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족히 여기신 나머지 물질적인 부를 부수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왕상 3:11-13). 그리고 신 28:1-14의 축복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적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지 부 그 자체의 축복은 아닌 것이다.

#### (2) 그리스도와 부(富)

그리스도께서는 부를 얻는 방법보다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께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러 왔던 부자 청년도 재물을 나누어주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리스도를 떠나 갔다(마 19:21-24).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참조, 41:11; 시 24:1) 물질적 축복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선한 사업을 할 것을 강조하셨다(눅 12:33, 34).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물질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것과(막 12:41-44) 속임수와 불의를 통하여 부를 누리기 보다는 깨끗한 양심으로 가난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참조, 마 5:3; 눅 12:15).

#### (3) 결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주이시며 인간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신 8:18). 따라서 인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노력하여 얻은 재물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단지 재물만을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재물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숭배하는 자세가 재물에 관한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참조, 마 6:24).

##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 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회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에스라-욥기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